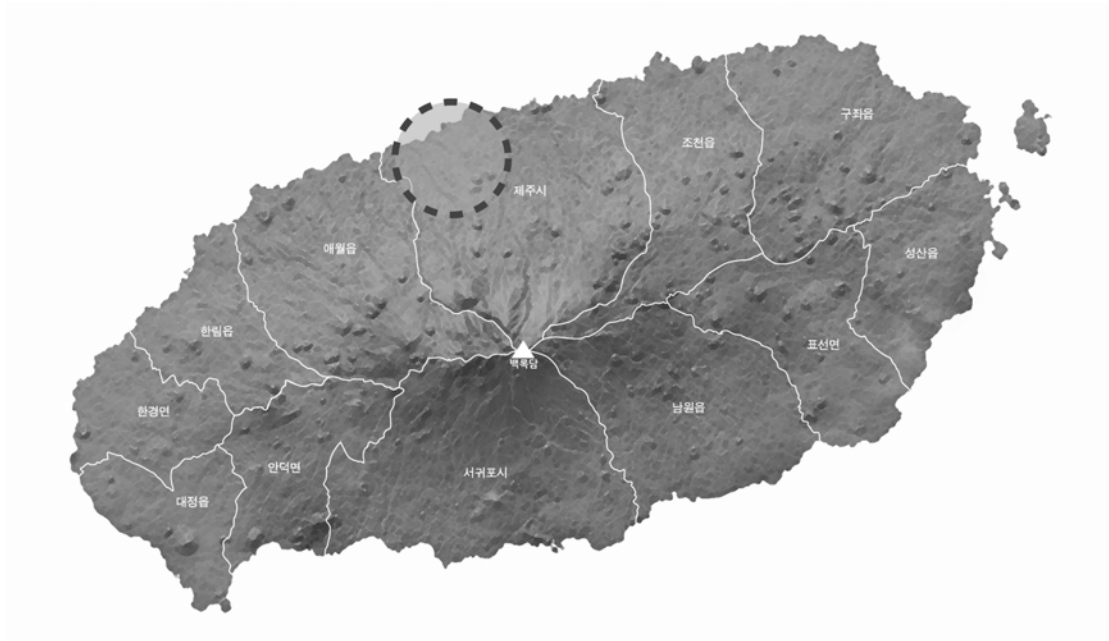


발간 등록 번호  
79-6500000-000354-01

# 2016년도 제주어구술채록보고서 25

책임연구원: 강영봉  
연구원: 안민희  
조사지점: 제주시노형동





## 제 출 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016년도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과 관련하여 귀 도와 체결한 용역 계약에 의한 2차분 보고서를 아래 목록과 같이 제출합니다.

3차년도(2016)	
조사 지점	조사자
25. 제주시 노형동	안민희
26. 조천읍 신촌리	안민희
27. 우도면	김승연
28. 성산읍 온평리	김순자
29. 표선면 세화리	최연미
30. 남원읍 태흥리	김미진
31. 서귀포시 토평리	김보향
32. 안덕면 덕수리	김순자
33. 대정읍 인성리	김미진
34. 한경면 신창리	김보향
35. 한림읍 옹포리	신우봉
36. 애월읍 구엄리	김성용
37. 제주어 구술 채록 질문지	강영봉 · 김순자

2016년 12월 30일

책임 연구원 강영봉



2016년도  
제주어 구술 채록 보고서 25

목 차

제1장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	7
1.2. 사업 기간 .....	7
1.3. 조사 참여자 .....	7
1.4. 조사 지점과 조사자 .....	9
1.5. 기대 효과 .....	10

제2장 제주시 노형동 조사 내용 15

2.1. 제보자 .....	11
2.2. 조사 기간 .....	11
2.3. 조사 항목과 내용 .....	11
2.4. 전사 .....	13
2.5. 장비 .....	14

제3장 전사 자료

제1절 구술

1. 조사 마을 .....	2. 제보자 일생 .....
3. 밭일 .....	4. 들일 .....
5. 바다일 .....	6. 의생활 .....
7. 식생활 .....	8. 주생활 .....
10. 세시풍속 .....	11. 놀이 .....
12. 통화의례 .....	13. 민간요법 .....
14. 경험담, 속담, 금기어 듣기 .....	

제2절 어휘

1. 인체 .....	2. 육아 .....
3. 친족 .....	4. 의복 .....
5. 음식 .....	6. 가옥 .....
7. 생업 .....	8. 수와 단위 .....
9. 민속 .....	10. 신앙 .....
11. 자연 .....	12. 동물 .....
13. 식물 .....	



# 제1장 사업 개요

## 1.1. 사업 목적

이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은 진중한 제주의 언어 자산을 수집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다.

‘제주어’는 제주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당연 제주어에는 제주정신과 제주문화가 녹아들어 있다. 제주어가 소멸한다는 것은 결국 ‘제주 정체성의 상실’, ‘제주문화의 변이’를 의미한다. 제주어를 소멸 위기의 언어로 분류한 유네스코의 권고가 아니더라도 우리들 스스로 제주어 보전에 진력해야 할 계제에 놓여 있다.

제주어가 처한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이제 제주도도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좋은 제보자 수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제주어의 소실도 가속화되고 있어 제주어 채록 사업이야말로 화급을 요하는 일임에 틀림없다.

이 사업을 통하여 제주어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게 될 것이다. 수집, 구축된 자료는 제주어 정책 수립과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될 것이며, 나아가 제주어 보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제주어가 삶의 언어로서 그 소중한 가치를 확인하고, 자긍심을 갖는 계기도 될 것이다.

## 1.2. 사업 기간

-3개년(2014~2016)

## 1.3. 조사 참여자

<1차년도-2014>

-책임 연구원: 강영봉(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연구원:

김미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선희(제주대학교 강사)

김성용(귀일중학교 교사)

김순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승연(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신우봉(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 선임연구원)

안민희(민요패 ‘소리왓’ 대표)  
오창명(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이완국(전 초등학교 교사)  
최연미(돌을양지책드르 대표)  
허영선(제주대학교 강사)

-보조 연구원:

한혜원(제주대학교 대학원)  
오은주(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 <2차년도-2015>

-책임 연구원: 강영봉(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연구원:

김미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선희(제주대학교 강사)  
김성용(귀일중학교 교사)  
김순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승연(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신우봉(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 선임연구원)  
안민희(민요패 ‘소리왓’ 대표)  
오창명(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최연미(돌을양지책드르 대표)

-보조 연구원: 오은주(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 <3차년도-2016>

-책임 연구원: 강영봉(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연구원:

김미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성용(귀일중학교 교감)  
김순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승연(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신우봉(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 선임연구원)  
안민희(민요패 ‘소리왓’ 대표)  
최연미(돌을양지책드르 대표)



-보조 연구원: 오은주(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 1.4. 조사 지점과 조사자

1차년도(2014)		2차년도(2015)	
조사 지점	조사자	조사 지점	조사자
1. 제주시 도련1동	김순자	13. 제주시 외도동	김순자
2. 조천읍 선흘리	김미진	14. 조천읍 함덕리	김미진
3. 구좌읍 송당리	김선희	15. 구좌읍 한동리	김보향
4. 성산읍 고성리	김승연	16. 성산읍 삼달1리	김미진 · 김선희
5. 표선면 표선리	허영선 · 김순자	17. 표선읍 성읍1리	김순자
6. 남원읍 남원리	김보향	18. 남원읍 수망리	최연미
7. 서귀포시 보목리	최연미	19. 서귀포시 하원리	김승연
8. 안덕면 동광리	김성용	20. 안덕면 대평리	김성용
9. 대정읍 구역리	이완국	21. 대정읍 신도리	신우봉
10. 한경면 고산리	신우봉	22. 한경면 청수리	안민희
11. 한림읍 월령리	안민희	23. 한림읍 대림리	오창명
12. 애월읍 봉성리	오창명	24. 애월읍 고내리	김보향

3차년도(2016)	
조사 지점	조사자
25. 제주시 노형동	안민희
26. 조천읍 신촌리	안민희
27. 우도면	김승연
28. 성산읍 온평리	김순자
29. 표선면 세화리	최연미
30. 남원읍 태흥리	김미진
31. 서귀포시 토평리	김보향
32. 안덕면 덕수리	김순자
33. 대정읍 인성리	김미진
34. 한경면 신창리	김보향
35. 한림읍 옹포리	신우봉
36. 애월읍 구엄리	김성용
37. 제주어 구술 채록 질문지	강영봉 · 김순자

## 1.5. 기대 효과

이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은 도민들에게 기록 사업의 중요성을 일깨워 제주어뿐만 아니라 제주문화와 관련한 각종 자료의 보전 및 전승의 필요성을 고양시키며 소멸 위기의 제주문화를 보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나아가 제보자들에게는 제주어의 소중함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어 자긍심을 높이고 제주도민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제주어 정책 수립과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 제2장 제주시 노형동 조사 내용

### 2.1. 제보자

문춘자(여, 1932년생)

현춘화(여, 1932년생)

2.2. 조사 기간: 2016. 3. 21.~12. 31.

### 2.3. 조사 항목과 내용

제1절 ‘구술’은 제보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구연(口演)할 수 있는 분야로, ‘조사 마을, 제보자 일생, 밭일, 들일, 바다일,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신앙, 세시풍속, 놀이, 통과 의례, 민간요법, 경험담’ 등으로 구성하였다. 각 부분별 세부 조사 항목을 두어 제2부 ‘어휘’ 조사 내용을 보충 또는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질문지에 없는 경우라도 조사 마을별 특색 있는 문화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조사하였다.

제2절 ‘어휘’는 ‘인체, 육아, 친족, 의복, 음식, 가옥, 생업, 수와 단위, 민속, 신앙, 자연, 동물, 식물’ 등 13개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각 부분별 하위 조사 항목을 배열하고, 필요한 경우는 부분 명칭을 조사할 수 있게 하였다. 조사하기가 어려운 ‘동사, 형용사, 부사’ 등의 항목은 조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배치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과 조사 시간 등은 다음 <표 1>과 <표 2>와 같다.

<표 1> 구술 채록 내용과 전사 여부

조사 내용	파일명	제보자	시간	전사
1. 조사 마을	구술 1. 조사 마을	문춘자 현춘화	01:15:06	○
2. 제보자 일생	구술 2. 제보자 일생	문춘자 현춘화	01:25:33	○
	구술 2. 제보자 일생	문춘자 현춘화	00:38:50	×
3. 밭일	구술 3-1. 보리 농사	문춘자 현춘화	00:45:27	○
	구술 3-2. 조 농사	문춘자 현춘화	00:32:44	○
	구술 3-2. 콩 농사	문춘자 현춘화	00:15:29	○
	구술 3-3. 밭벼 농사	문춘자 현춘화	00:34:58	○
	구술 3-4. 고구마 농사	문춘자	00:28:27	○

		현춘화		
	구술3-5고추, 무, 메밀, 기타 농사	문춘자 현춘화	00:25:07	○
4. 들일	구술 4. 들일1(소)	문춘자 현춘화	00:56:05	○
	구술 4. 들일2(말)	문춘자 현춘화	00:23:06	○
	구술 4. 들일3(떡이, 빨감)	문춘자 현춘화	00:37:22	○
	구술 4 들일4,	문춘자 현순화	00:15:01	○
	구술 4 들일5,(사냥)	문춘자 현춘화	00:16:20	○
	구술 4 들일6(제보자이야기)	문춘자 현춘화	01:10:55	×
5. 바다일	구술 5. 바다일	문춘자 현춘화	00:03:02	○
6. 의생활	구술 6. 의생활(옷)	문춘자 현춘화	00:46:20	○
	구술 6. 의생활 (신발, 모자, 구덕)	문춘자 현춘화	00:49:20	○
7. 식생활	구술 7. 식생활1(밥~김치)	문춘자 현춘화	02:08:03	○
8. 주생활	구술 8. 주생활1	문춘자 현춘화	01:14:22	○
9. 신앙	구술 9. 신앙	문춘자 현춘화	00:46:36	×
9. 신앙	구술 9. 신앙	문춘자 현순화	00:23:02	×
10. 세시풍속	구술 10. 세시풍속	문춘자 현춘화	00:46:17	○
10. 세시풍속	구술 10. 세시풍속	문춘자 현춘화	00:58:59	○
11. 놀이	구술 11. 놀이1	문춘자 현춘화	00:37:11	○
12. 통과례	구술 12. 통과례	문춘자 현춘화	01:39:39	○
13. 민간요법	구술 13. 민간요법	문춘자 현춘화	00:43:06	○
14. 경험담	구술 14. 경험담	문춘자 현춘화	00:15:22	○
14. 경험담	구술 14. 경험담	문춘자 현춘화	00:33:14	×

<표 2> 어휘 채록 내용

조사 내용	파일명	제보자	시간	정리
1. 인체	어휘 1. 인체	문춘자 현춘화	01:26:08	○
2. 육아	어휘 2. 육아	문춘자 현순화	01:15:05	○
3. 친족	어휘 3. 친족	문춘자 현순화	00:25:02	○
4. 의복	어휘 4. 의복	문춘자 현순화	00:58:01	○
5. 음식	어휘 5. 음식	문춘자 현순화	01:35:05	○
6. 가옥	어휘 6. 가옥	문춘자 현순화	01:25:28	○
7. 생업	어휘 7. 생업	문춘자 현순화	02:04:26	○
8. 수와 단위	어휘 8. 수와 단위	문춘자 현순화	00:20:18	○
9. 민속	어휘 9. 민속	문춘자 현춘화	00:31:05	○
10. 신앙	어휘 10. 신앙	문춘자 현춘화	00:05:29	○
11. 자연	어휘 11. 자연	현춘화	01:00:27	○
12. 동물	어휘 12. 동물	현춘화	01:02:20	○
13. 식물	어휘 13. 식물	현춘화	00:38:30	○

## 2.4. 전사

전사는 <제주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제1절 ‘구술’은 조사된 음성 자료를 질문지 순서에 따라 앞에서부터 10시간 가량 전사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도 모두 전사하였다. 조사자는 @표로, 제보자는 #를 넣어 구분하였다. 제보자가 둘 이상일 때는 #1, #2식으로 구분하여 전사하였으며, 제보자끼리 말이 겹칠 때도 가급적 제보자를 구분하여 전사하였다. 혹 청취가 불가능하여 전사가 어려운 경우는 음절수 만큼 \*\*\*\*로 표시하기도 하였다. 극히 개인사와 관련된 내용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전사를 생략한 부분과 조사 중 전화 통화 내용 등은 전사하지 않고 <중략>으로 표시하였다.

제2절 ‘어휘’는 질문지에 따라 조사된 어휘를 전사하였다. 방언형이 여럿이 나올 경우도 그 전부를 전사하였으며, 제보자가 모르는 경우 또는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는 \*로 표시하여 구분하였다.

## 2.5. 장비

‘제주어 구술 채록’에 이용한 장비는 아래와 같다.

-녹음기: SONY ICD-SX 1000

-캠코더: SONY HDR-PJ 540

## 제3장 전사 자료

### 제1절 구술

(@: 안민희, #1: 문춘자, #2: 현춘화)

#### 1. 조사 마을

101001 @ 이 마을의 형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이 마을 중에 정존이퀘예. 마을 어떻게 노형이 된지 들어본적 잇수과?

101001 #1 그런 거는 아맹해도 남자분이,

101002 @ 마을에는 주로 무슨 성씨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01002 #1 현씨가 많은가? 양씨가 많은가? 모르겠어. 현씨 양씨, 문씨는 정존이 많아이.

101002 #2 문씨는 정존이 많고, 현씨는 월량이 많고,

101003 @ 이 마을 사람들은 주로 무슨 일들을 하며 살아왔습니까? 옛날에

101003 #1 농사지.

101004 @ 이 마을 주변에 오름, 내창, 돌, 굴 등이 있습니까?

101004 #2 내창은 저 물 믰린내가 있고, 한라병원 옆의 냇창.

101004 @ 한라병원 옆의 냇창 이름이 물 믰린내, 물 믰린내가 뭇파?

101004 #1 물 믰린내가이 물 머리난,

101004 @ 아, 물 머리!

101004 #2 예. 물 머릿내라고만 자꾸 해나부난 그 내용은 지피,

101004 @ 동굴이나 이런 거 바위? 내창이 물 머릿내 하나?

101004 #1 동굴은 업서. 서쪽가면은이 원장내.

101004 #2 원장내라고 서쪽더레 가민 월산 내창이 또 이서.

101004 #1 또 그 다음 도감내 하나.

101004 @ 도감내?

101004 #2 월산 서쪽 다리가 도감내.

101004 @ 어디 서쪽마씨?

101004 #1 월산서쪽 해안 못 강 해안광 사이야. 월산허고 해안 사이.

101005 @ 그믐 마을에는 무슨 기관이 이신고예?

101005 #1 기관은 뭐 동사무실 기관.

101005 #2 주민센터.

101006 @ 이 마을에는 어떤 계(=접)들이 있습니까? 그릇제?

101006 #2 그릇제덜은 많이 헛주. 옛날 한국부인회때에

101006 #1 지금은 없어부럿어.

101006 @ 언제까지 이서신고예? 그런게 이름을 지웁니까 그릇제도? 그냥 그릇제?  
101006 #1 그냥 부인회, 그냥 부인회 그릇제도그릇제 했어  
101006 #2 옛날 한국부인회때에 그 그릇제 헐 써나고,  
101006 @ 그리고 그런 제는 또 다른 건 어섯수과? 그릇제 말고 상여 무싱거 남  
자어른덜이 알건가?  
101006 #2 천막제도 있고,  
101006 @ 천막제?  
101006 #1 건 남자가 알앙 허는 거.  
101006 @ 뭐 빌려주는 거지에 무슨 큰일?  
101006 #2 천막 만들앙 빌려주곡,  
101006 #1 빌려주곡 반앙으네 보관허곡,  
101007 @ 이 마을에는 어떤 풍습이 있습니까? 노형에는 특별한?  
101007 #1 옛날에이 노형부락 풍습에 5개부락인디 5개부락말고 정존만 허는 그  
옛날에 사름을 혼번 돌아가시면 사름 한번 돌아가시면 3년을 제사를 헤여. 초  
상허곡 소상허곡, 대상해여. 경헐 때 풍습이 그 집집마다이 혼집 세불턱 헐 집  
도 이서이. 시어머니, 시할머니, 손주 경 서이 살아. 삼대가 살면은 반을이 떡반을  
시루떡 혼빚 이렇게 딱 행 놓고 그 다음에 다숫까지 절편이 잇어. 솔벤, 절  
벤, 인절미, 지름떡 그것까지 다 놓고, 또,  
101007 #2 그 떡은 우리 노형배끼 안해.  
101007 #1 또 절편이 이서. 절편은 반쪽은 조, 또 반쪽은 쓸, 그것해영 똑 요  
마니 끈차 놓고, 경행으네 그 혼 집이 세사름이 살민 세 반을 쥐. 혼 사름 살  
민 혼 반 주곡, 그거를 사름이 혼 번 돌아가시민 세 번을 나누아줘. 세 번, 3년  
간을, 옛날에 그 풍습이.  
101007 #2 옛날 우리 노형은 양촌이라고 해가지고 그건 노형배끼 안허여.  
101007 @ 양촌이라허든 양반덜, 학자들이 많았다는거다예?  
101007 #1 그런 떡 노눈는딘 노형배끼 안허여.  
101007 #2 시루떡말고 다숫까지야.  
101007 #1 췌만.  
101008 @ 아이구 대단했다예. 아 그런 풍습이 잇었다는 거고예.  
101008 @ 이 마을의 특산물로는 옛날 옷뜨리잖아. 옛날에 어쨌든, 소 말특산물이  
뛰여시쿠과?  
101008 #1 소 말도 기루지. 혼 집에 소 말 질루지 많아. 하나만 질루지 안해.  
소는 밧 같고 물은 옷트레 불러 줘. 조 갈면은이 씨 부렁으네이 영 갓다리 왓  
다리허면서 그걸 불러.  
101008 @ 농사는 뭐가 잘 뷔수과?  
101008 #2 보리, 조 그 세가지.  
101008 @ 여기만 특별하게 잘난다 허는 곡식은 어섯수과? 노형만 특히



101008 #2 예.

101009 @ 이 마을의 자랑거리?

101009 #2 이 마을의 자랑거리는 우리노형에 판사가 다섯사람이라.

101009 @ 아이고야!

101009 #1 다섯사람이 뭐야. 노형사람만 이

101009 #2 다섯 아니가?

101009 #1 열 멧 사람이여, 나 책 ㄱ정오크라. 책에 다 나완, 열 사람 넘어.

101009 #2 난 다섯사람,

101009 #1 이디서 낭으네

101009 #2 인재가 많은디,

101009 #1 우리 노형, 판검사가 그렇게 많아.

101009 #2 우리 한국에 최고!

101009 #1 한국에 최고! 노형 판검사만, 그렇게 많아. 제일먼저 판검사 나온 사람이 제대 나온 판사가, 부장판사한 사람이 김종배야. 월산 김종배! 지일 처음 나온 사람이,

101009 #2 월산 김종배라고

101009 #1 지일 처음 나온 사람이 아이고 2대는 모르겠어. 4대는 우리 영도고, 5대는 상훈이더라고,

101009 #2 책에 나와서냐?

101009 #1 우리 영도가 1년은 앞섰어.

101009 @ 아드님이 판사파?

101009 #2 아니, 우리 언니 아들.

101009 @ 아이고 멋지다예.(전화)

101009 #1 송상훈이 사촌도 일름 나왔고, 또 광평 좌완이 성 아덜도 일름 나왔고, 그디서 육지서 낭 육지서 나완는디 본격으로 나왔더라고, 양 뉘시더라고 본격지로 나완. 그때 부장판사가 홍로 아덜이더라. 이제는 아니지. 것도 책 나온때가 1996년이라냐, 나온 해가 겐 걸 어떻행 그 책이 나온 걸 알아시냐믄 우리 씨아지방이 다 처음으로 해냈거든게. 계난 씨아지방이 허믄 성이 이시난 다 가져완. 혼권씩, 그 책 받으민 10만원씩 내놔.

101010 @ 이밖에 이 마을에 대해서 덧붙일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 2. 제보자 일생

102001 @ 낱고 자란 과정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102001 #1 눈만 자기 수건 짝 아상 영 행 딱 묶어뵤 눈 놔두민 뉘 그 까마귀 파간덴, 까마귀 잘 파간덴, 계난 눈만 묶어 뵤 뉘 허지도 못허고 지나가단 보난 연락

만 해보렌게, 이디 죽엇덴게,  
 102001 #2 경 혈 수 밖에 어섯주게.  
 102001 #1 경허난 그디 대원들이 이션. 경해민 묻는 뭐 헌 사람덜이 왕 왕으네  
 쪼끔만 팡으네게 쪼끔만 팡 흠만 썩왕 놔뵤,  
 102001 #2 임시 경 혈 수 밖에 어섯주게. 그 상황에,  
 102001 #1 경 헛당 다음에 내려왕으네,  
 102001 @ 메칠뒤에 소식 들엉 울고 불고 난리났겐다예?  
 102001 #1 그때 소식은 들엇지. 게난“가지 맙서! 가지 맙서!” 막 그 입초산 사람  
 덜도 헛덴, 경해도 “선생님 가지 맙서 가지맙서” 해도 예고 나 혼자만 슬쩍슬쩍 일  
 로 강으네 아멩해도 우영에 강 마농을 메영 와야 뵤켤, 겐 가당, 아멩해도 죽기야  
 죽지, 안죽진 안해여. 심어왕 수려반당 가도 같걸 우리 아버지,  
 102001 @ 어머니도 많이 울고 그 다음 어머니는 멧형제를 키운 것파 아이고 세  
 상에 앞이 캄캄허다예?  
 102001 #1 게난 우리 아주망도 아덜 식성제 들양가서. 우이 산에, 흥난 억  
 세고 잘난 건디 어린 거난 죽어불언, 오히려 둘만 살안 산디, 흥나 죽은 건  
 살고 큰 건 가불언,  
 102001 @ 놀랑 거기에 산에서 살당 다시 내려왕 어머니가 아이덜 다 키우멍 살  
 앳다는 거다예?  
 102001 #1 아니 우리 어머니는 게난 우리 성제만 키운거라. 우리 아주망이 또 이  
 시난 그 손지덜은 키우고 우리 아버지 가불고, 우리 오빠는 일본 잇고, 그 때 죽지  
 않은 때 일본에서,  
 102001 #2 아주망이 고생했주게. 애기덜 어린 때난,  
 102001 #1 아주망이 고생했주. 우리 오빠도 조총련인가 거류민단이라. 게난 그  
 일본서 오르는 말이 이북 갓덴, 이북 강 확실히 이북 가네 위수술 헛젠 말 헛디 이  
 북허고 일본은 연락허니까 위수술행 죽은 줄 알렌 죽은 걸로 알렌 확실히 곁  
 안, 우리도 죽은걸 확실히 몰란, 누게 경 곁아주지 안허난 야네 친척분 어른이  
 왔단 나 가시난 경 곁으난 그때부턴 알안. 죽은 날 헛자게 생일제사해여. 이제  
 도 게난 우리 친정에도 나가 이디 왕 보난 이디 씨아주방도 죽은 날 모르난 생일  
 로 허고, 우리 오빠도 생일로 허고, 형무소 강으네 죽은 날 몰라부난 확실히,  
 102001 @ 겐 그 산에서 만난 인연이겐다예? 그 저기 결혼하신 아저씨도?  
 102001 #1 아이 잘 알아. 동네난 알아. 게꼭 동갑이고,  
 102001 @ 동갑이고, 그렇게 해서 인연이 뵤구나예. 겐 소개는 그런 산에만 가고  
 해변엔 안 갓수과? 이호?  
 102001 #1 우리 아버지네가 이호 이동 내렸다근에 나가 이호이동을 가서. 이호이  
 동을 가난 빨리 아버지가 “빨리 가불렌”렌 허난 빨리 와부난 아버지넨 이익팠지.  
 빨리 난 와부난 좀 어슬어슬헌때 가신디 빨리 와부난 해변서가 산에서 누게 왔다  
 갓다허민그디 부모네 죽여불어. 살리질 안해. 나는 아버지가 빨리 가불렌 허는 말이

아부지가

102001 @ 삼촌 위험했었구나?

102001 #1 소를 드룻구릉 물그레에 매영 놔둬시메 강 곶양, 소 앓당 잡양 먹으렌, 검은 부릉이 길루와신디, 아버지네는 소 키울 의사가 엇주게. 출어서부난, 계난 이디 온때, 드룻구릉엔 헌디 야네 옛날 동네라. 시집동네라. 알드룻구릉이 물그레에 매영 놔두구렌 왕 그난 윈 좋덴 해그네, 그냥 거기서 잡양으네 반찬으로 먹주게 산에서, 소도 봐지민 잡양 먹어. 소도 봐지민 잡양먹고 물도 봐지민 잡양먹고 산에서는 먹을 것이 어서노난,

102001 #2 먹을게 서게,

102001 @ 잡양 먹언마씨?

102001 #1 잡양 먹언. 나가 왕 아니, 아맹해도 잡아먹을 건 잡아먹을건디 또 허락도 받고게, 아버지가 강 잡양 먹으렌 곶으렌,

102001 #2 곶으렌 해부난 곶으난게 어디십테겐 해영,

102001 #1 “잡양먹으렌 곶으라! 그디 강 매영 놔뒹져”, 잡양먹으렌 안해도 잡양먹어.

102001 @ 큰일했구나예. 노형 사람이 산사람으로 갈 수 밖에 없었구나예? 많이도 피해도 많았겠다예?

102001 #1 이호이동도 많이 갖어. 이호이동 사람덜도 많이 갖어. 이 남로당 당원들이 제1위가 조천이라. 조천이고 두 번째로가 이호이동이엔허여.

102001 #2 책에 나온 거 보난 노형이더라. 두번째가

102001 #1 두 번째가 노형은 사람덜 하영 죽어부난게. 겐디 어떻게 이호이동이엔 해신고허든 이호이동은이 김영근이 양상근이가 이서부난게. 그디가 주동머리야. 김진근이, 김진건이가 농업학교 선생아니가.

102001 @ 삼촌 살아남은게 신기허다예? 나중에는 산사람 헌 거 모른척 행 그냥 삭 여자니까 그냥 살았수과?

102001 #1 아니 산사람도 맨딱 흔뻗딜로 맨들앗지. 산사람은 무신 뜰로 행 살았나?

102001 @ 아니 계도 주위에서 알민 다른데서는 여자덜 가만 놔두지도 앓고 잘도 많이 죽언?

102001 #1 건 그 채 안뵈 때지게. 우리 산에 신태, 아니 여기도,

102001 @ 나중에도 산에 갖다온 거 알민 빨갱이 집안이렌허명 막 여러 가지 걸리는 것도 많고?

102001 #1 아이 그건 완전 안헌 때, 흐깁 영 빨갱이 집안이여 안헌때,

102001 @ 다행이다. 경해도 어머니 쉬쉬해싯쿠다.

102001 #1 경해도 순경허든 미와게. 순경이이민 막 그냥 순경덜 사람 심영 강으네 아버지도 죽여불고 미왕으네 순경은 덜 뵈으네 아방이영 나영 덜 봐신디 우리집 우리 아덜이 시험을 보난(전화) 우리 아지방이 와네 이해를 시키더라고,

102001 @ 그 집은 어떻게수과?

102001 #1 그 집은 조카네 주난 풀아부러지.

102001 @ 삼촌 낳고 자란 과정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노형에서 낳고,

102001 #2 저 옷똥네서 낳고, 나 3월에 낳고 음력 11월 돼난 우리 아버지 일본에 가부러젠. 1932년도에 가부난 우리어머니가 나 혼자 데령 살아신디나 여섯살돼난 우리 아버지가 일본에서 들어온 거라. 들어와신디 계난 우리어머니가 나 혼자 데령 살명 옛날에 그 시절에 못 사니까 빵 장시도 허곡 술장시도 허곡 경행 살앗던 모양이라. 우리 웨가는 한림이주게.젠헨 살아신디,

102001 #1 빵 장시도 허곡,

102001 #2 아침에 빵 장시도 허곡 살아신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남 빵 헤그네 청으네 빙숙이 성님 친정 아버지그 삼촌이 그 저 나중에 딸만 나당 아덜 나시네게.

102001 #1 빙렬이 빙숙이가 셋거라, 그 다음 서귀포가서이, 서귀포 간아인 이름 모르크라. 그 다음 오도롱가서, 연동 간 게 막내, 다숫이라.들어봐.

102001 #2 여섯산디 일곱이라. 경허난 낭 보민 딸, 낭 보민 딸, 나민 딸 나민 딸허난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영 어디 저 목장밭디 농살 현생허엇던 모양이라. 그 시절에 그 시절에 저 개간해근에 모멸도 같고 산디도 같고 햇잖아 조반도 아니먹언 딸나부난 딸 다숫개차 난때산디 여섯개 차 난때산디 아덜이 조반도 안 먹언 새벽이 밧더레 가명 우리어머니 빵 행 쳐넘시난 빙숙이 할머니가 오랑 빵 얼마네치 풀아드렌 허명 아덜이 메누리 경 딸나부난 아덜이 조반도 안 먹언 부애나난 새벽이 돌아부난 빵 상가사켄허명 풀아드렌 허연 상가사허켄 허엿젠허드라고,

102001 #1 빵장시도 해난 어머니가?

102001 #2 경헨 살아신디 경행 살당 한림 웨가에 갈땐 무신 일 션 갈때는 날 할머니신디 맬견 내불어똥가이. 맬견 내불어똥가민 우리 할머니 죽은고모 일본강 살당 딸흐나 난 살당 딸 세슬인가 네슬인가 갑자기 돌아가부난 그 웨손지가 우리 할머니영 왕 살아서게 계난 이제.

102001 #1 어명이 죽어부난 살앗구나?

102001 #2 계난게 그 언니가 나보다다 세슬 우이라이. 스촌언니가 할머니영만 사난 할머니네 집에서 주로 살양 커서게 나가, 우리 할머니 웨손진 어명 어신 거렌 우리친정 할머니가 양태를 좇더라고, 계민

102001 #1 어디 동촌이라?

102001 #2 우리 할머니 저 수산, 물미, 응. 물밧어른이 양태허더라고이. 계민 양태해근에 오일장에 가드라고, 그거 해근에 오일장날은 오일장에 풀레 잘 가드라고게 젠 가민 똑 옛날에 눈깔이 사탕, 담아사탕 지금말론, 은 사와. 손지덜 날 멧방울 주고 스촌언니도 멧방울주곡 행 먹어. 난 또 이젠 친정 어머니신디 강 자당 뒷날 아침, 뒷날 그딜 놀레와. 놀레왕 보민 우리언닌 사탕을 먹엄서. 부억에서 할머니 밥허고 먹는다 나봐가민 울 언니가 뒤로 곱져불곡허드라게, 어릴 때

잊어부러지지 안해져. 어린때 현 일인디, ㄹ치 주로 커나신디, 커그네헌디 밤이 자민 거 어떻허난 죽은방도 이신디 죽은 구들에 안 장 큰방에 할아버지영 발막양덜 자드라게이

102001 #1 할머니도? 계민 이불이 흐나뿐이야.

102001 #2 몰라. 할아버진 계난 창문발라로 눕고 할머니 영 고팡발라로 누민 이젠 순자언니 저쪽 옆으로 눕고 할무닌 가운데 눕고 난 이 상 옆이 눕잖아. 견디 할머니 손지덜은 다 췌문직으멍 자젠 저 손지안티 돌아두민 이쪽 손지가 부애난 파닥파닥, 계민 딱시 할머니 돌아누민 딱시 저쪽 손지가 부애 낭 파당파당허고 할머니 옆으로 눕지도 못해. 반득이 누워야 이놈이 손녀들이 이 할머니 췌문직 양 잔다고허멍 할머니 못살게 굴어난 생각 이제도 잊어부러지지 안해이.

102001 @ 할머니 멧슬에 돌아가섯수과?

102001 #2 아이고 견디 나 아홉슬에 돌아가신철인가 열 슬에 돌아가신가 해서,

102001 @ 잘도 생각나겠다예?

102001 #2 아이고 정말 우리할머니도 오래 안 아팠 빨리 돌아가불언게. 우리 아버지가 나 여섯슬때 오란 그 사이 일본서 살멍 돈 벌영와네 큰 밧사고 집 사고 헨 이젠 이펜동네 온거라. 이펜동네 내려왕 집사고 행 살아신디 이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고찌 살당, 우리 큰아버지 일본 살아불고, 우리 말젧아버지넨 광주 살아불고 우리 아버지네가 사형젠디 살아불고 허난, 우리 셋아버지 저쪽 동네에 살고 우린 이펜 동네 집 상 내려왕 살곡헌디 이젠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이가 드렁 이젠 일을 못허게 웨난, 우리 할아버지 일절 이 호미 굴쟁이 심영 밧디 텡기는 걸 우리 못봐봤주. 커오면서도, 그상조에만 강 살고 절간에만 살고, 할아버지가 경,

102001 #1 절간에?

102001 #2 선도절 민영이 저 도련, 도련 그 선도절에만 강 살앙, 할아버지 밧 풀멍 그디 강 망헌 어른이여게. 경행이 나 어릴때에 할머니 밧에 강 스촌언니영 췌드탕 싸우멍 누워 자당보민이 개, 고녕이 즈들어불민, 할아버지가 누워자당 일어난으네 좃불 경 “나무아미타불” 불르는 걸 봐봐서게. 경 열심히 그 선도절만 경 그디만 강 살멍 경허더라고게. 밧 풀당,

102001 @ 그디 어서저 불어신가?

102001 #1 선도절이 수운교 아니?

102001 #2 수운풀거라. 저 덕지동에 그 절이엔헌다,

102001 #1 광양도 잇어. 도돌봉에도 잇고,

102001 @ 우리 엄마도 거기 수운교 텡기는다, 이호 현사동, 덕지동?

102001 #2 경해근에 우리 할아버지도 그디 미청 망헌 어른이라. 그때시절에 광녕도 양칫하르방 그디 미천, 경해그네 윈 일을 안해그네 경 호사만 누렁허고 춤 인물도 잘나고, 키도 크짱 해낫주게. 우리 할아버지가, 경행으네 살더라고게, 우리 할아버지 일을 허는 걸 봐본디가 업서. 경 헨 어디 사람 돌아간 관 짜줍젠 오랑 막 스정스정허민 그 빌레 온 사람이 와그네게 뒷날은 와그네게 기구 든 상자 요마

니헌 상자라. 그 상자 오랑 정가명 우리 하르버질 모성가드라고, 게민 가건에 관짜 똥으네 오민 그 사람이 정와. 경행 놈두민 3년에 경 공든 떡을 혼차롱씩 가져 오드라고, 우리 실피 잘 먹었어. 옛날에, 경행 커신디 웨정때 흐끄 컷젠 나가 컷뜰이난 우리 큰오라방이 우리 아버지 일본서 오랑 애길 나난 오래빌 나난 아덜을 나난 막 아까울거 아냐게. 밧디 컷젠 컷뜰이난 뜨랑 텡긴거라. 겨난 주로 ㄱ만이 생각해 보난 말이 똥로 난 재산뵈천이옌헨게 그게 맞인 말이구나 주로 따라텡경 살아신디, 혼번은 그게 느껴져이. 게난 혼번은 우리 어머니가생이오름 압이 한갱이 할망네 밧 퓌크 닥아뵈어. 영 길죽헌 밧이더라고, 혼디 그 밧을 빌영 농사를 했어. 조농스를 해신디, 아, 검질을 메레 놓빌영 가젠 가는 디 어머니 애기구덕을 정가야 뵈거라. 두술인 거 닥아. 가만이 생각해 보민, 가는 거 닥은 디, 이젠 그 당시 아이고 어머니가 애기구덕을 정 강 놈부그롭게 정 강 아이고 그 애기 그늘에 뵈뵈 울고 혈거난 어머니 “제발 저 밧디 가지땡서” 자지 땡센 놈도 부끄럽고 얼마 해지지도 안허고 “아이고 기가 게민 느강 부지런이 해지크냐?” 나가 아버지영 부지런히 허커메 “가지 땡서” 경허난 막 착허텐 말 들으고, 경행 허난 막 매명아버지가 놓덜ㄱ라 그 말 곱으난 그 말들영 들영 ㄱ삿해연 종안 글로부터 일절 우리어머닐 밧디 텡기지 못허게 했어.

102001 #1 열 슬뵈언?

102001 #2 일곱슬에 우리 오래비가 여섯슬차이난 여남은 슬 뵈엇지, 게난 혼번은 딱시 이젠 그전에 혼번은 우리 어머니가 그밧디 검질을 메레 가명 애기 집이서 보단 닛뵈결랑 쫓뵈이레 오렌, “예” 해뵈 어머니 가부난 할머니신디 이젠 돌아간할머니 애기 봐줍센 어머니 밧디 가부난 할머니신디 메껴뵈 이제 슝촌이영 거 룰루랄라 해 천 가달치명 놀아서. 할머닌 슝트 무싱거 해영뵈여살린 거 아니? 저녁뵈난 밧디서 올만흐난 업영오난 어머니 즈냐흐단

102001 #1 쫓도 불어실건디?

102001 #2 얼마나 못전더실거냐? 쫓도 불어실건디? 그놈이 예뵈이 안 가부난 “이 놈의 새끼 나가렌”허명 무사 안와시뵈 애긴 바끼 빼앗으명 때리첸흐난 부지뵈이 들 령 터정 빅허게 막 울명 “아이고 무사 나 강생이 무사 어머니 때려냐?” “어머니 가난 막 때령게” 뒷날 아침인 밥헡 뵈글랑허게 뵈이곡 헡 할머니가 글렌, 나가 강으네 어머니신디 욱 허는 책허고 나 거 잊어불어지지 안허여. 경해난 적도 이서 나. 난 어이가 어선, 어머니가 얼마나 못전더실거라게 쫓불영게. 애기도 울엇주 마는, 애긴 할머니 워낙 잘헡 뵈여노난,

102001 #1 쫓불민 못전더.

102001 #2 잘도 못전디주게. 방방 불어노민 이게, 막 아프고 못전디주게.

102001 #1 부른쫓 뵈이민 또 아기 설사나.

102001 #2 설사도 나. 그루후제부터 어머니 일절 나강 밧디 못텡기게 했어.

102002 @ 그럼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셧습니까?

102002 #2 우리 아버지가 출베는 노래 잘도 그렇게 뵈질을 잘하드라고, 뵈질

을 잘허드라고,

102002 @ 할아버진 일 안했느네 우리 아버지는 일본서 살젠허난

102002 #1 우리 아버지가 일을 못해노난,

102002 #2 출 다 해난 달음엔 혼쪽엔 큰 밧인디 겨울땀감으로 이젠땃개 쫓다근  
에 소로 실러다근에

102002 #1 질병이 나왔?

102002 #2 소나무 다 깡으네 게 그거 딱시 소에 실령으네

102003 @ 어머님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102004 @ 삼촌은 어릴 때는 어떤 놀이를 하며 자랐습니까? 노는 거,

102005 @ 일제강점기에 공출 등 생활 전반에 대해서 아는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102005 #1 그 공출도 우리가 현 게 아니고 아버지네 어머니네 허는 거 판, 우리  
혈땀 어섯고, 웨정때니까, 아버지네 허는디 혼디 심부름 허는 거 봤지.

102005 @ 열 땃술 뭐?

102005 #1 나가이 4,3사건난대가 열일곱술이야. 계난 그 전이지. 열일곱술에  
4,3사건이 난, 해방 땀어근에 땃 해간 이섯단 4,3사건이 나시난 해방 땀때가 열,

102005 @ 45년이니까 열두술?

102005 #1 열두술니 지났어. 열두술에 우리 오빠가 왓당 가신디, 열  
네 살답아.

102005 #2 열 네 살이 땀실거라,

102005 #1 해방 땀때가 열 네 살 답아,

102005 @ 뭘 공출허렌허고 뭐가 경 힘들디가 어머니네가?

102005 #1 아버지 어머니네 허는 건이 보리허고 저 오께기엔헌 것이 이서이. 오  
께기엔도 허고 브께기엔도 해여이. 그거 했지.

102005 @ 오께기가 녹두 닭은 거 아니?

102005 #1 응. 검은 거, 그거 했지이. 또 산에 가민이 머위줄, 머위줄 무싱거 해  
신고이 머위줄?

102005 #2 그것도 오차혈거엔,

102005 #1 머위줄, 머위줄, 그것도 해당 아버지가 해당 물리왕으네 해당 바찌는  
거 봐나고이, 또 무신 낭 겁덕? 무신 낭 겁데기 베껴당 막 영 묶으더라. 이만씩무신  
낭 겁데기라 겁덕만 막 딱딱 무신 낭 겁데긴지 모르크라. 그 낭겁데기가 짹짹했당  
으네 우리 아버지가 이사장이난 우리집이덜 다 동네꺼 모여 와. 우알뻥일이꺼 우리  
집이서 미수구릴 해여. 경허든 왕 시꺼가. 그 낭 겁데길 모르크라. 길이가 이만씩  
행으네 딱딱 묶어 그냥 오그리멍, 그 겁데기 해낭으네,

102005 #2 거 뭐 겁데기? 그 다간주난 겁데긴 뱃겨나서.다간주난 겁데긴,

102005 #1 다간주낭이 아니더라고 영 그렇게 길게 날 수가 없어. 산에 강 해와.  
고지 강. 무신 낭 겁데긴지 모르켜. 그 낭이, 강태호네 아바지도 막 영 곱게 잘행왕  
이 그 어른 칭찬해여. 최고로 잘헨왓젠,허멍이 딱 행 묶영 왕, 혼뱃딜로 저우렁,

102005 #2 고정현 어른게.

102005 @ 큰 칼 순사라든가 막 나쁜 짓하고 이런 거 봐놔수과?

102005 #1 큰 칼 순스이, 우리 뱅일이 사니까 뱅일이 아레 큰 질이 있어.영 대 정더레가는 큰길, 한길, 게민 그 질로 그냥 칼 그냥 “빈찍빈찍” 허멍 가는 걸 방 “아이구 칼 찬 순경 저레 넘어감찌. 넘어감찌.” 막 그걸 봐놔어.

102005 @ 말도 탓수과? 말은 안타고 걸영?

102005 #1 말 탄거 아니고 걸영, 칼을 착착?

102005 @ 무슨 색깔옷을?

102005 #1 검은 색,

102005 #2 검은 색덜 입어서,

102005 @ 무서워해놔수과?

102005 #1 무섭지.

102005 #2 긴 칼차곡허민 무섭지.

102005 #1 겨곡 옛날엔 췡걸이엔 허여. 췡걸, 췡걸이엔행으네 1년에 혼번을 허여게, 봄에, 봄에 혼번허민, 순경이 왕으네 검사를 허여. 그 췡까지, 이

102005 #2 췡걸이엔 허민 잘 모르주게. 우리 집안 안에 청소허는 거, 대청소,

102005 #1 왜정 때,

102005 @ 그런 거까지 검사해?

110205 #2 1년에 혼번,

102005 #1 췡까지 다 내쳐.

102005 #2 방안에 잇는 거 다 바깥디 마당더레 내청, 췡 내청 췡 대청소를해연 온 집안을 전부,

102005 #1 그 사람네 왕, 순경이 왕 조사행 간 후제 걸 들여놔.

102005 #2 게른 이제 응, 겨른 와그네게 조사해그네게 풀 췡.

102005 #1 그 표 타민 기둥에 부쳐이

102005 #2 표 타그네에 기둥에 부치민 이제 끝난걸로 행 그 살림살이덜,

102005 #1 그 잘 안웬건 풀 안 췡. 거 문 안 내친 집은 또 새로 허렌 헨, 새로 허렌 해,

102005 #2 경 행 딱시 들어놔으네게 살고, 또 새로 일년에 딱 혼 번,

102005 @ 뭐 잇는가를 보젠 허는구나?

102005 #1 게난 그 것도 좋긴 좋은거라이. 우리가 못전디긴 헨겨주마는

102005 #2 좋은 겨주게.

102005 #1 우리가 못전디긴 허지만 그 췡 내칠 때 가 제일 힘들어. 췡췡, 그 췡 췡 내칠 때,

102005 @ 췡걸?

102005 #1 췡걸,

102005 #2 췡걸이엔 해나서.



102005 #1 청결표를 가져와.

102005 #2 반장덜이 다 태와주주게..

102005 #1 어느 날 웨민 청결허라 경헨 청결허민 또 청결 검살 허영 표를 주민 기둥에 딱 부쳐. 이건 기둥에 부치난 이 집은 청결 마무리 현 집이라고 안부친 집은 또 해야웁다고

102006 @ 사삼 사건 때 소개 등 생활 전반과 겪었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결혼 안할때잖아예?

102006 #1 안했지. 4·3스건때가 열 일곱에, 4·3스건 난 열일곱에,

102006 @ 뭐가 무서웁데가?

102006 #1 그때는 두밧디 다 모소와. 아래도 막습고 우이도 막습고, 우이는 남로당 아래는 한독당이고 허난, 한독당은 순경이지. 계난 순경도 막습고, 딱이 남로당은 이북쪽이라. 그디도 막습고, 계민 이거 이것도 저것도

102006 #2 다 막습지.

102006 @ 삼촌은?

102006 #1 난 남로당에 들어가났어.

102006 @ 삼촌이 산에 올라갓다완마씨?

102006 #1 우리, 책 익영 공부헌 사람은 거의 남로당을 속해.

102006 @ 일본 갓다왕 야학선생들 가르쳐 주곡?

102006 #1 우리 아버지는 일본도 안 갓다와도 우리 오빠가 일본 강 텡기당 왔다 갓다 해주마는 공부를 한 어른이난 글 허민 다 통행으네 이북더레 허드라고 아버지 허는 것이, 계난 나가 산에서 오랑 연락병으로 해주렌허난 아버지가 이해안 가민 못해. 아버지가 안보내민 못허주게. 아버지가 가렌허난 집이선 막 검질 못맹 여름이라. 일행 우리아신 세술 아랜디 막 밧디 강 검질매고, 난 가불민 아이고 성이랑으네 놀레 보냄젠 놀레보내고 나만 검질메레감젠 막 원망을 해도 아버지가 보내난 나가 산엘 가서. 산엘 강 연락병을 했지. 연락병을 해서. 일년 간 했지. 일년간,

102006 @ 연락하고 했던 사람덜 산사람덜 잇수과?

102006 #1 어서.

102006 @ 삼촌만 살안? 허허 거기에 잇는 사람덜은 현장을 곶아봄서. 도대체 어떻게 살안?

102006 #1 산에 강 허는 것이 조직부 에이부가 이서. 조직부에 곶으면 그냥 이제 곶으면 동스무실 닳고 에이부에는 그 인민 통신 새소식 만드는디라. 만드는디민 그딘 옛날에 4·3스건때사 이제 이 말 해도 웬나?

102006 @ 예게.

102006 #1 아지트 팡으네 땅속에만 들어강 그 일을 해. 땅속에서 행으네 글도 쓰고 등사판 행으네 짤게 밀영 인민통신새소식을 막 만들앙으네 멧봉을 해. 내치민 그 공부헌 사람은 그것만 만들지, 시에 다 걸령 시내레 내영 그걸 눈으로 봐야 그 남로당 허는 사람덜이 이해가 가근에 움직일 거난, 우리가 안허민 우리 연락병이

안해주민 자기넨,

102006 #2 못허지.

102006 #1 그것만 배달해주야 한풀이가 날거난. 나가 흥번 나강 허단 경찰에  
심영

102006 @ 잡현 삼춘이?

102006 #1 응. 너이 잡현게, 여자만 너이 다 잡혔어.

102006 @ 큰일날뻔 했구나?

102006 #1 다 잡형으네 팔월추석 추석 흥김 흥 삼일전에게, 겐 잡현.  
잡힌 장소가 어딘고 허민 저 남조봉 그 영통매 사이에 사람사는 디가 이십디다. 그  
때 이섯고, 그때 이시난

102006 @ 남 무신봉, 남조봉잇수과?

102006 #1 이제 제일 큰 산,

102006 #2 수목원 동쪽 큰 산이 그 남조봉이주게

102006 #1 그디 산이 총총 세겐디.

102006 @ 남조봉 어디서 잡현마씨?

102006 #1 남조봉게 동녘 굴렁에서, 겐 굴렁에 갈때는 어떻행 가신고 허민, 올라  
갈때는 이제 씨아방뻔 돼는 어른이라. 양두옥이엔헌 사람이영 그치 올라간디 다  
이꺼지 막왔어. 막 막 막 넌 못뜨랑가난 이디 들어가라. 그 집에 들어가고 자기는  
그 꼭대기까지 올라간게. 사장 그때 안 심언게. 나만 잡혔지. 게난 나가 그거 올  
라갈 수가 없어. 그거 인민통신이엔 헌거 젓지. 구덕에 낱, 지니까이 집이 들어가라.  
그 집이 들어간 빨래를 막 허던게 잇더라고, 이젠 그 사람이, 그 사람도 그쪽인  
생이라. 이레 부리렌 헨 빨래 언져부러. 인민통신이엔 헌 구덕더레, 빨래구덕으로  
알양 그 사람네 봐도 못가져가지.

102006 #2 그렇지.

102006 #1 갱헨 나허고 여자 서이가 여자 고등학생덜 서이가, 여고생덜 겐  
서이가 심은디, 나행 너이라. 심영으네 너이가 우리가 차에 시경으네 그때는 경찰  
서가 관덕정 마당에 이실때. 딱 들어가는거라. 들어 강 보난 흥나아이 여고생은  
자기네 웨삼춘이 경찰이난 어멍이 왕 확 빼가고, 둘은 또 그런 뺨이 업서. 뺨이 어  
신디 이제 끝으민 관덕정 마당에 저 옛날에 무시거 이서낫잖아. 거기서 저 물  
건 포는디 이서난네이? 관덕정 마당 곧 알력집이 이제 차부 알력집 대성 한의원  
는디 대성 한의원쪽에 그 집으로 쏙 들어간 디더라. 이턱네 집이 두아가가 그디  
고, 나는 노형이고, 경해연 게난 이제 가인 흥나 심어가 불고, 어멍은 확 내어가  
불고, 아이허고 나허고 서이만 이서. 게난 방도 막 잡안 우린 방도 안 쥐. 허릿띠허  
곡이 신발 놓는 디 수랑헌디 그디 이시렌, 그디서 딱 흥룻밤 잔. 아인 첫날에 심  
어가불고, 어멍왕 같이 돌아가 불고, 아이허고 나허고 심어당 이제 날그라 그때는  
이제는 호적이름으로 무시거 해도 그때는 호적이름으로 안불르더라. 그때는봉자로  
통해, “야 문봉자 멩일 먹고정허지?” 영 해. “예게 예게”허난 멩일 먹으레 가렌 날

확 내쳐붙어.

102006 @ 문춘자가 아니고 문봉자파?

102006 #2 응. 봉자, 봉자.

102006 #1 그냥 불르는 이름은 봉잔디 그땐 봉자로 허민 안통해. 4.3스건뎐, 4.3 스건뎐 호적도 필요없어라. 그때는. 문봉자 멩일먹고정허지? “예게 예. 허난 난 나가렌 헨 나오는 사람이 저 삼양뒤에 설레옴 헨디 사람이 우리영 곁은 문씨라. 문씨디 이제 우리 오빠가 관덕정 마당 우녉집이 제일 양복점 해여게. 그냥 알아게. 문씨디 ”어떻행 성님 알 수 어시쿠겐?“ 허난 데려와보렌 허난 데려가난 스춘오빠라.

102006 @ 아이고야 초창기난 살아신가? 재수어시민 뉘 열일곱살 여자가 ?

102006 #1 경허난 이제 멩질먹으레 가렌허난 멩질먹으레 오빠네 집으로 완 집안 멩질먹엇주게. 멩질먹영 이젠 멩질먹어도 그때 검질도 다 안 매고 허난 검질도 맬 거 싯고행으네 멩질먹영 헨 예실뤼 일뤼썸 이실뎐디 또 우리 갓잖아. 두유 아지바님이 우리아버지신디 막 즈주홀 말을 막 곱아. “우리는 몸똥 아리고 우리는 혈로 생각해이. 혈어시민 움직이질 못함니텐 어떻게합니겐”막 스정을 허는거라. 허난 “셋년아 가라! 홀수 엇다. 가야뉘켜” 겐 그냥 돌아가부런게, 일뤼 살양. 딱시 산에 가는거지

102006 #2 딱시 연락병으로 딱 완 들앙가부렀구나.

102006 @ 무섭지도 안행 초창기답다.

102006 #2 초창기라.

102006 #1 그 연락병으로, 아버지 가렌헝곡 허난 가난 이제 시난 오랜 허난 이호털 와. 이호 이동, 그딜 아지트가 왓드라고, 그딜 왕 허난 이호이동서 일주일 살아서. 그디도 팡 놔둔디가 이서. 거기 들어 강 등사판 낱 짹짹 밀며는 그 이호에서도 나 헨 시에 헨 다숫번썸가진 거 닳아. 지영 갈때민 주인이 그 주인 할망이 쓸을 헨 두 말썸 쥐. 아래 거 낱 쓸 놔볼민 몰라. 쓸 뵈 더 퍼볼민 몰라, 만일에 심으민 쓸로 보주게 안뵈게 아지트가 그디 강 보민 관덕정 우녉집 또 우녉집이라. 그 사는 디가이 아지트가, 게민 그디 강으네 그 인민통신 놓아뉘 딱시 그디 준 거 쓸 이레 비와뉘 그디서 눈 서류 낱 또 쓸을 더 썸 정 나 와. 여상 나와. 여상, 어떤뎐 오른 손에 강 노민 소굽으로 주사위 콜랑콜랑 소리나. 게민 가까이 가문 듣주마는 그런 거 관심 안두민 모르주게. 나 속으로만 야 이거 주사위가 콩당콩당해가민, 경허명 이젠 살당 그디서 누게 거기서 그 오도 룡서 올라가게 연동우이로 올라가서 또. 이호이동서 올라가민, 그디 강 오래 살았지. 연동우에 삼등이옴 헨디가 이서. 삼등인그 남조봉 곧 밑에 바로 북바리라. 그 북바리 집 지신디가 일름이 동네 이름이 삼등이라.

102006 @ 지금은 어서져부렀구나?

102006 #1 지금 삼등이도 이서 이서. 이신디 일름은 어신디 난 그디 보민 “우리 옛날에 셔난디로구나”해져. 우리 죽은 스돈칩이 간 보난 거기더라. 이디 삼등이여. 옴, 우리 죽은 아덜이 동네 이거 동네이름 삼등이 맞아. 겐 건 모르주게.

곧지 안허난게 나 이런 말 아이덜이라 안골으니까. 이거 삼등이엔 옛날엔 “이거 삼등이 어머니 맞아. 옛날 이름이 이디 삼등이엔 험디다.” 경허드라. 이제 그 동네 다 사람덜 살아. 집덜 지성 살아.

102006 #2 큰 동네 돼어서.

102006 #1 집덜 지성 삼등이, 바로 남주봉 북방,

102006 @ 그때 잡혀간 사람들도 혼 일년은 같이 해신가? 삼촌만 경 해신가 겁도 어시?

102006 #1 계난 그때 강으네 나만 허질 안허고 그 아이덜은이 서이가 심어 가난 혼 아인 허고 흐나토 안 올라완 여고생덜은, 하나토 못 올라완게 그루후제부 터는, 난 두 번차 가신디 경헨 그디 갖당 또 산엘 갖지. 글로 쪽 산에 바로 산 속에, 아이고 상제오라방 쓴 걸보난 청산이여 곳 일름덜이라.

102006 #1 화숙이 나중에 낀 못해부런, 나는 우리 아버지가 안 헨 말은 못허 주게. 허락행 보낸 아버지가 안웬다 해시민 못갖주게,

102006 #2 못갖주게, 맞주게.

102006 @ 아이고 아버지도 대단헌 사람이다. 경해도 딸 그 큰딸 세딸 다 이신디 삼촌한테만 시켰다는 거마씨?

102006 #1 게 나가 나이가 맞주게. 큰딸은 시집가불고, 죽은 딸은 세나 아래고 허여빵 스정해도 안웬덴허민 흘 수 엇주게. 가불주게. 아버지가 가렌 허난 따라간거지. 나 그때 죽고헨, 키도 죽아.

102006 @ 삼촌 보기는 잘도 약허게 보인는디예, 강심장이 아니면 쉬운게 아닌디게,

102006 #1 아니 나이 그 주사 썩 골른거난 정 와가민, 속으로 콩당콩당콩당 그때 차 이서시민 걸영으네 아이구,

102006 #2 걸언 남주봉도 올라갓다 내려왔다 현 거 아니라?

102006 #1 남주봉, 그 관덕장 마당까지 강,

102006 @ 삼촌은 막 요망질꺼 답아?

102006 #1 야이 집이 어서난때지.

102006 #2 나 그때 서울간 살아부난 4,3 나던해에, 정월맹질 먹으레 서울가부난 에 그 해 7을 들영 4,3난거라. 경헨 4,3은 피헛주게.

102006 @ 47년쫘? 48년쫘?

102006 #2 4,3피허고 또 서울에 살당 또 내려올 무렵에 또 6.25가 날 무렵에 또 내려와부난 6.25도 안 당하고 난 곳은 풀을 안반, 이레 저레 피해전,

102006 @ 삼촌도 이서시민 산에 갖갓다예?

102006 #2 응. 나 여기 이신때에 우리 밤이 야간다니는디 그때부터 흐깁 뒤송송헛어.

102006 #1 야 느네 아버지네 무사 산에 안 가완?

102006 #2 무사 안 가와게,

102006 #1 가완, 가완,

102006 @ 노형 사람덜은 그 사람이 그사람이난 정으로 묶어져노난, 다

102006 #1 야이가 육지가난 안갓주.

102006 #2 나 혼자 육지 간 살아부난 안 갓주, 우리 친정아버지넨 다 산에 간 살안.

102006 @ 아오야 대단허다예, 무섭지 않헐마씨? 혼자만도 가고?

102006 #1 아니 혼자만 가는게 아니라 산에는 그때는이 막 그냥 줄 이성 막 갓 다리 왔다리, 갓다리 왔다리, 이녁집 ㄹ추룩 해신디, 좀 틀린 사람 봐지민 서로 가 막 해줘. 빨리 가불렌 허고 저레 왁텐 허곡 경 곶아줘.

102006 #2 서로 연락덜 해줬주게.

102006 @ 뭘 행 먹언마씨? 거기 강 밥을? 솟도 짚어정가?

102006 #1 솟이엔 현건 냄비덜이나 ㄹ정 강으네 불습는것도이 멥갓낭 알 아. 멥갓낭, 멥갓낭 물론 건이 연기가 안나. 그것만 해당 지더. 멥갓낭, 건 낮에 불 습아도 연기가 안나. 멥갓낭만 해당으네,

102006 #2 산에서난게 연기만 나도 걸리카부텐 못허곡게,

102006 #1 지들커낭 그것만 막 해와. 멥갓낭 멥갓낭 만허기도 해. 산에,

102006 @ 세상에, 연기 안 피우젠,

102006 #1 응. 연기 피우민 연기 따랑 와. 가만이 잇당이 연기만 봐. 아래서, 켜 행 잡아오고,

102006 @ 멥갓낭 연기 안나마씨?

102006 #1 안나, 연기 하나토 안나. 멥갓낭 연기 하나토 안나

102006 @ 그걸로 뭘 행 먹어마씨? 뭘 썩가? 죽쌀밥 보리썰,

102006 #1 거기서도 주는 디가 이서. 아래강 뭘 앳다당으네 갈라주는디가 이서. 배급주는 디가 청년덜이 갈라당 갈라주는 사람이 이서.

102006 @ 밥허는 사람 이서실거 아니

102006 #1 이녁냥으로 주민 아무것에나 행 먹지.

102006 @ 여자덜이 헛을 거 아니?

102006 #1 부모덜이 허지. 경허민 메사람 흔 막에 세 살림 살릴 막을 멥글 아. 집도 다 만들어 줘. 임시 영 굽영 멥기렌, 세 살림 사는 ㄹ찌 살게 해주민, 그 사람이 헛나만 솟이 시민, 흔 사람만 해나민 ㄹ찌 해. 이 사름 해나민 또 허곡, 또 허곡 해. 그 세사름이 다 밥허는 게 없지게. 그릇이, 경허민 해나민 허고 해나민 허곡 경헌디 이 문제철이 할망이 막 잘행 살앗젠 해. 거 어멍은 가네 어멍 지금사 오난에게 동철이 할마니,

102006 #2 동철이 할마니 부짚칩 할망이난?

102006 #1 태봉이각시, 그디가 그 어멍이 애기 낳게 똤난 올라강으네 아기난게. 아덜난게. 아덜나난 아래서 청년덜 따올리난 다 가부난 그 스람 헛나 시난 아 기영 어멍이영 다 죽여불언게. 아기 살림 똤허느냐마는이 왓 보난 산에 갓단 내려 갓덴허민 큰 낭을 세와줘. 청년덜이 빗게 사는 사람이 이서. 경 행 왕 보난 칼 총 팍팍 찢렁 죽어부러어. 애기 나니까 아래서 습격왁젠허난에 산에 도망을 못 갓어. 애기 어멍이난 게난 그디 산에 갓단것들 다 내려가부난 내려갓젠허영으에 청년덜이

빛게 상 뭐 높은 냥을 내리난 애기 난 어명이영 애기를 죽여똥 가부런.

102006 #2 아래서가?

102006 #1 경흐난 태봉이가 어명이 돈색이영 그 돈색이 누이영 들앙 텡견네. 어명은 각시 죽어부난 어명이 경해가민 그 오라방이 어디 강 사 해왓신디 좁쌀밥도 행 먹고, 좁쌀죽도 썰먹고 계민 우리 조캐 어린거난이 하웃하웃 해가민 우리 아버지가 영 보당으네 “아주머니 그거 혼수까락만 줍서. 혼수까락만 줍서.” 허민이 두어 숟갈 걸어주민 거 먹고 해나서. 어디 강 해왓신지 태봉이는 잘 해 와. 지네 먹을 건경, 계난 경 곶아. 저 사람은 산에 와도 아덜 잘 들리니까이 우리추록 굶지 안햄젠, 겐 우리가 우리 아버지가 빌영은에 손지 하웃하웃해 먹을 거 어선 해가민 질 어린 것만게 죽쑤는 수갈 빌영, 좁쌀죽,

102006 @ 아이고 진짜, 딴 사람덜은 뭘 먹고 주로 살안마씨 보리찰?

102006 #1 보리로 조로 곶양 주민이 ㄹ레로 올라갓드라. ㄹ레로 영 곶으민 비시시시 나와. 나오민 그거 행 죽정 범벽정허민 딱ㄱ망 막안. 체는 ㄴ실양 계민 우리 기영이 딱ㄱ망 두 번이나 막아나서.

102006 #2 체 섞어진거 행 먹어노난게,

102006 #1 계민이 구부렌 허영 곶쟁이가 이서. 검질매는 곶쟁이, 곶쟁이로 주위를 파내민이 또 똥이 쪽 나와. 딱ㄱ망으로 그 도에꺼 파근에, 우리조캐가 경도 행 큰 아이가 이서.

102006 @ 아이구 세상에 계민 거기서 ㄴ멸도 엇고 송진이나 기억 잇수과?

102006 #1 봄 나가난 땀순, 땀순 몰르지. 멍게낭에서 나오는 순이 이서. 것강으네 막 들어 아장 해 와. 겐디 멍게낭이 제일 하드라. 그거를 그냥 밥도 쌍먹고 국에도 낱 끓영먹고 멍게순

102006 #2 멍게순 그거이 먹어지민 몸에 경 좋덴 허잖아.

102006 #1 몸에 좋은 것보다도 굶으니까

102006 #2 지금 약초냥이 좋덴,

102006 @ 하하 낱 국 끓영 먹고

102006 #1 그것배끼 승키가 업서.

102006 #2 태봉인 부지렁허고 쟈 사람이난 잘 해낫구나. 훌떡훌떡허멍

102006 @ 물은 어뎡 허벅도 가져갓게다예?

102006 #1 어디 허벅이 셔게? 그 사는디가 물 흠신디만 강 짓어. 걸여와 늑 걸여다 주기도 허곡게.

102006 #2 물신디만 짓어신테주게.

102006 @ 허벅잉 깨지카부덴

102006 #1 허벅은 그디 가져가지도 못해,

102006 @ 이불은 가정가고예?

102006 #1 이불 가정간 거 벨로 못반,

102006 @ 여름에 주로 입을 거허고 이불은 오래오래 산데는 안곶아.

102006 #1 가을에 산으로 산으로 가노난 입을 거 이불은 큰 거난 올라갈 때 멧  
밥만 장 내려간덴 해노난 오래오래 산텐은 안 곱아.

102006 @ 춤잔아?

102006 #1 막 높으게 안 지서. 일로 태역이영 막 올려줘.

102006 #2 높은 딴 우이서 보일거난게. 그 안에서만

102006 #1 꺾장 상도 안 다녀. 집안에서 아이덜은 상 다니고 어른덜은 곱양 다니지.

102006 @ 춤잔아?

102006 #1 막 추우민 여럿이 뭉쳐 자니까

102006 @ 불도 비우고

102006 #1 불 피우민 연기낭 하나 사람으로 행 다 심어가불지. 욱든지. 불

102006 #2 마음부터가 겁 먹어노난 추운 줄도 몰라실거라게.

102006 @아이고 세상에 병 걸렝 죽은 사람도 이실건디

102006 #1 영종이 어머니 그 삭삭헌 어른도 영종이 아시 거 업영 바깳디 살아신  
디 사람도 배고팡 들어가민게 막 나가랜 욱허민자 기네꺾지 심어간덴 나가민 어  
뎡허여? 게난 배고프고 굶고 행 아래 왕 죽고

102006 #2 배고팡 울엇주기에.

102006 @ 그 애기도 죽고?

102006 #1 아래 왕 죽언, 내려완, 겐 그때 산에 갓다 온 애기덜 거쟈 죽언 게. 아  
는 사람, 죽어불언. 주인 오라

102006 @ 멧슬짜리 올라갓당 내려완어련예?

102006 #2 어린 가논난 살수가 신거라게.

102006 @ 살수가 엇수다.

102006 #1 우리 조카도 너슬에 죽언게. 두 슬모지 여섯슬난 건 살긴 살고, 상업이  
도 아들 두 개더라. 아덜 두개 다 죽어불고, 산에 갓당 살아온 애기덜 하나토 어서.

102006 @ 그때 거기 남자덜은 거의 다 죽엇다예?

102006 #2 거의 죽엇주.

102006 @ 게도 삼춘 아저씨라든가 누구네는 잘 돼수다예. 나중에 예비검속행으  
네 또?

102006 #1 또 심어강 죽게살게 맞안 또 심어당 우리시집이가 흐김 이신집  
이난 뭐 잘행 맥이난,

102006 @ 운명이다예

102006 #1 또 그이 우리 씨아지방이 심어 강으네 헨디, 흐디 우리집 아방꺾라  
누게 영락부짱게, 오렌, 흐를에 흐번씩 현병대 해둬서 한짓물에 왔다갓닥헨덴, 꺾만  
이 사시난 지나가명 시계 하나 벗영 쥐렌게. 올라가명 주난 그거 폴양 너븐드르 소  
원이네 용생이네 뭐 내련 자꾸 때려렌 맥이고 그거 폴양 경흐난 술 사떡이고, 빵  
사떡이고 그 시계 폴안 성 주난 성은 형무소 간 죽어부리고,

102006 @ 쫓쫓, 삶과 죽음이예?

102006 #1 호선이가 경 골안게, 석규는 돈 시난 돈 맥이난 덜 맞았젠,  
 잘도 맞았젠,  
 102006 #2 스뭇 예펜만 그 고생을 행 살았주게. 기가 맥혀라 진짜로.  
 102006 #1 호순이 잘도 맞았젠,  
 102006 @ 그 맞은 분은 지금 살아계셔마씨?  
 102006 #1 죽었주.  
 102006 #1 용생이도 죽고 하원이죽고  
 102006 @ 억울헐 어떻게 한이라도 뭇가 기록으로 남경 흐김 넘어사민 진  
 실을 밝혀야 뉘는데  
 102006 #1 아 경은해도 그 통에야 경 허주마는 오래오래 살아집니까? 산때까지  
 102006 @ 나쁜짓을 헐 사람들은 토벌대 순경이여 뉘여, 자손덜은 잘 뉘 사는디  
 도 잊지예?  
 102006 #2 다 죽언  
 102006 @ 거기도 다 죽고 순경이영  
 102006 #2 다 죽언 수원이네 안뉘곡계,  
 102006 #1 용생이 아기 어서불고  
 102006 @ 순경에 붙은디?  
 102006 #1 우에 안 가온 사람덜  
 102006 @ 순경  
 102006 #1 순경펜은 펜이지 흐무데기 뉘불엇지.  
 102006 @ 순경에 붙은 사람덜 나쁜짓 헐 사람덜도 잊지예?  
 102006 #1 그때는 해신디 산 사람이 어서. 이제,  
 102006 @ 일제시대 자손덜이  
 102006 #1 텔레비전에 보난 일본 할머니들 2백뉘명이렌 이백 육십명이렌, 죽은  
 사람은 반, 그계 해결 뉘건가?  
 102007 @ 응 게믄 중매결혼을 하셧습니까? 연애결혼을 하셧습니까?  
 102008 @ 사주는 보셧습니까?  
 102009 @ 혼수품이나 결혼 예물로는 뉘뉘 가져갓수과? 아버지도 엇고  
 102009 #1 어머니가 해젧지. 이불두개 요흐나, 요강흐나, 베개두개,  
 102009 @ 퀘엇고?  
 102009 #1 퀘엇고, 퀘 안해퀘, 퀘 헧져. 서문시장에 강 성님이 해준 거답다. 퀘  
 언니가 해준 거 답다.  
 102010 @ 결혼식은 어디서 하셧습니까? 결혼 사진을 찍엇습니까?  
 102010 #1 그냥 그 시집이 마당에서 해연.  
 102010 #2 옛날은 대개 마당에서 헧주.  
 102011 @ 기억은 좋은 때 기억은 신흔살림은 어디서 하셧습니까? 어머니랑 같이  
 사셧지예?



102012 @ 아 같이예?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식은 어떻 두셨수과? 손지,  
 102012 #1 아들들에 딸셋, 손지는 성손지 셋, 경숙이네 셋, 우리 혜숙이네  
 둘, 다섯, 우리 순덕이네 세 개, 여덟 미숙이네 하나허민 아홉, 현숙이네 둘에 허  
 민 열 하나, 나 증손이 세 개라. 열넷, 열네명 한 건 아니지.  
 102013 @ 시집살이에 대한 기억을 말씀해 주십시오.  
 102013 #1 혼번도 안싸와봐. 혼번도,  
 102013 #2 싸울 일이 서,  
 102013 #1 나 고생허명 산편은 아니. 다른 사람덜 더 고생헌 사람덜도 많이 이시  
 난, 흐끔 집안이 시집이가 이신 집안이난, 이녁거로 먹영 사니까,  
 102013 #2 신 집안이난,  
 102014 @ 자식들의 결혼은 어떻게 하셨습니다?  
 102015 @ 메누리와 사위에 대해 이야기 해 주십시오?  
 102015 #1 아직까지 못허는게 어서. 착해.  
 102016 @ 이밖에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 3. 밭일

#### 보리농사

103002 @ 보리농사를 지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103002 #1 지일 처음에 보리농사 지젠허민 옛날에는 이 걸음이 아니고 콩을 갈  
 앓어. 콩, 콩을 갈앙으네 칠월 그물어가면은이 음력 칠월 그물어가면은이 그 콩을  
 비연 고랑에 짹짹 깔아. 걸음으로 짹짹 깔아. 밧 하나 전부를 깔아.  
 경헌 그거 깔아 낱 소로 갈아. 묻어지게 묻어지게 갈앙 그걸 썩여. 그걸 썩으  
 면은 또시 이제 소걸름을 이제 벤소레 통시엔 허여 우린, 통시레 막 영 갖다 놔. 갖  
 다당 도새기가 막 불황으네 똥을 싸. 게민 것이 이제 1년이 되어 1년이 돼민  
 가을돼민 그걸 내쳐. 내치민 이제 물 빠져. 물 빠지민 걸름물 빠지민 밧디 시꺼다  
 놔. 게민 시꺼다 낱 막 뿌렐 씨 뿌려. 씨 뿌령 이제 갈아. 게민 보리야. 옛날엔 경행  
 허민 거름이 이마니 막 나고 경 좋아.  
 103002 #2 비료가 비료가 없을 때니까.  
 103002 #1 비료 없으니까 콩으로 허영, 소똥, 도새기똥으로 걸름 낱,  
 103002 @ 다 마을마다 틀리다예? 노형은 지금은 콩 비싸고? 아주 옛날엔 보리농  
 사를 지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103002 #1 옛날, 옛날에만게. 옛날 우리도 나도 콩을 헛어. 콩을 콩 비영으네 고  
 랑에 깔렌 해. 고랑에 짹짹 깔아가.  
 103002 #2 갱 콩을 덮어놔야 썩영 거름이 돼.  
 103002 @ 콩깍지만이 아니고 콩 자체도 다,

103002 #2 예 다.

103002 #1 콩깍지 안헌 때,

103002 @ 보리를 위해서 콩을 장만해영 다 버려버리는구나예? 다 썩히는구나예?

103002 #1 버리는게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콩 갈앙,

103002 #2 열기 전에 강메기 부르기 전에 막 이파리덜 막 우트레

103002 #1 콩으로 고장도 안 핀때,

103002 @ 고장도 안 필때

103002 #2 걸름뒤게,

103002 @ 나는 콩 다 낭 가을에 나는 거난 맞아 맞아.

103002 #1 칠월달에, 칠월달에 영 비워냥 밧 갈앙 콩을 썩여.

103003 @ 세상에, 그믐 보리밭 거름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아까추록

103003 #1 걸름마련할때는 그 걸름이 소 매민이 소 똥 싸잖아. 똥싸민 그 출맥인 거 영허민 그 똥 썩 거를 도세기 동시에 갖다 담아냥 담아노믐 도세기가 밟으잖아. 밟으고 자기도 똥 싸곡. 경허민 그것이 걸름이지. 경헨 보리에 거름이지.

103003 @ 가을에?

103003 #1 경헨 걸음해영 보리 갈앙 보리비민 보리 다시 비어. 비면은 흔번 갈아 엮어. 엮으면은 흐깁 이땅으네 보리줄기가 좀 삭아. 삭으면 또 갈앙 조, 조씨 빼영으네 밟아. 조, 즈썰 잇잖아. 즈썰,

103003 @ 아 조 그게 멧월달 뵙니까 그믐?

103003 #2 오월들에

103003 @ 유월들에?

103003 #1 유월은 나민 검질메고, 오월들에

103003 #2 오월들에

103003 @ 보리해난 그 보리냥쟁이들?

103003 #2 예.

103003 #1 보리 빼어난 끝에 조 가는 거. 절기로 가. 절기로 강으네 절기가 일르면(전화)

103003 @ 아아, 조가 봄에 허는 게 아니고, 거의 여름에 들어가는구나예. 그믐 보리 마마리는 다 거뒤들이고, 그 보리 냥쟁이?

103003 #1 거뒤들이고 보리냥쟁인 눌엇당으네 그냥 검질로 막 불 숨아. 불 때여. 옛날엔 불 때영 밥행 먹어.

103003 #2 땀감, 땀감으로

103003 @ 땀감으로예? 마련행 보리걸름 그렇게 해서 마련행 보리밧 걸름, 누가 그거를 또 다 저 글채에다가 담앙?

103003 #1 잇는 집에는 사람사서 하지. 우리대로 업는 사람은 자기들이 막 해. 자식도 시키고, 어명도 허고, 아방도 허고. 잇는 집인 사서 허지.

103003 #2 게난 옛날은 밧디 강 검질 뿍앗으니까.

103003 #1 학교도 안 시켜. 학교 가는 시간이 없어.  
 103003 #2 학교 가는 시간이 없어.  
 103003 #1 저기 저 가을들어가민 좀 밤에가 길어가면 밤에 야간, 야간이나 흔 멧  
 들간만 밤에, 것도이 내내 안허고이. 가을 늦어가민 가을서부터 봄까지,  
 103003 #2 겨울 석달만, 겨울 삼개월만,  
 103003 @ 야학은?  
 103003 #1 야학은, 것도 일년내내 허민 좋지.  
 103003 #2 삼개월만, 농번기엔 못허고, 농한기에만,  
 103003 @ 삼촌 두 분은 자꾸 봐났수과?  
 103003 #1 우알동네야. 이제는 막 ㄴ짜 옛날은 요디라도 요건 웃동네 요건 알  
 동네 해.  
 103003 @ 두 분 다 똑똑하셨을 거 닻아예?  
 103003 #1 아니, 똑똑허지도 안허고 그냥,  
 103003 #2 아이고 똑똑허고 무싱거고 옛날에 우리 커올때야 무신, 아이구 진짜로  
 야간도 춤 우리 아부진 야간도 안 보내주켄.  
 103003 @ 일본도 안가고?  
 103003 #1 일본가민 좋지. 그때 시절 일본 간 사름,  
 103003 @ 여기에서만 살았수과? 여기 남자 또 만나고?  
 103003 #2 응. 일본 가시민 돈 벌었지.  
 103003 @ 여기 남자 정해주면은 그냥 결혼행 여기 살고, 그런 경우도?  
 103003 #1 아니 우리 나인 다 경했어 우리 나이 흐뎡 잇당 간 사름은 자기대  
 로 연애도 허꼭 허주마는이 우리 팔십이 넘었으니까 그때가 어느때요. 하하하,  
 103003 #2 지금 팔십까지 다 경한 가서.  
 103003 #1 부모네가 여기 가렌허민 나빠도 좋아도 가야지. 뭐 언제 흔 번 뭐  
 얼굴보고 말곤고 행 갑니까?  
 103003 @ 계도 다행이우다. 4-3때 영 막곶닥해실건디?  
 103003 #1 곶다허긴 뭐,  
 103003 @ 베라벨 인생덜이 다 이십테다게?  
 103003 #2 맨날 밧디 강 일만하는디 고을 게 뭐 잇나게, 고을 게 에이고 불쌍.  
 103003 #1 그때는 세숫비누도 없어. 그냥 세수해. 물에다 그냥.  
 103003 @ 제주도 분치고는 피부가 하양하니까,  
 103003 #1 세숫비누로 이성 세수하는 사름은 일본 강 온 사름이라. 나도 일본 갓  
 다오난 우리 큰 사춘아주망이 수건 하나 비누 하나 주난, 그 비누로 씻질 못해 아  
 까왕. 얼굴도 못 시쳐 아까왕 보기만 해. 수건 하나 비누 하나 주난 처음 일본서  
 완. 그 생각이 나.  
 103003 @ 아유, 정정행으네예. 말씀도 잘하시고,  
 103003 #1 그 생각이 나. 겐디 우리언니는 나것도 막 아상 시쳐볼곡 욱으니까.

103003 #2 너네 언닌 잘도 뽀쟁이라나서.

103003 #1 7년 차이니까이 우리 언니는 그 사이에 하나 죽어불었어. 우리 언니 하나, 나가 곱정 놔두민 아상으네 비누 써나민 알아지잖아 깨끗허영. 그거 생각 나.

103004 @ 보통 보리는 언제, 누가 어떻게 잡니까?

103005 @ 그믐 보리씨는 어떻게 뿌립니까?

103005 #1 보리씨는이 옛날에 짝으로 즐은 망탕이가 있어. 끈행 이렇게 영 들앙

103005 @ 씨망탕이?

103005 #2 벳짚으로 짱 이만큼, 망탕이가 있어. 씨망탕이라고, 독지에 걸러메가지고 이렇게,

103005 #1 남자덜이 즐아. 이거 메어그네 한꺼번에 이 고랑을 두고랑씩 잡아. 두고랑씩 잡으멍 짹짹 빠어가. 잘허는 사람이 이거 이마니도 잡아. 쉼쉼하고. 우리 아버지지는이 서투러. 우리 아버진 옛날에 한문만 헌 어른이라 요것만 즐 뜨게 뜨게 뜨게, 헤헤 게민,

103005 #2 겐디 그것도이 우리 아버지도 그 일본 강 살앙 그걸 일을 안해나니까 막 정성들영 쉼 뿌러이. 게민 요 고지 두 고지만 잡앙으네 경 정성들영 뿌려도이 밧 가운데 슴 들라정 반쯤은 들라지드라게

103005 #1 이거 흥난 안빠영 놔두고이. 더러 빠영,

103005 #2 겐디 우리 어머니는 그디 이거 두 고질 안 잡아. 그냥 그레 돌아상 작작 뿌리고 저레 돌아상 작작 뿌리고, 막 영 뿌려도이 그런 디가 없어. 경허더라게.

103005 @ 어머니가 더 잘했다는거지예?

103005 #1 게난 아버지는 그 어털 때 일본 강 살명 잘 연습을 못헌거지.

103005 #2 우리 어머니도 저 만딸이나가 무조건 해봤던거라. 한림이주마는 경 우리 어머니 경 이렇게 고질 영 잡지 안앙 그레 돌아 상 작작 저레 돌아상 영 막 뿌리꼭 해도이 그런 디가 없드라고

103005 #1 우리 어머니 경 안해나서. 아버지가 다 해

103006 @ 원래는 남자가 뿌리는 건디 이젠 여자가 다 잘해부렀구나. 세상에, 그믐 보리씨는 경 뿌리고 보리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보리 종류?

103006 #1 보리 종류가이 이제 세가지야. 곁보리, 즐보리, 살보리,

103006 #2 맥주보리도 저,

103006 #1 즐보리가 맥주보리지.

103006 #2 응. 즐보리도 잇고, 검정보리도 잇고, 보리가 여러 가지야.

103006 #1 검정보리 난땨 열나 안땨어. 혼 십년, 십년은 더 땨다이. 검정보리.

103006 #1 십년 더 땨지이.

103006 @ 즐보리, 슬보리, 곁보리에? 주로 먹는 보리가 슬보리? 곁보리 뉘허는 것짜?

103006 #1 곁보리 처음에 슬보리가 네중에 낫어. 맨 처음엔 곁보리만 낫어.

맨 처음에는,  
 103006 #2 맨 처음에 걸보리만,  
 103006 #1 한쪽만,  
 103006 @ 한쪽만예?  
 103006 #2 중간에 거 쓸보리엔헌거 중간에 나온 거. 맥주보리는 중간에 나온 거. 맥주보리는 지금 맥주허는 보리.  
 103006 #1 지금 맥주 당그는 보리,  
 103006 @ 예. 걸보리는 어렸을때도 이섯지예?  
 103006 #2 예예 맨 처음에부터  
 103006 #1 질 처음에부터, 걸보리가 무정해 질 무정해.  
 103006 @ 무정해예?  
 103006 #1 지일 무정해. 겐디 밥 거칠어.  
 103006 @ 밥 허민 거칠어?  
 103006 #1 걸보리니가 막 부트는 게 이성으네 까락까락행으네.  
 103006 @ 그믐 나중엔 다 술보리했수과?  
 103006 #1 나중엔 걸보린 제외하고 줄보리, 술보리만 같았지,  
 103006 @ 아, 줄보리 술보리만,  
 103006 #2 줄보린 지금 맥주보리.  
 103006 @ 맥주보리예. 나도 어렸을때 보리밥도 허고예  
 103006 #1 농촌에 혼집에 보리 멧가마 영 바치렌 혈때는 맥주보리 많이 같았지. 맥주보리가이 저기 무게가 잘 나가. 알맹이가 커. 걸보리보다,  
 103006 #2 무게도 잘 나감뿐더러 거 맥주공장에 들이젠, 맥주맥도 바찌고 했네. 웨정때,  
 103006 #1 웨정때 막 그거 바칠 때.  
 103006 @ 웨정때 공출을 이걸로 허렌 막 했구나?  
 103006 #2 공출 웨정때 공출 안해난 게 없어. 목화도 했지. 감저빼대기도 했지,  
 103006 #1 그 머위때도 해서 우리.  
 103006 #2 머위때도 차 만들거엔 행으네,  
 103006 #1 나 어린아이가 그걸 허레 가왔어. 그 내창에. 저울로 멧으네 혼집이 할당을 시켜.  
 103006 @ 야생 머위대는 몸에 좋은 거 알앙예  
 103006 #2 수당 멧기로 행 바치렌, 할당을 시켜노난, 웨정시대에 얼마나 뉘해난 줄 알암서.  
 103006 @ 처음 들어뵈수다예.  
 103006 #1 나 머위대 저은 생각은 생생해.  
 103006 #2 자굴도 해단 해났네. 자굴도  
 103006 #1 자굴도 했어.

103006 #2 자굴이엔헌 거, 고추 밧디 고추행으네게 소나 말 맥이민 저 씨부트민 막 존네허는거주게. 여물 부튼거난,  
 103006 #1 그것이 왜정때이 총 알맹이 들어간덴,  
 103006 @ 화약총 아아 자굴?  
 103006 #1 화약으로 들어간덴 자굴씨가  
 103007 @ 이제는 보리밭 밟기는 어떻게 험니가?  
 103007 #1 보리밟는 거는이 그 섬피엔 헌 것이 있어. 섬피엔 헌 것이 이름이 섬핀데 팡나무가 있어, 팡나무 이렇게 덩어리진 거, 그것을 과당 이마니허게 과당 대냥 묶영 걸로 이거 돌 세개 낳 일로 막 끄서. 끄시민 민짜 다려져. 그 영 지그자그 헌 것이 짝, 갓다왔다허멍, 그거 이름이 섬피야.  
 103007 @ 섬피를 했구나예, 건 씨뿌리기 전 보리 밟브는 거?  
 103007 #1 그거는 여기 밟브민이 보리가 알맹이가 무게가 잘 나간덴, 그러니까 밟아줘야. 무게가 잘 나가렌, 밟은 밧디 보리허고 안밟브디 보리허고 영 묶어보면은 밟브디 보리가 무게가 더 나간덴, 그 알맹이가 땡땡허여 밧 블라준 것이,  
 103008 #2 밟이 들어지지 말앙 땅 속에 잘 들어가그네게 밟아주는 거주기게,  
 103008 @ 보리밧 검질매는 거는 몇 번 합니까?  
 103008 #2 보리 검질은 혼 번 매면 말고,  
 103008 #1 왜 두 번매지. 정월에 매고 마긋때 혼번 매고,  
 103008 #2 보리검질은 혼번 매고, 조팏디 검질만 두 번 매주기.  
 103008 @ 한번도 매고 두 번도 매고? 정월에 매고?  
 103008 #1 정월에 매는 사람은 두 번 메야웨고, 혼꺼번에 좀 잇당으네이 2월 말웨민 흐김만 매민 말고,  
 103008 #2 보리밧은 두 번 매는 사람이 드물고,  
 103009 @ 보리밭에는 어떤 ‘검질’들이 자랍니까?  
 103009 #1 지일 이제는 어신디 복사콜이엔 헌 검질이 있어 복사콜.  
 103009 #2 복사콜, 쉼시락콜,  
 103009 #1 쉼시락콜은 쉼 아래 나는데, 복사콜이 지일 문저 낭 더글더글더글해. 게민 우리가 걸 그것이 그거 혼번 매민 두불이엔 해. 것만 돌아땡기멍 혼 번 매냥 네중에 거 복사콜, 저 쉼시락콜, 알로만 기어나는 거. 경험 복사콜 아니 매어난 밧디는 검질매기가 힘들어. 큰 것이 막 살아나니까  
 103009 @ 이름도, 어떻 우리 압니까게 그런 거 이름이영,  
 103009 #1 복사콜, 근디 왜정때 먹기도 했어.  
 103009 @ 복사콜을? 어떻 먹어마씨 반찬?  
 103009 #2 땡형은에게,  
 103009 @ 숲양?  
 103009 #1 우리 이제 먹는 디 게민이 복사콜이니까 문작허지 안해게. 먹는다 게민이 좀 까실까실해에. 숲아도,

103009 @ 웬장에 찍엉 먹언?  
103009 #1 그때가, 복사콜이 먹어난때가 4:3스건때까지 먹엇어. 뒷해까지 먹엇어.  
103009 @ 다른 검질은 아니고 복사콜을 먹엇다?  
103009 #1 복사콜이 질 먹는 것엔 질 하질이지. 먹는 것엔 질 하빨이지. 질 하빨이야.  
103009 @ 다른 검질은 안 먹잖아예?  
103009 #1 다른 검질은 뭐 썩도 검질이니까 것도 막 양반이지.  
103009 #2 거고 달래,  
103009 @ 달래 꿩마농?  
103009 #1 것도 양반이고썩도 양반이고,  
103009 #2 4:3 곳에 제일 많이 먹엇주게  
103009 #1 쓸은 조금 낱 막 버무령 어머니가 밥을 쥐. 밥에도 막 낱 해 썩을?  
103009 @ 복사콜을?  
103009 #2 아니, 썩  
103009 #1 달래는 막 그냥 막 무청으네 막 국도 행 먹고 그냥,  
103009 @ 뭐행 먹어마씨?  
103009 #1 국도 끓여 주고, 죽도 콩ㄴ루 낱 죽도 썩 먹고,  
103009 @ 달래 낱 콩ㄴ루 낱 죽도 썩 먹고 아 이런 것도 잇구나예?  
103009 #2 콩ㄴ루 낱 죽 많이 썩 먹엇주게.  
103009 @ 아아,  
103009 #1 ㄴ루를 많이 노민 맛잇는데 ㄴ루를 조금 놓고이 그 달래만 막 담아낱으네게 그런 걸 우리가 공출 다 해볼면은 보리공출해볼면 작거든. 작으니까 걸로 때와.  
103010 @ 보리 수확은 어떻게 합니까? 베기, 묶기, 가리, 베는 건 어떻게합니까 보리?  
103010 #2 그냥 호미로  
103010 @ 호미로 베고, 베영으네 어떻 안장덜 멧명이 혼고지에?  
103010 #1 이거 혼ㄴ지민이 이거 두고지 잡으민 줌 짹아. 못 놓아. 짹아. 세고지 잡양 잡으민 긴 걸 무치게 영 짹 잡아가민,  
103010 @ 멧명이 밧테따라?  
103010 #1 밧테따랑,  
103010 @ 묶으는 건 어떻  
103010 #1 몰라노민 이렇게 우이서게 보리로 묶으는걸 만들어, 이렇게 할 수 잇어. 특 해 낱 오고령으네 경 묶영으네,  
103011 @ 홀트민 도깨질을 합니까? 그 다음은 보리가 털어져마씨?  
103011 @ 어느 몫이 타작기 나기전에?  
103011 #2 도리깨로,도리깨로,  
103011 @ 도리깨로 다, 집이 가정웁니가 밧디서 합니까??

103011 #1 집이 와서 마당에서.  
103011 @ 집인 뭐가 실영와?  
103011 #2 췌가, 등으로도,매 집이 날라와야  
103011 #1 밤에 좀 자는 시간도 얼마 없었어. 그 시절엔,  
103011 @ 밤에 날라와?  
103011 #1 밤에 강 잘 져와.  
103011 #2 밤에 혼 10시 뒤통로 하시니까,  
103011 #1 우리가이 ㄱ시락 이서부난 까끝까끝  
103011 @ 경헨 이것도 해봤수과? 홀트는 거?  
103011 #1 것도 헉김 네중예지,  
103011 #2 중간에 그거 생겨가지고 홀트주.,  
103011 #1 것이 좋았지 영헨,  
103011 #2 처음엔 도리개로,  
103011 @ 남자들이 허는 거 아니고 홀트는 거?  
103011 #2 에이고 남자덜이고 여자덜이고  
103011 #1 잇는 집인 여자덜이 허고  
103011 @ 홀튼 다음?  
103011 #1 홀튼 다음 다음엔 도깨로 두드려야지.  
103011 @ 홀트기도 허고 도깨로 두드리기도 허고?  
103011 #1 그거 두드리는 건 쉬와. 나무차 허는 것보다,  
103011 @ 도깨는 아버지가 만듭니까? 것도 낭도 잇고 무사 도깨아덜, 도깨아덜  
햄신고예 그?  
103011 #1 영영 허민 이거 영 때리는 건 아덜이고 영 잡는 건 어시야. 도깨어시  
도깨아덜해. 영 돌령 이디 때리는 건 아덜, 손잡는 건 어시,  
103011 @ 무사 아덜이엔해신고예 도깨아덜?  
103011 #2 도깨아덜이엔 현 이유는 도리개 철에만 쓰잖아. 철에만 쓰기 때문에  
이 아덜놈이 좀 뭐헌 아덜놈은 저 도깨아덜,  
103011 #1 아무 때만 안쓰니까 아덜은게 소소한 말은 부모말을 잘 들어주나? 경  
허니가 도깨아덜거찌 혼번씩 튀어남다.  
103011 #2 그런 의미에서 아닌가.  
103012 @ 게메예. 경헨 장만허민 보리쌀은 어떻게 장만합니까?(연자매, 멧돌, ㄱ  
레) 경헨?  
103012 #1 물류와, 어디 강,  
103012 @ 물류와?  
103012 #2 게난 도리개로 헤그네 장만행으네 털어노면은 불려야돼잖아. 딱시  
불려놓고 이제 딱시 이제 물류와. 물류와다가 딱시 옛날에 저 방앗간 잇잖아.  
방앗간,



103012 #1 멧돌 영 돌아가는 거,  
103012 #2 멧돌 영 돌아가는 거. 옛날,  
103012 @ 뭘방애?  
103012 #2 응. 뭘방애! 알암신게. 뭘방애. 뭘방애 그디 강으네 물섞어그네 해그네게,  
103012 #1 압에 소나 뭐 몰이나 메왕,  
103012 #2 메왕으네게 그치 돌아가명 막 꺾데기 베껴지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리고 멧돌발라 잇어야 각아지니까 쟁헤그네 그거 체에 베껴당 또 널영 물리왕.  
물리왕 불리왕. 쟁헤그네 멧돌에 갈아, 쟁헨 밥 행 먹어,  
103012 @ 무사 갈아야 밥?  
103012 #1 너무 굵어,  
103012 #2 너무 훑어가지고,  
103012 #1 벌르는 거지. 벌러  
103012 #2 벌러야 쌀이,  
103012 @ 겨른 무사,  
103012 #1 동네가 크면 두 개 잇고, 작으면 하나.  
103012 #2 두 개, 작은 딴 하나,  
103012 @ 지금 어디가 어딘지 아는 사람 이섯카? 뭐 겨른 멧개이서신고예? 뭐  
다른 건물 지어져볼거 아니예 어쨌튼예?  
103012 #1 아맹해도 옷베일은 죽으난 하나다이, 알벙일은 두 개,  
103012 #2 그렇지게. 옷벙일은 멧가구 엇네. 얼마 엇네. 겐 하나네.  
103012 @ 옷벙일, 알벙일은 두 개 이섯다는 거리예? 정촌마을은예?  
103012 #1 아니, 우리동네가 벙일인디 옷벙일, 알벙일이이,  
103012 @ 벙일이?  
103012 #1 동네이름이 벙일이야.  
103012 #2 방일이,  
103012 #1 방일이 동산도 있어. 동산도 잘도 좋아. 우리 그디 강 노는 것이 쟁  
좋아 어릴 때.  
103012 @ 방일이 동산이 어디 잇수과?  
103012 #1 이제 잇어. 전수장 쪼금 우이  
103012 @ 전수장이 어디 잇는지 모르는다?  
103012 #1 전수장이 어디냐허면은이 저디 저 서울 주유소 잇잖아. 서녘펜이, 한  
국주방 그 우에,  
103012 @ 한국주방?  
103012 #2 그 부튼딜로 남쪽으로 올라가면 흐김 올라가민 전수장,  
103012 @ 한번 밥먹고 글로 차탕, 사진찍으레 갖다오게예? 아직도 잇다는 그거  
는 개인 소유가?  
103012 #1 아니지. 동네 사유, 벙일이 동네 사유야, 겐 거기서 그거 세금 내주는

거지. 세금이 나오니까,

103012 @ 그거 아직까지 잇다는 게 신기허다예. 거디 뭇방애가 잇엇다는 거?

103012 #1 그 뭇방애는 그 동네네 이거 뻥일이 동산이민 요거는 옷뻥일고 요레 가민 알뻥일이가 잇어.

103012 #2 우알동네가 잇어 가지고,

103012 #1 나는 알뻥일이고 야인 옷뻥일이야. 요거 하나 걸렁, 밧 하나 걸렁,

103012 @ 거른 막 거기 참석허젠허민 줄 서고 새벽부터 강 뭇방애 해야뉘곡 아 버지도

103012 #1 새벽부턴 안허곡 방애가 두 개니까 의논허고 해. 나는 아침새벽에 허 겻다 너는 저녁때 허라 영 허멍,

103012 @ 아버지가 주로 험니까? 또 여자가 허여?

103012 #1 아버지허는딘 좋지.

103012 #2 옛날은 인심덜이 좋고게

103012 #1 남허고 수눌영도 해. 오늘랑 우리꺼 허민 널랑 느네꺼허게 헐.

103012 @ 완전 시간 많이 걸리겟다예?

103012 #1 흔꺼번에 안허고이 먹을만씩 저 먹지.

103012 @ 고평애 낫당?

103012 #1 다 먹어지민 방애지레 가자

103012 @ 집이 왕 ㄹ레 곱앙 그추룩 행 밥헐 먹고?

103012 #1 체다 청 쓸만 행 ㄹ레에 곱지.

103012 @ 이거를 다 여자덜이?

103012 #1 옛날 살아난 생각허민이.

103012 #2 지긋지긋허여.

103012 #1 70나민 막 꼬부랑 할머니 뉘어. 70만 뉘민 우리 어머니가 친정어머니 가 칠십들에 돌아가신디 잘도 영 곱어. 막 곱어불언 하도 해부난 키는 막 커신디 키는 커도

103013 @ 보리쌀로는 무엇을 합니까?(밥, 미숫가루 등) 미숫가루도 허고?

103013 #1 미숫가루도 허고이 쉰다리엔 해영으네이 쉰다리 쉰다리해여. 식혜보다 독해이. 그걸로 밥으로, 밥헐깁 먹당 남으민 쉬민 쉰다리,

103013 @ 지금도 행 먹엄수과?

103013 #1 실편게 나만 안헤 받.

103013 #2 지름집 잇네. 지름집 가나,

103013 @ 계민 미숫가루 어떻헐 만듭니까 이제?

103013 #1 미숫가루는 만들기 험지.

103013 @ 솟뚜껍이 이렇게 얹어놉볶양

103013 #2 비올 때, 맏돌에 갈앙으네게 볶양 체로 치멍,

103013 @ 볶양 맏돌에 갈앙 체로 치멍?

103013 #1 겨난 먹는 게 불쌍해주게. 지금 기계로 ㄴ는 것보다.,  
 103013 #2 게도 먹어보민 맨질맨질헌게 굵어. 체로 쳐도,  
 103013 #1 옛날 살아난 생각허믄,  
 103014 @ 보릿겨, 보릿짚, 보리ㄴ시락, 보리 까끄라기 등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103014 #1 보리카끄래기가 ㄴ시락이라이.  
 103014 #2 응. 보리ㄴ시락은 불 태왕으네게,  
 103014 #1 태왕으네 불 태왕 밧디 덮어. 걸름으로이,  
 103014 #2 걸름으로 더끄기도 허고,  
 103014 #1 막 옛날엔 나무 안허니까이 그 보릿대는 막 불숨아 불 때.  
 103014 #2 보릿대 땀감으로,  
 103014 @ 놀 일어?  
 103014 #1 놀엇와둬서 뽕앙당 뽕앙,  
 103014 #2 놀엇당 그 돼지 추우면은 돼지 집 속에도 거 담아주곡. 사람이민 이불 주듯이.  
 103014 @ 애기구덕에도 애기 오즘쌀때도 다 보리낭쟁이?  
 103014 #1 아네, 옛날엔이 기저귀도 안 굴앙 그냥 눅혀.오즘 싸면은이 오즘 싸면 이제 뭐 기저기 하지이 그 아니 젖인 거 영 놔. 옆이꺼, 경 행 그냥 재와. 그 아기덜을, 경해도 궁둥이가 뽕송뽕송 해. 싹빠 체운 거보다 보리낭에 눅힌 아기가 뽕송뽕송 해. 헤헤,  
 103014 #2 경해도 건강허게 크곡,  
 103014 @ 계난예?  
 103014 #1 나도 우리 어머니 밧번 허는 거 봐서. 오즘싸면은 그거 보리낭 옆이꺼 놔. 계민 물어지는 거야,  
 103015 @ 보리농사에 얽힌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ㄴ시락 들엉 뭐허거나 생각나는 거 이시민 나중예라도  
 103015 #1 꿩득세기 난 밧은 보리가 좋아야, 보리 나쁘민 꿩이보이니까 못아찌, 좋은 밧디, 영 보리 비당보민 프르릉이 놀아가. 놀아가볼민 꿩득세기 놔똥으네이 막 꺾꺾지 비어가사 놀아가. 아까왕게.  
 103015 #2 중싱도 아까왕,  
 103015 #1 겐 어떤 사름은 걸 가져와 불어이, 어떤 사름은 그냥 놔두민 뒷날 봐가보민 다 웅겨가 어드레, 없어, 없어. 자기 좋은디레 강 또 새끼 꺾젠, 계민 가져오라가민 꿩이 막 운다. 꿩이,  
 103015 #2 옆이서만 살아. 옆이서만 막 감돌아.  
 103015 #1 계민 저 사름 나쁘다 허지 꿩이 가져가 불민.  
 103015 @ 난 또 꿩 발견똥민 꿩이 안 나타난덴 들어신디 그게 아니구나예?  
 103015 #1 왕뽕 어시민 얼마나 아프냐 속이 우리가 애기 잃어볼민 아프듯이, 어떤 사름은 땀이 안 가져가는 사람이 잇어. 그냥 들랑 놔똥 날라당 그 새끼 깨와.

103015 @ 꿩독세기 먹어난 기억이 이서부난,

103015 #1 영주 밧디 보리 빌때이 우리 시어명이 원 못가져가게 해여 “내불라  
임제 다 잊져. 임제 이신겨여.” 꿩독세기 가져가 보질 못해서. 우리 시어머니가  
경 시켜. 속 아프지이 우리가 아기 잃어버리듯이,

103015 #2 불쌍허드라. 국국허멍 판 디 안 가드라.

103015 @ 강생이나 뭐나 너무 사랑이 지독허드라고예. 살면서 봐가난예, 진짜 뭐  
같은 엄마로써 못해. 막 더위먹거나 뺨 봐진거나 어틸 때 이런 거 추억은 잊수과?

103015 #1 왜? 보리 비레가민 이마니 진게 잊어? 아기 보명이 검질로 뵈거 대가  
잊어? 이마니 진게 잊어. 딸기 탕 그거 먼 풀이엔 허나? 탈 꿩는 거 무싱거엔 허  
나? 거 질어. 꿩는 거 이서.

103015 @ 강아지풀? 그거 탕 보리탈 탕 꿩으네.

103015 #1 거 두 개나 해영 와. 집이 가정 와. 꿩, 일름을 모르겠어.

103015 #2 난 탈꿩미, 탈꿩미. 탈 탕으네게 꿩으네게, 탈꿩미 우린 불러낫저게  
탈꿩미.

103015 @ 탈꿩미?

103015 #1 겐 이마니 질게 해영 두 꺾 가정와. 아래 동생이 이서나서, “하나줘  
하나줘” 처음에 줄걸 주민 뵈는디, “안돼 안돼” 막 헛단 내중에 주는 건디 허나,  
주젠 탕 와신디 허나만,

103015 #2 탕 왕으네 동생덜 막 줘나서.

103015 @ 남동생마씨?

103015 #1 아니, 여동생.

103015 @ 자매가 이시난 좋지에 그래도 ?

103015 #2 하영튼 요마니 진 거라, 요마니.

103015 #1 더 진 것도 이서. 거기 우이로 꿩으네,

**조농사**

103016 @ 조 농사를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103016 #1 조 농사를 그물에 섞어. 메칠뵈면은 심피로 굴라나 물이영 이신집  
이 불봐

103016 @ 소리 해지쿠과? 해봅서!

103016 #2 워릴러러러러러 요므시야 흐저

103016 #1 어러러러러러얼얼얼얼얼 행으네 얼 하량 허민 곳이야.

103016 #2 남자가 했으면 좋은데 난 만달로 낳기 때문에 나가 주로 해낫주게. 겐  
디 여러 개 줄 행으네 한 사람만

103016 #1 서너네개까지 매어,

103016 #2 다 따라허여.

103016 #1 물이영 얼릴릴릴릴릴 허는 소리에 하나만은 얼릴릴 혈수 거 없어,

103016 #2 강으네게 어염에 구석떡이에 강 들릴때는 얼릴릴릴릴 황 둘러그네 돌아오는 것만

103016 @ 소보다 말이 더 잘 밟아요?

103016 #1 예. 빨라

103016 #2 지금은 안 밟아도 해 먹는데 그대는 왜 그렇게 밟았는지 모르겠어?

103016 @ 씨가 잘 들어가라고,

103016 #1 지금도 조 허민 불리더라. 아니아니 불려 지금도 불리더라.

103016 #2 기이 들이싼 놘둔줄

103016 #1 불린 디를 보면은 불린 자국에는 많이 잘 나. 잘나는데 이디 무사 산디 잘 안나 하나씩 나도이 휘척휘척허고이, 이 불린 딴 짜각허영 잘돼. 밟자국이 난게, 게난 조는 불리렌 허는거야.

103016 #2 게난 그 종자가 나도 밟이 통통해지렌, 경헨 더 불르는 거주기게.

103016 #1 산디도 불려. 나룩 말양 산디가 잇어이. 것도 불려이.

103016 #2 것도 불려

103016 @ 씨뿌리멍 언제 허여마씨 것도 조 헐 때?

103016 #1 아니 허기 전에 늦은 봄에,

103016 #2 늦은 봄에

103017 @ 조밭 거름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이거는 보리하고 다르구나예? 걸름 걸름 조밭 걸름?

103017 #1 조밭은 걸름이 없어.

103017 #2 조밭은 걸름없이 해여

103017 #1 그 보리에 거름 해영 놘뒀네. 보릿그르에 가니까.보리 해나쁜 가니까.

103017 @ 걸름이 뒀었다는 말이다예.

103018 @ 조는 언제, 어떻게 갑니까?

103018 #2 조는 5월달에

103018 #1 조는 음력으로 허는 거니가 이른대는 5월달에 조검질 매똥 제사행 먹어.

103018 #2 5월 중순똥면은 뿌려.

103019 @ 줍씨는 어떻 뿌립니까 보리허고 똑같아?

103019 #1 줍진 거니까게 그냥 보리씨 뿌리듯 뿌리지

103019 #2 줍진 거니까 혼주먹 췌면은 열 번 뿌려야 돼어.열 번

103019 #1 뿌릴 축 모르는 사람은 콧콧 나가불민 막 병어리로 나가고,

103019 #2 게난 너미 많이 뿌리민 조 우이 뽑아줘야 허기 때문에 뽕젠허민 그것도 인력이 많이 들주게. 너미 많이 뿌리민 안똥주게.

103019 @ 여자도 뿌리고 남자도 뿌리고 조건에 맞춰,

103020 @ 조밭은 뿌리고 어떻게 밟습니까?(말때, 남테나 돌테, 꿈게)남테 안들어

뵈수과?

103020 #1 그거는 동쪽에 있어. 이렌 없어. 구좌읍부터 잇더라.

103020 #2 그거 잇는디가 있어.

103020 @ 남테는 동쪽, 뵈테는?

103020 #1 것도 구좌, 여기는 나무로 현 섬피고 그딘 큰 토막에 툯툯 부쳐.

103021 @ 조밭 김매기는 몇 번 합니까? 즈작벳디 식뵈도 뵈뵈 헛디다마는예?

103021 #2 두 번

103021 #1 식뵈도 메곡, 식뵈도 메곡, 네 번도 매고 이제는 방석 깘아안주만

103021 @ 저 보리보다 어떻 검질을 뵈수과?

103021 #1 어떻 계난 영 안장 딱깁망 들렁

103021 #2 경 안허민 종자가 뵈아져 불주게. 놀어져불언,

103021 #1 영 놀렁, 이제는 방석 깘앙 앓지만 이제는 경 안해.

103021 #2 항상 궁둥인 들러줘야 허기 때문에,

103021 #1 항상 들러야 뵈어.

103022 @ ‘검질’이 조허고 비스뵈한 검질이 뵈렌 헛니까?

103022 #1 재완지, 복클, 다른 건 복클, 재완지, 다른 건 뵈 썩도 나오고. 이디선 조밭에 나는 거 재완지라고,

103023 @ 조 수확은 어떻게 합니까?(베기, 뵈기 등)조를 벨 뵈 때 틀러마씨?

103023 #2 조는 수확은 이렇게 호미로 저 베어놓으면은 그 ㄱㄱ리만 꼭대기만, 꼭대기만,

103023 @ 홀터? 호미로 따?

103023 #2 호미로 따. 호미로 따근에 이제 저 가마니나 뵈세 답아다가 집이 갖다 뵈다가가 뵈리와그네 저,

103023 #1 뵈려야지. 도리깨로

103023 #2 저 도리깨로 털던지 아니면은 그 뵈방애, 뵈방애로 강 둥글렁으네게 터는 수뵈끼,

103023 @ 두 가지 어느게 좋고 나쁜건 엇고마씨?

103023 #1 뵈방애는 혼자 뵈허는 거니까 혼자 두드리는 건 허지 도리깁, 즉 으나 하나,

103023 @ 즉으나 하나

103023 #2 두가지로 타작

103024 @ 덩드렁마께 전쟁이쵸다예? 조 타작은 어떻게 합니까?(이삭 따기, 도리 깨질, ‘덩드렁마께’ 등)

103024 #2 도리깨로 털던지,

103024 #1 뵈방애 뵈아.

103024 @ 덩드렁마께도 썩니까?

103024 #1 밤이도 아장 막 두드려. 밤이도 덩드렁마께 적어지난 알안?

103024 @ 영 저 도구리에 낳으네 영 그 감 뺏는 것처럼?  
103024 #2 그게 덩더렁마게주게.  
103024 #1 도구리에 낳으네 콩 백실 때 숲양 백실 때 덩더렁마게로 영영,  
103024 @ 그른 거 백실땀 어디에 낳? 명석에 낳?  
103024 #1 아니아니, 영 무신 다라나 뭐 잊지. 이젠 다라,  
103024 #2 주로 명석에서,  
103024 @ 게민 베크 묶으는 거는 크기가 보리허곡 또 틀립니까? 벨 때 영 묶을 때 비슷허여?  
103024 #1 조? 빌때는이 아장 잘 못벼. 굽언 막 비여낳 못도 커. 졸 묶어노민이 두 못지민 무겁지. 혼짐에 두뭇,  
103024 @ 혼짐에 두뭇? 말한테 소한테?  
103024 #1 아니 사람 지는 거, 소한테는 여섯뭇 해.  
103024 #2 양쪽으로 서뭇씩 여섯뭇,  
103025 @ 저 조가예? 사람은 두뭇지고예? 좁쌀은 어떻게 장만합니까? 그것도 쪼금씩 험니까?  
103025 #1 게, 조타작이 아까 말했네. 방애에도 뽕곡게, 물방애도 강  
103025 #2 바람에 체를 날라. 체를 날려땡으네 골체로 들영 물좌. 물리왕으네 이제 뜨시 물방애에 뜨시 저.  
103025 @ 혼꺼번에 다허진 안허고 이것도?  
103025 #1 물려야지, 물좌사, 물좌야 벗지. 껍죽이 안 물리민 안 벗어정 뿌서저 불어.  
103025 #2 덜 몰르민 뿌서저 불어.  
103025 #1 알맹이가 백사저 불어. 물리좌사,  
103025 @ 조코코리를 이신체 일단 말령?  
103025 #1 조코코리 이신체도 물리고 또 두드려낳도 조로도 물리좌야 웨어.  
103025 @ 조로도 물리우고?  
103025 #2 체 물리좌땡 뒷날은 잘 물리좌야 웨어.  
103025 #1 명석에 널영, 명석에 널영으네,  
103025 @ 어쨌튼 조코고리를 물리는 게중요허다예? 경헨 맥에 담앗당?  
103025 #1 어.  
103025 #2 솟아낳으네 햇빛에 막 물려낳으네게 그난 밤이 이젠 모든 게 그거라. 덩더렁마게로,  
103025 @ 향아리에 담아?  
103025 #2 경헨으네 두드려 낳 이제 겨른 털어질꺼 아니라? 털어지민 이제 바람에 날라. 그 체를, 바람에 날려 놓고, 이제 그 말려. 말령으네 이제 향아리에 담아둬서 먹을 만큼씩 물방애 행 저당 먹어.  
103026 @ 껍데기 그거는 나중에에, 좁쌀로는 무엇을 합니까?(조밥, 조침떡, 감주,

술 등) 어떻 거 해 먹음니까???

103026 #1 오메기떡 먹지 주루 오메기떡 먹지.

103026 @ 오메기떡이 뭐파? 오메기가 무슨 말이우파?

103026 #2 오메기떡은 즈쌀ㄴ루 곶아다가, 즈쌀ㄴ루 빠  
다가 이제 반죽을 하여.

103026 #1 옛날은 오메기떡ㄴ라이 소곱에 풋 안담은 곶 오메기떡이엔 했  
어. 풋 안 담양 그냥 해이. 오메기떡은이.

103026 @ 즈쌀로예?

103026 #2 응. 즈쌀로, 즈쌀ㄴ루

103026 @ 그믄 똥글락허게그냥 지금 오메기떡처럼?

103026 #2 막 크게 막 크게 이렇게 췌가지곡

103026 #1 경 만들민, 그건 술떡이지. 막걸리떡 막걸리만들 때,

103026 #2 게매. 막걸리 만드는 오메기떡은 똥그렇게 크게 만들기 때문에 익지  
안허니까 가운데 영 구멍은 뚫버. 이 손가락 영 디밀양으네게,

103026 @ 익지 안허니까?

103026 #1 영영영영 둘러가민이,

103026 #2 손가락 디밀양 영영 둘러가민 구멍 뚫러지지 안해? 경헨 솥양으  
네 건져 낵으네게 저 누룩 낵 췌근에게,

103026 #1 누룩,

103026 #2 누룩ㄴ루 서텡 췌그네게 이제 물 낵 막 저성 배합시경으네 향아리  
담양 막걸리,

103026 @ 해낵수과?

103026 #1 해낵지. 우리는이 바깳주인이 술을 잘 자시고이, 흑교에 다니명  
흑교 직원들이 청주를 경 좋아해. 그 막걸리 나기전에 청주가 나와. 그 청주를  
좋아하니까 그 선생덜우렁 우리집 아방이 서무과장 해나니까 그 아래 선생덜우렁  
해마다 해마다 흔해도 아니 해봐서. 아니 걸러 봐서. 계속 술해여. 계속 1년에  
흔번씩,

103026 @ 청주도 잘하시고 그 저 고소리 해낵수과?

103026 #1 그런 건 안했어. 고소리 뽑는 건 안허고,

103026 #2 고소리허는 건 오메기떡으로 허는 게 아니고 곶보리민 곶보리, 맥주보  
리민 맥주보리이,

103026 #1 시루에 췌

103026 #2 응. 그거 저 두 개 세 개에 영 벌렁 이제 쌀 만들야그네게 시리에 췌,  
물에 영 낵으네게 막 저성 배합시경으네 시리에 담양 췌으네게, 누룩 행으네 버무  
려그네게 향아리에 담양 놔두민 이제

103026 #1 부구락,

103026 #2 그 저 발효 뒤면은 이제 고소리에 담양으네게 그거 저 소주헤엿주기,



103026 @ 해냏수과?

103026 #2 아니, 난 해나진 안해신디 우리 어머니가 주로 행,

103026 #1 나는 우리 어머니때부터도 우리 아버지도 술 잘 청주허는 거 막, 탁  
베기엔 허여. 막걸리엔 안해영 탁베기, 청주 탁베기만 주로 해나서.

103026 #2 이런 것도 잘해나고 저런 것도 잘해냏주.

103026 #1 우리 아시가 소주 잘했주. 현순옥이허곡

103026 #2 순옥이 잘했주.

103026 #1 군인가분때 스나이덜 군인가분때 그거 주로 했네. 월랑가민 가이 만  
날거우다. 대보탕주인할망이엔허른,

103026 @ 계난 삼촌은 탁베기를 잘했다는 거 아니?

103026 #1 응. 하엿튼 1년에 흥번씩은 계속해시난 아망이 술을 좋아행,

103026 @ 그런 식으로 안 만들엇지예? 요즘 다덜 참쌀이라,

103026 #1 좁쌀로만 허민 그렇게 흐릴수가 없어.

103026 #2 비싸노니까.

103026 @ 비싸노니까 더 이젠 거꾸로 돼불언,

103026 #1 나가 질 잘해난 건이 거 술 막걸리해영 영 청주헌 거 허곡 난 오합  
주를 헌디. 나는 육합주를 헛어. 마농 흥나 더 낫어.

103026 @ 뭐 마씨? 마농?

103026 #1 마늘, 마늘, 그거 노니까 육합주가 돼언. 오합주에서, 여숫가지가  
돼언.

103026 @ 탁베기에?

103026 #1 탁베기가 아니고 청주 흥뵈, 춤기름 흥뵈,

103026 @ 춤기름?

103026 #1 춤기름 흥뵈, 꿀 흥뵈. 계란 백개,

103026 @ 하하하 재미잇다예.

103026 #1 생강 두근, 계민 다숫가지지이, 다숫가지에 마늘 들어가. 우린  
마늘을 아망이 좋아하니까,

103026 @ 아니 계난 술 좋아허난 시작헌디 이렇게 웬것과? 누구안티 배완마씨?

103026 #1 배운게 아니고 우리 씨어머님도 잘하고, 우리 어머니도 우리 친정아버  
지도 술 잘마시고

103026 @ 이거 문화재로 만들 수 어시카?

103026 #1 우리 씨아바님도 술 잘하니까, 그걸 잘 행 안내 계난 그걸 보앗당,

103026 @ 건강하실때예?

103026 #1 어릴때부터 헛지. 계난이 그때 할땨이 어려운 건 꿀이더라고,

103026 #2 꿀이 질 어렵지.

103026 #1 꿀이 질 어려와. 사는 게, 지름도 빠부니까 술도 뺨곡허난, 다 뺨  
으니까, 꿀이 질 어려와. 꿀 사는 게,

103026 @ 건디 그건 남자덜만 먹는 거 아니 술로?

103026 #1 여자도 먹어지민 좋아. 애기어명이 애기 낭으네 얼마 안돼어그네 혈때도 그거 먹으민 잘도 든든허여. 신체가,

103026 @ 술인데도?

103026 #2 응. 그건 만병통치건.

103026 #1 여러 가지 만든거니까게.

103026 #2 춤지름, 꿀게 들어가봐게 얼마나 몸에 좋은거라게.

103026 @ 술에 그런 거 들어간다는 거는 거 상상이 안돼는데예?

103026 #1 흔뉘니까 흔뉘씩 나가는 거니까,

103026 #2 다숫가지 낱 둥근거난게,

103026 @ 지금 그런 거 어디 강 좇지 못허켜예?

103026 #2 지금 사람덜은 혈 줄도 몰라.

103026 #1 여러 가지난 허젠도 안허고, 아니 친구들 우리 집 아방이 오민 친구들 왕으네 주멍“우리집이꺼는 옥합주여 오합주 아니여이, 너넨 오합주만 허지이? 우린 옥합주허여.” 경을 잘ㄴ라. 하하 마늘 허나 들어갓젠 견헨 아방이 마늘을 좋아하니까 옥합주엔 곱아. 본인이 옥합주 먹엿덴 다른 집인 오합주 만드는데 아니 그때는 오합주를 많이 허긴 했어.

103026 #2 그때들은 많이 했어.

103026 #1 술을 많이 허니까 겐디 우리집이만 마늘을 더 낫지. 판집보다,

103026 #2 대개 우리 친정아부지도 술 안마시지 우리 영감도 술 안마시지. 겨난

103026 #1 우린 바꺼리가 이신디 바꺼리부억에 술 둥그는 향아리 허나허고 술떡허나 놀곳이 딱 정해져 잇어. 그디 강 술떡 행 솥앙 그 옆이 술향아리가 잇어 그레 담앙으네 가멩이가 잇어. 가멩이뜯엉 뽕 들렁, 들렁으네 딱시게 게 도구리로 텨어. 나무도구리 딱 텨어 낱 뽕

103026 @ 감주도 해봤수과?

103026 #1 감주사 제사때마다 우린 했어. 어뎡 행 해신고허민 우리 증조할아버지가 술을 안자셔게. 경헨 우리 시어머님이 그걸 쪽 대를 이서왔어.

103026 #2 해야주게.

103026 #1 감주허는 거, 겐 많인 안해 쪼금 해. 그것을 막 올려 감주를.

103026 #2 우린 술 안허난 감주만 주로 올리는데,

103026 #1 그 어른은 술을 입에 안 대봤덴, 겨난 씨어명이 해나난,

103026 @ 감주는 또 찻술이 비싸부난 조로 허는 게 감주지예? 게난 진 짜 맛좋아아예. 씬다리허고 비교가 안되는 거 닳아. 그믄 찻술ㄴ루가 필요헌 것파? 찻술이 필요헌것파?

103026 #2 찻술, 차찻술!

103026 #1 찻술로 ㄴ루 차찻술로

103026 @ 이걸로 또 누룩?

103026 #2 차좁쌀 행은 밥 행, 밥 행으네 그 골ㄴ루, 시청으네게,  
103026 #1 골을 뿔으로 허느냐문 밀로 해여. 그 밀로행으네이 물 우짱나두민 발  
나와. 발나오민 물리와. 그것이 골이야.  
103026 @ 보리싹이 아니고 보리 골로만 알아신디,  
103026 #1 보리로 골 안해. 밀로 해.  
103026 @ 오일장에 팝니까 지금 안 팔죠?  
103026 #1 팔아. 골가루로 해영 쟁으네 영 1키로에 얼마씩 행 폴아. 골가루,  
103026 @ 게민 거 섞어?  
103026 #1 밥행 섞어,  
103026 #2 쟁해근에 밥행으네 퍼놔. 큰다라에 퍼놔으네 시켜. 뜨거울 때 골  
ㄴ루 노민 골에 힘이 없어져볼주게.  
103026 #1 좀 시고, 건짐 나강 좀 미시근혈때  
103026 #2 골가루 넣으네 배합시켜. 쟁해근에 그릇에 뭐 요만헌 항아리에 담  
양으네게 아까 야이 말쩍아니라도 놔두민 부쩍이 올라왕으네 발효돼어게. 경허민  
치는 체로 칭으네 주실 빼여. 물만 행으네게 솟디 넣으예게 이제 나무로 불 은근이  
떼어근에게 한참 여러시간 걸려.  
103026 #1 게민 잘도 맛있어.  
103026 #2 쟁해야 맛있어.  
103026 @ 배와시민 좋켜예  
103026 #1 아이구 옛날엔 그거를 쉼나 독이나 쥐볼주게. 그것도 남 먹어남  
거 봤어. 스힡 먹어.그 주생이도 먹어. 겐디 네중엔 안먹어서. 독쥐불언.  
103026 #2 비삭비삭 행 못먹겠더라게.  
103026 #1 내가 먹는 거 스힡먹는거를 받.  
103026 @ 어신땡게 그땡 좁쌀도 싸난게 버릴 수도 이섯주만 지금 골으민 먹을  
수도 있주게?  
103026 #1 에이 지금은 안 먹어. 어디 그런 거 먹어. 돈 주켄 해도 안먹을꺼여.  
103026 @ 먹어나질 안해노난예 좁쌀?그런 거,  
103026 #2 에이구 감주 지리게 지리게,  
103026 @ 것도 다 슴씨가 다르지예? 다 비슷비슷혈건가?  
103026 #1 나는 조금씩 해. 그 하르부지 혼 어른만,  
103026 #2 느넨 술을 경 많이 술덜을 별로 안마시니까,  
103026 #1 딱 증조 할아버지 혼분만, 경 그 증조 할아버지 웨할아버지라게.  
그 할아버지가 술을 입을 안대봤덴, 우리 씨어머니 말이, 멩질에도 해영 꼭 맥주로  
흐나씩배끼 안허더라. 감주, 해영 꼭 그 상 앞이만 놔. 그 본 봤당 나 흐당 우  
리 성호, 경호허난 지제해부런.  
103027 @ 조짚 등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조짚?  
103027 #1 조짚은 활용혈 것도 없어,

103027 @ 소 먹습니까?

103027 #1 소 먹지. 소출이지. 맛있게 잘먹어. 대가리만 못먹고 잘먹어.

103027 @ 놀영낫당?

103027 #2 놀영낫당 뽑아그네,

103027 @ 아니민 ママリ체 늙니까? 경은 안하지예?

103027 #1 ママリ체 못놀어. 영 자빠정, 놀지 못해여. 우선 고고리만,

103027 @ 보리낭쟁이 쓰는 용도, 보릿대, 조적 쓰는 용도가 다르고, 조적은 소를 겨울네 줍니까?

103027 #1 소만 먹이고 보릿대는 짓고 도세기 짓주는 거이. 딱시게,

103027 @ 그 겨울에 주로 줍니까? 조적은? 놀영당 그냥 주는 거 섞영도 준덴 험디다예? 가네들도, 콩깍지 콩?

103028 #2 콩깍지도 주곡, 콩대도 주고,

103027 #1 건 소 주는 거, 잘먹어.

103027 @ 어릴 때 소 다 이섯수과??

103028 #1 잇엇지. 우린 쉼도 몰도 두 개, 친정에선 몰 쪽 질환게. 몰은 꼭 몰 질루고, 소 질루고,

103028 @ 계난 뭐 아카시아 낭이여 소낭이여 다 솟을 구웠수과?

103028 #1 다 하는데 솟이춤나무 낭이 강한 낭이거든. 겨고 이따가 솔이 약헌 나무는 때면은 삭아불기가 쉬와.

103028 @ 참나무는 도토리낭이 참나무지예?

103028 #1 도토리, 예. 도토리낭도 가시낭이라고 이서. 가시낭 있어. 가시낭이 도토리낭중에 참나무디 그냥 도토리 잘못허민 종낭 도토리열매가 드랑드랑 여는 거, 종낭 종낭 약허여. 약허니까 미려운 낭은 도깨어시로 많이 쓰거든. 게 가벼우니까 손이 안 아파. 요물질 못허니까.

103028 @ 종낭은 도깨어시로 많이 써마씨?

103028 #1 예.

103028 @ 아 가벼우니까

103028 #1 겐디 그놈의 나무가 미럽게 잘 크지를 못허는 나무라. 가다가 허민어 이거 스망일엇져. 도깨어시 좋다. 가벼우니까 가볍고 낭이 그렇게 요물지 안허니까

103028 @ 윤누리낭은 도깨아덜을 쓰고, 종낭은 도깨어시로 쓰고.

103028 #1 윤누리는 그렇게 슬찌는 나무가 아니라. 대같이 그냥 쪽쪽 빼만 나가지고 뺏고, 그렇게 춤 건드리지 안해가지고 여러 십년 되사 흐쓸 도깨어시같은 모습 그렇게 요른 나무는 손이 아파.

103028 @ 근데 도깨아덜은 윤누리로 쓰고.

103028 #1 예 그 나무가 요른 낭이이까, 요르면서 흘썩흘썩허니까, 반동이 잇어가지고 딱 붙으민 땅이나 탁 붙으니까 뺏뺏허질 안해서.

103028 @ 아이구 경험이에 대단허다예.

103028 @ 조 농사에 얽힌 추억이나 경험, 김질매명 막 베었져, 뭐 즈작벳디서 무싱겨 고생했져 그런 거?

103028 #1 조할 때에 우리는이 그 조를 우리 소가 잇었으네 압이 영 방앗간에 땡겨주는 소가 있어. 소, 말도 잇고, 말은 뒤로 매고, 소는 압으로 매어. 두 밧딜로 매와. 메우민 방애가 두 개야. 동쪽에 잇는 건 작은 방애, 우리쪽에 잇는 건 큰 방애, 큰 돌 3레난 이 댓돌이 막 커. 이렇게 크니까이 뭐 소소헌 힘으로는 허질 못해. 게민 고고리 장만할때는 소에 돌에 두 깰 해영 해여. 경허면은 뭐 사람 힘 없어, 압이서 소 허나 아버지가 허고, 뒤에서 어떤니 영만 허민 후딱후딱해여, 우린 그냥 갔다 왔다 무싱겨 아정 텅기당보민 혼 번 확 흥영 나와. 경 나오면은 그 소가 이 좀 까다로운 쉼이 있어. 우리 쉼 허나가. 빨이 막 왕장해. 경헨 그때 혼번 나는 아난디 나 즈름에 우리 오래비가 이서 나서. 우리 아시 아래 꺼, 아 그거 이신디, 그거 어린 거렌 소도 알아. 소도 알아이. 따랑으네 가난디 경헨 나 조름에 가져오고 가져오는 디 신발 벗는 디 가난 아이 어느똥안에 아기가 그냥 영 보난 이 우에 올라완게. 아기가,

103028 #2 빨에 걸런,

103028 #1 빨에 걸런게. 겐 그때는이 그 옷에 걸런, 옷에, 아기 옷에, 그냥 아버지가 그냥 열이 난 그냥 그걸 그냥 그 아길 행으네 간 그 방애 그때 안져불언, 안 돼젠허난,

103028 #2 그렇지.

103028 @ 순간에 큰일날뻔 했구나?

103028 #1 그 이후로 아기 죽어불더라. 막 오래오래 막 행으내,

103028 @ 떨어지지도 안했는데도예?

103028 #1 떨어지지도 안해신디, 그 쉼빨에 영 확 나 조름에 가신디 나도 막 겁나고이, 게난 아기옷에 빨 영 하게 걸렁 우트레 올라간거야. 아기 빨우트레, 진짜 낳기도 잘난건디 우리 아시보다 혼 아시아래게 두 슬 아래,

103028 #2 중싱들이 아이덜을 알았으네 더 경허주게. 나무렌,

103028 #1 겐 심방 해당 빌당으네 죽어신디 죽엇텐해그네 심방이 막 내노렌해도 우리 아버지 딱 안아그네이 죽은 아기를 딱 안양, 겐 그거 눈에 막 그건 아기빨에 해난 것에 그 죽은 애기 아버지 안아난 건 죽도록 가심속에 잇어불지 안허여. 죽도록, 잇어불지 안허여. 눈에 흰허여.

103028 @ 그렇지. 멧슬때마씨?

103028 #2 잇어불어 지느냐게. 잇어불 수가 잇나게.

103028 #1 일곱슬쫘 웅겨 닳다. 일곱슬이지 우리 아시 아래꺼니까 우리 아시가 슬 아래니까, 겐디 것이 세슬, 아버지 밧갈당 장기 영 행 놔두민, 쉼 두 번을 아기가 양지머리 영 잡앙이 가진석으로 가잖아. 그거 밧당 어린 것이 쉼 착 때려부런게. 쫘긋해영 압더레 가지.

103028 #2 그렇지.

103028 #1 아이구 어떻사 겁이 나신지이. 경헌 저디 옷베락ㄴ롱 알아지나? 옷베락ㄴ롱 셋칭 갈때라게. 셋칭이민 아래 칭어리가 영 혈때라.

103028 #2 경헌 밋이지.

103028 #1 경헌뎨디 아부진 저디 강 무싱거 영 허당, 아이고 겁난 경헌디 그때는 그 해 닻다. 그 해 가을에 닻아. 그디 조 갈때 그때 가을에가 아기 뽕 걸어질때라. 경 헌 가이가 가불언게. 겐 그때도 우리 아버지도 심방을 막 싫어허는디 하도 우리 셋어머니영 큰어머니영 셋어머니영 막 “빌어주라 빌어주라” 하도 허난에, 광평 도 남 할망이엔 허는 그 할망 빌어다근,

103028 @ 광평에 무신 할망마씨?

103028 #1 도남 할망 친정이 도남이난이 도남할망이엔 해. 심방ㄴ라, 그 할망 아버지가 얘기 안아신디 눈이 허영케 해영 트멍 죽언 그 날 문엇어. 그 동알펜이 이제 한라대헌디, 머세야 머세, 삼동나무 막 많이 잇는데. 공지야 공지.

103028 @ 공지가 뭇짜? 공동묘지?

103028 #1 공지는 아무 일름도 없는데 밋도 아니고헌데 노형사람 일름영 행 놔 뒤시민 세금 내카부텐이 안행놔두난 시칭땅 해부런 그 노형서 돈 하영 내부럿지. 시칭묘지로 뉘부런게. 계난에 한라대왕으네 시칭에 돈 줄꺼 아니가? 살 때 한라대 원장이, 계난 노형 사람이 그디 돈 못 받지. 세금 안 냥 놔두니까 세금내야 노형사 름 일름으로 행 놔뒤시민 아무일름 둘만 해시민 세금 나오민 세금 물어야 권리가 이성게, 한라대혈 때, 겐 그디 우리 얘기가 문엇어. 우리 어머니 아기 다숫개 문언, 아홉 개 나네,

103028 @ 아홉명 낫는데 네명 살안?

103028 #1 아홉명 낫는데 네명배끼 안살안,

103028 @ 아이고 세상에, 병원도 없고게 경 혈수밖에 엇주게 옛날엔.

103028 #1 옛날엔 겐디 옛날은 아기 그냥철사 낭으네이 철사 난 확 홀트민 가불 더라. 경 오래 아프지도 안허고. 다른 애긴 모른디 그 아기 흐나만 나가 실명히 알아져게.

103028 @ 쉼뿔에?

103028 #1 응. 쉼뿔에 영 행 그냥 그로후제부터 출출행 아픈거주게.

103028 @ 그믐 형제가 아들 멧에 똥 멧? 어머니, 아버지가 낳은 것짜?

103028 #1 우리 어머니가 딸만, 아들 세 개 다 죽언. 우리 큰어머니가 돈아 덜 돌아가시난 우리 어머니가 왔주게. 그 오빠도 그 오빠도 어디 이북 간 죽어불고, 이제 백 삼십오, 살아시민, 아니 백오, 우리 아버지가 백 삼십오,

103028 @ 속사정덜 들여다보민 제주도 사람덜?

103028 #1 다른 생각은 원 안나는데 그 아기 흐나만 살아도 이제 뭐 조카덜 이시난, 아무 생각도 안나긴 현다마는게. 겐디 우리 어머님도 잘도 무정헌 어른이라. 우리 ㄴ트민이 그추룩행 허민 아기허민 뉘날 ㄴ만이 누나 아지나 허는디

뒷날 그냥 밧디 가불더라, 뒷날 그냥 밧디 검질 박박박박 일은 막 잘허주게. 아이고  
나 그 생각허민,

103028 #2 속상행 더 밧딘 가는 거주게. 밧딘 검질이라도 매영게 속을게 다스려  
야 할거 아니? 집이시민 더 그냥,

103028 #1 옛날 어른덜 지금 사는 건 영웅사는거야.

103028 #2 그렇지.

### 콩농사

103029 @ 콩 농사를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103029 #1 콩은 질 쉬와. 그냥 밧디 콩씨만 뿌리민 나와.

103030 #2 준비가 벨로 없어. 콩은 쉬와.

103030 @ 콩은 언제, 어떻게 갑니까?

103030 #1 6월절 전후로 가는 거야이. 7비에 곶아. 6월절 3일전이 가는  
게 많아. 유월정,

103031 @ 콩밭 거름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103031 #1 게매 거름이 없어. 콩밭은,

103032 @ 콩씨는 어떻게 뿌립니까?

103032 #1 그냥 드문드문 뿌리는 게 좋아. 드문드문 뿌리는 게,

103033 @ 콩밭 김매기는 몇번합니까?

103033 #1 이제는 보통 두 번 매어. 두 번 매어야 깨끗허여.

103034 @ 콩밭에는 어떤 '검질'들이 자릅니까?

103034 #1 그냥 그 검질이지. 제완지허고 춤 췌터럭이다. 췌터럭에 제완지.  
히히 복쿨.

103034 @ 여름검질 췌비눔 이런 거는?

103034 #1 췌비눔도 헛어. 나는 밧딘 많이 나. 췌비눔도, 그딘 그 췌비눔은 곶랑  
나이. 아무디나 안나.

103034 #2 췌비눔 나는 밧이, 나는 땅이 이서.

103034 #1 밧마다 나질 안애.

103034 #2 콩밭디도 복쿨, 췌터럭,

103035 @ 콩 수확은 어떻게 합니까?(꺼기, 도리깨질 등) 콩을 꺾는덴 헛니까?

103035 #1 응. 꺾은덴 허여.

103035 @ 뭘로 꺾어마씨? 호미로?

103035 #2 호미로,

103035 @ 곶갱이로도?

103035 #1 아니 아니, 곶갱이로도 해지나? 허는 사람 허드라이. 막 잘 익은 거이?

103035 #2 잘 익은 거 거 콩낭이 막 잘 익어사주 곶갱이로 잘 못해.

103035 #1 곶갱이로 허기가 드물어, 다 호미로 허지.

103035 @ 도깨질 이거 역시 이거?.

103035 #1 것도 옛날엔 도깨로 두드렸지.

103035 @ 밧디서 안행 집이 가정와?

103035 #2 아니 밧테서

103035 @ 이건 밧테서?

103035 #2 실고 가 소에, 명석.

103035 @ 아아 소에 명석을 실렁 강?

103035 #2 펼쳐봐그네 밧디서,

103035 #1 가정오는게 조금 덤테기가 크지. 가져오는 게,

103035 @ 보리도 밧디서 안허고, 조도 밧디서 안허고, 이 콩만 밧디서 하하하하?

103035 #2 부피가 많기 때문에 가져오기가 불편해서 또 묶으는 것도 막 불편허여.

103035 @ 묶으는 것도 불편허고?

103035 #1 몽클락해부난,

103035 #2 콩대가 요만씩배기 안허기 때문에,

103035 @ 어쨌든 콩덴 또 가져와야 될거 아니우파?

103035 #1 내불어.

103035 #2 아, 내부는 수도 잇고 또 실러다근에,

103035 #1 소나 신 사람은 소 맥이지. 잘 먹어.

103035 @ 계난 소 암만해도 맛이 어신생이여예? 조보다도예?

103035 #1 아니, 소도 콩 담아진거난 잘먹어. 소 잘 먹어. 콩기질이엔허연,

103035 @ 소 키우는 사람이 가져간다는 말이로구나예?

103035 #1 소 엇는 사람은 놈도 쥐불고게

103035 @ 콩 늘어?

103035 #1 놀기도 허주마는이 이젠 베랑 어서. 이제는 누는 사람 어서. 그냥 해 노민 모아놔이.

103035 @ 옛날?

103035 #1 옛날도 경해. 누는 것도 인력이주게,

103035 @ 그난 남자덜이 다 허잡아예,

103035 #1 콩 아무나 놀지 못해. 이렇게 이렇게 차복차복 대미기난 허지,

103036 @ 콩으로는 무엇을 합니까?(콩나물, 메주, 두부, 콩가루 등)

103036 #1 콩주름 콩기루도 행 먹고게, 콩으로 장도 허고게.

103036 @ 장?

103036 #1 웬장 담강으네 간장뜨고 웬장 따로 허고,

103036 @ 콩주름도 해봤수과?

103036 #1 응.

103036 @ 콩나물이엔 험니까? 콩주름이엔 험니까?

103036 #1 콩주름이엔 해. 콩나물이엔 별로 안 했어. “콩주름 노라, 콩주름” 옛날



말이야.

103036 @ 콩주름예? 건 언제 험니까?

103036 #1 제사때 주로 해. 벨로 이거 행 먹젠 허는 사람이 드물어.

103036 @ 그믐 콩주름하고 메주, 둠비 만들어봣수과??

103036 #1 나는 안해봣어.

103036 @ 게믐 메주 해봣수과?

103036 #1 메주사 허지. 1년에 혼번은 꼬박꼬박허지. 게 지금은 3년에 혼번도 난 재재작년에 현 거 먹엄서.

103036 @ 콩ㄴ루로 뭘 행 먹읍니까?

103036 #2 죽도 썰 먹고, 국도 끓여먹고,

103036 #1 그래, 콩죽도 썰 먹고 콩국이 좋지.

103036 @ 콩국이 좋아예? 그믐 그것도 저 뭘로 물에 컷당 스팀 물에 컷당 그걸 갈아? 아니민 콩ㄴ루?

103036 #2 모른 차,

103036 #1 모른 차이, 기름집에 가민 곁아줘.

103036 @ 아 옛날?

103036 #2 아 옛날 맏돌에 갈앙,

103036 @ 그 뚜꺼운 걸 어떻?

103036 #1 아 옛날엔 돌리왕, 파실파실파실 행 곁앙 나와.

103036 @ 아, 말리민 그게 ㄴ레가 튀는구나예 맏돌에 놔도예. 그렇구나, 경행 콩ㄴ루로 국 끓여먹고, 늬삐 낱으네 죽도 썰 먹고 국도 끓여 먹고,

103036 @ 언제 메주담고 이걸 또 나중에 물어볼 또 질문이 이실거우다.

103036 #1 메주는 콩 해영 다 메주를 스팀아.

103036 #2 11월들에 스팀고.

103036 @ 날 보멍허지예? 이것도

103036 #1 좋은 날에 해. 쉼날에 허면은이 그 뜰 때 쉼터럭 ㄴ치 막 나온텐게, 난 거 안 봐봐신디 막 경 곁아. 어른덜이 모날을 많이

103036 #2 모날, 개날, 툷날!

103036 @ 득날?

103036 #1 툷,

103036 @ 도세기?

103036 #1 도세기 아니고 툷날이지,

103036 #2 토끼

103036 #1 아아, 토끼날!

103037 @ 콩쪼 등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아까 말했지예 콩쪼?

103037 #1 콩쪼은 내분덴 허난. 소먹이라 대부분, 소 어신 사람은그냥 밧디 내 불어.

103037 #2 그냥 밧디 내불고,

103037 @ 이견 쓸모가 어서 소 어신 사람은?

103037 #1 겐디 가져가렌허든 가져가기도 해여. 소 이신 사람은,

103037 #2 소 이신 사람은, 가져가지.

103038 @ 소 맥이고 콩 농사에 얽힌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린 때 콩 꺾으멍 힘들었수과? 재미보다도예?

103038 #1 콩 얽힌 때는이. 콩 해냥으네 막 물리왕 테작하게 똥때라이. 나 혼 번 경헨 현 역스가 잇어. 날이민 다 행 혈건디 밤이 그냥 비온 줄 모르게 빌 와불언게. 아이구 아방은 심드랑편편허고이 아이고 게난 우리 씨어머님 가까운디 살잖아. 대단 해 우리 씨어머니 초석이영 가맹탱이영 아따네이 틸틈이 왕 더경으네. 우리 씨어머니, 무신 초석이영 가맹탱이여, 하영 안 젓엇드라게. 씨어머님이 해짚게. 아이고 나 그때, 씨어머님 정어신 것도 부트 조그만현 가빠여, 씨어멍 ㄱ

### 밭벼 농사

103039 @ 자 산디우다예. 산디 농사를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103039 #1 산디 농사 허젠허민이 산디엔 좀 걸려야웨니가 불치, 불치, 불습 아난 그,

103039 #2 그 불 때난.

103039 #1 그거 그걸자꾸 놓더라구. 우리 어머니 혈 때보난이

103039 #2 그게 거름이주게 옛날엔.

103039 #1 그것이 그 밖에 영 내놔. 내냥으네 옛날엔 오줌을 싸면은이 버려불지 안해여. 향아리 큰 것에 비와. 밤에 오줌싸면은 요강 아땅 그레 비와이. 게민 그 오줌이 막 먼저 논거 말제 논거 허민 썩잖아. 냄새가 막 나주게. 게민 불치 영 놔냥 그 오줌해당 이렇게 이렇게 해영 쥐. 경 행 또 불치 놔. 경 행 썩영으네 허민 그 산디 갈 때가 이렇게 냅으네 씨뿌리민 산디가 그렇게 막 올라오드라고, 나 어머니 허는 거 봐서. 어릴 때,

103039 #2 그거 거름으로 허터 냅,

103039 #1 옛날 사람은 허는데 신식사람은 거 안해. 더럽고이 거 냄새 나잖아 오줌냄새.

103039 @ 산디씨는 어떻 놔뒤마씨?

103039 #1 그냥 거는 이, 씨 놔둘디는이, 우리 어머니는 허벽에 담양 놔두드라. 허벽, 이 부리 죽은 거 잇잖아. 가냥 죽아. 중이도 안들어가고, 돌맹이 예 영 딱 찢렁놔두민, 그 돌맹이 그 허벽부리에 난 그걸 눈으로 보니까 알아지크라.

103039 #2 옛날 어른덜은 대개 경헨,

103039 #1 쫄랑현 그 돌맹이 앓당 꼭 썩왕

103039 #2 그것에 맞는 돌맹이,

103039 @ 그 허벽은 물만 질으는 게 아니고 그렇게 곡식도 보관했다는거라예?

103039 #1 허벅이 물지당 어떻게 잘못됐민 금나지. 게민 걸 안버령 물은 못 놓게 웬거지. 게 안버령 그런 걸 담아.

103039 @ 요즘도 그 패트병 거기에 곡식 담양게 좀 안인덴 해영 곡식덜 놔둬니께.

103039 #1 옛날은

103039 #2 물 못 짓게 돼민은 버리지 안해영 그런 것덜

103039 #1 아니 난 우리 어머니가 경 허는 걸 봐부난

103039 #2 말리와그네

103039 #1 눈으로 보니까

103039 @ 그게 중요한 거우다게. 이거 누가 압니까?

103039 #2 종자덜을 그런 것에 질어그네게 곳간에 앓당 낫당으네,

103039 #1 게난 쥐가 얼마나 많으냐 쥐가 하영 먹카부덴 돌맹이 딱 허허

103039 @ 고망 막아?

103039 #1 막아불어. 돌맹인 무거우니까 판거허민 빠부러. 중이 먹어. 무싱거이 험벽이라도 딱 막아도 그냥 빠부러. 돌맹일 해야돼.

103040 @ 밧벼는, 산되는 언제, 어떻게 갑니까?

103040 #1 3월, 3월에 산디같지이?

103040 #2 3월말돼민 같지.

103040 #1 3월에 산디 갈면은 또이 조 해난 곳에 네중에 산될헤여. 먼저 갈고 네중에 비곡, 빌때는 네중에 비어. 조보다는, 조는 5월 그믐에 해도 혼 9월 그물어가민 비어. 산되는 혼 양력 10월이민 음력으론 혼 11월 거자 웨크라이?

103040 #2 11월7진 안간다게. 10월 중순돼민 다 허주.

103041 @ 산디 걸름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103041 #1 그거허고이 간 후에 나면은 비료 해. 비료 두 번 해. 초벌행 혼번허곡, 또 막 켜 다 검질맨 후에 또 해. 게민이 요물 조렌, 비료 두 번허드라고 산디에.

103041 #2 산딘 잘 걸려야 되는 때문에,

103041 @ 나중에 비료가 난 후로 이루어제 얘기지예?

103041 #1 응. 비료가 난 후에

103041 @ 무슨 비료는 뭐 그런 건 나중에?

103041 #1 아니 저 질 처음에는 복합해영 복합 뿌령 같고, 그 다음엔 요소를 두 번 줘. 초불도 요소, 두불도 요소,

103041 #2 저 비료나기 전에는 그런 불치행으네 그런 거름만 허면은 거름이 없잖아. 비료가 없기 때문에, 나무가 크지를 못해가지고 요만씩배끼 안허여. 크지를 못해가지고

103041 #1 그 비료 허는 사람이 좀 돈 이서사 것도, 흐김 돈 이신 비료 현 밧은 알아져. 곡식커가는게

103041 #2 나중에 비료 나온 다음에 돈 신 사람덜은 비료사당 많이 해주기 때문

에 나무가 이만큼 길주게.

103041 @ 그 전에는 그 불치를 어떻 그거 맞디 일단 뿌려? 과중허기 전에 뿌려?

103041 #1 응.과중허는 날 뿌려놔 같아. 갈기 전에 밑바닥에 불치를 앓당으네  
탁탁탁탁 뿌려놔 같아놔 간 후에 또 씨뿌리지.

103041 @ 아아, 뿌려놔 같아놔 거기에 그날 다 이루어지는 일이구나예.

103041 #2 갈양 또 산된 불려야 돼어.

103041 @ 아 산된 또 불려야 돼어? 산디씨는 어떻게 뿌립니까?

103042 #1 그냥 이렇게 뿌려.

103042 #2 이렇게 뿌리는데 산디허고 저 조는 이 씨가 약하기 때문에 미리 밑바  
닥에 씨를 뿌려서 갈면은 올라오기가 힘드는 것 같애. 그래가지고 우에 뿌리는 것  
같애. 우에 뿌려그닝에 씨 막아지는 거 불리는거주게. 밟아주는 건,

103042 @ 이것도 마찬가지로 몰, 소 다 대동행?

103042 #1 아니아니, 경 막 췌게 안 불려도 돼 산디는.

103042 #2 산디는 췌게 안 불려도 돼

103042 #1 사람만?

103042 #2 응. 사람으로만 영 갖다왔다 행 좀 발려도 돼고,

103042 #1 췌피로 끄서도 돼곡,

103042 #2 끄서도 돼곡,

103042 @ 췌피로?

103042 #1 밧갈레 가젠허민 췌피 정 가야돼

103042 #2 정 가든지 밧디가근에 나무 끈영 만들던지

103042 @ ㄱ치 흐루에 다 아부지가 밧 같고? 또 여자덜은 씨뿌리면서 같고?

103042 #2 남자덜이다 씨뿌리고, 여자덜은 거름만 뿌리고,

103042 #1 거름뿌리고 집이 오랑 점심해 가곡계, 막 혼디 대동해야지,

103042 @ 거름 뿌리는 건 여자, 경행으네 “밧 감서”해뵤 밟허레 왕 또 밟 가정강

103042 #1 밟먹영 또 간후에 또 씨가 아버지가 뿌려주민 또 우리는 불려야지.

103042 @ 불리고, 멧시간 그냥 득근득근 한번씩 불리민 웬다는거?

103042 #1 발로 팍팍 차명 거 씨 막아지렌이.

103042 #2 밧도 소로 갈잖아. 소로 갈기 때문에 갈다그네 소 좀 쉬여서 갈라고  
쉬올때는 목초도 해 다 줘야돼어.

103042 #1 소 먹을꺼.

103042 #2 응. 여자분들은

103042 @ 모신있이여 뭐여

103042 #2 여자분들은 모신있이랑 무싱거 그 목초 비어다근에 먹이 즐겨 해당  
여자덜도 부지런해야돼어.

103042 @ 주곡, 계난, 저 남편 밥 먹는다

103042 #1 존일은 여자가 더 많아. 남자는 그냥 밧 흐나 싹 갈아볼민 쉬는

날도 있고이. 준일 안해주는 사람덜은 모른사람덜은 ㄴ치 해주는디 은 해 주덜 안해.

103042 #2 옛날 남자분덜은 여자혈 일은 여자 허는거렌 딱 우선 더군다나 우리 노형은 양촌이라봐서 더 그런 걸 구분헌 거 같애.

103042 #1 남자 혈 일만 딱 행 여자 혈 일은 서들어주질 안해.

103042 #2 거들어 주질 안해. 거들어주민 팔불출로 취급행으네,

103042 #1 옛날어른덜 장난말로 부엌에 들어가민, 불 떨어져분덴, 부엌에남자들 어가면은 장난말로 막,

103043 @ 산디밭 김매기는 몇 번 합니까?

103043 #1 세 번, 세 번

103043 #2 두 번도 허고 세 번도 허고,

103043 #1 세 번 해.

103043 #2 대개 세 번.

103043 @ 이것도 그러면 더우쿠다예? 조밭검질보단 낫고?

103043 #1 거의 비슷해.

103043 #2 비슷해여. 조는 뽑아 줘야돼는디 뽑아주는 게 벨로 없으니까

103043 #1 산디도 즈진 딴 뽑아주고, 갈때부터 산디는 정식으로 뿌려. 메지말 렌이. 드문드문허게 뿌리고, 조는 막 뿌령보민 어떤 뎀 많이 갈면은 뽑아주곡,

103043 #2 조는 알맹이가 즐아느니까이 경 혈 수밖에 어서서.

103043 @ 음, 맞아예.

103044 @ 산디에는 또어떤 '검질'들이 자랍니까?

103044 #2 산디에도 조팍디 나는

103044 #1 잇어부런 그때이 쉼터럭 벤데가 이서. 벤데검질 막 더 잘 나잖아. 쉼터럭 벤데, 준준허게 그냥 곧 나명 씨사불어. 쉼터럭 벤데엔 헌 검질이 벤 데, 벤데가 그냥 나명 요만허민 씨가 나. 벤데엔 검질이 벤데가 많이 나. 물 잇는 밧은 더 많이 나. 우리가 이것이 우리 밧이라신디 그렇게 잘났어. 쉼터럭 벤데가

103044 @ 어떤 검질인지 거를 사진 찍어야 돼는데 언제 흔 번? 하하,

103044 #2 지금은 그런 거 별로 없어이.

103044 #1 벤데는 벨로 없어. 쉼터럭은 보이는디 벤데가 옛날은 벤데 잘 낭 글갱 이로 막 잘 굽으고 해신디,

103044 @ 여름에는 쉼터럭벤데, 또 재완지 ㄴ라지?

103044 #2 복콜,

103044 @ 복콜, ㄴ라지는?

103044 #1 ㄴ라지는 그 검질멘 후에 걸 나왕으네 내중에,

103044 #2 ㄴ라지는 종자때 저기 조 비슷허기땀에 잘 몰라.

103044 #1 계문 그 떨어진 거 내중에 막 걸어다니명 매어. 경 바갓디 내쳐. ㄴ라지는

103044 #2 그 근방에 일부러 들어상 매어야돼어.

103044 #1 보리밭던 대우리 메렌허곡, 조팏던 ㄹ라지매렌허고, ㄹ라지,

103045 @ 예. 밧벼 수확은 어떻게 합니까? 베는거랑 도리깨질은 어떻합니까?

103045 #1 산디도이 비영으네 흐루썸 물리왓당 좀 그냥 땅에서 물류장만흐  
기가 쉬워 존존허기 묶으면은이 이렇게 영 놉. 이렇게 영 놉 이것 영 둘이  
상 사람신디 도깨로 이렇게 때려.

103045 #2 마주 놉, 요만씩 묶어 요만씩, 요만씩 해영 마주 쪽 벌여놉,

103045 #1 해 놉 뒤집어 놉. 아이덜이 뒤집어주민 이디 또 때려

103045 @ 마주보게 행으네?

103045 #2 거의 뜨러지민 이게 뜨시 옆으로 또 세와놉 옆에꺼 안때려지니까  
경 행 뜨시 두들려. 게난이 가운데 들어 상 심부름허는 사름은 부지런해야돼어.  
도깨 마지막부덴 피허면서,

103045 #1 경해도 씨가 남아 있어. 남아 이시민 그 짚을 쓰게 돼어. 쓰게돼면은  
우리어머니 허는거 봤어. 이렇게 이렇게 치는 체 잊지이. 그 체 해영 못쓰게 돼면은  
망만 있어. 영 망,

103045 #2 둘러지는 망,

103045 #1 영 망만 잇으면은 이디 아래에 도마 깔아. 그 산디 낭 하나씩 잇어

103045 #2 그 속에 묻어진 거, 안 떨어진 거,

103045 #1 이시민 그걸로 이렇게 이렇게 영 막 훑어. 없이. 헐때 확 없이,, 경행  
놉뒤사 그것이 신도 삼고, 맥도 즐고, 멍에도 즐고,

103045 #2 경 안허민 쥐들영 문막 쏘아붙어.

103045 #1 쥐가 그 먹으멍 쏘아붙어. 게민 것도 일삼앙 해.

103045 #2 찢라부러. 못 쓰게 만들어부러.

103045 #1 영놉 뒤집어 이렇게 훑어. 우리어머니가이 너무 하니까 “너도 허라 너  
도 허라” 해어.

103045 #2 아깝기도 허주마는 그대로 놉두민은 쥐가 그거 먹으면서 그냥그 벧덜  
을 다 찢라부렁 못쓰게 만드기 때문에

103045 #1 그 짚을 쓸거니까 안 썩 놉불민 돼지만은 멍석 즐고, 맥도 즐  
고 신도 삼고,

103045 #2 멍석도 만들어야돼지, 맥도 만들어야지, 신도 삼아야지, 베도 만들어야  
돼지. 질빵이 그뎌 없엇어. 경허기 때문에

103045 #1 꼬아서, 옛날엔 그 쳇망을 영 현 걸 알아지크라.

103045 #2 아유, 우리도 해봣주게.

103045 #1 “느도허라 느도허라 ”엄마가 헤헤헤 엄마만 다 못허난게.

103045 #2 게. 그 비왕 밧디일 못허민게. 못허민 그거 내낭 그걸 해야돼어. 즈  
약즈약,

103045 #1 짜르륵짜르륵 나. 소리가 짜르륵짜르륵 게민 산디 아니해진거 남아잇

잼아. 흐뭇 죽은 것도 잊고이,  
 103045 @ 어떻게 험다는 거지? 망체만 있고 테만잇고? 어시민  
 103045 #2 똥그랑헨 나무로,  
 103045 #1 게민 산디 흐뭇 남아잇는 걸 영 등기민  
 103045 @ 이걸 가운데 낱 이걸 누르땡?  
 103045 #2 땡겨  
 103045 @ 하하하하 세상에  
 103045 #2 자르륵자르륵  
 103045 #1 게민 산디 남아잇잖아. 흐뭇 죽은 것도 잊고,  
 103045 @ 경행으네 도깨질을 그추룩 했다는 거라예 그 원래 산디찍보다 나룩찍  
 이 좋덴행으네 허긴 헛덴 헛디다예?  
 103045 #1 질고이. 덕지동 논 이시난 그디 강 우리 큰어머니 두 개 이션. 우리  
 큰어머니넨 그 산디를 막 뚜드렁 던져볼지 경 걸 안 써. 나룩직 이시난,  
 103045 #2 나룩직 이시난, 그렇지게.  
 103045 #1 게민 쟈게 막 두드렁으네 안 쓸걸로 내부러. 막 때러부러. 경허믄 낯당  
 소도 주고 우린 나룩이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자꾸 그냥 “너도 허라 너도 허라”  
 103045 @ 짓도 놀읍니까 산디찍으로?  
 103045 #1 응. 놀어야지. 놀영으네 느릅지 영 씨와야 안 짓지.  
 103045 @ 덕지동 미나리 허는디 거기도 벼가 그렇게 잘 자랐다는 거  
 103045 #1 잘했어 거기.  
 103045 @ 내도 거기 도근네 거기서 나는 벼만 허는 줄 알앗주게. 덕지동도 헛구나?  
 103045 #1 아니, 덕지동에도 잇었어. 우리 큰아버지네도 광수에도 셔나서.  
 103045 @ 미나리 허기 전엔 다 논을 했다는 말이구나예? 거난 물이 거기항상 이  
 션게.  
 103045 #2 게난 벼짚이 막 크주게. 벼짚이 막 길고 부드럽고 벼짚을 주로 쓰는  
 사람은 쓰는디 이런 농촌에서 산디짚을 쓰기 때문에  
 103045 #1 남자분들 일헛 때 나룩 즈를 때 나룩찍으로 허는 사람은 손이 막 좋고  
 이, 산디짚으로 허는 사람은 손이 썩어서, 우리 큰아버진 흐루에 흐나 즈라. 줄양 내  
 첫당 또 다른 건 줄아뵤 흐 땡개 줄아노민 바위 허는 게 이서이 곱닥허게.  
 103045 @ 그런 어른 엇주게?  
 103045 #1 예 우리 때난 봤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해부난이 땡 즈는 걸  
 못 봐서.  
 103045 @ 보관헌덴 해도 삭아붙데다. 햇빛맞고 허당보민,  
 103045 #1 자꾸 써야 오래가지 삭아붙고 허지 어디놔두민 썩어붙기도허고 삭아  
 붙도 허주게.  
 103046 @ 그믄 이 산디쌀로 밥해먹고 떡허는걸 곱아봅서? 무슨 떡을 허고 밥은  
 언제해먹고,

103046 #1 속담에 옛날은 제주도 아가씨덜은 시집가도록 오래 먹어야 쓸 혼말 먹넌해. 이런 뉘로 네 개민 혼말이엔 허여. 먹영 시집간덴허여. 생일때나 아버지 생일때나

103046 @ 아버지 생일이 중요하구나?

103046 #1 응 생일때나 우리 아버지 생일때나 케난 시집가도록 혼 스물 빨리가민 스물에도 가고 그때까지허민 혼말 먹으나 마나 헐거야.

103046 @ 식계때 진짜 혼 숟가락씩 나눠줬수과? 메만 딱 헌다는 거?

103046 #1 허긴 허는데 이제 사발로 치민 죽은반 산디썰로는 생일밥이나 해 먹고

103046 #2 많이 뜨민 세숟가락 뜨민 말주

103046 @ 무사 근밥?

103046 #2 희난

103046 #1 다른 사람은 반 섞어. 막 아기덜은 안 섞영 보리썰허곡 풋허곡 아이덜

103046 @ 떡은마씨 다 줍썰허고 모멸만 해신가?

103046 #2 아니아니. 그 쌀, 그 우리 노형은 양촌으로 이 준떡을 많이 허주게 준떡을 많이 허는디 다숫가지

103046 #1 준떡이민 글아바이,술벤

103046 #2 술벤이렌 허민 알카?

103046 #1 이름 글아야지 술벤, 절벤,인절미, 세미떡 또 저 아니 저 무싱거 지름떡 말앙 거 무싱거

103046 #2 권미?

103046 #1 권미떡도 맨 우이꺼고이 동글랑근떡, 말앙이

103046 #2 그계 절벤이지계,

103046 #1 절벤

103046 #2 절벤 술벤허민,

103046 #1 절벤 술벤 세미떡은 들어갓네.

103046 #2 세미떡 인절미 네가지 아니냐.

103046 #1 네가지

103046 #2 권미떡 다숫가지 여숫가지,

103046 #1 권미떡 종손칩배끼 안해여. 종손,

103046 #2 권미떡 말앙 따시 그 저 쉼질멧가지 ㄴ치 오고라진떡

103046 #1 오고라진 거 허고 숟꺾으로 큰어머니네집은

103046 #2 병거떡 안허곡?

103046 #1 응. 안해. 큰어머니만해여. 큰멧질허니까.

103046 #2 우린 친척이고 양칩이도 다 해여.

103046 #1 아래까지 안해. 큰아버지 집만 도남삼촌네집은 안허곡, 삼촌네집이가



민 허고, 병거떡은 안해.

103046 #2 우린 허여. 다허민 일곱가지라 절펜이.

103046 #1 그런 떡이 보기 잘 안줘.

103046 #2 멧개 안허니까게

103046 #1 하영 안허니까

103046 #2 그건 멧개 안허주.

103046 @ 하나토 먹어보지도 못허?

103046 #1 어찌다가 혼번

103046 #2 그건 상에 올릴건만 허주 여러겔 허질 안허주게.

103046 @ 먹고 싶

103046 #1 맛은 마찬가지로 보기가 좋으니까 얼마나 마신는건가 생각허여게.

103046 @ 세상에?

103046 #1 우린 고기젓갈도이 혼끼지에 일곱점씩 웨어. 일곱점, 일곱점 덜도 아니고 더도아니고,

103046 #2 일곱점씩 더 웨어게

103046 #1 소고기도 그렇게, 돼지고기도 그렇게, 일곱점씩웨어.

103046 #2 일곱점씩

103046 @ 젓갈예? 지금도 경 햄수과?

103046 #1 지금도

103046 #2 지금도 경해. 훗수로 웨기 때문에.

103046 #1 어떤뎐 그지가 적영 아홉점을 켈때도 이서. 아홉점은 두점이 더 놔가지고,

103046 #2 너무 커그네 둔헤영 안좋아.

103046 #1 먹을 걸로게. 적끼지 작으민

103046 #2 초즈낙이 웨지도 안허여. 그냥덜 막 먹엇주.

103046 @ 제사때는 막 못먹영 근밥 혼술가락 못얻어먹영 우는 아이도 잇고 막?

103046 #2 아이구 예. 신부 데려오민 신부방, 이런 창문에 사람이 그냥 애들이 득득아. 막 밀리멍 그냥,

103046 #1 그 밥혼사발이

103046 #2 친구 받아난 그 밥을 혼 숙가락씩 다 나눠주거든.

103046 #1 그 열술갈, 스무술갈햄직해. 술갈로 행 펜직펜직 거렁,

103046 #2 손에 낱 손에,

103046 #1 “손 내밀라” 허민 손에 강 탁 놔주민 영 영,

103046 #2 그거 혼술가락씩 주민 그거 받았으네,

103046 #1 혼술가락이민 그거 경 하나 혼사발이,

103046 #2 그러게.

103046 #1 아이가 이문으로 저문으로 두바띠로 왕 영, 그거 얻어먹젠,  
 103046 #2 막 밀리멍 그냥 땡기멍,  
 103046 #1 곤밥을 입에 안봐보니까,  
 103046 @ 목떡은 아인 못권, 목떡은 아인?  
 103046 #1 전지로 하나 주는사람, 어떤땐 반착씩 짤랑 모제레민  
 103046 @ 친척아이덜이잖아예?  
 103046 #2 친척아이덜이 아니고 동네 아이덜, 이웃아이덜이고, 신부상 받아난 다음 문딱 그냥,  
 103046 #1 신부는 막 먹어민 혼 서너번 그냥 밥 흐뎀 먹는체해연 그냥 내불민,  
 103046 #2 쓸 서너방울씩행으네게 서너숟가락, 서너방울 놔가민 그냥 올리민게.  
 103046 #1 마당에서 놀당 새각씨 밥 갈라줍젠허민 막 문에 강 영켜, 거 얻어먹젠,  
 103046 @ 물명진 아이는 못먹어?  
 103046 #1 그디 못강 알로강 영해도 주는 사람이 잘 뿡, 하하하, 우리 영옥이 알아지커냐? 우리 큰어머니 손지?  
 103046 #2 으게.  
 103046 #1 아 그건 아맹해도 대문집 사니까이 “자게 오랜 자게오렌” 우린 막 얻어먹젠 경허는디 알로 강 경 사람이 하니까 알로 강 영허민“영옥이도 주라 영옥이도 주라”허민이 히히 알로 보는 아이 흐김 주긴 쥘. 위로 못 봐. 알로, 나 그 생각이 나.  
 103046 #2 무사 영옥이 키 크곡허난 경?  
 103046 #1 어털 때주게. 키 큰거ㄴ트민 경허나? 게민 사름 이딘 딱 붙으고 영우인 허민, 알로 봐.“영옥이 주라 영옥이 주라” 우리 큰어머니가, 웨손지난게  
 103046 #2 웨손지난 경허주 안허느냐게.  
 103046 #1 그 생각이 남서게. “영옥이 주라 주라” 흐흐  
 103046 #2 작년엔가 죽엇지?  
 103046 #1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103046 #2 재작년엔가?  
 103046 #1 알아시민 강 볼건디, 기영이네 곧지도 안허고,  
 103046 @ 게난 멧슬웨난 곤밥 실피 먹어집디가?  
 103046 #1 시집가게 돼사. 기영이네도 안봐시카?  
 103046 #2 기영이네도 소문, 소식 못받앙 못 본말추룩 그때 곶양 나가 들어진거 닳은디,  
 103046 #1 나보다 혼나 우이주게. 경해도 남편복이 신생이라. 시집을 잘 간게.  
 103046 @ 영옥인 누게마씨?  
 103046 #1 우리 큰아버지 웨손지, 어떻 시집강으네 뜰 흐나만 나뉿 빨리 가부난 웨가집에 살안게.

103046 #2 웨할아바님 손에서 자랏주게.

103046 #1 큰어멍에 웨손지. 큰딸에,

103046 @ 잘도 아꼈다예. 웨손진디예.

103047 @ 산디찍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103048 @ 산디는 보리나 이런 거보다 잘 안되는가보다예? 추억이나 경험,산디농사에 얽힌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103048 #1 산디가 많이 같지 안해. 어떤 사람은 안가는 사람도 잇서. 햇살림덜은, 제사 멩질허는 흐는 사람은 다 같지. 거의 먹젠, 겐디 제사멩질 안허는 사람도 좀 잇주게. 그런 사람덜은 안허는 사람은 안해. 밧이나 죽으고,

103048 @ 어려운생이다예 이게. 비라도 안오면?

103048 #1 조, 보리허곡 콩이나 흐깁 같까, 옥이네 어멍은 그 세간 뇌분후젠 그런 거 일절 안해. 조, 보리만, 밧 흐나만 같젠

103048 @ 돈이 돼나보다예? 그건 계도?

103048 #1 아니, 자기네가 제사허젠허민 안사니까, 돈 행으네 사야지. 그거 안갈민,

103048 @ 오일장 그런디 강 산디를 제사할때만,

103048 #1 쌀도 사오곡게.

103048 #2 오일장날 강 사와사주게.

### 고구마 농사

103049 @ 이제 고구마로 감수다예. 고구마 농사를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103049 #1 고구마 농사는이 쳡명, 2월덜 낭 쳡명돼민 고구마를 묻어. 땅속에 종자를 쪽 묻어. 요마니 묻영 걸 나면 잘 가꾸왕으네 줄을 막 내왕 줄 나면은 고구마 심을 밧을 같아.

103049 #2 고구마 농사는 쉬워.

103049 #1 소로 막 같앙으네 이제 곱이 이렇게 둥둥헤게 같아. 탄 밧보다 가는 것을 잘 같아야돼. 곱이 영 올라오게. 갱헨 갈민 그디 쪽허게 심영 많이 현 사람은 많이 심지. 막 놉도 빌영 심고, 옛날에 왜정팬이 고구마 공출했잖아. 공출, 그 감재 빼데기 바치렌 헤여게. 썰영 들리왕, 갱헨 바칠때는 많이 같앙으네 막 그 조살해. 시청에서 직원들이 왕 “멧말지기 멧평 갈라” 헤영, 다 같아야 돼. 다른 농산 못해도 우선 고구마 그 빼데기 풀거난, 빼데기도 바쳐. 고구마로 건 누게가 받아 먹어 신디 모르크라 왜정때, 저 이호 1동 강 우리 풀아난 거 알아져. 가망이 큰 거세 물영으네 딱딱 새끼로 물영 즐라매영 풀아신디.

103049 @ 빼데기현 거마씨?

103049 #1 빼데기행 들린 거.

103050 @ 들린거예? 고구마는 언제, 어떻게 갑니까?

103050 #1 고구마 처음에 갈 때가 쳡명에는 쳡명,

103050 @ 청명, 4월?

103050 #1 4월, 청명, 아 청명전에 놓겠다.

103050 #2 전에 놔야돼지.

103050 #1 혼 정월말돼민 남직허다이.

103050 #2 정월말은 아니라도 이월초에 놔야지. 2월초에 종자 그 씨를 땅속에 쪽 이제 묻영, 요만큼 묻어그네게 순 나오면은 그거 걸름주면서 오줌, 그거 받아그네게 발효돼면은 그거 쳐다가 뿌리면서 그 순을 막 키워. 게민 순 하나가 저만치 뻗어가 게 길어. 경 길게 키워나그네 이제 그 보리해난 다음에 그 밭을 갈아그네게 그 줄을 비어다가 요만큼씩 찢라. 요만큼씩, 요만큼 찢라 가지고,

103050 #1 이디 그 썰이 있어. 썰 네 개, 네 개. 네 모작허영,

103050 #2 이파리 네 개사이를 찢라가지고 이 고구마 심는 밭고지는 골게 해야돼어. 게그네 허민그레 이게 밭고지면은 요게 큰고지 요게 작은고지가 이서예. 경허면은 그 사이레 줄 놔그네게 이 흙을 막 강 쪽 들어 올려. 올리민 둥실허게 올려.

103050 #1 경 안 헛젠 한춘자 막 송허멘. 땅에 부짱 내부럿젠, 아니 올렛텐,

103050 #2 응. 경 허드라. 게그네 해야 그 고구마가 줄 많이 들었으네게 크주게. 게그네 허민 8월만 나면은 8월 추석돼면은 그 고구마 처음에 심어그네 순 나온딜로 보면은 땅이 벌러진디가 이서게. 그런 디 강 파보민 고구마가 이만씩 커.

103050 #1 이젠 안들엇드라. 이번에 팡 보난 업서.

103050 #2 겐디 흑도 안 올렛젠 허난 들 리가 잇나? 처음 생긴거라이. 쟁헨 요만씩허민 파다가 쟁으네게 애들 초등학교 운동할 때 옛날에 뭐 줄게 없잖아. 게민 그걸 벨미로 간식으로 그걸 파당 쟁으네 아이덜 운동허는 날은 먹으렌 허고,

103050 #1 고구마가 큰거야 큰 거. 고구마허고 계란 솟아주는 거.

103050 #2 응 먹으렌 주면

103050 #1 계란은 득 질라 집에.

103050 #2 게난 가을들영 다 가을농사 거두와 들영 땡, 고구마도 네중엔 이젠 손으로 많이 사람 손으로 팔 수가 어서. 소로 딱시 갈아. 갈민 뒤에 골채 들렁으네 주서. 멧사람이 뒤에 따라땡기멍 주성으네 줄거리 다 이젠 찢라넝으네 다듬양으네 쉼 먹으렌 출 비어분 목초 비어분 그 밭테 강으네 기계로 막 저 찢라지는 기계가 이서서. 그걸로 헨 이젠 찢랑으네 영 돌려가민 착착착착 찢라지멍 나가민 그거 행으네 문딱 이젠 땡기멍 막 널어.

103050 #1 36년간 그 허당으네 우리 해방돼난 안헨네 왜정때.

103050 #2 응. 널영으네게 말리민게 딱시 그 글쟁이로 막 글거. 글쟁 모두와당 놔그네 불령 이제 그 이파리 들잖아. 게난 불령으네 그 문지 이젠 다 빼땡 이젠 가마니에 담양으네게.

103050 #1 너네 어느 밭디 경 해완?

103050 #2 우린게 벵일이 구렁잇잖아 그 출밭,

103050 #1 아 우리도 서녘 출밭디 강 알쪽으로 두밧디 강 허연.

103050 #2 알력출맛 우린 우녁출맛디 놀엇네. 혜영케 스몏그냥,  
103050 #1 일로헝 느껴나꺼허멍,  
103050 #2 공출헝 바찌고 해낫수다게. 에이고, 바찌고 이제 나머진게 딱시 그  
돌방애에 뻐사당으네 ㄹ 해영 수제비도 헝 먹고 떡도 만들엉 쟁먹고,  
103050 #1 즈베기 허지  
103050 #2 수제비도 헝 먹고, 떡도 만들앙 쟁 먹고 간식,  
103050 #1 감재떡은 거멍해. 시커멍해. 게도 맛은 좋아.  
103050 @ 그게 어떤 모양으로 만듭니까?  
103050 #1 영헝 반죽헝으네이 손으로 영영 헝 동글락 동글락해당보믄 웨어.  
103050 @ 납작허게 돌레떡식으로?  
103050 #1 돌려가멍 경헝 솟디 낱 찌면은이 색깔이 까망해.  
103050 #2 까망해도 맞디서.  
103050 #1 아무것도 안놔. 이제 ㄹ트민 설탕놓고허주만은 그냥 고구마맛도 맛중  
아. 맞존게 어서노난게  
103050 #2 맞존게 이서게. 고구마  
103050 #1 겐디 우리 큰어머니는이 애기덜도 어서도 그걸 해영으네 우리는 우리  
어머닌 애기를 막 막 하영나난 자꾸 우리집이 가져와. 감재떡을 해영, 저 그 녹  
냥 알로 “셋년아”해영 불러. 불르민 “양” 허민 차롱착 들렁 “이거 ㄹ정 강 아이  
덜이영 먹으라.” 아 식구어서도.  
103050 #2 쟁일이 성님은 할머니영 살앗잖아. 쟁일이 성님은 할머니영 살난 그  
할머니가 잘허드라게.  
103050 #1 잘해여.  
103050 #2 밤이 야학애 강 오민 그 우린 안헝기니까 난 그 성님 그레 들어가불  
민 우리 올래가 얼마나 기나?  
103050 #1 맞다. 맞다.  
103050 #2 양웁으로 대나무 잇기 때문에 무서왕이 나혼차 그레 갈 수가 업서.  
103050 #1 대나무 누게네 대나무야?  
103050 #2 그 멩이네 집광 그 찬식이네 집도 그 대나무로 어우러졌지. 또시 알러  
레 들어가도 딱시 그디 대나무로 어우러졌지.  
103050 #1 알러레 들어가민 누게네 대나무?  
103050 #2 그 저 하옥이네게..  
103050 #1 아아, 하옥이 할망네,  
103050 #2 하옥이 큰할망네게.  
103050 #1 이제 생각남다.  
103050 #2 우리 올랜 막 길잖아.  
103050 #1 야넌 벵일이 일름이 웃벵일이, 우린 알벵일이야,  
103050 #2 게민 쟁일이성님이 “나영 ㄹ찌 강 자당 아침이 가라 아침이 가라”

경 해여계. 계난 노상 그 성님이영 ㄱ치 자당 아침에 가,  
 103050 #1 어머니 욱 안허여?  
 103050 #2 아니 어머니 경 뒤 햄수덴 허민 욱 안허여. 경헨 강 보민 그 할머니가  
 꼭 그 감재떡을 쳐당 경 놔뒀더라게. 간식 먹으렌,  
 103050 #1 거 봐. 그 할머니 얘기도 흥나토 안나봐도,  
 103050 #2 그러게. 그렇게 잘해줘.  
 103050 #1 손질 들양살명 경해여 손질.  
 103050 #2 감재떡행으네 청 놔두고 어떤뎐 고구마 쳐당 꼭 방에 놔뒀더라고  
 103050 #1 두슬못이로 메뉴리가 애길나난이 양재메누리가 애길나난 두  
 슬못이 건 나영 동갑에꺼 뜰 나난 그거 돌아단 살아게. 우이 손지  
 는 그 할망 해주곡, 먹을 것도 해주고 얘기 나난 우이 손지는 시집갈 때 광목도 해  
 당 빌로 해영 숲양 이호 일동 남당이엔현디가 이서. 그디 강 막 발레연 해양케,  
 경해영으네 시집갈 때 해주곡게. 할머니가, 어머니가 하나도 안해원게 시집갈 때 .  
 103050 @ 본인에 손지?  
 103050 #1 손지지. 계난 자기 들양 사니까게 손지를 경 해줘서. 시집갈 때, 경헨  
 이제 스나인 4:3스건나부니까 스나인 4:3스건엔 죽어불언게.  
 103050 @ 손지에?  
 103050 #2 손지사위가 죽어부난.  
 103050 #1 죽어부난 손지사위가 오도롱 사람인디 죽어불엇어. 죽어부난 이제 그  
 성님이 막 고집해여계. 막 착허곡 글도 잘허곡 공부도 잘허곡 해나신디.  
 103050 #2 원 말수도 엇고,  
 103050 #1 마음이 착헌 사람게. 경허난 이제 막 여기저기 돌아가켄 경해도  
 “아무디도 안가켄” 어디 광령사람이 막 돌아가켄 증매를 받이. 치매몸빼바랑  
 에 치마영 저고리영 째 물구덕 빈 허벅 낳으네 저디강 물질영 먹엇어. 구릉 저디  
 강 시집이강 스나이 아니와도 웨가에 갈 때 나가 봐신디 그 허벅 정 강 뺑일이  
 강으네 부러뒵 갈 때 보난 알지. 치마저고리게난 시집이 오닐저녁 돌아 갈거난  
 옷도 안 입영 치마저고리 스나이 글로 광령으로 강 만날거야. 웨가집으로  
 103050 #2 4:3 후에 갓잖아?  
 103050 #1 후에도 경 4:3스건 후에게 우리 물 먹엇네. 너 그때 욱지 가분뎐가?  
 어디 가분뎐가?  
 103050 #2 나 욱지 가분뎐지. 계난 4:3 스건후에 계난 뺑일이 물을 먹엇나?  
 103050 #1 에이구. 4:3스건 후에게 뺑일이 구릉 물 지어당 먹엇네. 성안에서 구  
 룡물져당 먹언. 구릉두개다 그 상옷태강 뒤 빨곡 씻고, 계난 그디강 어멍허곡 약속  
 헌거라. 친정어멍허곡이.그디강 물구덕 쳐당 네불거난 “어멍이랑 물랑 정 읍서” 자  
 기는 약속행으네 그디가 웨가니까.  
 103050 #2 남뎐 데리레 오민 알카부덴  
 103050 #1 아들 쇠개 뜰흥나 놔뒵 죽어부런게. 근디 스나인 지금 살고, 큰아덜이

잘도 머리가 좋았으네 고시원에만 살았으네 지금 장개도 안가서. 지금 60 넘어서. 장개 안간.

103050 #2 우리 큰아덜이영 동갑이라.

103050 #1 겐 60 넘었지 그른 ? 장개 안강으네 이젠 하도 고시원에 살았 시험을 몇번 봐도 그 판사시험을 안뵈니까이 주인을 햄덴.

103050 #2 1차는 뵈꼭 2차가민 떨어지고 떨어지고 허난, 고시병들언,

103050 #1 경허난 고시병들영으네 지도 오지도 안허고

103050 #2 집이도 딱 일절 끈어붙고

103050 #1 게난 두 번째아덜은 양재 쥐불고, 죽은 아덜만 이제 이서. 죽은 아덜, 겐디 하르방 이제 죽어신가? 어떻해신고 몰라?

103050 #2 죽엇젠 말은 어서.

103050 #1 그때 혼번 보난 빠지랑 해서라. 나신디 인사도 막 허고이,

103050 @ 겐디 결혼행 잘뵈난예?

103050 #1 그때 그 생각만허민 난 이상헌것만 봤어. 아니 그 저고리는 잘 모르크라 검은 이런 다우다 치매더라. 다우다치매, 옛날은 다우다엔 해연 나이롱 다우다 치마 막

103050 @ 웨할머니가 허락헌거 아니 가렌?

103050 #1 가렌게. 아니 좋은디 막. 아기도 엇고게. 그디도 각시도 죽어불 게난 장 아덜 식개 낳고 딸허나 나신디게 딸 자기 죽어부난

103050 @ 웨할머니는 그 손지를 경 아편 키와신디 돌아가시고?

103050 #1 웨할머니가 아니고 성할머니, 아기도 안나본 어른인디 그 양을 들 아서이, 씨아지방 아덜을, 양들아네 그 양재 손지주게. 아기 혼번도 안나

103050 @ 아아 경도 헛다예. 옛날에는 얼마나 고마운 뵈과게 진짜?

103050 #1 아기도 안나도 ㅁ만이 살았지. 할망 하르방이, 옛날은 경헌디 많아이 그 열너라.

103050 #2 옛날은 집안 가문 지키젠,

103050 #1 이상허게 그 집안엔 광령서 온 어른이 세 어른이라.

103050 #2 다 광령서 온 어른이라이.

103050 #1 응, 그 태호네 어머니, 뵈이네 할무니, 또 그 태호네 할머니에 어머니에 서이가 와서 광령에서. 문딱 김칩에서와서 강칩더래,

103050 @ 자식이 아예 없을수도 잇구나?

103050 #2 형제간에도이 어릴때부터 헤어져 살민 정이 없는거 같애. 가가네 허는 거 보민, 정이성님허고 열이허고 허는 거 보민 완전히 이견 혼배에서 난 형제간이라고 볼수가 업서. 그렇게 정이 업더라고

103050 #1 성질도 흐낌 틀리꼭게.

103050 #2 스뵈 틀려.

103050 #1 죽은 아신 팔팔팔팔허고 큰 성은 조용해. 춤 셋성이라.

103051 @ 고구마도 걸름을 험다예 아까처럼?  
103051 #2 고구마도 옛날에는 그,  
103051 #1 그거 씨놀 때게, 오즘. 씨 줄 크렌  
103051 #2 순을 킵젠허민 거름을 쥐야 크지.  
103051 #1 줄을 많이 커야 멘적을 많이 놓지.  
103051 @ 이견 불치 안허고 오즘만?  
103051 #1 응. 불치, 아니 고구마 험 때 불치 놔 아래.  
103051 #2 고구마 줄 찰라당 놀때는 불치 이시민 노민 막 고구마가 많이 들어.  
103051 #1 겐디 우리 어머니 그냥 불 영 슴앙 영허민 거름이 안돼여. 영 버디 낱 오즘을 쥐야 오즘에 섞영 썩어야 거름이 잘돼곡 곁고.  
103051 @ 불치 놓는 따른 뭐 잇수과?  
103051 #1 오즘항 논디 옆에 오즘항이 막 큰 거 해. 이마니 오즘항을  
103051 @ 오즘항속에 놓는 것 아니잖아예?  
103051 #1 오즘을 걸여당 이 불치에 영영 영 허지. 또 불치 놔낱 영 허곡,  
103051 @ 거름처럼 늘어?  
103051 #1 그 거름에 오즘에 반죽돼면은 썩지. 썩으민 거름이,  
103051 #2 발효돼주기.  
103051 @ 보린에는 그건 안하고 별도로?  
103051 #1 아이 많칠 안해.  
103051 #2 부엌에 그 빨감으로 떼난거난 많칠 안허주게.  
103051 #1 계난 고구마도 하영 안허는거난 허곡, 산디도 많이 안허는거난 산디에 도 허고, 그냥 보리에 많이 허니까 거 험 수가 없어.  
103051 #2 고구마 춤 줄 놓는딘 불치 노난 고구마 잘들고이, 맛도 잇고이 경 허는 거드라.  
103051 #1 이젠 불치가 어서.  
103052 @ 고구마는 어떻게 심습니까? 아까처럼 세모작 그거 해영 찰랑 심는거고 예  
103052 #1 네모작,  
103052 #2 이과리 넷 남겨 낱,  
103052 #1 세모작은 너무 짧아. 그거이 왜정때 시청 서기가 왕 다 말해주더라. 영 행 네개석 찰랑 심어야 멘적에 줄과 줄사이에 주먹흐나 사이 노렌해여. 이 줄광 이 줄 사이에 그냥 부칭놓지말양, 딱 그 사람이 시청 서기가 왕 말해줘.  
103052 #2 이 끄트머리 이레 열매가 부트면은 막 크고, 요자 끄트머리 도 이레 들면은 열매가 막 크고, 영 공간이 이서야,  
103052 #1 공간어시 줄을 영 부칭 해볼민 이 사이에 고구마가 들지 못허지게.  
103052 #2 공간 없어서.  
103052 #1 계난 그때 그 시청 서기가 완 허는 것이 눈에 흰해. 손모작 그치렌



헌 거 허고, 주먹 하나 사이에 딱 노렌, 주먹채언, 그때가 워정때니까,  
 103053 @ 고구마밭 김매기는 몇 번 합니까?  
 103053 #2 흔 번, 고구마줄 막 낭 영켜지민 풀이 경 자라질 못허주게.  
 103053 #1 또 옛날엔 경 코콜이 허지 안행 네불어. 흔 번만 매영 네불어. 좀  
 남아도, 떨어져도  
 103053 #2 흔 번만 매도 깨끗허여.막 줄로 영켜정으네,  
 103054 @ 고구마밭에는 어떤 '검질'들이 자랍니까?  
 103054 #1 옛날에는 재완지 뭐 했는디, 진풀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요즘은 어디  
 요지금 진풀재와서 못살아. 제초제 해서 크기 전이 드르 잡당 봐도 나는 건 그놈의  
 검질, 옛날에는 그 검질이 그렇게 없었는데.  
 103054 @ 어어, 요즘은예  
 103054 #5 것도 재완지. 재완지가 제일 한거.  
 103054 #4 밧디 나는 거사 다 나주게.  
 103055 @ 고구마 수확은 어떻게 합니까?(줄베기, 파기 등)  
 103055 #2 줄 베어그네 다 걷어넛청,  
 103055 @ 걷어넛청, 다음 아버지가 소로 갈양예?  
 103055 #1 뒤에서 주서, 경 모아냥,  
 103055 #2 줄기 다 다듬양,  
 103056 @ 고구마는 어떻게 보관합니까?(감젓늘)  
 103056 #1 또 그 영 광  
 103056 #2 땅을 막 깊숙허게 광. 땅을 둥그렇게 깊숙허게 파그네,  
 103056 #1 곡괭이로 광으네 삽으로 네치멍,  
 103056 #2 흑을 바껏디 다 네치멍,  
 103056 #1 사람이 이거 들어가민 보일등 말등 파. 하영 사름 키마니 파.  
 103056 #2 경혜근에이 땅바닥엔 이젠 저 보릿대 앓당 많이 깔아놔. 딱시  
 이제 가생이엔  
 103056 #1 보릿대 깔아 냥 그 우이 우린 저,  
 103056 #2 그 옆인 가생이엔 딱시 이젠  
 103056 #1 어욱 깔아냥 그 다음엔 조짚,  
 103056 #2 어욱 세와냥으네 그 다음엔 조짚, 조나무, 조때, 세와냥,  
 103056 #1 그 아래도이 지일 네중허는 건 조 털어난 그 조국메기, 조국  
 메기엔헌게 이서.  
 103056 @ 조국메기?  
 103056 #1 조 다 떨어져불민 요만씩헌 것이 막 나와.  
 103056 #2 열매 다 털어져불민,  
 103056 @ 조꺾꺾리 그거?  
 103056 #1 그것ㄴ라 조강메기

103056 #2 강메기엔 허주게. 그거 낄앙으네게.

103056 #1 그거 낄앙 고구마를 놔. 그 속에,

103056 #2 겐 고구마를 앓당 막 쏟아놔. 그거 딱차게 쏟아놔으네허면은

103056 #1 영 이제 어울렁

103056 #2 어욱이영 그 즐기 그 대영 헤그네게 이 바위를 만들야. 영 널평, 돌아가명 쪽 영 요만큼 쪼영으네게 영영 쫄영으네 만들야그네게 우엔 느람지라고 헤그네게 덮어. 돌아가명 덮으고, 우이 딱시 모자, 사람의 모자모양의 주쟁이엔 현 것이 이서. 그거 썩와. 그거 썩와놔뒤뚱서 햇빛난땀 열아주곡 그 공기 통허렌 열아주곡, 이제 날 밤인 비온땀 밤인 덮으고, 게난 그것도 막 춤 신경써야돼여. 아침이 강 열아주고 저녁인 덮어주고

103056 #1 신경쓰는거라. “고구마 열라” 어디 가젠허민 어머니가 “고구마 열라이!” 또 갓당 왕 “고구마 덕거샤 고구마?” 비나 왁직허민이 막 것도,

103056 #2 비왕 물들어불민 썩어불기 떠문에,

103056 #1 고구마 많이 허민 두물도 놀어.

103056 #2 두물 놀어. 봄 웨영 먹을거허고 종자 그 놓젠 혼눌은 행 놔두고, 혼눌은 겨울내내 파명 그걸 움파당으네 쟁떡주게.

103056 #1 양식으로 먹어. 공출 다 해불민 뭐 쓸 잇나? 왜정때,

103056 @ 아이구 세상에, 고구마 어시민 어떻 살아시코예?

103056 #1 고구마도 공출도 허멍도이. 것도 감재빼테기로 해영 바찌니까. 그 그디 시청에서 인직 우령으네 기계 하나줘. 걸로 썰영 물리우렌. 혼 반에 두 개 주는디 하나주는디해여.

103056 #2 호수에 따라그네, 호수 많은 반은 두 개주고

103056 #1 어우르멍 일인당 영해영, 그 기계, 돌아가명씩

103056 #2 게난 돌아가명,

103056 @ 느람지 이런 건 누가 만들어마씨?

103056 #1 아버지, 나도 해나서, 느람이, 야, 느네 시누이 주쟁이 잘허더라.

103056 #2 뭐를, 어느 시누이?

103056 #1 상민이 어떻, 나 두 개나 해세.

103056 #2 우리시누이 못허는게 엇나.

103056 #1 여자가 주쟁이 모르지이?

103056 @ 아, 저 봐놔주마씨. 모자 닳은거,

103056 #1 알아? 질 마주막에 영 행 영 허는거 이거네 시누이가 나영 동갑인디경 잘허여게.

103056 @ 지금 살아계서마씨?

103056 #2 아니 돌아간.

103056 #1 아이고 나 가이 빌영 두 개 헛게.

103056 @ 어떻 경 남자같이 손재주가 좋은 생이여?

103056 #1 “딱허게 묶어만느라 나 해주마”영 혼어에 두 개 해주난, 우리집 아방ㄴ라 “거 누게 해연?”“상민이 어멍해연”, “야” 영 보멍 “잘했네 잘했네” 따 시 허드라 거 봐나니까 다음엔 안 빌영해연. 아방이 해연.

103056 #2 게에, 허는거 봐나민허주게.

103056 #1 농사일 안해난 사람이난 몰랏단이, 아이고 그때 두 개 어욱행으네 막 끄덕끄덕해영 목영으네 가이빌영 두 개해연 아이구,

103056 @ 감저놀예? 감저놀을 그렇게 두 개씩 했다는거지예? 세세허게 말허는 분은 어십테다마는 조쪽이여, 거 보리낭쟁이여 막 여러 개 들어가는 줄은 몰랏수다.

103056 #2 감젓놀이엔 허주게. 경 안허른 썩어불주게.

103056 #1 혼 두개 끌아야 흑이 있으니까게 이견 흑이 백이니까dl 처음엔 어욱, 그 다음엔 조짚, 빙 돌아가멍,

103056 #2 밑에도 막 두껍게 깔아야 되고,

103056 @ 우리 나 어렸을 때 할머니께 놓는 그쪽에 툃툃허게 그냥 경 푸대에 담양 딱뚝허게 놔둬야 웬덴 고구마?

103056 #1 게난 케놓는 디 백장우이지.

103056 #2 건 뜨신 방에,

103056 #1 우리는 왜정때 해나부난 곤는거야. 36년간 허는 거. 왜정 때 녀영은 경 고구마 하영 안 심어. 그때는 공출 막 하영,

103056 #2 그때는 왜놈덜게 그 공출허렌 행으네 할당시겨노민 더 많이,

103056 #1 밧 쟁수알양 아무집이 멧평이민 멧평 심으라허영 조사해

103056 #2 다 조사해

103056 #1 시청에서 조사허여. 그거 다 안심으민 막 벌취. 막 세금도 바락바락,

103056 #2 옛날은 실퍼도 해야웨여. 살아남젠허든.

103056 #1 진짜 그 36년간 잘 고생했지.

103056 #2 게난 많이 허게 웬겨주게.

103056 #1 아니 허영 바찌는 거 없어. 그 자기네 그 총 허는 디 안허는 디 쓰는 걸 다 제해된 도민을 다 바쳐시난,

103057 @ 고구마로는 무엇을 합니까?(절간고구마, 씨고구마 등) 절간 고구마렌 했수과? 빼대기를?

103057 #1 절간고구마엔 했어. 절간이 물리는 거지.

103058 @ 고구마 줄기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옛날고구마줄기로

103058 #1 맛있어 지금. 옛날에는 다른 누물 많이 허난 그건 먹을 걸로 안알아.

103058 #2 옛날에는 워낙 땅덜이 많이 잇기 때문에 먹을 걸로 벨로 안 알앗주마는 중간부터 먹엇주게.

103058 #1 집집마다 거의 다 무우 갈았어이. 무우 갈양 이녁무우를 막 매당 먹고 허난이. 지금은 고구마줄기 막 벨미로,

103058 #2 집 옆이 텃밭덜 많이 잇기 때문에 보통 채소어시덜 갈앙 행 먹엇주게.

103058 @ 호박줄긴 먹어도 고구마줄긴 어틸 때 별로 안 먹엇잖아예?

103058 #1 호박잎은 막 먹엇지.

103059 @ 고구마 농사에 얽힌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4·3스건때라든가?

103059 #1 우리 이제 말헌 거 4·3스건전에 헌 말이라. 왜정때 헌 말이라. 4·3스건 넘영은이 경 막 강이로 허라 말라 허진 았헛지. 왜놈덜은 그냥 막 밭덜로 텅기명,

103059 @ 널엇당 비맞앙 옥들엇다던가 뭐 이런 ?

103059 #1 비 맞앙 해가민 막 이웃 사람덜 혼디 강 막 담아주고, 서로가게, 비 맞아가민 거 감재빼데기 물린 거 젖어가민 덮어주고 막 앓당 널어.

103059 #2 서로가 막 ㄴ치덜 헛수게.

103059 #1 동네사람덜 ㄴ찌 느도 해주고 나도 해주고,

103059 @ 그제 감재 팡 또 찌끄레기, 그 쭈시, 감재쭈시, 아니 저 그런 거 잇수게? 감재쭈시는 도세기도 줘나고 또 무신 그 끄뜨머리 새끼 감재 낭으네 그거 파레 막 아이덜 다녀낫수게?

103059 #1 이석줍는 거, 감재해난 이석줍는 거

103059 #2 이석줍는 거? 고구마 주서난 다음에 그 준준 준준헌 거, 흑 물어전 못 좇아온 거.

103059 #1 땅 파가민 걸러진 거 내분 거 주서당 겐디 우린 안해봐서. 집이꺼 이 시난 집이 것도,

103059 @ 붉은 감재여 흰 감재여 어느게 맛좋다 모이다 뭐 이런 거?

103059 #2 어, 아이덜 주시레 막 많이 다년.

103059 #1 그건이 밧이 조금 죽은 사람은 안허는 사람도 있어 고구마줄 아니 낫, 동구리만 허는 사람도 있어. 우린 고구마줄 항상 해마다 노니까이. 늙이 거 흘 시간이 어서.

103059 @ 4·3스건때도 고구마가 많이 주식이 뵈지예. 그걸로 살고?

103059 #2 많이 그때는 4·3스건후에는 많이 논는 사람이 으서.

103059 @ 4·3스건때?

103059 #2 4·3스건때도

103059 #1 4·3스건때 우리 산에 막그냥 고생고생허멍 숨으멍굽으멍 살아부난이.

103059 @ 뭘 먹엉?

103059 #1 에이고, 먹는 것이 뭐 에이고 그때 살아난 생각허민 진짜, 어디 아래 그냥 다 해영 가을들영 몬딱 해영 안네 들여방으네 산에 올라가는 사람, 아래 내려 강으네 심어가는 사람, 또 아래 갓당도 산에 올라 가는 사람, 경해노난 어느 날에 마음 놓고 행으네 밥행 식구들이영 아장 바롱바롱 먹어본 역스가 없어. 1년 동안, 1년 동안은 경 살았어. 어승비승, 야인 그 시절에 육질 가부럿어. 서울을 가부난 걸 몰라게. 막 그 곱양 돌아뵈기느거 곱는 거 걸 잘 몰라

103059 @ 뭐허레 육지 간마씨?

103059 #1 돈벌레 갖지.

103059 #2 돈벌레 갖주게.

103059 @ 해녀는 아니고,

103059 #2 방직

103059 @ 계도 다행이다예 어쨌튼.

103059 #2 열여섯에,

103059 #1 고생은 안 했지.

103059 @ 살아남을 수 잇엇다는게,

103059 #1 살아나고 그 고생이 그거 더러운 고생이야 고생이 말도 못해.

103059 @ 여자덜 얼마나 많이 죽엇수과게 젊은 곱닥헌?

103059 #2 나 정월에 가고 그 해 가이 뜨난 4:3이 낮지. 그때 나신때부터 시작이라.

103059 #1 정월에 가난 경헛지. 나가 산에 땡기기 시작헌때가 여름이 검질땡때부터 가서.

103059 #2 그러니까 나신때에 밤이 야간헛잖아 흑교 하숙집이서, 어느날은 우레 가네 그 호야 다 딱강 불경이신디 선생님이 와네 불끄렌 막 야단헛잖아. 불끄렌 막 야단헛 불꺼 조용허렌 허난에 이젠 불꺼 조용헤네 아맹해도 혼 30분 더 안 자서. 조용헤네 안자신디 이 앞이 큰길잇잖아, 길이, 이제 길이 바로 그 길이주게. 막 위카신은 발자국소리가 후닥닥후닥닥 헛게 달려드는 소리가 나드라고, 불키렌 헤연수 업안헛 집이가렌헛네.

103059 #1 그때가 남로당 조직

103059 #2 그때가 시작인 것같아. 가만이 생각해보니까,

103059 #1

### 기타 농사

103060 @ 수박 농사는 어떻게 합니까? 수박은 농스 안해봤지예?

103060 #2 수박 농사는 안해 받.

103060 #1 사먹기만 헛주.

103061 @ 참외 농사는 어떻게 합니까?

103060 #1 것도 안해 보고

103061 #2 참외농스ㄴ튼 건 이 노형은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그런 부업허는 사름이 없어.

103060 #1 노형이 양촌이라이. 양촌이난이 막 경 잡농슬 벨로 안해. 거의다 안허는 폭이라.

103061 #2 응. 거의 다 안 허여.

103062 @ 고추 농사는 어떻게 합니까 먹을꺼?

103062 #1 고추는 그냥 우영에 자기 먹을 건 자기가 허영 먹언 사먹진 안허드라. 우리 어머니가 고추혜영으네 아유 힘들어, 남방애엔 현 게 있어. 거기서 녀작녀작 그것에 백상 먹어. 이만씩 녀작녀작헌 거.

103062 #2 것도 볶양, 경해도 볶양으네 압상 솟창에 울렁으네 볶양으네 허민 쿠셔.

103062 @ 붉은 고추를 후라이팬에 볶아?

103062 #2 아니아니 그때는 후라이판도 엇고 솟창에 솟창에,

103062 #1 경허민 빨리 백사지렌이.

103062 #2 현 솟창에 낱으네게 막 영 짓이멍 막 울르민 꺼끗꺼끗허게 경행,

103062 #1 남방애

103062 @ 물 낱?

103062 #2 아니 그냥 것만 므른대로 백상 ㄱ를 만들영으네

103062 #1 김치는 해마다 허니까. 김치 ㄴ멸은 자기가 갈양 행 먹어.,

103062 #2 경헌디 쿠셔. 맛이 좋아. 너풀너풀혜영으네

103062 @ 쿠셔?

103062 #1 고치가 이만씩 그냥 부터. 이만씩부터. 계속 행 먹어신디

103062 #2 응. 겐디 맞은 쿠성 좋아.

103062 @ ㄴ멸김치여 물김치도 해 먹엇수과?

103062 #1 물김치도 행 먹지. ㄴ멸이시난 딱딱 행은에 겐디 건 김치물이 이제 알아지크라. 불그릉허여. 좀 붉어. 히히,

103062 @ 갓이렌 현 김치 잇수케? 들에 나는 것도 갓다당 허고?

103062 #1 응, 아니 옛날엔그 갓ㄴ물, 들에는 별로 안허고 우린 갓ㄴ물 갈드라. 요마니 갈아. 갈민 요마니 무룩허게이, 경 행 크민 우리 어머니 영 손으로 딱딱 딱딱 김치 행으네 우리 아버지가 잘 자셔게. 경행 허민 또 나와. 또 나오민 그때 행 먹영 메어부러.

103062 #2 아 그 접순나완,

103062 #1 응. 접순나오더라.

103062 @ 동지 김치도 맛좋고?

103062 #1 응. 동지 김치도 꺽영 행 먹어.

103062 @ 새우린?

103062 #1 새우린 김치 행 먹어 보지 안해서. 옛날에,

103062 #2 응. 옛날에, 새우린 김친 행 안먹어나서.

103062 #1 그냥 데왕은 먹더라고 모르는 거 다향. 새우리김치, 갓난 김치는 허는 거 환,

103062 @ 꿩마농

103062 #1 거는 그냥 므르게 안혜영 물김치로, 물김치로 행 먹 영 자박지에 행 것에 근근이

103062 @ 늪뻬놓고 그것만 ?

103062 #2 나박으로 썰엉, 무썬엉 할때도 잇고,  
103062 #2 갯늬멀도 물김치허든 좋아.  
103063 @ 배추 용사는 어떻게 합니까?  
103063 #2 이렌 안해.  
103063 @ 노멀만예  
103063 #1 집이서 쪼금쪼금 사와  
103064 @ 늬뻬, 무 농사는 어떻게 합니까?  
103064 #1 아이 무농슨 흐김 돼드라. 무우는 안 사. 우영팻이 널르게 이서낫주게. 우영팻 이시난  
103064 @ 무는 언제 씨부렁 언제 겨울무가 유명하잖아예?  
103064 #2 음, 겨울무가 유명허주게. 음력 칠월달 돼민 칠월중순 돼민 무운 가니까  
103064 #1 이제 흐김 이시민 같것다이.  
103064 #2 갈양 놔두민 겨울내내 먹어.  
103064 @ 무우로 해서 먹는 거는 어떤 것이 제일 생각남수과?  
103064 #2 무우, 깍두기도 해 먹고, 채썰엉으네 텨허그네 채로 무청도 먹고,  
103064 @ 콩국 끓일 때도?  
103064 #2 국도 끓여먹고, 콩국해 먹으면 맛싯지.  
103064 @ 저 고등어 이런 거 지질때도 무우 낫수과?  
103064 #1 응. 툭툭 흐김 좀 살찌게, 그거 이빨로 그차 먹는 맛이 좋아. 알 크게 허지 말앙 두박두박 썰엉,  
103065 @ 그든 감자 지실 농사는 어떻게 합니까?  
103065 #1 그것도이 우리 노형은 벨로 경 흐김씩 사다먹곡 허는 집이 드 물엇어,  
103065 #2 안허여. 그것도이 저 불치거름이 제일최고로 궁합이라.  
103065 @ 들엇수과 곁 지실?  
103065 #2 응. 그것도 고구마 심듯이(전화)  
103065 @ 하는거 봐봣수과?  
103065 #2 응. 옛날에 우리 어렸을적에 우리 집주위에 텨밭이 막 널르게 이섯주 게. 게민 우리 친정어머니가 텨 구루마 심어어.  
103065 #1 야네 어머니도 서쪽이주기. 게난 더러 봐낫주기. 지실은 하나민 그 눈 따라 순 나올 떠 굽은 거민 세 개 네 개 찰라이. 찰라그네게 이 땅을 영 파면은 그 디 불치를 놔. 불치 낳으네 땅에 영 서텨 이제 배합을 시겨. 쟁허근에 그거 하나 낳으네 영 올려 놔. 흑을 막 올려췌 나뉘. 게민 이제 순나그네 크면서 딱시 검질때 면서 거 또 올려췌. 굽을 막 흑으로 막 올려췌. 게민 열매 열아그네 막 붙어.  
103065 #1 그거이 일년에 두 번 심으니까 봄에 심는 건 눈따랑허고, 또이가을에 심는 건 절대 아맹 커도 흐나로 눈 안따. 봄에 심는 건 눈따랑 찰랑허고이, 또 여

름에 심는 건 또 가을에 먹어. 가을에 먹는 건 온차,  
103065 #2 가을고구마, 춤 가을 감재가 마싯어.  
103065 #1 건 하나로 먹어. 가을에 먹는 거.  
103065 @ 가을 감재가 마싯구나?  
103065 #2 우리 어머니 봄에만 경 심더라.  
103065 @ 모이고예?  
103065 #1 아니, 모이는 건 밭뜰로 가는 생이더라.  
103065 #2 땅풀이로 가주게.  
103065 #1 서쪽지실이 마싯어.  
103065 @ 서쪽이예, 맞아, 고산?  
103065 #1 폭삭폭삭해. 그 쪽건 작년에도 차로 왕 서쪽거렐헐 나 하나 사신디  
잘도 폭삭폭삭허드라. 저 남재가 서쪽이우덴 허명“나 안 속엿수다”허명  
103065 @ 옛날에 뭐 4:3이나 어떤 때 지실허고 고구마 감재허고 햇을 때 어느  
걸 많이 먹어신고예?  
103065 #1 고구마가 많이 먹엇지. 이 세계는 지실 벨로 안허는디난, 고구마로 거  
의 살앗지. 뭐 우리는 하도 해영 바쳐부난이, 우리 먹는 건 잘도 힘들고,  
103065 @ 지실예?  
103065 #1 아이고 36년간 그 부역허는디,  
103065 @ 그른 지실가정도 이거 뭐 갈양으네 떡만들고 이런 건 없지예? 고구마  
는 잇지만은?  
103065 #1 지금은 경 손이 하고 또 배운 것도 많고 허난 다 갈양 이것도 저것  
도 허는거지 그때사 얼른얼른 숯양 먹영 밧디강 일만 허젠,  
103066 @ 피 농사, 그 도리 송당에 피방애?  
103066 #1 그계 잘웨는가봐. 여기는 그런 거 없어.  
103067 @ 그른 믰말?  
103067 #1 이디가 옷뜨리도 아니고 해촌도 아니고 중간이라. 이디, 중간.  
103067 @ 믰말 ㄱ루는 어디 강 사당 떡은 해먹어실꺼 아니파??  
103067 #2 아니 옛날에는 저 목장밧을 익혀근에 믰말 간 사람도 이섯주게.  
103067 #1 계민 그거 허깁 사당으네 믰말 쓸로 행 쓸로 사.  
103067 #2 믰말 쓸 만드는데 멧뜰에 곶양 만드는데 그렇게 힘들어.  
막 여러 번을 해야웨어. 우리 어머니가 믰말을 우리 어릴 때 믰말을 해근에게  
멧뜰에 갈면서 그 쓸을 허는 걸 봤는데 그렇게 손이 많이 갈수가 없어. 믰말  
을 해다가 이제 도리깨로 막 털어. 말리와근에 도리깨로 영 대를 이렇게 세와.  
103067 #1 요물 옷터레 가게,  
103067 #2 응. 요물 옷터레 가게,  
103067 @ 꿰허듯이?  
103067 #2 응. 꿰허듯이.



103067 #1 께야 뭐 뭉엇당 영영 털민 똤거든.  
103067 #2 세왓당 물리민 털민똤는다 넄말은  
103067 #1 넄말은 도깨로 두들기민  
103067 @ 두들릴 때 경 세왕?  
103067 #2 영 세왕,  
103067 #1 요물 들르렌게.  
103067 #2 요물 들랑 털기 조렌, 세와그넵에 해똤서 도리깨로 때리면은 도리깨로 바로 이렇게 때리민 나무가 들어가부런 안떨어지잖아. 게민 도리깨로 갈겨. 옆으로,  
103067 #1 그거 힘없는 사람은 못해. 그 힘이 좋아야,  
103067 @ 넄말이 어렵구나 도리깨질이?  
103067 #1 힘없는 사람은이 이렇게 하지 착 그냥 곱기질 못해. 힘이 이서야지.  
103067 #2 우리 아바진 그런 거 잘 가르켜 나서,  
103067 #1 남자분이니까 여자분은 이거 영 곱기는 사람이 경 드물어. 힘이 원간 좋아야,  
103067 #2 착 옆으로 영 착 경해연 잘 떨어지드라고,  
103067 @ 다른 콩이나 이런 것보다 넄말 도깨질이 어렵구나예?  
103067 #2 예. 경행 떨어그네게 이젠 다 이제 떨어지면은 이제 댄 대대로 이젠 곱라내고, 쳐내고, 요물은 이젠 딱시 이젠 즘팍에 해그네 바람에 체를 날려. 날려와근에 딱시 이제 널영 들똤. 바싹 물리와야똤여. 막 여라번 바싹 물리와근에 이제 그 쓸을 만들젠허면은 그 넄돌에 넄돌에 ꄄ는디 영 바르르르르 하게 혼불 곱아노면은,  
103067 #1 넄돌도이 두 개라. 그런 거 급흐는 넄돌이 또 딱로 이서. ꄄ를ꄄ는 거 말고, 넄말급흐는 ꄄ를ꄄ레가 이서.“ 넄말급흐는 ꄄ레 빌리라 빌리라” 해여. 게난 아무디나 없어. 혼동네에 혼,  
103067 #2 ꄄ는 넄돌로 해불면은 브사정으네 쓸을 못 만들어.  
103067 #1 게난 급흐는 ꄄ레가 잇어.  
103067 #2 경행으네 허면은 급흐는 넄말거퍼는 ꄄ레로 행 넄돌로 행으네 영 들르 멩 허면은 이제 그거 떨어지면은 그걸 딱시 이젠 이 저 키로 키로 이제 다 퍼내어. 푸는체로 영 다 퍼내어. 체 갈라져. 딱시 또 낱 같아. 쟁 딱시 경 행 허고, 경 행으네 흐김 쓸 웬건 딱시 같고, 가는 체로 걸러근에게 쌀은 빼어똤 딱시 같고, 혼번 곱아야 열두번,  
103067 #1 경해야 그 주쟁이 어시 다 근똤해여.,  
103067 #2 열두번 거퍼야 다 현 쓸이 똤는 거.  
103067 #1 자꾸나고 자꾸 치민 또 나고 또 나고, 그거 안 곱아진거 또 나와, 게난 안 곱아진거 다 허도록허민 열 두 번 근똤허는거지.  
103067 #2 아이고 그거,  
103067 #1 잘도 힘든 거. 지금은 넄말 거푸는 기계가 이서.

103067 #2 기계가 이선 혼불에 싹 강 허는디 옛날엔 그 멧돌에 경허드라고,  
103067 @ 보리도 안나올때는 조허고 므말에만 의지했으니까 므말이 정말 여  
자덜이 힘들게 헛엇던 거다예?  
103067 #1 아니, 사람마다  
103067 #2 아무나 므말을 경 매사람 안 같지 안허드라고,  
103067 #1 힘든거니까.  
103067 @ 우리 이제 서쪽에 다 므말떡?  
103067 #1 이제는 기계로 싹 거꾸니까 장만도 기계로 장만허잖아. 무신 두드리  
나? 겐 장만 행 가정가민 이젠 기계로 강 싹 므말행 나오민,  
103067 @ 거난 제주도가 여자덜 노래중에 ㄱ레ㄴ는 소리가 제일 많이 나오  
는 이유가 그거였구나예?  
103067 #1 서쪽 그거 잘해여. 서쪽, 동쪽이 므말 잘 나와가지고, 이 제주시 발  
라는,  
103067 #2 아이고 나원 므말거페렌허민 원징글징글해여.  
103067 #1 야이는 어머니가 서쪽에서 오니까 좀 알아서 거 허는거야.  
103067 #2 우리 어머니 모든 걸 잘 해도,  
103067 #1 봐나니까, 안봐난 사람은 벨로 허젠 안허여. 나도 므말거페는 건 안  
해난, 말만 들엇지.  
103067 #2 우리 어머니 여라번 우린,  
103067 @ 거페난 저 뭐봐 꺾데기는 베겏잇허고?  
103067 #1 잘도 머리 좋아. 거 이제는 것도 업서.  
103067 #2 업서. 업서 이젠.  
103067 #1 오일장에도 풀양으네이 우리 시집갈때 사당 남양 다 해주고 그것  
도 해주고 해신디 이젠 거 푼는디 엇더라.  
103067 #2 어서 어서.  
103067 #1 거 어떻햄신고이 데껴부럼신가  
103067 #2 데껴부는 생이라.  
103067 #1 기계방에서이, 기계방에서 허는 건 멘짜해불거라이. ㄱ레로 허민 복  
삭허잖아. 이젠 안나. 아니, 우리 딸덜 헐 때 다 사당 해줘신디,  
103067 #2 나도 경해신디,  
103067 #1 이젠 아맹해도 기계로 허니까 안나는 것 같애.,  
103067 #2 오일장에서 사당 해나신디  
103067 #1 그것이 멘짜해부러. ㄱ레로 헐때는 그것이 보골보골해.  
103067 #2 ㄱ르르르르헛게 굴면은 그 꺾데기가 굵게 나오주게. 게민 그런  
건 베개에 담고,  
103067 #1 아니, 푼는 걸 못봐서. 오일장에서,  
103067 #2 게민 므말이 므말썰도 두가지고, 두가지로 빼야웨고, 굵은 썰 잇고, 즘

진 쓸 이서. 경험 ㅁ멸쫐도 두가지로 ㅁ야뵐고,  
103067 #1 ㅁ ݁라진 거허고 ㅁ차 쫐허고,  
103067 #2 ㅁ시 ㅁ루도 또 두 가지라. ㅁ루도, 그건 완전이 가률이 뵐 해도 ݁머.  
그 ݁데기에 해뵐해뵐 붙은것도 ݁아지기 때문에, ݁곡 또 중간 ݁쟁이 ㅁ루엔 험  
ㅁ시 ㅎ݁ ㅁ률이 ㅁ시 이서. ㅁ고 쫐도 두가지로 ㅁ어.  
103067 #1 ݁주차부 허잖아. ݁주차부 가믄 그거 ��� 사. 혼뵐에 만원씩 행  
사당 ㅁ어신디 이젠 올라실거라.  
103067 @ 그거 사당 범벅 해 ㅁ음데가?  
103067 #1, 2 아니, 수제비,  
103067 @ 수제비? 즈베기? 즈베기허고, ݁국은 아니?  
103067 #1 ݁국수도 허긴허여.  
103067 @ ㅁ멸݁국?  
103067 #2 응, 빙떡도 지저져.  
103067 #1 것도 해영 영영 ݁로 쫐민 ݁국수 뵐지.  
103067 @ ݁국이렌 안험수와 여긴?  
103067 #2 ݁국수엔 허여. 우린 ݁국수,  
103067 @ 동쪽엔 ݁국이렌 험디다게. 많이 행 ㅁ엇드라고,  
103067 #1 아, 이딘 ݁국수엔 허여. 오일장에도이 저 막 서쪽끗뵐이 ㅁ는디 잇  
잖아. ㅁ멸쫐,  
103067 @ 다 중국산이주게?  
103067 #1 그디 강 두 번 사온디, 오일장에 안 사와.  
103067 #2 나도 ݁년 안 사오난 생각남져.  
103067 @ 뵐 ݁쟁이 ㅁ루로 뵐 해ㅁ엇수와? 떡?  
103067 #1 ݁쟁이 ㅁ루가 아니고 ㅁ멸ㅁ루더라.  
103067 #2 막 빙떡 지저도 그냥 ㅁ루이나 마찬가지로 색݁도 좋고이,  
103067 #1 좋더라 좋아. 나도이 ݁수각시 행 ㅁ은 디 나 해 보난 진짜 좋더라.  
103067 @ 밀가루 섞영 허는 거 아니?  
103067 #1 아니 그것만 해. 그디 강 사 오난. ㅁ멸ㅁ루만 해도 좋안게.  
103067 #2 ݁쟁이 ㅁ루엔 해도 중간 ݁쟁이 ㅁ루인 생이라.  
103067 #1 ݁쟁이가 안답아.  
103067 #2 안답아이. 색݁도이 빙떡 지저도이?  
103067 #1 그냥 ㅁ멸ㅁ루 답아.  
103067 @ ㅁ믄 다 중국꺼우다게?  
103067 #1 아니 아니, 기계방이니까이 요기 오일장 이 아래, 기계방이 ㅎ나 이서.  
103067 #2 기계가 잇주게. 기계방 이션. 방앗간 이서.  
103067 #1 그디 가믄 풀아줘.  
103067 #2 나도 그디 강 사단 ㅁ어신디,

103067 #1 이제 만원 넘엄젠 허는 거 님드라.  
 103067 @ 혼뒤에?  
 103067 #1 어, 혼 뒤에.  
 103067 #2 난 금년 안산게.  
 103067 #1 멧번 안 먹엉 다먹어지긴 허드라.  
 103067 @ 뭐가 맛중습니까? 어떤딘 믱벌범벅이 최고 맛중?  
 103067 #2 믱벌범벅은 벨로고게,  
 103067 #1 믱벌범벅 빙떡이 제일 좋아. 허긴 뭐허긴 해도이 빙떡이 제일 좋아.  
 속에 무우채 담으니까,  
 103067 @ 빙떡도 제사 명절에 다 했다는 것과?  
 103067 #1 멧질은 벨로고 제사때,  
 103067 #2 제사때, 대목했주. 제사때,  
 103067 @ 여름에도 해마씨? 무우도 어신디?  
 103067 #1 아니 여름엔 안허고 철따라 허는디, 이 멧질엔 우수가 하지 안허고,  
 제사는 혼디만 허는 거난게.  
 103067 #2 건디 빙떡도 허는 집안이 따로 이서

#### 4. 들일

##### 소 기르기

104001 @ 들일에, 소는 어떻게 기릅니까?  
 104001 #1 소 길루는거야게, 소 겨울뒤면은 집이 출 해당으네 그냥 출  
 맥영 쪽 저 점심때 뒤민 강 물강 맥영 와. 돌양강 물맥여당 출주멍 조짚도 늘  
 엇당 주고 그냥 그 출도 비영 물리왕 늘엇당 주고, 흐를 다숫번씩은 줍  
 실거라.  
 104001 #2 그렇지.  
 104001 @ 다숫 번?  
 104001 #1 응. 혼 번은 조짚주고 혼 번은 그 풀주고 행 그것ㄴ라 새  
 ㄴ이엔 허여이. 새출, 새출주곡,  
 104001 @ 그믐 물 먹이레 가본 적도 이서마씨? 여자덜도?  
 104001 #2 여자덜이 주로 주주게.  
 104001 #1 여자덜이 주고, 걸 땔때고, 봄나면은 또 봄나면은 그 출이 다 먹  
 영 없어. 없으면 쉼을 이제 멧집 행으네 어울렁으네이 들에 강 맥여 와. 낮이 강 풀  
 맥영으네이 늪의 쉼덜이영 막 모양게, 수늘영 니췌 나췌어시 혼 열집해영  
 열사람이 흐깁씩 강, 경 해영 먹영 어둑으민 집이 와. 메엇당 또 닐 붉으  
 민 또 맥이레 가. 딴 사람이,

104001 @ 건 남자덜이 헛지에 건?

104001 #1 응. 남자덜이 대목 허지.

104001 #2 남자덜이 주로 남자덜이 헛주기.

104001 #1 남자덜이 대목허지. 없는 집인 아이덜도 맥여 와. 나도 강, 나도 막 맥 이레 다녀난.

104001 @ 야, 대단허다예.

104001 #1 오빠가 일본 강 살고, 아버진 자꾸이 향교엘 많이 다녀. 향교, 향교에 만 살아. 향교에만 살아 아버지가, 아버지 소 맥일때가 벨로 어서서. 밤이 밤자는 건 여름나면은이 여름 낭으네 그 조농사 다 끝나면 이제 산에 강 사람이 그 소임제가 밤을 자. 밤 장 맥이민 뒷날은 탄 사람이 그 밤 잔 사람 조반을 싸다 줘. 그거 먹영 오렌, 싸당 주민 그 조반 가정그네 조반 주고 그 사람은 내려오곡, 조반 먹영 탄 사람이 그 맥이민 또 뒷날은 또 그처럼 해. 경헨 그처럼 허당 출비게 되어 이. 여름에 경 매당 보민 바깥데 그 출 출, 쉼출, 출을 행 막 크게 행 산에 행 산에 행 놔둔 거 이녁만씩 헛당, 출 비게되민 쉼을 아래 내려와. ㅈ ㄴ 이제 빈 거 식거오젠게 쉼로, 그때는 구루마가 잘 없어. 옛날엔, 쉼로만 시꺼 와. 쉼영 물이영 해영, 흐낌 이서가난에 구루마 이성으네 구루마로 시끄곡 벨르곡헌디 그 막 옛날은 그자 지어오고 쉼로 시꺼오고 경헨,

104001 #2 우리 어렸을 때엔 마차가 어섯주기.

104001 #1 어섯지 마차,

104002 @ 아이고, 여자분들이 대단허다예. 소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털 색깔, 뿔 모양 등)

104002 #1 소의 종류, 숫소, 암소.

104002 #2 빨경것도 있고, 노랑것도 있고, 얼룩도 있고,

104002 #1 숫소는이 그 암소허고 둘이 교매허면 새끼도 나이. 교매허민 새끼도 강 낭으네 봄나민 소새끼 낭으네 해해,

104002 @ 아까 얼룩 검은쉼 이런 거 다 이름이 이실건디 그런 건 몰루쿠과?

104002 #1 얼룩소, 검은 소,

104002 #2 검은 손 지금 흑소 보고 검정 소.

104002 #1 또 털이 노랑허민 노랑헌 암쉼엔도 허고, 빨그면은 흐낌 영 황 세질근거ㄱ란이 빨끈암쉼엔도 허고, 빨오그라지민 그 쉼 훑으레 간 때 잇어 불면 “빨오그라진 암쉼 봐지민 글아줍서” 하하하 경허민 어찌다가 걸 보여 허 민 “아이고 빨오그라진 암쉼 잇수다 일로 왕 앗아갑서, 일로 왕 심영갑서”해. 우리는 암쉼 벨로 안매언. 언제나 그냥 숫소만 매언. 숫소,

104002 @ 숫쉼을 부렁이렌 험니까?

104002 #1 부렁이소만, 부렁이소 매당으네이 나이들민 불 까불어. 불 까불어. 하 불 까불어. 막 어른덜 모영으네이 야, 그 쉼 묶영으네이 발 묶영 탁 늑형,

104002 #2 양착 다 묶영 늑져야 돼여.

104002 #1 나 그거 받게. 묶었으네 그 녹들영 안허고 그 어른덜이 모었으네 야, 짝 묶었 녹들영으네,

104002 #2 동네사람덜 다 모여.

104002 #1 그 혼사람은 불을 칼로 이렇게 해영 두 개라. 혼나 아닌 두개 빨록 내왕

104002 #2 줍으민 빨록 나오주.

104002 #1 빨록 내와뵤, 그디 웬장 박박박 부비더라고 그디 웬장, 웬장부병으네 이제 일로 묶은 거 풀민 와들랭이 일어나 췌. 게민 그 췌불을이 놔두지 안행 막 시청으네 술안주해. 그 췌불을 내가 그걸 두 번을 받네. 우린 부릉이만 매니까 술안주해여. 내불지 안영,

104002 #2 우린 암소만 매영 새끼 낭 키왕 허곡허난

104002 #1 우린 아버지가이 허질 안허난이 암술 매질 못해. 부릉이만 매었으네,

104002 @ 부릉이가 맞갈잖아예 또?

104002 #1 크면은 경 경으네 불까불면은 췌가 어질어게. 왕왕도 안허고 그 부릉이혈뎨이 암소 봐지민 막 뛰어남 뭐 가불곡 헌디, 이 그 소 불까불민 중성기엔해. 중성기 이름이. 부릉이는 소 그 불 안 깔때 부릉이고이 또 불 안까불민 중성기, 중성기 해해해, 중성기는 좀 어질어. 불이 어스난이, 암소 봐져도 막 안뛰어. 부릉인 암소 봐진민 막 뛰어.

104002 #2 불 까부니까 뭐가 셔야 뛰든지 말든지 흐흐,

104002 #1 막 뛰어 부릉이는. 암소 봐지민,

104002 @ 도세기도 마찬가지로 아니꽈? 도세기도 불청 것도 먹지 안허여 안주로?

104002 #2 도세기도 마찬가지로.

104002 #1 도세기는 애왕 질루는거난 몰라, 먹나 도세기 불 먹나.?

104002 @ 먹어남거 닐아 막 사람덜 숲아서 먹었는지?

104002 #1 숲앙 불 까긴 칸디 막 찌렁내난덴 허드라. 도세기불 먹는건 난 못본디, 소불 먹는건 우리 췌가 이션허난 소불도 크주게. 크난 막 시청으네 히히히, 불 습은 그 잉결에 구웁, 구웁 썰었으네 막 술덜, 하하, 나 우리 이사할 때 불쌍도 허고이 막 끌아안고 막 묶었으네 대맹이 끌아아정 움직이지 안해사영 칼 막 췌 들에 곶앙, 곶앙으네 짝 해영 빨록 영 빨록 줍으민이 영 허민 줄거리신 거 칼로 영 짝 췌랑 거 직접 보니까 소문만 들으민 잘 믱를건디 눈으로 보니까 ,

104002 @ 대단허우다게.

104002 #1 소만 매난게, 부릉이만 송아지 행 커가민 부릉이 돼주게이. 부릉이 돼네 너미 목슬아가민 췌라부러.

104002 @ 멧슬까지 키웁니까 거 가족처럼 살당 불까지 치명?

104002 #1 열두슬, 열세슬 소,

104002 @ 수명이?

104002 #1 계가민 힘이 없어, 계민 그 도술장이 이서이. 도술장에 췌 해당 잡앙  
푹는다 거기서 왕 사가. 거기 사람덜 왕 사갈때도 있고, 어떤 땐 동네에서 추렴도  
해여,

104002 @ 추렴?

104002 #1 모영으네 잡앙 그 돈 해영 술값 쥐똥 갈랑 먹어.

104002 @ 건데 정들고 뒤희민 그런 것도 쫓?

104002 #1 계난 왜정때, 경 허는 거 봤지이. 43 스건후엔 그런 거 경 봐보지도  
안허고 모르고, 왜정 때,

104002 @ 소의 나이가예 제일 오래 키와 본 계?

104002 #1 열쇠술, 우리 열쇠술까지 키와난, 힘이 없으고이 그 부릉이  
와가민 막 도망가불고이. 나이 이거 이거 이거 영 누난 췌가 이디 빨락 뽕앙  
넘어가부난, 겐 꺾어지진 안허곡이. 이것이가 다숫술인가 일곱술인가,  
우리아버지가 항상 늙의 어른덜은 소 장가지고 술행으네 이 술대 알대 오는다  
우리 아버진 꼭 술 이경글렌 해 날ㄴ라. 압이 이경가고 아버진 뒤에 장가지고 막  
뜨게뜨게 와. 겐 소 이경으네 이까지 와신디 정존이 알로이 부릉이 셋번게, 중동  
박서방딸이 셋번보려희난 췌를 확 들어쌍ㄴ찌 몰아야헐건디 막 느러지게  
느러이 돌앙가니까, 나가 이제 이경 누게네 가니까 우리 췌가 이경 중성기니까 그  
부릉이난 중성기난 사름ㄴ트민 뒤희헐 강 확 찢러부런게. 부릉이가 우리 중성기  
췌를, 뒤로 찢러부난 나가 그냥 탁 엮어지난 이거 불량 막 넘어가부러도 꺾어  
지지 안연,

104002 @ 큰일날뻔했다예. 인생이 달라질뻔 했네. 진짜,

104002 #1 산디 갈 때디 그때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고생허지. 산디 갈앙 그  
거 허고 막 아광 울어가난 그 아래 동굴래 동산 아래 월심이네 집 알아? 월심이네  
집이 그거 하인아이가 그디 딸의 성제가 하나는 나영 동갑에꺼고 우이건 성이  
라.

104002 #2 셋께 느영 동갑일거야..

104002 #1 경해신디 우리 아버지가 막 울어가난이 그디 강 소금을 흔 줌 빌  
어완. 소금을 흔 줌 빌어오민 그땐 막 그 초봄이난 속이 안난거라. 속이 준다,  
소행이가 묻저 나. 소행이 해당 박박 부병으네 소금해영 이디 딱 부쩌똥, 그 산  
디 사분에 일은 같았어. 술대왔디 그거 같앙으네 다 불령으네 허민 낮똥는거라.  
낮똥민 그 날 드랑 우리어머니 얹영 오드라고 날, 업영와도 집이와도 막 아판. 도  
남아지망허민 애자어명이라. 아이고 아지방 검은소똥 해당 이디 불르렌, 검은소  
똥 헌벽에 담앙 뚜똥허게 허민 이디 형벽 낱 울리, 불슬랑 검은소똥이  
상림이 집이 있덴, 그거 이마니 해당 삼까정 담아당 아 그거 허난 줌이 들어게.  
늑이난 줌 차져게. 검은소똥으로, 이디도 으서져서.

104002 @ 어머니가 돈을 빌어왔수과? 삼촌이 직접 강

104002 #1 어머니가 허지. 경ㅎ당 산디 불르레 또 가부러게. 큰새왔디, 닷

새썸 봄이난이 아이고, 나 그 생각허민, 냄새 난 썩으난 폭리가 똥싸부런게. 똥싸 부난이 영 썩멘디 깃물락, 깃물락 버랭이가 일언 버랭이가 나완. 서문통성신디 강 글은거라. 스촌성신디 강 “아이고 쉼 죽은 아버지 내부난 폭리 똥싸부난 버랭이가 바글바글” 험덴, 하하하하, 버랭이가 바글바글 험덴 글아부 난 그냥 현수오라방 돌아완게. 죽은 아버지 너부 무심허덴 이추룩 행 내부 령덴 허멍 하하하하, 즈전가에 시끄난 우리 오라방이 약해나서. 멩글락 멩글락허 멩 나가봐도이 병원에 강, 문중옥 병원에 거죽 빠작빠작 배껴불더라이. 오디 식밭 디 소독허영 약 짝 계난 성님네 오라방네도 서문통 바로 이제 집 잇지. 대성한의 원 바로 동녘집게, 높은 집 잇잖아 건물, 그 건물 바로 우녘집이 제일 양복점이라. 그디 사니까 방 하나에 점방하나에 살아. 방 두개도 아니라, 겐 나 놀 디가 업 서. 그디 살민, 바이다 아래 그 재단하는 그 우이 상 그 아래 바이다엔 허여. 그 아래 요 깔양 살아 나가, 방 으시난게, 일주일 살아서. 병원 다니멍

104002 #2 응, 그디서

104002 #1 겐 그디서 손 식계가 돌아와. 식계가 돌아와가난 제스가 돌아와 가난 찰룩찰룩허멍 걸어전게.

104002 #2 스촌오라방도 잘했저게.

104002 #1 주둥이 오라방이 강게 버랭이 바글바글헤부난 경흐난 그 통에 그냥 뛰어완,

104002 #2 계난 돌아완 즈젠거 실렁 강, 계도 고맙다야.

104002 @ 계난 경 안허른 어뎡헐뻔 헛수과?

104002 #2 진짜로 어머니 아버지 싯곡헌디이.

104002 #1 오라방이 막 착허여.

104002 @ 찢룩찢룩 결혼도 못 헐뻔헛네.

104002 #1 우리 오라바님은 아래,

104002 @ 하늘이 뜻이다예, 이건 진짜로, 재밋다예.

104002 #1 아이고 나 그때, 그냥 쉼똥으로만 블랑으네 나른 건 흐김도 안행으네, 하하하하,

104002 #2 큰큰헌 쉼 뽕양으네게 빼영 상행으네 내부난게,

104002 #1 어리니까 빼 안상헌거라이. 빼는 안상헌생이라 계난. 빼 상해시민 찢 룩찢룩 헐건디, 술만 떼전, 밍클락한,

104002 @ 변상도 못봤고?

104002 #1 그때 벤상이 싯느냐,

104002 @ 아이고 세상에

104002 #1 중동 박서방이엔 중동 박서방이엔 허연 박썩 박썩디 똥을 잘 꿰어이. 방궐 박, 박, 덩기명도 박, 박허난 벨랑을 중동 박서방 이제는

104002 @ 박씨가 아닌데?

104002 #1 박썩 박썩데 중통을 흐흐흐 방구 막 꿰노난 중동 박서방



이제는 그 씨가 없어. 4:3스건 후에 어디 아이덜 나가부런 안들어완.

104003 @ 아이고, 소는 어떻게 이용합니까? 잠대로 해영 밧가는 걸로?

104003 #1 밧가는 걸로 출도 시꺼오고, 짐 실러오고 밧 길고 허지,

104003 #2 밧갈곡계, 농스지민 농스들을 농스지은 거를 해 시꺼왔주.

104003 #1 옛날에는 사람은 혼놈역 허는디 소는 두놈역헌데 해. 소는 맥이면은 자기도 먹고, 자기 먹을 것도 허고 주인도 맥인텐 해. 소는 두놈역헌데 해.

104003 #2 두놈역헌텐 해주게.

104003 #1 사람은 아맹 잘허느렌해도 혼놈역, 소는 두놈역, 어른덜 말에, 두놈역 허는말을 몰라.

104003 #2 아니 허게 웬거주게.

104003 #1 세니까?

104003 #2 세니까게. 농스져도 다 날라오니까 주인 먹을 것도 날라오니까 두놈역 세니까

104003 #1 아맹 잘난책해도 사람은 혼놈역이라도 쉼은 두놈역이라고 잘난책해도 혼놈역,

104003 #2 옛날 어른덜 경 곱아나서.

104004 @ 소는 어떻게 길들입니까?

104004 #2 길들이젠 허면은 혼사람은 쉼줄잇잖아. 혼사람은 앞에서 끌어.

104004 #2 암소는 그런게 없어. 암소는 순허고 약허기 때문에 뒤로 목영그네게

104004 #2 부룽이는 세기 때문에 들이는디 암소는 그런게 없어. 남자는 양지머리 심영

104004 #1 나도 해나서. 쉼 이끄라ㅎ해여

104004 #2 쉼 이끄라 착헌거는 이레갓다저레갓다 뒤에 남자분이 막 성질내어. 질 들네중에 질들이민 소가 다 알양으네 저 예영에 제대로돌아가민 돌아강 부룽이는 이끄는 사람 찢러부러 이끄는 사람 받아부러.무서완 못허잖아

104004 #1 코퀘 코에 석 디밀양 코아광 잉잉잉잉

104004 #2 경헨

104004 #1 영 들러불민이 코아광 영

104004 #2 육지 사람덜은 웨어 경 행 허는 거

104004 #1 나 혼나 말헨거 이서. 말해도 웨나? 옛날에는이 일년에 두 번 거릿질을 닦아 이정존동네 거릿질을 닦으게 웨서

104004 #2 아나게? 보수가 낫지. 요즘 사람덜

104004 @ 원랫말 보수

104004 #1 우리 밧이니까 요디 삼거리가 이섯어. 소릿질 나가는디가 있어. 뜸돌헨 현 돌이 요건 나룩돌 요거는 콩돌, 요건 모멸돌, 돌이 세 개 돌이세개,

104004 @ 재미있다예.

104004 #2 옛날엔 부락마다 동네마다 뜸돌이 이서낫주게.

104004 #1 콩이 무거우니까. 땀들 모뎀들이 있어. 줄에 돌을 이렇게 놓아서 줄을 동준이 오라방이 노시 못들어. 이렇게 이렇게 해도 나가 순택일 엇영 왓주게 걸렝 알로 업엇어. 오라버니 영 험서. 나가 들러보져 잉 허멘. 아기 엇은 사람이, 영 들렝 배까지 왓어. 요레 가민 광수네 밧이라 획 올려 그들을,

104004 #2 힘도 세나신게.

104004 #1 그 돌을, 그때가 스물일곱이라나서.

104004 @ 모뎀들

104004 #1 모뎀들을, 나뎀들에 콩들은 못 들런 봉준이 오라방 나뎀지민 모뎀들 들른 아이 뉘, 쉐 거난 깃딱어서. 장난으로 경 해.

104004 @ 대단허다예.

104004 #1 다른 사람덜은 봉준인 야 그거 못들르더라이. 약허더라이. 세 봉준이 가 줄나도 맨손에 들른디 애기도 존등이로 업영 애기 죽안, 승순이도 막 경허단 죽어부난 다 죽어불언게 돌들을 때 본 사름, 허나나 이서 다 죽어불언,

104004 @ 젊엇을때는 셋나보다예?

104004 #1 아니 쉐것도 아난디 들러본다고 줄

104004 #2 옛날 청년덜은막 경해나서

104004 @ 힘자랑?

104004 #1 아무도 덤비지 안 흥번은 경 무거운가 모뎀들이난 콩들은 둥그렝 허고 나뎀들은 막커. 누가가져가부런, 우리밧 애염이난게 줄자로 재염선게 뉘날은 시꺼가부런

104004 @ 나쁜사람?

104004 #1 유산뉘건디, 정존이 유산인데

104004 @ 아이덜 들러보렝

104004 #2 월산도

104004 #1 돌 세 개 다 잃어부런

104004 #2 납읍도 여러개 싣더라고, 세 개 이션 납읍 농한기에 사거리에 오일장 사람 봐가민

104004 #1 누게가 곶아산디 몰라도 우리 성호가 어머니 돌 들러나?

104004 #2 느네 어머니

104004 #1 계난 “돌 들러난” 답주게,

104004 #2 그자락

104004 #1 계난 속으로 누게가 비작비작 커가난 어머니 돌 산뎀 봐지민 아이덜 도 곶아게 어멍 손 잘도 세

104004 #2 빼가

104004 #1 어머니 때린 건 잘도 아과.

104006 @ 쟁기의 부분 명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쟁기를 잠대렝 험니까 제주도 말로?

104006 #1 잠대, 잠대엔도 허고 쟁기엔도 허고,  
104006 @ 이거 나중에 또예? 쉼석이 어떻게 양지머리 무신 거 그거 명칭을 도  
다?  
104006 #2 양지머리는  
104006 #1 멩에?  
104006 #2 아니 아니, 심는게 양지머리지. 양쪽손으로 잡는게 그거 양지머리주게.  
104007 @ 그 다음 길마의 부분 명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4007 #2 질메.  
104008 @ 멩에의 부분 명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4008 #2 멩엔 그 밧갈때에 이 모가지에 모가지에 나무 영 꼬부라지게 만들주  
게. 가운데로 구멍을 두 개 뚫버. 똑바로 꼬부라지게 그 나뭇가지 께는 거를 두 개  
를 만드는데 우에는 꼭지를 이서야 돼어. 쉼명에 두 개 뚫분딜로 그 나뭇가지 두  
개 께영 이레 내려왕으네 영  
104008 #1 우리집이 쉼명에영 느네 아방이 다 가져가드라. 문화제 허켄  
104008 #2 아니 옥상에 낫당 데껴사 불어산디 지금 신디사 모르켜게.  
104008 @ 찾아봅서?  
104008 #1 쟁기  
104008 #2 아, 쟁긴 어서.  
104008 #1 쟁기영 멩에영 아주 “아주머니” 우리 갓당뵈힙니까? 아방도 가불고  
104008 #2 멩인 무시겨세 비료푸데에 담양 이신디사 모르크라. 구멍더레 께어도  
빠지지 아니허게 특지게 만들야. 두 개 께그네 나뭇가지 비뜰어지게 불에 구멍  
휘와 딱시 묶어 든든헌 꼬네기로 그 힘으로 쟁길 땡기는거라.  
104008 #1 딱 썩왕  
104008 #2 딱 썩왕 가운데 구멍 두 개 뚫분것에 요레왕 마주 헤그네게 꼬네기  
묶어근에 그거 힘으로 소가 땡기믄 밧갈아지게  
104008 @ 멩에예?  
104008 #2 멩에, 그제 멩에고,  
104009 @ 목장은 어떻게 관리힙니까? 이 노형에도  
104009 #1 목장은 그냥이 사람 하나 그 여름나가민 보리 닷뵈씩 쥐이 사름 허  
나 상 케왓보는 하르방엔 헨 케왓보는 하르방,  
104009 #2 관리허기 전에 그 동네 사람덜이  
104009 @ 테우리엔힙니까 테우리?  
104009 #1 테우리는 소뵈이는 게 테우리고 케왓보는 하르방엔허여, 케왓보는 하  
르방.  
104009 @ 예?  
104009 #1 케왓보는 하르방이엔 해여.  
104009 @ 케왓?

104009 #1 케왓  
104009 #2 목장, 목장  
104009 #1 목장ㄹ라 케왓이엔 곶아. 그냥 케왓이렌 곶아. 목장이엔 안행.  
104009 @ 케왓보는 하르방, 테우리엔 안행예?  
104009 #1 테우리는 소맥이는 게 테우리지. 소만 목장에 살명 그 사람 맥여 주는 사람이 이서.  
104009 #2 소 말양 관리허는 사람보고  
104009 #1 돈 받았 뗏 사람 허게 못허게 웨민이 우린경은 아버지 강 테우리 말겨보지 안헐  
104009 @ 목장 많아낫수과? 뗏 마리 키와낫수과? 삼촌 멩에 다 알정도로  
104009 #2 소를  
104009 #1 쉼에는 밧가는 사름마다 다 잇지.  
104009 @ 뗏마리 키와낫수과?  
104009 #1 소도 부룽이몰은 불 안치는 거니까 흐흐흐 슷물  
104009 #2 소 큰거 죽은 거 세ㄹ리 네ㄹ리,  
104009 #1 우린 부룽이  
104009 @ 형제가 어떻웨마씨?  
104009 #2 난 오남매에 만이,  
104009 @ 오빠네영 동생이영 만이니까 일을 잘헐구나예?  
104009 #2 나가 주장해영 밧딘일은 아버지영 ㄹ치  
104010 @ 소를 기르면서 느꼈던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쉼뿔 뉼 이런거라던가 녀난적은 없고예?  
104010 #2 그런 적은 없고,  
104010 @ 아버지도 잘, 겐 열멧슬까지 키워본 적은 오랫동안 키우고?  
104010 #2 두슬 세슬 풀아불주게. 우리는 암소를 매는 이유가 그 새끼 낳으네 돈 받을 생각해영으네 암소를 매낫주게.  
104010 @ 새끼 난 풀젠예?  
104010 #1 우린 쇠성제집이 문딱 부룽이만 암웬 안매여  
104010 #2 우린 셋아버지 집이도 암웨매연 뗏ㄹ리 매연  
104010 #1 돈 벌젠 우린 그런건 없어. 쇠집이 다 부룽이만 매여.  
104010 @ 아까처럼 노형에서 그런것만 전문으로 완전 잘해가지고  
104010 #1 전문으로 베로어서. 흐깁 어수선우린 스촌오빠 확 같고 허뉼이 쉼가 쉼글쉼글해. 죽은 아방보다 형님 아덜이 더 잘해.  
104010 @ 그 분 돌아가션마씨?  
104010 #1 43스건에 돌아  
104010 @ 밧가는소리  
104010 #2 밧가는소리 낫들어 받.



104011 @그때다 건

104011 #2 자기만씩 목장밭 출밭이 잇주게.

104011 @ 그믐 출밭도 다 씨뿌렁?

104011 #2 아니, 아니 옛날부터 잔디밭이니까,

104011 #1 지냥으로 나. 테역밭이난 출나.

104011 @ 경허믐 또 나고 이런식으로예? 그때다 건

104011 #1 1년에 혼번씩 비어와사.

104012 @ 말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털 색깔, 모양 등)

104012 #1 우리는 언제나 우리 아버진 그냥 그 붉은 돌만 사와. 빨강헌 색, 흰돌도 아니고, 검은 돌도 안 질루고, 얼룩말도 잇고이 검은 돌도 잇고, 흰돌도 잇어.

104012 #2 돌도 여러 가지 잇주.

104012 #1 겐디 우리 아버진 맨날 검은 돌,

104012 @ 붉은 말?

104012 #1 붉은 말만 질와.

104012 @ 물이엔헝니가? 멩생이, 새끼를 멩생이?

104012 #2 제주돈 물,

104012 #1 그냥 물이엔 허여. 새끼 난것ㄴ라 멩생이엔 허지. 암물 질뤄야 멩생이 나와.

104012 @ 삼촌넌 물은 안길랏수과?

104012 #1 이딘 암소렌, 암소. 새끼나는 거.

104013 @ 물은 어떻게 이용합니까?(운반, 밭밟기 등) 운반은 소허고 말중에 소허고 말허고 비교헝을때?

104013 #1 말이 덜 시꺼와. 시끄는게 소가 많이 시꺼와. 물은 소마니 시끄민 일 어사질 못해. 막 맬락맬락해 막.

104013 @ 무사 물을 길뤄신고예?

104013 #1 겐디 말이 소ㄴ치 우리도 영 아정 땡기기 좋아게. 찢레질 허젠 앓허고 이경 다니민 돌돌 다니니까, 아정 땡기는데,

104013 #2 길가에도 매영놔두민 그 에염에 풀뜯영 먹영으네 살고, 저 관리허기도 좋주게. 말이,

104013 #1 그 물ㄴ래 방애 정 먹을때난이 물은 우리도 그걸 매우민 영 헝수셔. 밧갈소는 좀 버청으네 아버지가 똑 들어사 해.

104013 @ 물ㄴ래는 말이 좋다는 거지예?

104013 #1 응. 말이 좋아.

104013 @ 물ㄴ래허젠 물을 길루왔구나. 그믐 소는 버천예, 밧갈쇄는예?

104013 #1 응.

104013 @ 그믐 운반허고 밧뽯기에는 말이 좋아예?잘 뛰난?

104013 #1 응. 말 헝나만 아니고 혼 물 두 개 세 개 해야 밧뽯는 것도

종고이. 빨라. 영 걸어가민, 흐나만 허민 둘둘둘허민이 갖다왔다했자 얼마 못 걷고 발이 죽으니까게, 딱 세 개가 좋아. 밧블릴텐 세마리.

104013 @ 세마리에. 어느게 비쌌니까 소허고 말중예?

104013 #1 소가 비싸지.

104013 #2 소가 비싸주게.

104013 @ 고기를 먹어도 소고기가 더, 말고기는 잘 안먹엇지예?

104013 #1 우리는 제사땀 말고긴 먹지도 안허고 쓰지도 안허는디 아이, 뉴스에 나올때는 뭐 임금님 상에 톨고기 올린덴 말 자꾸 나와. 임금님 상에 톨고기 올린덴 말을, 거 당치 않은 말 다했어.

104013 #2 그러게.

104013 #1 뉴스에 자꾸 나와, 임금님 상에 제주도 말고기렌 소고기엔 안행 말고기만 나와.

104013 @ 말을 진상은 헛수다 육지로 타기 위헌 말로만 알아신디,

104013 #1 제사땀 제사 돌아와가민 말고기 먹지도 안허고 제사 넘으민 먹고, 쓰지도 안

104013 #2 말고기는 쿠시고 부드럽기 때문에,

104013 #1 그건 허는디 우리 제사때도 안쓰고이 제사 돌아오민 먹지도 안해. 제사 넘어불민 먹고,

104013 #2 부정탄덴 부정탄다고

104013 @ 개허고 말은 영리허난예

104013 #1 소는이 새끼 낭으네 세 살만 돼민 어멍 타아자이. 이녁 어멍이라도 소는, 경헌디 톨은 6촌까지 가려. 6촌까지 교매를 안해. 톨은 6촌 넘어야 교매를 헌덴, 6촌까지 안해. 다 알아. 경헌덴 곱아. 경허민 흐김 영 저 친족끼리 알아. 톨만도 못헌 거렌, 톨도 6촌가리는데, 어른덜이 경 헌말 자꾸 들어나서. 우리 큰어머니 그런 말은 잘 곱아. 톨만도 못헌 인간덜, 쉼당끼리 그 좋아햐젠 헌 말로이, 톨도 육촌 가리는데,

104014 @ 말의 나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소허고 말중예 거의?

104014 #2 거의 비슷허주게.

104014 #1 나이는 거자이 15세까지 질뤄. 15세,

104014 #2 말이나 소나 비슷해.

104014 @ 오래 질룬 말이나 소 이섯수과? 늙도록

104014 #1 아주 일부 돼가민 풀고 사고 해. 흐김 나이 들어가민

104014 #2 버치주게.

104014 #1 톨은 15세 못 길룸직 해. 열 둘이나

104014 #2 15세 못허여 톨은,

104014 #1 열둘이나 열이나 경,

104014 #2 흐 8년

104014 #1 음 경해가민 또 풀곡사곡해. 폴아당 새로 사.

104014 @ 폰다는 거는?

104014 #1 남신디 돈받고 우리 집 물을 쭉 질렀어. 계속 찢봐. 물을,

104014 @ 어느 게 아까웁니까 소허고 말중애?

104014 #1 물이 아깝지. 찢르젠도 안허고이. 소는 물 찢르젠 해 팍팍 물을 뿌로 막, 물은 도망 가. 도망가부러.

104014 @ 발로 게도 위험 뒷발로 탁 차불민예?

104014 #1 소허고 말허고행으네이, 저 방애지레 가민 소 보리코ㄹ리 헐, 조코ㄹ리 헐 땀 우리 들어 헐때가 셔나신디 그거 가명도 이 빨로 물은 저레 도망가고 야맹해도 문문해벤생이라 소가 물헌테.

104015 @ 말을 가르면서 느꼈던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104015 #1 물은 숫물만 질루난이 뭐 스건도 없어. 새끼가 없으난 그냥 웨틀베기로 질루난 나 생각은 열술ㄹ지 질루당 다른 거 교체허는 거 답아.

104015 @ 먹는거나 뭐 이빨이 잇져 없져?

104015 #1 물은 잘 먹어. 이빨이 압니까 좋으니까이 소는 이 어금니로 영영영영 먹는다, 물은이 막 풀이 죽아도 뽅뽅 뜯어먹는 소리가 뽅뽅뽅뽅 나와게. 이 풀 뜯는게. 풀이 짧아도

104015 #2 압니까 세기 때문에

104015 @ 소는 이빨 엇텐 누가 급테다?

104015 #1 소는이 세가 확 어울렁으네 이레 감아져야 탁 어울렁 일로 씹어이. 일로 씹영 뜯어먹어.

104015 #2 이빨 잇수과 소도?

104015 #1 이빨 잇어. 이빨 없으면 출 먹영 살아지나게.

104015 #2 이빨 잇는데 이 말은 이 압니까 썰영으네 압니 주장 쓰는데 출을 쥐도 세로 확 언주와당으네게 일로 이 어금닛빨로 씹영먹고,

104015 #1 그냥 영 먹질 안허고 세로 영행으네 탁 걸려이. 세,

104015 #2 물은 그냥이 압이빨로 박박 뜯어먹는데,

104015 #1 소리가 나 바드득바드득,

104015 #2 그런 증세가 달라.

104015 @ 말 타거나 그런 경험은 엇수과?

104015 #1 여자니까 경, 막 이제는 아이덜도 텨곡허는데, 옛날사 그런 거 타는 거,

104015 @ 말고기 그런 것도 안 먹어보고?

104015 #1 물고기야 먹지. 말고기도 질루당 늪으민 추렴행게 혼 멧이 행 겸 행 잡으민 고기로 갈라. 갈르민게 더러 줄 사람도 주고게. 고기는 그냥 무맛이라. 겐디 흐낌 쿠시긴 해. 겐디 쓰지 안허니까 제스때 안쓰난 그냥 입에만 먹어.



104015 #2 국도 꿏영먹고게.

104015 @ 국도 꿏이곡?

104015 #1 그냥 양념행 먹으면 잘도 부드럽고 좋아. 소고기 먹는 것보다 더,

104015 #2 부드럽지게. 소고기 답지 안행,

104015 @ 냄새난덴 누가?

104015 #1 냄새나는 건 안나. 냄새가 왜 나?

104015 #2 냄새 안나.

104015 #1 뭐이 풀 먹을 때이, 봄낭 풀 뜯어먹으면 풀냄새 난덴 해. 봄에 돌리와 보민 풀냄새 난덴 해, 소나 돌이나이 이 가을엔 존데 가을엔 이 풀이 다 슬으니까 쿠성 존데, 봄에는 풀내남젠 고기에,

### 떡이

104016 @ 마소의 떡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4016 #2 비슷허지며. 소먹는 거나 소먹이나 뭐,

104016 #1 같은디 양은 소가 더 많이 먹고, 소가 양이 크니까 배가,

104016 @ 어떤 걸 먹습니까 출?

104016 #1 조짚, 조짚이엔 해. 조짚, 좇대, 출

104016 #2 고구마줄도 견영으네게 담 위에 넣어놋당 말리민 거 잘 먹어.

104016 #1 질 맛싯덴 해. 우리ㄱ트민 막 고기 먹는 맛으로 맛종텐 허는 식으로 막 잘 먹어.

104016 #2 돌이던 소던

104016 #1 흥나토 지꺼기어서 감재줄기는, 계곡 콩해나민 그 콩꺄질이엔허여. 콩대ㄱ라,

104016 #2 콩나무때기,

104016 #1 콩꺄질, 거 행으네 눌엇당 빵 흥아름씩 안아당주민 것도 잘 먹어.

104016 #2 것도 잘 먹어.

104016 #1 조짚보다 잘 먹어.

104016 #2 아맹해도 이 곡석나무때기난 곡식냄새나는 것 같애. 계난 이 중성덜이 잘 먹는 것 같애.

104016 #1 콩꺄질 잘 먹어.

104016 @ 버릴게 없다예?

104016 #1 응. 아니, 소 질루민 버릴게 없지. 더 이상헌 거는 또 돼지 먹고, 진짜 버리는 거 없지. 계난 쓰레기도 없지.

104016 @ 겨울에는 꿏영도 주잖아예 뭐. 뭇 낭 꿏영 줍니까?

104016 #1 건 소죽이엔 행으네이 겐디 우리는 경 육지 사람 경허주기게이 저을 들민 막 우리는 생차 막 주는데 육지 강 보난에 큰 솟데 슬 영 씨는 작두가 이서

이. 영 썰영으네 영 아땅 낱으네 막 그디 채 보리 저 쓸 닭아난 그것ㄴ라  
보미엔 허지이. 보미ㄴ를이영 산디 네중에 저난 꺾데기행으네 막 영 물 영 해  
낱 폭 숲앙으네 즈낙이 숲앙 아침이 허민 그거 열앙보민 그냥 냄새가 그  
냥 그 보미엔 현 것이 쓸꺾데기라이. 쓸꺾데기 지일 속에 꺾데기, 거세 냄새  
가 폭 나드라. 나 저디 충남 간때 그디 소 질루는디 강 소죽 썩 영 들른 거 보난  
쟁행으네 그거 다라에 낱 그거는 여자가 아니, 바로 남자가 허드라.

104016 #2 남자덜이 허드라고.

104016 #1 바로 쭈곡 갖다주고,

104016 @ 제주돈 그런 거 어서?

104016 #1 그런 거 일체 어서. 그냥 므른차 줘. 므른차,

104018 @ 출 베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4018 #1 출, 밧디가 나면은이 호미해영 쪽 비어가. 저 곳에서 꺾에ㄴ지.

104018 #2 흔 줄 흔 줄,

104018 #1 이거 담이민 저담ㄴ지 쪽쪽 비어.

104018 @ 멧사람이?

104018 #1 사람이 하민 한테로 비곡, 어시민 어신대로 비지. 건 뭇 규정이 없어.

104018 @ 호미로예?

104018 #1 호미로,

104018 @ 멧월달에 가을?

104018 #2 8월,

104018 #1 8월중순부터,

104018 @ 음력?

104018 #1 응. 음력 8월중순부터이,

104018 @ 연할 때 험니까? 흐김 익엇다 싶으민 걸 다 비는 건 아니고?

104018 #1 이녁밧디 출 이시민 다 비지. 그 출을 다 비어 놓어..

104018 #2 이녁소를 두므리민 두므리 흔므리민 흔므리 길루잖아요. 게민 그 길루  
는 소 먹을만큼은 해 와야돼주게. 겨울내내 먹을만큼,

104018 @ 물리왕 놓읍니까?

104018 #1 물리왕 뭇영 시껴오지.

104018 @ 거기서 물리와?

104018 #1 거기서, 그냥 바닥에서 물르고,

104018 #2 줄잡아그네 흔쭈씩 시경와이

104018 #1 이거 딱딱허민은이 이걸로 녀쭈허민 흔뭇이라이. 이손으로 췌거, 두쭈  
씩 영 놔. 영 영허민 베껴지니까. 이거 이렇게 놔.

104018 #2 막 긴 건 그냥 크똥허게 그냥 낱 뭇으고, 짧은 거는 마주 낱,

104018 @ 각단?

104018 #2 응.

104018 #1 각단 ㄱ찌 헛게 드물어.

104018 #2 마주 영 낡으네게 뭉으네게 헤엇당 요만큼씩 뭉으,

104018 #1 네 개가 흐뭇,

104018 @ 네 개가 흐뭇예?

104018 #2 경행으네게 뭉으네게 오늘 비민 널, 모리레 묶어야돼어.

104018 #1 널 흐루 몰랑,

104018 #2 흐루 딱 들리민, 계근에 뭉으네게 계민 출밭에다가 놀영 놔  
뒤. 차근차근 놀영 이제 어욱베당 더평으네게 행 낫다근에게 놔뭉서 낮에는 시경  
보내주게.

104018 #1 그 출 거자 비어 가사 나는 굴른 사람이 이시난이 손 안 데려 오  
고 몰로 행 처음 시작허민 맨날 흐번씩 시켜 내려오는데 이런 아이덜 어신 집  
인이 그 출 거자 비어야 걸 시켜와. 거 다 행 놀엇당 다 비어놔야 흐꺼번  
에 뭐 마찰 빌던지 술 또 빌영 이녁소가 하나민 두 개가 하나 압이민 세 개도  
뉘곡 둘도 뉘지게. 게도 시켜와.

104018 @ 메칠이민 들릅니가? 비라도 오민어뎡?

104018 #1 안좋지게. 또 흐번 뒤집어야돼 몰르민,

104018 #2 만약 비 왕 젓이민 다음 날 조민 우에 몰르잖아요. 몰르민은 또 뒤집  
어야돼. 오후 뉘근에 뒤집어놔당 다음 날은 뭉으고

104018 @ 뭉으 걸 날랑완 놀영?

104018 #1 묶어사 날라올거난, 비 맞은 건 제일 안 좋아게. 색깔도 안좋고 맛도  
없네.

104018 #2 계난 소도 덜 먹어.

104018 #1 비맞은 건, 비 안 맞게 해지민 이녁 마음이 좋아.

104018 #2 사름도 한결허고, 뒤집는 일력은 안드니까,

104018 #1 색깔도 안좋아. 출 색깔도 안좋아.

104018 #2 색깔도 안좋주게. 비 안맞은건 팔랑팔랑 먹음직스럽주게. 보기에도

104018 #1 냄새도 막 코시롱해여 풀 몰른 냄새가이. 비 맞으면 냄새조차 안 좋  
아.

104018 #2 응.

104018 @ 다음 가을까지 먹이는거지예 그럼 ? 놔당

104018 #2 겨울내내, 봄뉘도록, 풀 날때까지,

104018 #1 소 저 산에 올라갈 때 깎지먹여야 돼. 올릴때까지,

104018 #2 산에 목장에 풀 나근에 흐깎 자랑 올릴,

104018 #1 에이고 우리 살아난 거, 소 흐깎 봄나가민리 이 멧집이 소 산에  
강 뉘영와. 오닐 요디 뉘이고 닐 여기 뉘이고 돌아가명 수놀영게, 경 뉘이단에 풀  
이 막 나면은 이제는 그 허는 걸 치와두고 이제 농사도 소영 말이영 다 행 노민,  
또 산에 올려. 오리면 밤 자명 오닐 아침이 밤 장, 닐 아침까지 뉘여. 밤 장, 닐

아침은 뜬 사름이 데리레 가. 그 사름

104018 @ 여자도 갑니까?

104018 #1 여자 아닌 남자만, 벤또 이녁꺼 널 먹을꺼 싸고, 조반도 늡이꺼  
갖어 주고, 조반은 수늘어 가명 다 갖다 줘. 그디 잔 사름, 경흐당으네 이제 그  
흔이 넘어가민, 출 시작 흘때까지 출 시작 흘때까지 돌아  
가명 멕여 주고 이녁도 비영 멕이고 수늘명 수늘명,

104018 @ 반찬은 뭐, 출레는?

104018 #1 반찬은 그때는 다 그냥 마농,

104018 #2 마늘장아찌,

104018 #1 그거허곡이 웬장미청 그거, 다른 거 없어. 어디 고기나 잇간,

104018 #2 고기가 어디서게, 김치클이나 흐곡 그쟈,

104018 #1 고기는 제사할때나 흐김 행 먹주 무신, 반찬 행 먹는 사름  
은 막 잘 사는 집이나 막 잘 사는 집이나 겨울 들민 그 추렴들 행으네 우리도 그  
추렴해 먹는 사람 몇번 아버지가 갈라당 먹어난 거 알아져. 하하

104018 @ 출베는 소리 불르명 해난 기억남수과?

104018 #2 아이구 출베는 소리 우리 아버지가 참 잘 해나서.

104018 #1 그거는이 아무나 못해여.

104018 #2 아무나 못해여

104018 #1 출베는 소린 막 잘혀는 사람이 혼동네 혼 멧 어른이 이  
시나 마나 해. 우리 동네도 야네 아부지배끼 어서.

104018 #2 우리 친정아버진 목청도 좋고, 출베는 노래던 이제 그 행상 나갈 때  
에,

104018 #1 낭까끄는소릿 허는 거 나가 들어봤어. 잘도 좋아.

104018 #2 매언 나가민 선소리허고 못허는 게 없엇어.

104018 #1 야네 아버지나 우리 동네 잇주 없어.

104018 @ 언제 돌아가섯수과?

104018 #2 우리 아부진 이디 완 4:3스건 지난,

104018 #1 4:3스건 지난, 혼 이십년 살아시카? 살아서. 이제가 68년이라이 4:3  
스건 지난때가 이제까지 68년,

104018 @ 생각나는 뭐 한 소절 불르수 어섯쿠과? 흥애기 소리, 출베는 소리를  
흥애기 소리엔 안헛니까?

104018 #2 아이구 흥애기소리엔 허는디 게메,

104018 @ 흥애기가 무슨 말이우과?

104018 #1 출베는 노래가 흥애기엔 해. 흥애기가 아무나 잘 못해.

104018 #2 거 아무나 못허여.

104018 #1 남자어른덜이나 경 행 흥애기가 “요 밧디 흥애기 불명 출 뵈져!”  
막 구경덜 해.

104018 @ 무사 흥애기엔 해신고예?

04018 #1 출베는 노래이름이 흥애기엔 허는생이라. 흥애기가 나쁜말이 아니고 좋은 말이니까 거 아무나 못해. 흥동네에 흥어른이시나 마나허여.

104018 #2 흥애기 행 비는데 휘양청허게 빔질을 잘했드라고

04018 #1 잘허고 막 구경해. 그 소리가 막 듣기도 좋아. “아이구 이 밧딘 흥애기 불르멍 비염저게. 저 소리 보라 저소리 보라.”

## 멜감

104022 @ 멜감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삭다리 이런거 잇지예?

104022 #2 삭다리 나무 삭은 거 보고 삭다리라고허거든.

104022 #1 삭다리 그 시절에 허는 사람은이 일 막 없는 사람게. 집이 한걸리 살양 일 없는 사람은 삭다리 허레 가. 우리동네 삭다리허는사람이 옥이네어멍허고 봉규어멍 두 사람 뿐이야. 다 큰 세간 살믄 삭다리 헐 시간이 없어. 남편이 어선 홀어멍이니까 일본 강 남편들 죽영와부난 무시거 꺾으다보민 그 둘만 무시거 정으네 허레 감서. 가부니까 삭다리 허레 감서. 내창에 들어가 계민 그 삭다리엔헌 건 자기데로 물랑 죽은 낭이지. 그거 꺾으네 집이 저오민 진짜 보기도 좋고 불습기도 좋고 연기도 안나고 거기서 불습아나민 고기도 구워 먹고, 잉걸로 겐 우리동넨 그 두 어른만 삭다릴 허는 걸 봤어. 딴 사람은이 소 질루지 농스허지 남편시믄 삭다리 한걸해야 해오지.

104023 @ 소똥, 말똥 연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굴묵은 뭘로 짚어마씨?

104023 #1 보리 해나민 ㄱ시락 나와. 고시락 나오는데 흐깁 멩심허민이 돌똥을 주서와 우린 돌을 강으네 밤인 매주게. 풀꺼리에 줄 이만이 줄 행 강 매민 우리 어머니 굴채 가정가. 굴채가 잇어. 그 굴채로 흐나 강 주서당 주성으네 물리곡 물리곡 허면은 막 불어낭 많치게. 막 많앙으네 ㄱ시락에 섞영으네 그 굴묵을 때면은 그추룩 딱시고 오래 가고,

104023 @ 돌똥만마씨? 소똥은?

104023 #1 소똥은 무랑허영으네 물리기가 힘들어,

104023 #2 뚜겁고 허난 잘 물리기가 힘들어,

104023 #1 어떤 사람은이 소똥도 질레에 가당 시민 영 행 놔뉘. 거르청 몰르렝 경헛당 물리민 가져오는 사람도 이서. 도남삼촌, 애자어머니 경 잘해여. 발로도 행 옳더레 낫당으네 몰르민 가져가. 딴 사름은 벨로 허는디 그 삼촌은 똑 그냥 안 넘어가. 똥을 싸민 어떤 쉼이 혼밧디 영 싸민 이마니 영 커게. 크민 흐깁 몰라가민 영허민 뒤짚어져. 쟁헛 물리민 가져가 집에, 그 삼촌 자꾸 경해여, 도남이 흐깁 해변 아니가게. 해변에 살아나니까.

104023 @ 삼촌넨 소똥은 안허고 말똥은 헛다?

104023 #1 우리는 돌 질루니까. 이녁 말똥 강 주성오민 실컷 해.

104023 #2 이녁 말 아니라도 늪이 말덜이라도 가을들영 가을 꺾에는 가을곡

석덜 해난디 밤에 영 낱 내불주게. 밧흐나에 낱으네게 그레 낱으네게 이 돌담덜 이시니까 경 나가지 못허게 영 에왕 놔두민 밤에 그디서 먹으멍 살렌, 멧므리 행 놔두민 새벽에 아침에 아맹해도 그자 물똥 보일똥 말똥허게 돼면은 어머니가 막 일어낱 강 어느 밧디 물 똥 주서오렌 해근에게 경 나 경행 강 똥 주성으네 그 밧 에염에 널어똥 그 출밧디 출 해난 밧디 왕 널어똥 오꼭 해나서.

104023 @ 주인은 뉘렌 안허여?

104023 #2 응. 뉘렌 허진 못허여.

104023 #1 아니, 이녁 못허민이 주서부러도 뉘렌 못해. 이녁이 게으르니까 늦인 거지.

104023 #2 므녀 주서오는 사람이 임재라.

104023 #1 그때는 다 경해.

104023 @ 물리는 것이 출밧테 강 물렀다는 거, 집이서 냄새나난?

104023 #1 그디서 물리민게 가져오기도 힘안들곡이 물리민 게뵈고게.

104023 #2 응. 젓을똥 므르지 앓을똥 막 무겁주게 얼마 못 저와.

104023 #1 에이고 옛날에 살아난 생각허민 춤,

104024 @ 똑똑허다예, 그믐 술가리 걸기, 술잎허레 가 본적은 잇수과?

104024 #2 응.

104024 @ 것도 굴묵때고 지들커 뉘허젠?

104024 #2 응.

104024 #1 술입흐젠 허민 술입흐는 글쟁이가 잇어. 이마니 현 거 알지? 영 박박 글경으네 막 행 모아낱으네 베 영 현 세 겔 놔이. 요만씩행 세 개 낱, 이렇게 이렇게 낱으네 딱 묶엉 걸 두 못행, 나도 거 두 개 정 하나 정 이디 갖다 놔 똥 저 마니 강 놔뉘나서. 흐꺼번에 못 저오주게. 두못허민,

104024 #2 이마니 해논난게.

104024 #1 막 바람부는 난디 가민 막 소나무 아래 그 술입이 그냥 별경케 떨어져. 겨민 굽당보민 잘도 많아. 경 많으민,

104024 #2 술입이 불을 때기도 좋아. 연기도 안 나고 불불불불거렁,

104024 #1 연기도 안나. 게민 그것에 소소한 고기 마른 고길 굴수도 잇어. 잉걸로, 그냥 검질보다 왕상해. 술입불이, 진짜 술입 불 숨기 좋아.

104024 @ 어느 오름?

104024 #1 그냥 우에 가민 소낱 밧디 많아. 것도이 영 굽어난디가 굽지 좋아. 자갈도 엇고이 그 처음에 허젠허민 돌멩이,

104024 #2 돌멩이 녁쿨이신디도 못 굽어와. 글쟁이 걸렁,

104024 #1 해난디는 떨어져도 걸기가 좋아.

104024 @ 벗덜 행 멧명 같이 가지예? 혼자서 무섭지 앓아?

104024 #1 옛날엔 경 무서운 사름이 벨로 앓어.

104024 @ 어머니영은 안 가고?

104024 #1 어머니는 판일 허곡,  
104024 #2 아이고 어머니 집인 일도 바빴, 그런거, 누계가 해오렌 허나게  
104024 #1 그냥 판일 허곡 강 그냥 허ㄴ정 허믄 베로 해오렌 현 거 안 닐아.  
104024 #2 누가 해 오렌 허나게. 아이구 난 딸이기 때문에, 나가 그런거고 저런거고 주로 그런 것도 해오고 안해올수가 어서.  
104024 #1 나는 옥이허고 열이영만 가난 솔똥, 솔똥 낭에 가민 흔들고 따고 경행 떨어창 쟁 가멩이가 얼마 안들어.  
104024 #2 얼마 안들어.  
104024 #1 가멩이 허나만 지민 너무 게벼와게.  
104024 #2 무계가 어서노난,  
104024 #1 게벼와. 게민 푸대 가져강 푸대에 낱 그 푸대 우이 낱 정 행은 게 기억나. 우리 열이영 옥이헨헨 아인 동갑이라. 동갑이난 허깁허민 “우리 솔똥주 시레 가카? 응. 가자!” 쟈 우리는 필요셔도이 열인 허나마나해. 그디 가카우난에 그 하르부지가 막 잘 해와. 그런 거. 뭘 그냥 벨로해오렌 안해도 벗브름에 가. 열인 쟁 벨로 부모네가 해여오나 마나, 많이 잇는 디계  
104024 #2 땀감 허레 땀겨보지 가인 벨로 안해서.  
104024 #1 쟈 우리 브름에 간 거라.  
104024 @ 땀헨 때 그걸 쏘니까, 굴묵지들 때?  
104024 #1 굴묵지들 때 잘도 좋아.  
104024 #2 솔똥은 굴묵 지들 때, 굴묵 때는데 막 좋아.  
104024 #1 방이 와삭 와삭 뜨겨와. 장판이 막 카. 이마니, 막 요도 아사불고,  
104024 @ 가스쓰멍 지금 다 지천으로 널려잇고 소나무를 지금 다 찢라부는,  
104024 #1 사람이 얼마나 못전당 놀지 았해영, 이제는 스뭇  
104024 #2 아이구 그때 시절에사,  
104024 @ 버틸꺼 하나 어섯다예 진짜?  
104024 #1 이제난 늦게 컷지 옛날엔 막 쪽아난 우리 오빠가 일본서 완이날 ㄴ라 물도 막 질어오지 말렌, 죽은년보단 죽으켄허멍 시나알에 동생,  
104024 @ 죽으켄?  
104024 #2 밑에 동생보다 작으켄,  
104024 #1 물도 푸민이 저 서쪽에 계남절이엔헌디가 도평이라게. 도평 우에, 그 디장 물을 질어와게 여름에.  
104024 @ 계남절?  
104024 #2 도평 우에 계남절이엔, 현 디가 잇주게.  
104024 #1 절도 싣고, 나는 물이 이서. 그디, 게민 그 물 강 질레가게.  
104024 @ 지금 어서져신가?  
104024 #1 이제도 이션게. 그 물 이서. 나 어땡행 거 봐싣고 허난이. 가보난 싣더라. 시집가지 았은 물인 쟁이라. 집도 흔채 지성 싣고이. 계남절이엔헌디, 도평

우이, 도평 아주 우이라,

104024 @ 거기까지 물을 질엉 노형사람덜이 물을 질엉 가정왕 허벅에 질엉 먹 엇다는 거 마씨?

104024 #2 영 ㄱ물때는 물이 여기 없어. 물통에 물이 딱 말라.

104024 #1 게난 그때가이 나가 열두술에라 딱, 일본서 올 때, 허벅을 못전 대바지, 허벅보다 좀 작은거게 그걸 정,

104024 @ 대바지엔 험니까?

104024 #1 대바지엔 허여, 그걸 강 정 와.

104024 #2 허벅보다 작은 게 잇주게. 요마니 헌 거.

104024 #1 허벅버쳐. 허벅버쳐못져와.

104024 #2 그거 두 개 놔야 허벅으로 하나 뒤편주게.

104024 #1 게난 우리 오빠 그때 일본서 온뎀디 죽은년안티 가렌행 셋년은 보내지 맙서. 죽은년은 도망뎅경 경 준일을 허젠을 안행 놀레만 돌아뎅경,

104024 #2 맞아.

104024 @ 죽은 년은 어디 살았수과?

104024 #2 월랑 대보탕 주인아줌마가 죽은년이주거.

104024 #1 하하 어릴 때 준일을 안행 막 도망뎅겨불언이. 난 집인일 허고 웨 정때 일허레 보내민 우리 육촌오빠 만득이 오라바님이 십장혈때라 어뎅허는니? 나 일 못허난 느가 영행 ㄱ찌 일허라게. 웨정때 군인덜 남주봉 오랑 막 굴 팔 때난, 가른 우리 그 육촌오빠가 “셋년 보냅서게” 날ㄱ라이 죽아부난 죽은년이 엔게, 자이 셋년 아니가? 양? 히히 육촌오빠가 양? 영 봐령 “츄 맞구나” 얼굴 뿡 “아 지레 죽아부난 죽은년만 보냅시카부덴” 하하 셋년 보냅서. 기여 글 라 나가 조카신디 곶아사켜. 경 행 강 모영 갈 때, 셋년 보냅서. 셋년 아니가? 지레 죽아부난 죽은년만 보냅시카부덴” 하하

104024 @ 아이구 죽은년은 키 커마씨?

104024 #1 죽아 나보다.

104024 #2 야이가 늦엿주게.

104024 #1 늦게 켜게 나보다 쪼끔 죽아. 많인 안 죽고, 몸도 나. 나보다 훌쩍,

104024 #2 몸도 똥똥허고

104025 @ 나무도 해봤수과 ?

104025 #1 깨는 건 잘 못해. 남자가 허지. 도끼 행 깨지 안허고 나무해영오면은 이 여기가 발라. 나테가 잇어. 나테 이디 딱 놓양 영 두드리는 자귀엔 헌 거 잇어. 깨는 거. 자귀로 울로 독독 울로 독독허민 이 나무가 이레 짝 나와. 영행 안 깨도 나테로 낭 깨져.

104025 #2 나테로 낭 잘 깨지지.

104025 #1 게난 쎅자 어뎅이 걸 잘 해. 우리도 흐김 훌근 나무는 경해. 이



거 딱 낳으네 일로 혼 번 일로 혼 번 두드리민 이것이 좀 내려오민 이것이 두 개 딱 갈라져게.

104025 @ 남자가 어서분난 여자덜이 헛다는거다예?

104025 #1 겐디 그건 뿔나무니까게 뿔나무가 아니고 풀앗지. 풀아, 정강 풀아.

104025 @ 해뵈수와 여자덜은 안허고?

104025 #1 난 그거 정 강 풀아보진 안해신디 나가 해오민 경 하영 허진 안헌디 우리어머니가 멧번 강 풀아다 줘. 풀아당 돈 날 줘.

104025 @ 삼촌이 강 행 와? 어뎡 행 와?

104025 #1 나가 강 해와. 막 하영 봄나면은이 혈꺼어서민 막 허레 가, 나무덜 허레 막 가. 야인 안가실거여 벨로, 넌 나무허레 안가와실거라이.

104025 #2 난 시집가기전후제만 헛져게.

104025 #1 나도 하영은 안해엇져마는 ㄹ찌 가민 그 낭해여근에,

104025 #2 시집가기 전엔게 4:3 나기전에 서울 간 살앙와부니까이(전화) 4,3후에는 나무허레 못 가게허난게 나무도 엇고게. 나무도 엇고 다 비어데껴붙언 4:3에 사람덜 숨을까봐 이 우에 나무가 하나토 없엇어. 싹 비어데껴붙언 법에서 비어 데겨부난 하나토 없엇어. 나가 서울서 와보니까 아뜩헌 것도 없엇어. 그 후에 하나씩 저거 심으고 저 난 크고 낭뵈들이 하나토 없엇어. 겐 낭 허젠해도 하나토 없엇어. 경헌디 시집은 가난에 결혼은 허난에 우리집 아방 군인 가부난, 우리 큰아덜 3월에 낳고 동짓달 난 군인 가부난 이제 살아보젠허난 뉘 해당 풀앙 돈 남을게 업서. 게 난 그때부터 나무허레 뎡겐지. 저 산에, 한라산 중턱까지 올라가났어.

104025 @ 여자들 멧명?

104025 #2 여자덜 멧명 벗덜 허영응.

104025 #1 골머리 헌디 알아

104025 @ 아흔아홉골?

104025 #1 골머리 서우넉 건 어승생이라이. 어승생허고 골머리, 노형선 두뵈디만 강 해와. 어승생도 해오고,

104025 #2 그디 중간까지 막 올라강으네게,

104025 #1 골머리도 강 해오고,

104025 @ 길을 누가 가르쳐줘?

104025 #1 그냥 길, 가가민 막 가져.

104025 #2 사람덜 많으니까 왓다갓다하니까 길덜이 막 잇주게.

104025 #1 가당보민 절도 허나 잇어. 천왕사 말고 웃절 허나 잇어 또. 이제도 잇어.

104025 #2 이제도 이어.

104025 #1 웃절이엔헌 절이 저 골머리로 쑥 상봉으로 올라가민 잇어. 천왕사 말고 천왕사는 골머리광 어승생 사이에 큰절로 잇고. 웃절, 웃절허영으네이,

104025 #2 계난 가벼운글랑 나데로 졸랑 밀둥이부터 졸랑 이자 이만큼 크민 존둥이로부터 이만큼씩 졸랑 경 행 정 내쳐,

104025 #1 생겨?

104025 #2 응, 통차,

104025 #1 놀냥? 뭐 삭은 거 말고?

104025 #2 으게

104025 #1 난 삭은 건 해봤져마는 놀거 ,

104025 #2 서리냥, 서리냥, 서리냥으로 서리나무가 깨기가 좋고이 착착 바람으네 잘나가고이 게벼와게.

104025 @ 4:3이후에, 돈 벌어보젠?

104025 #1 4:3 후에야 후에지.

104025 #2 스몏 후에, 스몏 후에,

104025 #1 스몏 후에지게

104025 #2 경헨 그걸 이제 그 나무 바깳디 툄 바깳디 막 나와. 나왕 내창은 이만큼 큰넷창 막 이렇게 얼벙이지민 그거 정은 못 내려와. 그 나무만 질빵으로 데 명으네 묶으네 착 밀령 떨어쳐 낭, 떨어쳐 낭, 사람 이제 딱시 내려왕 돌트명으로 돌발앙 내려왕으네게 그 허릿당 내려오젠허민,

104025 @ 아이구 세상에,

104025 #1 거 허릿당이나 허릿당? 허릿당은 요 아래 허릿당 싯고 그 우이꺼 질메특이엔허여 질메특,

104025 #2 질메특이나?

104025 #1 허릿당은 막 아래 잇지. 곰베솔 그디 잇지.

104025 #2 응, 곰베솔, 경헨 이제 경헨 바깳디 나왕딱시 풀어낭으네 나데로 낭을 깨어,

104025 #1 누게 빌영 깨어, 너냥으로?

104025 #2 나데로,

104025 #1 너 혼자만?

104025 #2 계민 나무를 구짜 세와, 너 말짜아니라도이. 이게 나무잖냐. 이게 나무민 이렇게 탁 세와. 탁 세우민, 나델 딱,

104025 #1 벗어난 수눌영 해싯테주.

104025 #2 응 그찌게. 혼 메시덜게, 일행이 가니까, 딱 세와 나데로 탁 찍으민 서리냥이난 착 나가. 경 행으네 번들번들허게 깨영 이젠 경 행 정 와나서.

104025 @ 대단헌 여자덜이다예. 남자들은 뭐헷수과?

104025 #1 우리 어머니가 곶아,

104025 #2 지 곶으난, 아방 군인 가부난게,

104025 @ 판남자덜은?

104025 #2 판남자덜은 그때들은 대개 군인가고 해노니까 남자덜이 멧 사름 어섯

주게.

104025 #1 남자덜은 그런 낭 허레 텅기지 았은디 여자덜게 영 용돈 하나토 어시  
민

104025 #2 여자덜 돈 만들게 업서.

104025 #1 또 제사멩질허젠허민 적칼도 사야지. 생선도 사야지.

104025 @ 아이고 세상에, 낭 허레 여자가 영 다닌 거 나 처음 들엄수다.

104025 #2 아이고, 낭 해난 거 생각허민 진저리 쳐.

104025 #1 진짜 야인 막 아방 군인가부난, 고생허멍 컷텐 늬덜이 다 곱  
아.

104025 #2 씨부모 어신디 가노니까, 씨부모 어신디 가노니까, 가는 날부터 그,

104025 #1 씨누이, 씨아지방 다 결혼시키고,

104025 @ 한라산도 그것때문에 갖다는 거네. 지금같은 구경인디,

104025 @그런 걸 몇번 해봣마씨? 흐 100번, 50번,?

104025 #2 나무? 50번은 해져실거라.

104025 #1 말 할 수가 이서. 3년동안을 스나이 올때까지 경 행 살았으니까.

104025 #2 숫자로 셀 수가 업서. 주로 3년 6개월 살더라고 군인도

104025 #1 경허난 그땐 식계멩질허젠허민 더게, 식계허젠 멩질허젠 헐 때, 애  
기키우고 씨아지방, 시누이 시집보내고 장개보내고 경허난,

104025 @ 그 공을 알암수과? 씨아지방, 시누이?

104025 #2 죽은 시누이 흐루기도 전화와선게,

104025 #1 시집보내난 고맙덴?

104025 #2 시집만 보내시냐? 야, 우리 죽은 시누이 서울간 살멍, 그 우리도  
두리 시아지방 그 큰누님이 서울간 살아나서. 막 이빠. 난 사진만 봐신디, 막 이빠,

104025 #1 도두리 예염에 중석에 와난 사람?

104025 #2 으게 그 씨아지방 큰누님이 서울 간 살아신지 우리 씨누이가 가난  
춤 친족언니난 그덜 갖던 모양이라. 간 그디 강 ㄱ찌 살아신디 어느날 은 갑  
자기 언니가 아판, 병원에 가난 죽영 와분거라. 아이가 막 그냥 의지헐 곳 엇고 친  
언니ㄱ찌 행 살당 죽어부난 얼마나 서럽고 막 울어져렌게. 쟈디 으갓 체시  
질에 걸어진게.

104025 #1 죽은 씨누이가?

104025 #2 응. 쟈 아광 오질 안해시느냐, 아판오난에 우리 옛날에 집 짓젠헐 때  
왔드라고, 오난야. 거 단칸방에 살 때, 오난 ㄱ만이 누웁으네게 무신 밥을 행 주  
민 먹느냐? 밥은 행 먹게 무신 반찬은 셔게이,

104025 #1 아프니까 냇지.

104025 #2 응. 아프니까 뉘근에 무시거 어디 통증이 이성 아광 못전던것도 업어,  
즈그그렝이 눅기만 허연, 밥행 쥐도 안 먹지, 죽을 썬도 안먹지

104025 #1 계난 육촌언니 죽영 아픈거다이?

104025 #2 응. 겐 아프길 언제부터 아파시넨 허난 그 언니 경 죽영 막 울명해전 게 그 곳으로부터 경 아픈 줄 모르게 경 시름시름 아파짐디텐 그 애기덜에 살젠허난 바깥으네 어디 들어볼 생각도 엇고,

104025 #1 그 시절에사게,

104025 #2 경혜신디 우리 친정어머니가 혼 번은 달려왕으네, 아이 아팠으네 녹정만 놔두민 어떻허젠 햄시닌 저 셋시누이가 점쟁이 잘 들앙텡겨나서,

104025 #1 하루방?

104025 #2 하루방도 셋주마는 하루방은게 씨이모 남편이고 씨이모라?

104025 #1 씨이모

104025 #2 이모 뵈철이라. 게난 잘 들앙텡겨나서. 우리 어머니가 으란 집 이 잘허는 점쟁이 햄젠헹게 물어라도 보렌. 우알녀집이난 무신 울타리가 시냐게 그 사람 허는 말이 “아이고 이 사람은 체시질에 거려져신게게 ” 딱 곤드라. 닐랑 빌어 줘. 저 도근내 빠마쟁이 빌어줘!” 도근내 빠마쟁이 빌어주렌,

104025 #1 그 사람은 안 해주켄?

104025 #2 진 바쁘니까 난 들어보도 못허곡게, 경 곱으명 행 추물은 뵈뵈 듭 니까? 돈이 셔? 아방신도 곱으난, 아이고 영영 헹 곱으난 내불영 안뵈쿠덴, 내일은 도두리도 오일장 살때라. 듯날 즈낙에 빌어줘야 헹건디 이제 도두리 장에 낭 혼춤 지고 아이고 추물을 출령오젠허난 빠마쟁이 빌레도 가야뵈겐거 아 니라 나혼자만,

104025 #1 외도로

104025 #2 어 외도로, 그 경 곱으명 당장 빌어 내일이엔 혼 날은 준비 를 해그네게 도두리장에 출령오젠 혼 외도로 빌어줍센 남자가 가느넨,

104025 #1 남자는 어떻허여?

104025 #2 어떻힙니까? 나가 갈 시간이 어서부난 나가 갈 시간이 어서부난 어떻 힙니까게 빌어뵈 읍서게?

104025 #1 누이동생이난 가렌도 곱아젧주게.

104025 #2 응게. 속습허더라 강으네 죽어가는 사람 죽도록 곱 갇은켄 빌 어줍센 경 곱읍서양, 우린 아무것도 어신 집이나 “죽어가는 사람 살려주면은 죽도록 곱 갇우쿠다” 경 곱아줍서 우리집아방은 말 수가 어신 즈즘허 여. 믯음은 탁탁탁탁 낭는 자게 허고 “요거 사 갑서 사갑서” 막 싸게 풀안 나산 종이 혼권인가 두권 인가 사고 과일덜 사고, 쓸 받고 허연 오란 부지 런이 이젠 지물 만들고 다대떡 만들어야뵈잖아? 지물만들고 다 출런 시난,

104025 #1 심방떡

104025 #2 지물 만들고 다 출령, 씨어머니 빌어뵈 오고렌 혼자만은 왕 못헹덴 이 건 푸다쉬 곳이라부난 누게 연물 치는 사람 빌영 데려와야허주 혼자만은 못헹거난 데령오젠 곱아고, 기짜? 아, 즈낙엔 온 거 보난 광평 각시 그 사람 들고 헹 왔더라 게. 와선게, 오난 즈낙 행 맥연 이젠 세철 때 아쟁 풀언 맥이고 게곡 국수 혼다발

사당 낫당, 밤중에 딱시 중석으로 국수 삶양 낫당중석 행 먹언 잘도 맛중뎡허멍,

104025 #1 우동 행 경 안 먹일때지?

104025 #2 젊은 아גיע머이 즈낙밥도 굶었으네 말양 읍센 해신디 이런 간식”  
지 행 줍시넨 젊은 아גיע머이 잘도 고맙덴 허멍 겨멍 웃으멍 경 글으멍 화  
룩화룩 먹으멍 헨게,

104025 #1 경 헛주게 그때는

104025 #2 경허멍 헨게 흘긋 새철은 내아쨍 풀어주드라. 풀어줘 똥 가멍 “아גיע  
머 걱정허지 말아. 츠츠이츠 나시키라. 걱정허지 말아” 경헨 돈을 2500원인가 차비  
를 줘서. 그뎡 해난 거 다 아정 갓잖아. 올려난거 다 압더레 노난 아גיע머 먹어.  
이거 먹어도 아무충도 안허때.” 아גיע머 흐는 거 보난 너무 맛음씨가 너무 착흐연  
돈도 50원 확 거실어주고, 저 2500원인디 20원산디 주난 50원 딱 거실어 주멍 나  
아גיע머허는 게 너무 고마완 다 안 받았 가켄 경허멍 경 곤드라게.

104025 #1 이제 느네 시누이 알아지커라게.

104025 #2 모르켜게,

104025 #1 욱은 때니까 알지. 올케언니가 해주신디, 어멍 아방 죽어분디 시집와  
근에

104025 @ 다 나안마씨?

104025 #2 으게. 경허난 해마다 경옥이네집이 멩감해나지 안해샤, 그디강 자꾸  
해난생이라. 경 글양게. 요 알녁침이 부제침이 해마다 경 완 고사해줍센 행 왕  
보민 떡을 하영 해그네게 바구리에,

104025 #1 옛날 저기 살 때 병일이 살 때,

104025 #2 아니 이디 그 사람네 살 때,

104025 #1 살때도 빌영해난?

104025 #2 그디 해마다 해낫저게. 저 숙자, 월랑 숙자 살 때,

104025 #1 아아, 할망이 해언? 숙자가 해언?

104025 #2 숙자가 해언. 숙자가,

104025 #1 숙자가 해언.

104025 #2 숙자가게 경 곤드라게. 요 알녁집이 막 부자침이 해마다 당신이  
왕 허는디, 왕 보민 떡을 하영 해영 마루구석에 떡을 바구리에 하영 해영 놔뒀도  
동네사람덜 하나 구경오는 사람도 엇고, 씨삼춘이엔 행 할망 하나가 주웁이 앓넨,  
경해도 떡 흐나 먹으렌 주질 안헤렌

104025 #1 어떻허여서 떡 하영 현 거 어떻해서?

104025 #2 모르켜게. 나도 먹어분디 웃다게. 경허더라게. 경흐는 사람도 셔렌  
너무 고맙고, 츠츠이츠 아גיע머 걱정마라.

104025 #1 마음이 풀어져야 소망이러.

104025 #2 그렇지게. 무싱겨 바직바직해가민 에이고 밍상불랑해가민,

104025 #2 경헨게 춤 서서이 츠츠츠츠 나산

104025 @ 그 분 숙자란 분은 살았수과?  
 104025 #1 애기 못나는 아이,  
 104025 @ 신기가 잇나보다예 심방은 안돼고?  
 104025 #1 심방은 안돼고 아길 못나근에 못나난 자기데로 나가불언게,  
 104025 @ 그때 오신분이 아까 그 저 굿허는 분이 누구?  
 104025 #2 굿허는 분은 심방,  
 104025 @그 심방은 언  
 104025 #2 돌아가  
 104025 @ 어디 분이봐?  
 104025 #1 외도엔 헛네.  
 104025 #2 이름은 모르고  
 104025 @ 숙자란분이 아니고  
 104025 #2 이름은 모르고 빠마쟁이  
 104025 #1 심방은 돌아가실거라. 외도 빠마쟁이 경도 허고 심방도  
 104025 #2 도그내심방서난? 하귀는 강심방, 막 돌아가셔실거우다.  
 104025 @ 목청에 좋으니까 목청이 좋아. 막 미쳐 무싱거 굿헛 때

## 사냥

104028 @ 사냥의 대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104028 #1 꿩사냥헛때는 가로 걸쳐 요만씩 그망을 걸더라고 우리 씨아바지 잘해 이거 손봐 메 꿩 우리 씨아방이 양재 온 어른이라 광평서 정존에 양재 크고 보약만 행 머 꼭여노난 담 닭잡아예 담 바랑 낭에도 올라 어릴때부터 몸에 좋은 거 잘만크고 열 일곱 살에 열다섯살에 시집 콩 비레 가렌 우리 씨어머닌 옛날이난 치말 준등이에 그랑더레 걸영 나가지 흐루해전 승원이 어머니가 고모라이 국만이네 우리 씨어머니 아이때부터 또 떨어져게 죽어도 아니 잊어불켄 난 문칩이 딸이라난게. 우리 씨어머은  
 104029 @ 꿩 사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4029 #1 꿩사냥헛때는 가로 걸쳐 요만씩 그망을 걸더라고 우리 사바지 잘해 이거 손봐 메 꿩 우리 씨아방이 양재 온 어른이라 광평서 정존에 양재 크고 보약만 행 머 꼭여노난 담 닭잡아예 담 바랑 낭에도 올라 어릴때부터 몸에 좋은 거 잘만크고 열 일곱 살에 열다섯살에 시집 콩 비레 가렌 우리 씨어머닌 옛날이난 치말 준등이에 그랑더레 걸영 나가지 흐루해전 승원이 어머니가 고모라이 국만이네 우리 씨어머니 아이때부터 또 떨어져게 그 삼촌 “죽어도 아니 잊어불켄” 난 문칩이 딸이라난게. “경협테가”우리 씨어머님은 늬주젠도 허 고은  
 104029 @ 씨아버지가 어떻행 경 호강행 자라신디 꿩콜 잘  
 104029 #1 가져가분덴 안들민 그냥 오고

104029 @  
 104029 #1 “에에 하르방이  
 104029 @  
 104029 #1 웨담을 잘잘잘잘  
 104030 @노루 사냥이나 지다리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4030 #2 총덜 지서에 가민 하나씩 주민,  
 104030 #1 큰 노루, 큰 세 개 겁도 어시 오라리호 헨 와부런게.  
 104030 #2 고사리 꺾으레 갖당  
 104030 #1 우리 씨아바님 읍서게 밥먹읍서 점심 닥 맥이고 스촌오라방을  
 푸들락푸들락햄서렌, 오라버니가 손뽐서게 계난 그걸 문딱 그걸 거죽 베기민  
 얼마 안텐텐 허드라 그슬황 문딱 대멩이허곡 짱은 데멩이허곡 짱은 노루고기를 우  
 리 씨아버지 빼하고 데가린 안네두고 살아나서. 그디서 잡앙 분명히 들엇네 누게  
 가져강 일로 심엇텐, 웨 동더레강 내려오ㄴ렌  
 104030 @ 궁통이가  
 104030 #1 거죽 부트니까 맛 잇넨  
 104030 #2 노루 뽕려난 막대기 3년은 우린텐겐,  
 104030 #1 억세 문씨라  
 104030 @남자처럼 대단허다예.  
 104030 #1 푸들락푸들락  
 104031 @ ‘지달이’ 사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4031 #1 뿃ㄴ라 지달이엔 허냐?  
 104031 @ 오소리 땅굴파멍예?  
 104031 #2 땅굴 속에 들어가는 거,  
 104031 #1 그것ㄴ라 지다리, 오루?  
 104031 #2 너구리 닳은 거, 오소리,  
 104031 #1 것ㄴ라 지달이이? 땅 팡 땅 속에 집 행 사는 거이, 경행 나왕으네이  
 스방에 똥 막 싸 똥 또 들어가곡허는거지이? 계난 노루마니 안큰거지? 크질안해?  
 104031 #2 노루마니안 커. 노루반쪽마니  
 104031 #1 계난 그 산에 므멸 갈앙 므멸 궤레 강 보민, 그런 ㄴ망이 막난  
 옆에 막 똥 짱 나두고, 그건 어디 기어나부렁 엇고 허대. 우리도 저 테우리동상이엔  
 현디 므멸 흔 멧번 간때가 이서. 그디 가민 산쪽이난 테우리동상서 그걸 똥  
 무락이 싸놓고허민 우리 어머님이,  
 104031 #2 ㄴ망앞에 옛날어른덜토 그ㄴ망앞에 코 낡 놔뒤게. 콜 낡 놔똥잡앙  
 먹엿찌 무싱거 햄찌.  
 104031 #1 우리 어머님이 오루 ㄴ망 닳다.  
 104031 @ 동네 사농바치는 어서낫수과? 그런 총을 쏘앙 웃두리니까 사농  
 이서실건디 겐 그 거죽이나 털웃덜

104031 #1 야네 씨아바님이 야인 잘 모를건디, 야네 씨아바님이 치만이가 노루 모자쓰고 쪼개 입고다녀나서, 느네 씨아바님이 치만이가 노리 가족으로 가족 물리 왕으네 멧번을 봐서.

104031 #2 털시낭 뜨신걸로

104031 #1 모자허고 쪼개허고 야네씨아바님이 야네 념편보다 쪼금 크나마나헌디 막 걸름도 빠르고, 걸름도 파작파작파작 빠르고 잘도 자상헌 어른, 책도 보고,

104032 @ 게민예 족제비 덧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4032 #1 족제비 비오젠허민 족제비 봐점직ㅎ다 어른덜이 비움직ㅎ다 사람 눈에 보여 호로록호로록다녀. 비오젠허민 족제비 보여. 그 족제비 가족은 잘도 좋아. 몬지락헌게 긴게 소굽에 긴 검질 닳은 거 담양 물리와

104032 #2 벳짚담양 영 구불령으네 기러기로 길쭉허게 구불령으네게 그 속에 담양 물러.

104032 #1 물리민 거 빼불민 것이 목도리 웨여.

104032 @ 행 땡기는

104032 #1 스촌오빠 작은 오빠가 문주림인디 오리 조끼도 행 입고오리

104032 @ 오리?

104032 #1 춤 노루, 경헨 빠르고 어이 허민 어이 허민 걸음도 빠르고, 장개 가근에 오누이 나난디 애가 둘다 죽어불언게. 부인은 재가행 가불고,

104032 @ 4:3때 다 죽엇다는 거지?

104032 #1 대구형무소에서 죽어불언, 큰아버지에 죽은 아덜,

104032 #2 땅에 발을 부치지 았앙 걸어나서.

104032 #1 어떻 빠르지 몰라. 규림이 따를 사람 하나토 엇댄 해여.,

104032 #2 산에 갓다온 사람이 많이 죽더라, 영종이 아시도 경헨 죽어불언, 산에 갓다오니까 바람 맞앙 죽엇덴, 빙 든 거 어시 죽어.

104032 #1 우리주림이 살앗자 고생바가지 헐건디,

104032 #2 그 애기덜 민영

## 5. 바다일

105001 @ 바다에서 하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5001 #1 잘 몰라. 우린 허는 말만 들엇지.

105019 @ 우뭇가사리는 어떻게 채취합니까?(공동)

105019 #1 이녁 먹을 건

## 6. 의생활



## 옷감

106001 @ 옷감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01 #2 옛날에 우리 클 때 옷감이 없었어. 비단 그런 게 없었어. 그 목화행으  
네 광목도 중간에 나온 거, 질쌌행 민영, 베, 베는 육지에서 오고, 제주에서도 질쌌  
은 많이 해서 만들양 입었느디

## 명주

106002 @ 명주실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02 # 1 것도 몰라 우리.

106003 @ 명주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생명주/수아주)

106004 @ 명주로 어떤 옷을 만듭니까?

106004 #2 주로 호상,

106004 #1 죽을 때 입는 거 호상,

106005 @ 무명실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06 @ 누에치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양잠단지 이런 데 가야?

106006 #1 양잠단지 그 무사 명주 만들야?

106006 @ 옛날에 양잠을 키웠던허난 양잠단지엔 현 거 아니우파?

106006 #1 아니야. 아니야. 어디 저래 육지에 가야돼. 제주도에는 없어. 명주 만  
드는 디,

106006 #2 제주도는 없을 걸. 제주도엔 어디,

106006 #1 옛날 옛날에 토멩주 토멩주 어디 대정에 만드느디 쫘 이서났지만, 옛  
날에는 토멩주 많아 낫어. 토멩주 토멩주 제주에서 만드니까 토멩주야. 쫘 굵고 좋  
와. 켄디 지금은 토멩주 나는 디 없어. 다 육지에서만 멘들야.

106006 @ 옛날은 토멩주 어디서 했다고 마씨?

106006 #1 대정쪽이야. 모관은 아니야. 여긴 모관이엔 허여이. 옛날 일름이 제주  
이 산으로 아랜 모관 산으로 남쪽은 정의, 저 이호 흐김 이 서쪽은 대정,

106006 #2 정의 대정,

106006 #1 계난 이제 토멩주 나는 데가 어서. 옛날은 막 토멩주 세영은에, 토멩  
주 토멩주해영 서쪽이라, 동쪽은 없어.

106006 #2 토멩주 올밭이 굵주게.

## 무명

106007 @ 무명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토목/생목/광목/닷새무명/옛새  
무명/여덥새무명) 민영에 대해서

106008 #2 목화로 만드느건디

106008 #1 닷새는 너무 굵고, 옷새, 일곱새, 여덥새 깎지가민 야네 어머니잘해.

그 줌진 걸, 우리 어머니 그자 대충 옷새민영을 잘해. 옷새민영은 갈옷행 입는 거. 글아 자꾸, 주로 옷새 해. 선돌아주망은 소문난 어명이야. 소게옷이나 주로 옷새해. 겐 자꾸 야네 어머니만 여덱새허는 어명이야. 어른덜이 글아게. 저 선돌아지망이나 대충대충 훌개, 막 줌질줌질헛 민영 허주 막 줌질게 해야 남자 어른 숨 바지저고리, 여덱새가 제일 줌진거야. 겐 글멍, 선돌아 지망이나 가시민 여덱새민영,

106008 @ 민영으로 어떤 옷을 만듭니까?

106009 @ 토목으로 무엇을 만듭니까?

106010 @ 광목으로 무엇을 만듭니까?

106012 @ 목화 농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멘네용시?

106012 #1

### 모시

106013 @ 그 다음 모시실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13 #1 여기서 알아지나. 모시옷은 제일 좋은 거난이 하이깔라덜만 입어. 수수한 사람은 입지도 못해.

106013 #2 모신 그 모시옷 만드는 그 뭐 나무가 이서. 나무가, 이만큼 지퍼. 지금 티비에 가끔 나오는디 지방이 그런 지방이,

106013 #1 육지 가는디 이성계

106013 @ 안산모시?

106013 #2 응. 게민 그거 막 비어다가 이파리 짝 밀어 데껴두고 이제 솟에 낳으네 큰 가마솟에 낳으네 삶아.

106013 #1 거죽 뱃겨야 삶주게.

106013 #2 삶아낱 베껴. 예구 춤.

106013 #1 그 나무차?

106013 #2 삶아노면은 베끼기가 쉽더라고게 잘짜 베껴져 게민 그.

106013 #1 아아 모시 대차 삶양,

106013 #2 응, 대차 뜨신 물에 등강, 경행 베껴 놔그네게 딱시 물에 등강 내리는 물에 강 그 꺾데기를,

106013 @ 해보진 안했잖아예?

106013 #2 티비로 본거지.

106013 #1 안동포 안동포허명이

106013 #2 안동포 세어.

106013 #1 모시는 호상 못허고

### 삼

106016 @ 삼실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16 #1 삼은 베 흐는 거.  
106016 #2 삼은 베 만드는 거.  
106017 @ 베로 어떤 옷을 만듭니까?  
106017 #1 안동에서만 잘해게. 안동포 안동포허멍이  
106017 @ 안동포가 베?  
106017 #2 베가 경 좋은 모양이라. 경헨 안동풀 세어.  
106017 #1 제일 좋은베, 모시보다 더 비싸. 안동포가, 모신 호상도 못허고 안동포는 호상도 웨곡,  
106017 #2 무사 이거 호상 못해마씨?  
106017 #1 모신 호상도 못허여. 모시옷 들어감만해도 머리 흰 아기 나온덴 허여, 손주, 머리 흰 조상 난덴,  
106017 #2 모시는 호상, 죽영 못허는 모양이라.  
106017 #1 모신 깃바디만 뒷 들어가도 떼어붙어야 웬덴, 이제는 머리 막 희잖아.  
106017 @ 이유는 단지 그거 하난가?  
106017 #1 응, 경행연 모시 못쓰게 허여. 옛날부터  
106017 #2 옛날부터 모신 죽음에 못써.  
106017 #1 호상으로 못써.  
106017 #2 살아 잇을 때 어떤 옷을  
106017 @ 죽음에 못쓰고 어떤때?  
106017 #1 살아 잇을 때  
바지도 만들고 우에것도 만들고  
106017 @ 베보다 비싸구나?  
106017 #2 막 비싸 모시는 좀헌 사람 비싸기도 허곡  
106017 #1 아래가 과짜 돌라가야 곱잖아. 알단이,  
106017 #2 모시옷 막 까다로와. 모시옷 관리하기가 힘들어, 민영 광목이 질 손보기 쉽고,  
106017 #1 우리 큰어머니가 산구경 갈땐 꼭 붓디창옷 입영 당기난  
106017 @ 베로는 죽영 갈 때 많이 입엇다는 거다예. 살아 잇을 때 베로는?  
106017 #2 살아 잇을때도 이 바지 그 안 안부청, 안부청으네 안 어시,  
106017 #1 그것ㄴ라 중의적삼이엔허여.  
106017 #2 중의적삼이엔허 홀로 안어시  
106017 #1 베중의적삼 시원허주게.  
106017 #2 그런 거 여름엔  
106017 @ 요즘 사람은 모시보다 베  
106017 @ 어멍덜 곱닥허게  
106017 #1 아 지금도 지금도 적삼으로 안행 반소매로입장아 여름에 그거 입으민 딘 거 못입어. 반소매로 세 개 네 개 셔도,

106017 #2 탄 거 못입어.

### 재단과 염색

106031 @ 검은 물은 어디 강 사마씨?

### 신발

106032 @ 신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32 #1 나막신도 신어나고 찢신도 신어나고,

106032 #2 찢신 주창 신엇주게.

106033 @ 가죽신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33 #1 가죽신은 안신어본디 내가 야네 씨아버님 가죽신을 신영 땡검더라. 옛날에 야네 씨아버님이 그런 걸 잘해여. 가죽으로 땡 거. 가죽보선도 신영 땡기고, 내가 그 집 올레로만 자꾸 다니난 출 시끄멍,

106033 @ 그런데 친정아버지나 씨아버지는 그런 거 안신어봤고예? 그믐 보통 양반덜도 찢신을 신엇다는거예?

106033 #1 응.

106034 @ 나막신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34 #2 아니, 친정아버지도 나막신을 만들어놨주게. 나막신은 나뭇대기 요만씩 훑은 거 비어다가,

106034 #1 자기 몽수만씩 찢라.

106034 #2 나막신은 요만큼씩 찢라. 자기 발에 맞게 찢라그네게. 이젠 기구 행으네 가운데 파. 발들어 갈 디를, 파고 엮어놔 등땡이로는 또 발을 만들어. 이 가운데 요 압에 흐뎡 높으고 이 뒤에 높으고 허게 행으네 가운데 찢라그네 떼껴부러. 가운데 파그네게 그 기구로 파그네 발모양으로 발치수에 맞추왕으네 발 들어가게끔 파그네게 겐 이 압에는 뽕족이 이렇게 코를 만들어. 모양으로 고무신코 모양에,

106034 #1 코고무신ㄱ추록게,

106034 #2 고무신 코모양에, 만들어그네 에 불에 췌담은 거 구웁으네,

106034 #1 윤디

106034 #2 윤디엔 현 거 구웁으네게 바삭바삭 영 툼툼이 그 모양을 내야,

106034 #1 모양도 냅고 신도 질기고, 곱꼭게 색깔이,

106034 #2 곱고, 기여게. 경혜그네 우리도 주웁 신어놨주게.

106034 #1 우리 아버진 혈 출 모르민 우린 그 오촌 도남 삼촌이 그거 잘 행 우리 꺼 행 가정오민 돈 흐깁 주주게. 또 경원이 하르부지 잘해. 남박신은 잘해. 잘도 잘해여. 해연 풀아 풀아. 낭해다근에,

106034 #2 우린 풀진 안해도 집잇것들은,

106034 #1 목수난게.

106034 #2 응. 셋아버지영덜 막 모다들영 만들앙으네

106034 #1 느네 아버지도 목수아니라 무사?  
106034 #2 응게. 겐 만들양덜 모다들영 만들양덜 신어낫주게.  
106034 #1 우리 아버진 그런 건 일절 허쟁도 안허고 혈 충도 모르고, 겐 스춘도 해오고 오춘조카도 해 오민 식구덜 건 다해. 식구가 다섯이민 다숫배다. 아이고 비 올때쫘이민 그자 벗어노민 왕그랑해.  
106034 @ 누가 누구건지 알아져마씨?  
106034 #1 몽수로 알지.  
106034 #2 다 몽수가 잇으니까.  
106034 @ 적영냐 뒤?  
106034 #1 안 적어도 이녁신 다 알아.  
106034 #2 영 보른게 발 큰거 잇고, 죽은 거영 중간에 거 잇고 경허주게.  
106034 @ 그게 꼭 필요해마씨? 짚신 젓어불민 막?  
106034 #2 젓어불민 썩어불어근에  
106034 #1 늘 썩어불민 끊어져 불어.  
106034 #2 썩어근에 빨리 떨어져불주기게. 경허기 때문에 날 우칠때는 꼭 나막신을 신어야 댜.  
106034 #1 마당에 물이 이마씩해도 거 신영,  
106034 #2 짚신은 벅대로 허기 때문에 물에만 갖다허민 썩어 그냥 떨어져부는 때문에,  
106034 #1 떨어져불른 내불주게 새 것도 늘 끊어져불고.  
106034 @ 나막신 어디다 놔뉘?  
106034 #1 그냥 문뚱에 벗어.  
106034 @ 하도 사름이 많으면 너무 많잖아  
106034 #1 게 막 옆더레 막 쟁기지. 이 옆드레,  
106034 #2 게 문앞이 막 널르주게. 겐 문앞이 신발이 쪽 잇주기.  
106034 @ 나막신 맨발로 신으쿠다예 거의?  
106034 #2 맨발로도 신고,  
106034 #1 양말도 신고 브선도 신영 신고,  
106034 #2 주로 옛날은 브선을 주로 신언,  
106034 #1 코도 싯곡허난 코에 그 브선코가 딱 올라와. 남박신 잘도 이빠.  
106034 #2 응. 나막신도 브선코모양으로 코로 만들어.  
106034 #1 곱게 헌 사람은 잘도 곱게 해영 신어.  
106034 @ 뱃겨지고 경 안해마씨?  
106034 #2 아니 경 안해여.  
106034 #1 겐디 그 서툴게 헌 사람은 막 여기 뱃겨정 피도 나곡 경해.  
106034 #2 경해. 나막신도 막 여러 가지라 막 곱게 행으네 알다랗게 막 모양내멍 여기다 줄을 싯싯 그어놓고, 막 꽃모양으로 행으네 예쁘게 만들양으네 알다랗게 해

그네게 해영 흐는 것도 있고, 그냥 무대기로 그냥 해영 모양어시 해영 신는 사람도 있고,

106034 @ 하나에 얼마 현 건 기억 안남수과? 주위에서 만들양 짓다는거지예?

106034 #1 남박신 혼돼 나도 사는 걸 봐나질 안해서이나도이 우리도 오촌,

106034 #2 얼마 현 건 몰라.

106034 #1 “형님 남박신 다해시매 가져갑서” 허민 나 혼돼 가져강으네 으정 강 굴체에 세 개씩 담양 가정와난건 알아지크라. 굴채 영 똥주는 굴채 이서이. 알아?

106034 @ 예게.

106034 #1 것에 강 남박신 세 개씩 아정 아버지영 가정간 건 현디 돈 주는 건 모르크라. 얼마준 건,

106034 @ 먹을거라도?

106034 #1 그냥 아무것도 흐낌도 안주진 안허지. 암만 스촌이라도 뭐 줘야지.

106034 #2 뭐 줘실거라게.

106034 #1 아무걸로 줘도 줘야지.

106035 @ 그른 짚신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초신, 남신 뭐런 불렀수과?

106035 #2 나막신은 남신이엔 허곡 원래 초신이엔, 벳짚으로 찬 신은 초신이엔 허고게.

106035 #1 초신이엔 허고이. 그 초신에도이 영 그 튼작 이쁘게 삼은 신이 이서이. 튼작신이엔 해. 삼으명 현 게 아니고 각을 따로 헛당 부친거니까 튼작신, 그거는 막 새메누리나 쥐이. 새메누리나 해오민 쥐. 튼작신,

106035 #2 그 신은 친정 할아버지가 잘도 예쁘게 짜이. 켌디 그런 건 색시덜이나,

106035 #1 건 비싸 공도 들고이. 새메누리 해오민 그 신을 쥐이 우리가.

106035 #2 친정아부진 팔월추석때고 정월맹질 돌아오민이 꼭 우리 어머니꺼허고 나허고 두 겐, 벨 해영으네 짜근에게 만들아근에, 대진이 셋아버지네영 사난, 셋어머니 아무도 모르게 영 두루막소굽에 감추왕으네 곱정 왕 주더라.

106035 #1 할아버지가, 손지덜 여러 개난이,

106035 #2 할아버지 옷은 우리 어머니가 주로 한복행 드리고 푸담행 드리곡 허난 언젠가 게그네게 갖다 주드라. 누구신디 곧지 말렌, 느네배끼 안 삼아다줍져.

106035 #1 아덜이 쇠 성제난게.

106035 #2 응, 튼작신은 왜 튼작이넌 허냐면 그 그냥 무대뽀로 신는 신은 이렇게 짜가면서 부튼 걸로 각을 내는디, 그거는 벳 맨 꼭대기 속안에 꺼 속안에 꺼 뽑아그네게 그거 부벼근에게 각을,

106035 #1 이렇게 보병 영 톱 오그리민 막 오그라지잖아. 이디 고망 영 흐낌 나

고 영 요만씩허게,

106035 #2 실껍ㄴ치 즈질게 헤영그네 감양 낫다근에게 그 신 짜가명 그걸 부청 짜주게. 계난 툃깅신허는거

106035 #1 그런 신이 택수네 하르방 진도서 온 하르방, 잘도 곱게 잘해서

106035 #2 우리 친정 하르부지 잘도,

106035 #1 잘도 곱게 허민이, 벨미로 우리어머니 우리 멩질 돌아와가민 그 할아버지 현 거 사다준디 돈 준 건 모르크라. 늬의 하르방이난 돈 쥐야주게.

106035 #2 맞추기게.

106035 #1 진도서 완 사니까, 그 하르방네 올때이, 진도서 할망 할르방이 와신디 허씨야. 할으버진 신초생이, 신 잘 삼으니까 신초생이 두 개, 초생이영 궤는 거하고 녹드는거 이서이. 거 두 개만 가정오곡 또,

106035 #2 가정완,

106035 #1 가정완게, 자기행장이난 할머니는 바늘쌍자, 제일 오멍 정존이 이동네를 왓텐, 그냥 우리 시집이 먼문간에 방 흐나씩 짱아. 그 방 흐나 빌영 거기서 사는데, 그 어른은 가을만 들어가민 우이 입는 후루메는 다른거는 아멩해도 싸니까 후루메는 비싸주게, 후루메는 막 하영 거 허민 돈이 많이 나와. 게곡 하르부진 신 삼는 것보다 걸름내엔게. 통세에 벤소에 걸름을 막 거 담양낫당게, 소걸름 막 담안낫당게 도세기 불르고 똥사곡허민 보리갈젠허민 걸 내주게. 바깳더레 내청으네 물 빠지민 밧떠 시꺼 가니까 하르방은 그걸 주로 헛텐, 걸름내는 거, 겨난 뒤 돈 버는 게 이거 머이, 밥도 그디 강 얻어떡영허고 주곡게, 경허난 경행 사는 어른이 이디 왕으네 아들식게 툃 두 개 오남매나고이. 그 할으부지가이,

106035 @ 그 자손 여기서 살암수과?

106035 #1 살아. 오남매 나고 밧도 막 사곡,

106035 @ 무사 진도에서 안 살양 고향 버령 여기에 와신고예?

106035 #1 진도가 아멩해도 흐깁 어려우니까

106035 #2 생일 테주게.

106035 #1 고산은 진도에 잇텐행으네 흐번씩 성복 가는 생이더라. 진도에

106035 @ 동문시장쪽에도 진도여 완도여 많이 왓수다. 장사허는 사람덜 다 해남에서도 많이 오고,

106035 #1 계난 그디서 왕으네 난 어른들이 잘도 백넘엇지

106035 @ 그 신발은 진도나 여기나 툃 같앗다는거다예?

106035 #2 응. 툃 같아실거라.

106035 #1 그 어른 신초생이허곡이 영 신초생이허곡 신 녹드는거 잇더라. 영 행 널븐거 그거 두 개 가져왓텐 해.

106035 @ 신 님은거 아니예 어쨌튼 만드는 거?

106035 #1 녀지 영 신 돌아놉으네 치기 행 딱 영 똤쓰민 걸로 툃툃 녹들어야 신이 돼어. 오글랑현 것이,

106035 @ 저 동쪽허고는 이름이 다르다예. 툃각신이렌 현 말을 여기선 깍신이렌 했구나예?

106035 #1 달라. 툃각, 게난 딱로 그 깍을 그거 영 이런 디꺄 딱로 행노니까 툃각이야.

106035 #2 트로 만들어당 부치니까 툃각신이엔 해서.

106035 #1 그냥헌건 짚각신이엔 허여 짚각신, 짚으로만 허는 거.

106035 @ 자, 이번에는 그믄 멧살부터 짚신을 신은거마씨? 애기 세 살 네 살 때 다 짚신?

106035 #2 세 살 네 살은 못 신지.

106035 #1 다섯슬넘어가야,

106035 #2 다섯슬은 지나야 일곱슬이나 돼야,

106035 @ 맨발로 다니당?

106035 #1 아니, 다섯슬낭으네 밧디 다 가게 돼민 신어야 돼. 난이 무싱것도 신어나서, 이디 밧만 꺄영 신는 것ㄹ라 조리, 것도이 도남삼춘이 해꺄, 것도 해꺄. 애자허멍게, 게민 것ㄹ만 이거 어싱거난 꼬성 텅겨도 돼. 밧도 안아프고,

106035 #2 게다로?

106035 #1 게다지. 조리엔 해 조리,

106035 #2 조리엔도 허고 게다엔도 허잖아?

106035 #1 게다는 나무, 낭이고, 낭으로 헌게 게다고. 짚으로 헌건 조리, 낭으로 헌거 게다, 일본이름이 게다지. 조리도 일본일름이지. 이디서허믄 쓰레빠 닳은 거 쓰레빠지.

106035 #2 쓰레빠주게 지금 말론 쉽게 말행으네,

106035 #1 겐 나가 애자네 애자꺼 허멍해영으네 멧번 신은 거 흰해. 육촌이 나보다 혼나우이 육촌시난 그디 삼춘이 꺄 허니까, 게믄 뭐 애자거 나거 몰라. 벗어노민, 똑꺄아.

106035 #2 그렇지게 똑꺄으주게.

106036 @ 짚신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짚신의 종류는 초신허곡 깍신예?

### 모자 등

106037 @ 모자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옛날모자에. 정동모자도 잇고 무슨 갓도 잇고, 특산품?

106037 #1 정동모자 지금도 이서이.

106037 #2 지금도 잇주게.

106037 @ 특산품?

106037 #1 특산품 나이 만 오천원 췌 상 나뻐서.

106038 @ 여름 모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38 @ 옛날에는 꽤랭이 잇었구나?

106038 #2 응. 옛날에는 꽤랭이 잇고

106038 #1 밀낭꽤랭이엔 허여.

106038 #2 그 대나무로 헌 샷갓이엔 헌 것도 잇고,

106038 @ 정말마씨?

106038 #1 샷갓도 요마니헌 거 세가지로 나와. 싯고 여러 가지로 나와. 큰 거, 작은 거, 중거, 제일 좋은 건 여덱치 샷갓이엔 헤영으네이 그 이 일로 행으네 이것이 여덱치야. 여덱치허든 헤영헌 창호지 허여근에이 이디 쌍 막 그냥 영 다녀가민 그 종이가 막 헤영케 허올허올허민 막 새새각씨만 썸직하다. 저 샷갓,“너무 곱고 좋다.”허멍,

106038 #2 새새각씨덜이난 그런 샷갓덜 많이 셋주게.

106038 #1 우리 우리어머니도 막 써. 그런 샷갓덜 하나씩은 다 잇어. 우리 성님도 쓰고 우리 언니도이

106038 @ 아니, 여자덜도 써마씨?

106038 #1 밧디 갈때도 써. 검질맬때도,

106038 @ 검질맬때는 나 쓴데는 해도, 그 하양한 창호지로 헌 줄은 몰라신디예?

106038 #1 창호지 더끄민 건더와. 건딩와이. 고망이 영 비롱비롱헌 건디 어디,

106038 #2 그건 막 창호지 여러 종류주게.

106038 #1 막 즘질게 행 막 곱게 헌거.

106038 #2 대를 막 얹고 즘질게 헤가지고 짠 거. 근디 이 사이사이 무늬 노 면서 짜.

106038 #1 사이사이 말낭 니귀방장헌 거.

106038 #2 이 사각지로 저 표싯행으네 그림을 놓는다 여러가지로 놔. 이렇게 크게 처음에는 이렇게 크게 해놓고 요 또 속에 이렇게 준준허게시 딱시 행 놔.

106038 #1 그게 서대샷갓이고이,

106038 #2 그게 서대샷갓은 왜 서대샷갓이냐 허든, 대나무도 여러 가지로 쓰주게. 대나무도 맨 우이 부튼 꺾테기, 맨 우이 꺾테기만 따로 그거 준비행으네게 다스 령 낫당 그 만든 짠 샷갓이라.

106038 #1 서대, 그 다음 쓴 건 속샷갓 속샷갓,

106038 #2 속샷갓이엔 헌건 그 다음 걸로 짠 거. 게난 속샷갓이 빨리 헐어. 약해 연,

106038 @ 게든 주로 이 샷갓은 여자덜이 밧디 갈 때 쓰는것과? 것도 그렇게 곱 게,

106038 #1 게난 그 샷갓은 두 불 해. 밧디 텅기는 샷갓은 속샷갓으로 하곡게 오 민 비맞이민 그 샷갓이 줌 거멍허주게.

106038 #2 거멍허고 또 그 창호지 혼 게 망가져볼주게. 게난 비와가민 막 치

마 벗영 덮어. 찢지 안허게. 아까완,  
 106038 #1 아경계, 종이 이서부난,  
 106038 @ 아, 밀낭페랭이보다 이런 걸로 먼저  
 106038 #1 밀낭페랭이돈 쥐사사 허니까,  
 106038 #2 이거 쓰민 다 막아져그네게 막 건드라와.  
 106038 #1 맞다. 밀낭페랭이 흐김 이서가난이 보릿대 요만헌거씩허영으네  
 즐앙 영 우리 ㄱ양 즐앙게,  
 106038 #2 보리 그거 짜그네게,  
 106038 #1 짜그네 막 길게 짜놉으네이,  
 106038 #2 짜그네게 속에꺼만 다듬아그네,  
 106038 #1 홀로이 망부터 헤영 만들앙 주원 이끄지 내려오민 이디가민 팍 퍼  
 지왕  
 106038 #2 우리도 만들어나서. 우리도 잘해서,  
 106038 #1 흐김이서야 우리가 열술 넘영 막 넘언,  
 106038 @ 게난 보릿대로 만드는데 난 밀낭페랭인줄 알앗더니 밀낭이 더 좋으난  
 밀낭으로?  
 106038 #1 아니, 보릿대로 만드는데 밀낭페랭이,  
 106038 @ 원래는 밀낭으로 헛덴마씨? 옛날은  
 106038 #2 응 밀낭으로 헌게 더 좋아. 찢기고,  
 106038 #1 밀낭이 많이 갈지 안해. 밀이  
 106038 #2 많이 갈지 안 보릿대로 해여.  
 106038 @ 옛날은 많이 허난  
 106038 #1 밀낭이 많이 허는디가 벨로, 매집이도 안해.  
 106038 #2 게도 처음엔 아멩해도 밀대로 해나신 ㄱ라 밀낭페랭이엔  
 106038 #1 밀낭이 좀 찢겨. 영 땡겨도 잘 안 끊어져. 경흐난 걸로.  
 106038 #2 찢겨. 찢기고 대가 즘질기로 짜민 곱기도 허여.  
 106038 #1 겐디 밀낭이 드물어게.  
 106038 #2 보릿대 닳지 안행,  
 106038 #1 보리낭 페랭이 나가니까 샷갓도 덜 허더라고게. 아이덜도 씩왕다니고  
 허난 샷갓이,  
 106038 @ 만들기가 어렵구나.  
 106038 #1 응, 힘들어.  
 106038 #2 샷갓은 또 아이덜은 무겁고게.  
 106038 #1 막 머리 아팠으네 영 이디 쓰는데 이서 망이엔 허연이.  
 106038 #2 이 머리 문딱 들어가는 통이 잇주게.  
 106038 #1 그디 막 험벅도 감앙쓰곡 막,  
 106038 #2 이디 놀러붙영, 막 아파. 겨른 아이덜은 잘 못써.

106038 #1 겨문 봉대 닳은걸로 빙빙 감아. 나도 막 감앙 써나서.  
106038 #2 꽤랭인 약허니까 아이덜토 써도 이디 아프질 안행으네게,  
106038 @ 갓을 만드는 사람을 봐봤수과?  
106038 #1 응. 만들지. 우리 육촌오빠,  
106038 @ 수리대가 아니고 왕대?  
106038 #1 수리대, 수리대로 해. 왕대론 못해. 왕대는 막작이 세영은에 수리대  
로 하여.  
106038 #2 다루질 못허주게 수리댄,  
106038 #1 경원이 하르부지 잘헛주게 샷갓은,  
106038 @ 차롱도 다 수리대?  
106038 #1 응. 수리대  
106038 #2 게난 집집마다 다 우갓에 저 수리대덜 잇주게. 그걸 춤 필요허게  
헛주게.  
106038 #1 경 심어도 그거를 아무나 경 차롱 못 즐아. 숨씨잇는 사람만,  
106038 #2 것도 아무나 허질 못허주게.  
106038 #1 우리집인 삼형제라도이 하나토 못해. 그 우리 도남삼촌네허고 그 어른  
허곡 경완이 아부지 그디만 즐아.  
106038 #2 우리 친정엔 그거 즈는 사람이 어서.  
106038 #1 그 두집만 경 차롱, 차롱도 즐고. 큰 구덕도 즐고이. 영 정 텡  
기는 구덕,  
106038 @ 노형도 잇엇구나예?  
106038 #1 우리 바로 친족에 잇고, 또 골채, 걸름도 내곡허는 거 들렁,  
106038 @ 골채는 뭐로 만드는 것과?  
106038 #1 것도 대로, 대로, 이젠 대 어시난 칩으로 허는 거라. 거 칩이 아니고  
거 정동이라이.  
106038 @ 칩이 아니고 정동, 정동,  
106038 #1 거 정동이라. 칩이 아니고 정동이라이. 산에 강 건너오는 거, 거 금덕  
쪽에 많이 행 풀더라.  
106038 @ 금덕?  
106038 #2 옛날엔 골채도 대나무로,  
106038 #1 금덕쪽에, 그디 사람덜 산에 강 정동 건너당 집이 왕으네이 손 판, 걸  
로 즐아. 정동이라이,  
106038 @ 것도 좋아예,  
106038 #1 응. 게난 그 대보다 텍텍 데껴붙어도 밧아도 대는이 데껴도 삭아불고,  
뽕아도 건 꺾어져붙어. 쓰는 게 막 무정행 좋아. 정동이,  
106038 #2 경 비 맞이민 또 더 삭아불고 허니까,  
106038 #1 겨곡 대가 43스건 낭 막 대왓이 다 어서저가니까 정동이 나왔어. 그

전인 정동업서.

106038 #2 정동엇고 정동으로 헐 생각도 안허고계. 대나무가 잇기 때문에,

106038 #1 다 대굴채로 행, 겐디 그 대나무가 어서젼지만

106038 #2 대나무가 으서져부니까 이젠 정동 걷어당 헐 생각 헐 정동덜을 걷어당 했주.

106039 @ 겨울 모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39 #2 겨울엔 주로 나까오리,

106042 @ 탕건 겐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말꼬리로?

## 7. 식생활

### 밥과 국

107001 @ 밥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밥은 무신밥 이수과. 보리밥 곤밥

107001 #1 조팍. 여기는 이 피도 안가난 피밥도 안해.

107001 #2 드리송당은 주로 피 가난 피밥행 먹어실거고

107001 #1 여긴 피 아이가니까이.

107001 @ 밥은 조팍 보리밥예 것뿐이고 콩밥

107001 #1 콩밥 콩밥

107001 @ 풋밥

107001 #2 풋밥이야 풋 서끄민 풋밥이엔 허주마는

107001 #1 아니 곤밥이엔 해. 쓸밥ㄴ라. 곤밥 보리밥 조팍 세가지지. 풋 노민 풋 서끄민밥이지 풋만사 밥해지나게.

107002 @ 쌀의 종류는 좁쌀 보리쌀?

107002 #1 곤쌀. 입쌀이엔 아녕 곤쌀이엔 해.

107003 @ 보리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03 #1 보리밥이엔 허문이 곶은보리밥 통보리밥 그거 두 개라.

107003 @ ㄴ른 보리밥?

107003 #1 보리쌀 곶양 허는 거는 곶은보리밥이고이 잔치때는이 보리쌀을 이 들 방에예 강 흥번 또시 올렛닥ㄴ렛닥 짝어와. 쟁 짝으민 것이 호뎡 영 몬들라끼 곶와.

107003 #2 꺾데기 더 벳겨정, 까까정

107003 #1 경허문 그것이 통보리밥이야. 잔치때만

107003 #2 잔치뎡 거 곶근풋 서터야 통보리밥이랜 행 ( )님덜은 행 주주게

107003 #1 겐디 그 통보리밥이 맛있어. 보리밥보단. 곶은 쌀로 현것보담

107003 @ 겐디 무사 그 맛존거를 행떡주 평상시에

107003 #2 잔치때는 그 통보리밥을 허젠 허민 큰 가마솥에 많이 허잔아.

107003 #1 그 통보리밥은 허젠 허민 호끔 공 들주게. 또 두 번 강 지어 오는거라. 밥허는 것도 골은보리쌀 허민 빨르지.

107003 #2 큰 가마솥디 많이 허고 풋 서트니까 풀도 더 좋고 맛있는 거같애, 많이 허니까.

107003 #1 많이허니까 맛있는거지.

107003 #2 골은보리쌀은게 우리 먹을만큼 죽은솥디 놔그네 우르륵 켜와그네 먹으민

107003 @ 맛이 엇잔아게.

107003 #1 통보리밥이 맛은 이서. 겐디 잔지때뿐이 아니허여. 식계뎨 그냥 골은보리밥으로 허여. 잔치혈때만. 잔치혈 때 영장혈때이

107003 @ 밥 많이 줍니까?

107003 #1 배불리 먹지

107003 #2 실컨 먹지

107003 #1 배고파보진 안헐. 경허고이 사발에 거렁주나? 낭푼이나 남박세기에도 거려주고 두눔쇠눔 같이 먹으랜 주고

107003 #2 여럿이 같이 먹엇주게.

107003 #1 어시민 차롱착에도 거려줘. 영장빳디 간 때문 막 차롱착에 거려줘

107003 @ 영장 묻으레 갈 때 통보리밥?

107003 #1 응 통보리밥. 해야지. 차롱에 밥거렁

107003 @ 게른 잔치때랑 사람 죽은때 이걸 행 먹엇다는거다예

107003 #1 응 사름 하영 모인때 . 아마 통보리밥을 좀 벨미로 허는 것 같애이.

107003 @ 그른 국은? 반찬은 뭐 어서도

107003 #2 반찬이야게 마농지 집치

107003 #1 마농지... 크게 혈때는 김치 허고 뭐 다른거 햄실태주.

107003 @ 잔치때는 듯궤기반도 잇고게.

107003 #1 듯궤기는 매날 잇지. 초상혈때도 허곡 사름죽어도 허곡 잔치때도 허곡. 겐디 듯궤길 경 이제 ㄹ치록 하영 주질 안해여. 석점 석점 석점에이

107003 #2 순대

107003 #1 순대 하나 딱 노아그네 구쟁이에 켜어. 딱 켜여그네이

107003 #2 전 하나 붙여놔그녕아

107003 #1 아 맞다. 전 두부 두부.

107003 #2 두부 혼 점허곡 고기 석점. 돼지고기 알따랏게 썰어그녕에 석점허곡 두부 혼 점허곡 순대 혼 점 허곡 전 혼점허곡 행으네 그 수리대 막댕이 해그녕에 구쟁이 요만큼 만들양 거 켜영 아이덜안티 다 테와줘. 동넛아이덜

107003 @ 전은 무슨 전?

107003 #1 ㄹ궤궤로 해 그뎨

107003 #2 ㄹ궤궤로 해여.

107003 #1 혼 솥갈 영 낡 영영  
107003 @ 아, 네모난거 두부처럼 찢르는게 아니고 계란 고적혀듯이  
107003 #2 요맨이 요맨이 혼솥갈 거러낱  
107003 #1 혼솥갈도 안되지  
107003 #2 종잇장 그치록 알따라케 행 혼입  
107003 #1 경허난 아이고 그디가난 전 혼입도 안취라게. 전이 질 짝은거. 아이고 아무디 가난 전 혼입도 안취라 경덜 말허메  
107003 @ 아무디가나  
107003 #1 전이 질 약헌건디 이. 계난 거는 안주젠 허는게 아니고 어시난 못주는 거주게.  
107003 @ 뗏살때부터 보리밥만 먹어수과. 조팝은 안먹어봐?  
107003 #1 그 승원이오라바님 장개갈 때 나 가서이. 옥이영 나영 가난디 맨 조팝만 주더라. 보리쌀은 하나도 안들고  
107003 #2 승훈이 장개갈 때?  
107003 #1 응 그때 옥이허고 나허고 갓주게 우리 문칩이난게 경 간디 밥도 이새로도 안거려주고 낭퐁이에 늪 먹단거 주는디 맨 조팝. 밥도 차조 아니고이 모인 좁솔이난 바삭바삭허여. 나 그거 호뽀도 아니잊어부러. 너물거 핫지안허면 그거 먹지도 못해  
107003 @ 뗏살 때 삼촌?  
107003 #1 혼 열 살인가? 열슬이나 된거 닳아. 승훈이오라방 장개 빨리갓다이.  
107003 #2 빨리가신게. 열 살은 더 되실거여. 열 두 살은 뗏갓주며. 잔치때 옛날도 잔치때 조팝을 안했는디이.  
107003 #1 승훈인 장개 스물안쟁 간거 담다이.  
107003 #2 삶이 어려우난 조팝해신가?  
107003 #1 어렵기사 어렵주게. 맨 조팝이 먹단밥 낭퐁에 헐에 조근반헌거 고기 언만 헐. 그때 호뽀 늦영 갓지. 가문잔치 끝에. 경 가난 정지로 들어오랜허연 들어간 그냥 고기 통장에 툭 떼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떼연 이거 먹으라. 그땐 국은 잊어부러 뭇사 쥐신디 몰르커라. 그날 조팝생각만 자꾸 나. 열만 먹질 못해  
107003 #2 못먹지. 박작박작헐게.  
107003 #1 모인거 허난이 박작박작헐 호뽀 흐린거 서끄지도 안허곡 허난이  
107003 #2 옛날부터 잔치때 ()죽을 아년댄 허는디이.  
107004 @ 게른 반지기밥은 어떤것과?  
107004 #1 반지기밥 막 존거. 근솔 보리솔 서경헌거. 풋에  
107004 #2 반반 서끄니까 반지기밥이야.  
107004 #1 호뽀만 서꺼도이, 보리솔에 근솔에 혼 삼분의 일만 서꺼도  
107004 #2 반지기밥이라.  
107004 #1 막 맛좋아. 맨보리밥보단. 난 그 맨조팝 먹어난거 호뽀도 죽도록 잊어

불지 아니하여져. 못먹언 못먹언

107004 #2 못먹지. 문 바삭바삭헌거게.

107004 @ 그때 집의서도 좁쌀만 행 밥 안행먹어났구나예.

107004 #1 서경 먹었지. 보리쌀에 서경. 건디 그디도 삼촌빨인디 홀어명으로 막 어렵게 살긴 했주게.

107004 #2 아매도 어려우난 경 해실테주마는 경해도 난 잔치때 조팝허는 건 처 음 들엄서.

107004 #1 이간막사리에 살앗주게. 정지도 남쪽테레 문내영 글로 톡 들어간 우리 먹어난

107004 @ 반지기밥은 뭇살부터 행 먹어집디가

107004 #1 그냥 우리 밥먹어지난 반지기로 헌거 닳아. 보리를 가니까

107004 #2 보리를 가난

107004 #1 겐디이 보리를 하영 같지 안허면은이 보리때만 넘으면 겨울 때 어슨 사름은 조팝만 먹으며. 조되민 조팝만, 보리되민 보리밥만. 그때 난것만 먹으며. 두 가지 서경 먹으면 좋은데

107004 #2 낫당 서끌게 어서. 서경 먹도록 놔두질 못허여.

107004 @ 조하고 보리 서꺼도 반지기밥이파?

107004 #1 응 들이 서끄니까

107004 @ 우리때도 도시락 쌍오른 쫄 서경 오는 아이가 반에 세명이 안돼나수 다.

107004 #1 오십이른 경 혈때주. 나가 벤또 거릴 때 허민이 나도 쫄 혼뉘를, 뉘와 세기난 혼뉘 안뉘지. 혼난 해그네 밥 부꺼그네 호뎀 허민 이디 누민 이디만 뉘여. 아방밥을 혼사발 딱 거려뉘 벤또 싯을 거려. 경허민 쌀 하나씩만 들어가 벤또 싯 거리민. 아방밥 혼번 거려볼지 안허민 호뎀 되긴 뉘건디 아방밥만 오고생이 혼사발 거려뉘.

107004 @ 삼촌 딸 아덜 차별 좀 해수과?

107004 #1 차별했지. 차별허고말고.

107004 #2 난 차별 아니해봐서

107004 @ 먹는거는예

107004 #2 응. 거고 아방도 원 그런거 차별 못허게 허여. 똑같이. 겐디 우린 연년 생으로 자식이 많으니까 도시락도 다섯 떠이. 다섯 뜨면 쫄 이렇게 노아그넵에 허 면 아방밥 떠동 도시락 다섯 개 뜨당보면 나중에 뜬건 보리밥만 많이 들어가잔아. 경 우리 죽은뉘은 벤또 확 올양 봐그넵에 지밥은 보리밥만 들어취젠 막 울고불고

107004 @ 거복서게. 어쩔수가 엇어. 일부러 헌건 아닌디

107004 #2 응 일부러 헌건 아닌디

107004 #1 우리 해숙이허고 순덕이허고 중앙여중 ㄱ찌 다녔잔아. 3학년에 1학년 경 다녀서이. 1년간 경다년. 우리 해숙이가 밥비유가 장난아니라게. 아방밥 허랜 허

난 나 흘거 이서 혈거어신 태망어에 알앙으네 하나 확 거러부러게. 확 거러민 벤또 거털 때 혼입떡겐 앙 벌리민 어머니 해숙이벤또는 멘 쓸만 거러십디다 허난 기가? 어느동안에이 나 뭐허는 사이 매날 경 아녀고 어떨 때 한번이라.

107004 #2 게 가끔은 경해실테주

107004 #1 게난 것도 늡이영 먹기엔 좀 창피헌거 같애. 지만 보리밥 싸가니까.

107004 #2 우리 큰아덜 고등학교 간때 도시락을 싸주난 그치 못먹언 뒤에 간 숨 언 앗앙 먹엄시난 게난 담임선생이 좇아강 혼자만 여기서 먹엄시니 친구따랑 그치 먹지 왜 혼자만 와서 먹냐 허니까는 창피해서 같이 못먹어서 영 나왕 먹엄덴 허난 기넨 허멍 영 바러가멍 그렇구나 영 해렌 허멍

107004 #1 가네때는 우의난 호품 경 허당 경호때는 호품 살기가 뭐허난 경호때는 서끈밥 별로 안주여진거 달마. 아덜덜이.

107005 @ 곤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곤밥 못먹영왕 막 울고 이런건 어섯 수과?

107005 #1 아니, 늡 안주민 울기도 헛서. 즉앙으네 뒤에나 사지민 안쥐 게. 전지만

107005 @ 삼촌 들명저낫수과?

107005 #1 들명해난.

107005 #2 들명 워낙 아이덜이 문에 강 부터노민 혼술갈씩 반술갈씩 주당도 떨어정 못 주주게.

107005 #1 게난 아이고 이제사 왔구나게 어디서 놀당 돌아완. 혼 술가락 줌 직행 돌아오민 그 전지 허나나 두부 혼점 것만 쥐, 밥은 안 쥐. 밥주민 영 행 먹주게.

107005 #2 그냥 영 행 먹어나서.

107005 #1 혼술가락 안돼어.흐흐

107005 #2 반술가락은 무싱거게,

107005 #1 새각시 밥이 얼마나 합니까게. 혼사발 행게,

107005 #2 반술가락은,

107005 #1 요쪽은 창망, 요건 지계문 아이덜이 영 얼거져. 그거 받아떡젠, 아이고 옛날,

107005 @ 지계문은 무슨 문이파?

107005 #2 마루로 튼 문을, 지계문

107005 @ 그게 지계문, 상방?

107005 #1 창문은 마당으로 오래 걸리고 그 지계문은 마루로, 나 그때 혼번 못 얻어 먹영 썩썩해나서. 게난 먹은 아이덜이 누게 뜨게 오랜 해서? 그찌 와서민 먹을건디.

107006 @ 조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06 #1 조팝은 그 처류나 허민 호품 먹으카 모인조팝은 좋은사름 벨로 어실



거라.

107006 #2 좋질 안해.

107006 #1 겐디 우리가 맨 조팝만 먹은건 안닭아져. 서경만 먹영

107006 @ 삼촌은 어릴 때 보리밥 먹어수과?

107006 #1 우리도 이 막 못사는 편은 아니니까이

107006 #2 나도 모인조팝만 행 먹어난 적은 엇어.

107006 @ 거기에도 각자 그릇은 안취? 아버지만 벨도로 사기그릇에 준다든가

107006 #1 낭퐁이에 거렁 ㄹ찌

107006 #2 아버지만 따로 드러동으네

107006 #1 상만 흐나 낡 국만 따루 거렁 빙 돌아앗앙 먹언. 아버지는 동글랑상에

107006 #2 안에 이런 지게문 앞에 딱 아버진 독상으로 행 출렁 드러다 놓곡 우  
린 부엌에서 어머니랑 동생들이랑 낭퐁이든 낭퐁이, 남박세기든 남박세기에 거려당  
국만 따루 떠다낡

107006 #1 주로 낭퐁이에 거리더라고 그거를. 또이 콩ㄹ를 곱아다그네 모인졸 놔  
그네 죽도 썬. 맛있어 콩죽. 게문이 콩죽은 낭퐁이에 거리민 닝그리는디 그걸 나무  
박세기에 거리민 그걸 줘야이.

107006 @ 그것도 덜영 안먹고 흐나에

107006 #1 아니 각자각자. 박새기가 우리 아시 하나 나꺼 하나 이서. 경해영 따  
루 거렁 주민 그 박세기에 죽 거린 것이 혼 반쯤 거려. 영 빙 들렁 젓주게 젓이민  
옆에 죽이 부떠. 부뜨민 그거 슷갈로 걸렁 걸어먹으민 경 맛있어. 뜨겁지도 아녀고.

107006 #2 빨리 식으랜 영 슷갈로 들렁 거리주게.

107006 #1 경 다행 먹어지민 또 영 들렁으네 혼 세 번쯤 둘러가민 한가운데게  
식어갈거주게.

107006 @ 콧박세기 그거 말고 나무박세기.

107006 #2 나무박세기.

107006 #1 계난 그 박세기도 아이바봐. 나건 나 주고 아시꺼 아시 주고. 아무거  
나 그냥 거려주질 아녀.

107006 @ 아덜이나 아버지가 다 나무박세기든 자기 직시꺼 이신거?

107006 #1 아버지는 딱 대접에 거려.

107006 #2 사기대접에 . 거 죽뜨는 대접이 이서 호끔 큰거. 국뜨는 대접하고 죽  
뜨는 대접이 틀려

107006 #1 아버지 사발이든 좀 커 . 우리거보다

107006 @ 아덜덜은 똑같이

107006 #1 아덜은 우린 몰라. 오빠이 어릴 때 열여덜살에 일본 가부난이. 오빠영  
은 밥먹어난겨 몰른디 우리아기덜은 혼 세술 네술 냅으네 만딱 죽어부런게 서이가.  
옛날들은 아프민 약도 쓰지아니흐고 그냥 물르당 죽어부러게

107006 #2 약이 어디셔게. 약이 어시난게.

107006 @ 아기때는 먹는거는 다 똑같아주게.  
 107006 #1 그때는 경 입쌀 안먹을 때고 허니까. 입쌀은 아무 때에나 안먹드라고.  
 멧질때나 제스때나 돌아와야.  
 107006 @ 입쌀이 근밥?  
 107006 #2 응 입쌀이 워낙 귀허기 때문에  
 107006 #1 아버지 생일때나 돌아오민 줌 서끄지  
 107007 @ 풋밥. 풋은  
 107007 #1 풋도 줌 애겼어. 풋도 잔치혈 때나 소상대상 혈때나 써  
 107007 #2 것도 벨미로  
 107007 #1 임시 집의 식구만 먹을땐 풋 안서꺼먹어.  
 107007 @ 임시로 먹을 때 돔비랜 험니까? 그런거는 서꺼먹지 아니해나수과? 풋  
 하고 돔빈 또 뭐가 달라마씨?  
 107007 #1 돔비는 여름이민 갈양으네  
 107007 #2 돔빈 막 줄나는거주게. 줄빈영 가기때문에  
 107007 #1 어염에  
 107007 #2 밧 담 어염으로만 쪽  
 107007 #1 어떻 돔비 알암서?  
 107007 @ 어릴 때 밧 맛이 어신디 할머니가 서경 줍디다.  
 107007 #1 풋만이 못해 돔비가  
 107007 #2 방울이 좀 굵어  
 107007 #1 껍데기도 두껍고  
 107007 @ 그거 매일 깡 놔둬니께. 강낭콩도 그렇고  
 107007 #1 우린 어염의꺼 별로 안허더라  
 107007 #2 옛날 어른덜은 주로 담 예염에 돔신돔신 거 심영. 담에 올리젠. 갱 막  
 담 어염에 올라가멍 줄 번으멍 자락자랑 올라그네  
 107007 #1 생각남져 우리 셋어머니 고장르들이, 안돌 잣벽아니가게. 지금 농원허  
 는디. 그디 올려그네 즈락즈락. 치매에 이만이 탕와그네게 날고라 셋년아 셋년아 불  
 령이 까랭 해여. 깡 이만이 영 쥐. 가정가랜.  
 107007 @ 잣벽은 돌맹이 잇는디?  
 107007 #1 잣벽은 이중으로 막 쌍 올라간디. 돌맹이 하나로 답질 안허고 막 모여  
 그네 모두락끼. 준돌맹이  
 107007 #2 이디 우린 잣백이엔 허여이. 백혜엔 허는디도 이서. 그 잣백르레 백혜  
 엔 허여. 동인가 서인가 백혜엔 허더라  
 107007 @ 그런데 돔비를 갈아  
 107007 #1 돔비를 올려  
 107007 @ 돔비는 언제 가는거파? 가을에?  
 107007 #2 아니 농사질 때 . 농사할 때 예염으로 도록도록 흘려

107007 @ 콩농사 무신농사?  
 107007 #1 즈 불릴 때 많이 허여이.  
 107007 #2 응 즈 불릴 때 즈팻에염으로 잘놔  
 107007 #1 게난 그거 알아져. 셋어머니 경 오랭행으네 그거 까민 많이 줘.  
 107007 #2 돔빈 잘 열민 자락자락 많이나  
 107007 #1 느 깐똥으로 더 하영 받았왔구나이. 우리어머니 경허여  
 107007 @ 밥에 낡 먹고예.  
 107007 #2 밥에 주로 낡 먹엇주게  
 107007 #1 죽도 못썩먹어 건. 겁제기 두더와부난  
 107008 @ 피밥은 먹어봐수과?  
 107008 #1 난 아이먹어환  
 107008 #2 안먹어환  
 107009 @ 감자밥. 감저밥이랜 험니까?  
 107009 #1 응응 건 먹어봐서  
 107009 @ 범벅이 아니고 밥도?  
 107009 #1 밥에이 승승 썰영게. 썰어봐그네 밥해영 이제는 거 맛있인디이 그뎨  
 많이노난 맛있더라 고구마도  
 107009 #2 맛있고게. 즈주 먹으니까. 쫄 살리젠. 즈냥행 먹젠  
 107009 #1 난이 밥만 막 떠머거난거 알아지커라.  
 107009 @ 우린 고구마만 골라 먹엇던거 님은디  
 107009 #1 조그마니 노난 거라. 하영 농곡 허민 자꾸 해가난 냉긴건 고구마라 밥  
 만 파먹언  
 107009 #2 옆으로 등글청 내부러 고구만  
 107009 @ 경도 해나수과?  
 107009 #1 어릴뎨 밥만 파먹어  
 107009 #2 먹기 싫어그녕에  
 107009 #1 경헨 그건 놔두민 어머니나 먹주게.  
 107009 #2 나도 막 슷갈로 등글치명 아니먹어나서  
 107010 @ 무밥  
 107010 #2 무밥은 아니먹어나서  
 107010 @ 무밥녹디밥  
 107010 #1 나도 녹디밥은 먹어난 기억이 어서  
 107011 @ 툷밥?  
 107011 #2 툷밥도 우린 안해먹언  
 107012 @ 폐밥  
 107012 #2 것도 바다  
 107013 @ 국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107013 #2 국 종류 뭐 된장국이 주라고 쉽게 행 먹는건 그자 된장국  
107013 @ 콩국, 밀국,  
107013 #2 배추냉도 끌렁떡곡 무국도 행떡곡  
107013 @ 놤삐랜 안혀여.  
107013 #2 놤삐놤삐.  
107013 #1 우녕에강 놤삐맹오라 해여이 어머니도. 콩늑물그라 옛날엔 콩주름콩주  
름이  
107014 @ 늑물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14 #1 날그라 늑물도 해오랜 아녕 강 송키 행오라 영해여. 송키강 맹오라 경  
해났저  
107014 @ 물에 된장 풀어놔 허당 늑물만 노민 끝?  
107014 #1 응 끝, 아무것도 아녀  
107014 #2 된장국이 바로 그거주게  
107014 #1 마늘도 선디 마늘도 안놓더라이. 놀충 몰라실거라  
107014 #2 마늘은 주로 옷갓에 심영 먹엇주마는 마늘은 놀충 몰라신고라 마늘을  
안혀  
107014 #1 반찬에 놀거 몰라.  
107014 @ 늑물은 칼로 찝랑마씨 아니른 손으로 뜯영?  
107014 #1 박박  
107014 #2 손으로 그냥  
107014 #1 박박 무지렁 놔  
107014 #2 배추 같은건 뭐 칼 쓸 필요가 엇주. 손으로 행  
107014 @ 늑물은 언제 납니까? 아무 때나?  
107014 #2 봄에  
107014 #1 미리 갈면은이 혼 칠월들 나민 갈아. 늑물 갈면은 팔월에 출비레 갈때  
부떠 늑물 나와. 그때부떠 국 끌렁떡어. 아, 뭇도 행 먹드라 고치 이파리 해그네 집  
장이엔 현게 이서. 그릇입에 그를 놔그네 비빈게 간 해영 소금 노민  
107014 @ 무신 그루?  
107014 #1 무신 그를 해져신고? 밀그루를 닳던가  
107014 #2 밀그루를 닳던가 보리그루를 닳던가 거 맛있어  
107014 #1 우리 어머니가 출밭디 늦게 오멍이 오닐 나 고춧닙 우녕에강 특당 집  
장 행왔저 허민 점심머글 때 그걸 내노민 잘도 맛있어서.  
107014 #2 응 집장이 맛있어  
107014 #1 집장, 이름이 집장이라  
107014 @ 퍼렁헌 고춧이파리를 요런거 따당 그루에 막 서껴?  
107014 #2 몰라. 모르겠어  
107014 #1 고춧입 땡이 막 된 죽같애. 막 된거. 경행 영 반찬으로 먹어. 막 질게

해. 범벅달마 범벅.

107014 #2 범벅달마

107014 #1 고깃입 범벅달마. 갱 고깃입 집장

107014 @ 매운맛은 안나실건가?

107014 #1 아니 고치는 안놔. 고깃입만

107014 #2 양념, 그자 반찬맛에

107014 #1 고치는 안놓고 고깃입만. 고치는 놔다 경으네게 탕떡곡

107014 #2 우리어머니도 가끔 집장 탄행 먹어나서

107015 @ 콩나물국

107015 #1 콩나물국 아년 콩주름 낱 국끌리라 허메. 일부러 이 송키 먹켄 행으네  
노아 콩을 노아 물노명 키와

107015 #2 옛날엔 주로 콩을 낱 키왕 먹었주게.

107015 @ 된장 낱?

107015 #1 응 된장 낱

107015 @ 무치는 건 슬망 그냥 무쳐?

107015 #1 무청은 베로 안먹고이 콩주름낱 국만, 국송키로 끌리는 거 닳아.

107015 #2 응 국송키로 끌리더라고.

107015 #1 그것에 무 좀 서껴. 무 썰영 좀 서껴

107015 #2 무 서트민 맛좋아 더.

107016 @ 무만 낱도 국 끌려먹어마씨?

107016 #2 어 무만 썰어낱 국도 끌렁떡곡

107016 #1 지끔도 행 경 떡잔아.

107016 @ 시원허잔아. 무국예. 이것도 겨울에 많이?

107016 #2 응 겨울에 많이.

107016 #1 막 봄 나가민이 밖에강으네 이제 ㄹ뜨민 달래 ㄹ라 마농이엔 해이. 평마  
농해오라 평마농 해오라 허민 평마농 강으네 막 골갱이 아정강 박박 파민

107016 #2 옛날엔 평마농도 많더라

107016 #1 빈밭도 많고 허난게. 박박 파면은 빨리차, 빨리차 해오민 잘도 빨리가  
좋아. 경행 그거 빨리만 짤라. 시쳐낱 빨리만 짤랑 그거는 간장에 해여그네 찍영 영  
행 호뽀م 낱당 떡곡 이 우잇걸론 국 끌렁 떡곡, 그생각 남신게 그 대가리를 꼭 간장  
에 호뽀m 서터낱다그네 걸 먹어. 요새 ㄹ뜨민 것절이.

107017 @ 콩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콩국은 가을 이후에 먹는거라예?

107017 #1 가을에 콩 나와야 겨울부터 먹주게.

107017 @ 맷돌로 곱앙. 무 놔?

107017 #1 무도 낱 떡곡, 배추도 낱 떡곡

107017 #2 배추에 서텅으네

107017 @ 이것이 경 몸에 좋단예.

107017 #1 좋기도 해. 배도 불어그네 밥도 쪼끔배끼 못먹어, 콩국 먹으면은, 확실히 밥 죽게 먹어.

107017 @ 이게 또 제주도에서 나온 콩으로 해야 되는거?

107017 #1 우리 간 콩으로 헛게 좋지

107017 #2 콩 먹으면 막 몸이 든든하여

107017 #1 계난 어떤땐 밥 아니난 콩만 혼사발 먹어도이 때 웨어

107017 @ 콩국 어떻 끝입니까

107017 #2 콩국 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 . 사람마다 따 틀러. 말 들어보민

107017 @ 물 끌어가지고 콩가루를 서터?

107017 #2 옛날에는 콩가루를 영 물에 낵 반죽하여 젓엉 낵다그넵에 물을 끌어 가면은 그제 영 쏘드멍 젓으멍 쏘다그넵에 푹 더경 놔두민 느물부떠 모녀 놔낵 그 우의 그다음에 그 콩 반죽헌거를 쏘아그넵에 약헌 불로 오래 영 놔두민 올라와. 올라왕 끌기 시작하여. 콩국 끌리는 건 사람 직하여 사야 웨어.

107017 #1 냄비가 부끄면은이

107017 #2 넘쳐부는 때문에. 계난 약헌불로 은근히 낵으네 사람 지켜상 넘치지 안허게 뚜껑호끔 열앙 틈내와그넵에

107017 #1 호끔허당 부꺼비여

107017 #2 부꺼불민 아무것도 먹을거 없어.

107017 #1 우리어멍 나신디 보랜헤신디 무시거 허당 보난 바르르 확 부꺼부난이 콩가루 다 부꺼나부난 우리어멍이 데멍이 바싹 따러분거라.

107017 #2 옛날엔 간장도 됴앙 먹어난. 간장 갖다그네 옆으로 영 소올리 소다놔 그네 막 맛 좋게 해영 먹어난.

107017 #1 막 마냥에 나간 올엄시난 우리 셋어멍이 완 무사 올엄디 허난 나 굴 톱부런 잠잠허난 콩국 끌리는거 보랜허난 내부런 콩 다 넘어나부난 나가 혼번 따러 부난 나강 경 올엄수게게. 경허난 막 셋어멍이 웃으멍 따러냐. 계난 콩국을 잘 보주기

107017 #2 잘 보주기게 . 콩국 넘쳐불민 먹을게 없어.

107017 #1 맞고랜 허도 못허고 아프긴 허곡 나간 축 올레 예염이 산 막 씹씩씩 씹. 이말 곱아가난 막 옛날생각 남져이

107017 #2 계난 절대로 콩국은 정 신경쓰지 아니민 안되여

107017 @ 혼번 경해가난 그다음부턴 경 안허잔아예.

107018 @ 호박잎국. 호박잎도 좋아예. 거기도 밀가루 서툼디다.

107018 #1 서터야 좋아

107018 #2 서터야. 서터야 그 이파리가 까슬까슬해여그네 허잖아이 호박입은. 겐디 그 까실까실헌게 먹어지른 장 청소웬 좋덴

107018 #1 들깨에 밀가루에 서경. 두가지 서경

107018 @ 것도 끌어가면 중간에 밀가루를 싹 뿌리는거 아니예? 콩가루 안놓고

예?

107018 #1 콩가루는 아니놓고

107019 @ 노형은 잔치땀 몸국 들어감수과?

107019 #2 응 몸국은 주로

107019 @ 죽작빠국, 행떡업수과

107019 #2 잔칫날도 아싯날 행떡어

107019 @ 잔칫날은 무슨국?

107019 #1 잔칫날은 제기몸국허지.

107019 #2 아시날, 아싯날만 허지

107019 #1 우리 혈땀 아싯날 뒷날 먹엇잔아. 아싯날 몸국 해그네이 무신 베설도 허는거 달마이.

107019 #2 베설이영 막 낡 슬마야 몸국도 맛있어. 빠 슬마난 국물만은 맛 어서 살만 싹 빠동

107019 #1 게난 아싯날만 그거 끌리고 뒷날은 그거 싹 앓아동으네

107019 #2 뒷날도 사둔상허고 신부신랑상만 몸국으로 안놓주 일반사름은 몸국먹는단 먹어.

107019 @ 그다음 무신 국을 먹어마씨, 잔칫날?

107019 #2 잔칫날은

107019 #1 잔칫날은 무싱거 빠 호끔 졸맘신가? 우린 무 해그네이 나박으로 썰영 슬망 차롱에 놔둬서 거 호끔씩 사발에 노명 국물 놓더라. 게난 그것이 빠 줌 끝인 거 같애이?

107019 #2 고기 썰어난 빠 갖다그넵에 노양 끌이멍

107019 #1 솟디 끌이멍 요레 걸여노명

107019 #2 응 경행 먹엇저

107019 #1 어떤땀 두부도 호끔 놓고이. 잇는 집엔

잔치 아싯날엔 몸국을 끌엇다는 거다예. 죽작빠국이랜도 험니까?

107019 #2 응 죽작빠도 놓고

107019 #1 베설도 놓고

107019 @ 수애 담그는 것도 봐봐수과?

107019 #2 수애도 주로 허난 집이서 담갓주기

107019 #1 수애 안해본 집이 엇지

107019 @ 잔치때. 해봐수과 삼촌넨?

107019 #2 우린 해보진 안했져마는 허는거 보긴 봤주게.

107019 #1 창자에 행으네 ㄱ뚝 담으민 터져부러이. 큰반만 됴앙으네이 줌 글케 허영으네 들랑들랑 허게 행 슬마사 제헌댄 좋곡 몰라그네 ㄱ뚝 담아불민이 터정으네 물에 막 데영게

107019 #2 속에 들어강 익어가믄 불어나잔아 그 때문에 이빠이 담으믄 터져불주

게

107019 @ 뭘로 무끄지예

107019 #2 무꺼야

107019 #1 실로

107019 @ 쉬 놓고 ㄹ룬 무신ㄹ루 놔수과?

107019 #1 순대ㄹ루? 기켓방에 강 헐 때 강 순대ㄹ를로 해줍서 허민 그 사름이 알양 해줘.

107019 #2 좀 국제 곶아야 돼. 순대ㄹ를. 너미 좀진거 노민 안돼여.

107019 #1 비잘비잘해불주게. 경허곡 먹으민 호끔 영계 씹는맛이 잇게.

107019 @ 쌀도 놓고?

107019 #1 응 쌀 혼방울씩. 쌀이 아니고 밥

107019 #2 밥행 놔 밥.

107019 @ 보리밥?

107019 #2 곤밥 곤밥

107019 #1 막 사락사락허게 해. 경해그넵에 그레 서꺼이.

107019 @ 찹쌀순대는 그런거주게

107019 #2 응 찹쌀순대덜은 찹쌀 행 밥행 놔그넵에 헛게 찹쌀순대주게.

제주도는 많인 안놓고 그다음 다 피

107019 #2 응 피에 무시거 존존헌 배설ㄹ뜬거, 또 순대 묶단 꾀땡이 썰어그네 서 텅 허곡, 경해야 맛이 이서 순대도. 피에만 헌건 맛이 엇고

107019 #1 고기 좀 들어간게 맛있어. 젠디 그옛날엔 마늘 쓸중을 몰라이. 일절 마늘을 안써. 지끔은 마늘을 경 씨이 허는디 그때는 마늘을 안써. 기름을 쓰는디 마늘을 안써.

107019 @ 생강도 안쓰고 제주도에서.

107019 #1 생강 벨로 쓰는 건 못봤어 큰일 때. 집의서 김치헐때나이. 우린 아버지 가 호끔 페라와. 김치에 마늘생강은 쪽 잘 써나신디게. 집의서 먹는걸. 경헌디 큰 일땡 안써.

107019 #2 김치에사 마늘 아이들어강 김치가 되느냐게.

107020 @ 옥돔국 퀘기국 생선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옥돔국 제사때 행 먹어봐수과?

107020 #1 응 허지.

107020 #2 제스때 허지게

107020 @ 노형인데도예

107020 #1 사당 일부러

107020 @ 다른거 안허여?

107020 #1 응

107020 @ 소고기도 안허고?



107020 #2 아니 소고기도 허는디

107020 #1 소고기는 흠치 고기영 막 상 허는디 옥돔국 허젠 허민 호폼 신경 썸지. 옥돔 사당 국 끌리젠 허민 신경써. 따루 사당. 소고기 허젠 허믈게 소고기국은 허당 적갈허보민 찌거기도 ㄴ지 허곡 허는디 옥돔만 새로 허는거니까 꼭 신경 써야 해

107020 @ 옥돔국은 뭐 낱 험니까 무?

107020 #1 무

107020 #2 메역도 농곡 무보단 미역이 저 무가 더 좋주기 깔끔허곡

107020 @ 물 끝이당 옥돔 놓니까

107020 #1 바다에 강으네이 돌아가신 사름은 옥돔도 안쓰곡 미역도 안써.

107020 @ 아, 바당에서 돌아간 사름은?

107020 #1 원수랑. 그것이 원수랑. 우리 씨아주버니가 바당에강 죽엇쟁허난 멧질 혈 때 씨아주방 목은 따루 냄비에 무낱 끌러. 끌리곡 옥돔은 일절 상위에 아저댕기 질 안허여. 씨아지방 상만

107020 @ 바다에서 돌아가시니까

107020 #1 응 따루 허는데

107020 #2 게난 소고기국만 끌러사큰게

107020 #1 응 언제나 소고기국만 무낱 따로 그냥 냄비에 제스팬 ㄴ찌 경만 행 먹는데 멧질팬 언제나 냄비에 따루

107021 @ 메역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생일날 메역국 끌여줘봐수과?

107021 #1 끌이지. 생일날 메역국 끌이민 누구 생일날이파?

107021 @ 제주도에서도 옛날부터 귀빠진 날이렌 해낫수과? 무사 메역을 끌여줘 신고예?

107021 #2 게메 몰르커라

107021 #1 메역허여주는거는 산모가 그때 메역국 먹어나난 그런거 같애. 애기난 뎨 푹 메역국 주잔아.

107021 @ 애기낱 ㄴ뎨도 꼭 먹어야 되고?

107021 #1 ㄴ뎨ㄴ루는 이 무사 먹는고 허민이 속에 산모에 피가 짝 내려와분댄. ㄴ뎨ㄴ를 하고 미역이

107021 #2 산모의 구진 필 색히렌 ㄴ뎨음식을 뎨들양 뎨이는거.

107021 #1 그걸 아이먹은 사름은 경행 배아프댄 허민 장난말로 애기낱뎨 미역국도 안먹어서? 영해.

107021 @ 그런 의미가 이신거 닻아예. 아이덜 생일에 메역국 안해침댄 말도 들 어낫지예

107021 #2 우린 주로 들엇주. 그런거 안해줘봐난.

107022 @ 냉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서도 자리물회나 이런건 잘 못행 먹지예?

107022 #2 무사 먹주게

107022 @ 사당으네

107022 #2 응

107022 @ 냉국은 어떻게 먹어수과? 물외?

107022 #2 물웨게

107022 #1 물웨로 먹엇지. 물웨로 허민 그냥 반찬도 되곡, 국도 되곡 행으네이. 물외로 대개 먹영 므른회로 먹어진건 안달마.

107022 #2 므른회는 못먹고게. 옛날엔 므른회 먹을걸로 알지도 안허고. 그자 물회로만

107023 @ 성계국 보말국 뉘패국 가시리국 파래국 물회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23 #1 건 바다쪽계. 그거 캐당 행 먹어본 사람. 우리도 해준거 바당에강 언어먹긴 해도 우리가 끌려보진 안해서.

107023 #2 응 직접 해보진 못했주게

107023 #1 보말국은 끌여봤어. 겐디 보말국은 벨거 아니드라. 끌이는거이. 거이 그자 해당 기름에 삭삭 보끄당으네 물 놓고 간 맞추민 쫓이라. 보말국은 드러 잡아당 먹어봐신디 뭐 성계국도 안끌려먹어보고이.

### 죽류

107024 @ 죽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팥죽 닭죽 문어죽 고등어죽 전복죽 옥돔죽 뭐 죽은 다 되는거 아니예?

107024 #2 팥죽 콩죽 ...막 여러 종류주게

107025 @ 흰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곤죽

107025 #2 곤죽은 쌀만 낱 쏘게 곤죽이고.

107025 #1 흰죽이 곤죽이라

107025 @ 흰죽은 어떤때 행 먹습니까?

107025 #1 흰죽은 이 질 사름 아플 때 아무것도 못먹을 때 허주게

107025 #2 아팠 못먹을 때 움작움작 내려가기 존걸로

107026 @ 조죽은 어떻습니까? 좁쌀죽. 애기 열날 때도 해줘나고 그런건 어수과?

107026 #1 좁쌀만 낱 죽쓸때가 이섯나 호끔 서끄지

107026 #2 아니 저 모인좁쌀만 놔그넵에

107026 #1 아 건 미음으로. 물이 맑잔아. 물로

107026 #2 거는 아플 때. 그게 마로 미음이엔 허주게.

107026 #1 차좁쌀은 안돼고 메좁쌀만이.

107026 #2 차좁쌀은 안돼고

107026 #1 거는 물이 밀밀해부러. 이거는 맑잔아.

107026 #2 맛이 쿠시롱허여

107026 #1 좋아.

107027 @ 풋죽은 쭈기 쉬웁니까?

107027 #1 풋죽은 풋 슬망, 그 풋 슬물 때 아무풋을 슬물때라도 이 칼 잇잔아, 우리 송키 칼, 칼로 이렇게 이렇게 해

107027 @ 엑스자를?

107027 #1 응. 이렇게 허면 물맛이가 하나도 없어. 안익는 풋이 하나씩 이서. 허 당 보민 이서.

107027 #2 거 풋이던 녹디던 잘 안웬게 이서. 잘 안웬 방울이 들어가면 그게 풀 어지질 안허여

107027 #1 땅땅허여. 밥 해도

107027 #2 뜯거는 다 삶아졌는데도 그거는 고대로 이서, 경헌 때문에 칼로 자꾸 이렇게 해주면 그게

107027 @ 아, 삶을 때. 찜통에

107027 #2 응응.

107027 #1 칼 늘을 밑으로 가게 허영. 그 물만이가 하나도 없더라. 나도 요전에 해봐신디이 그 풋죽을 허는디 풋 안익은 방울이 하나도 었어. 묵은 풋이라도

107027 #2 그걸로 경허믄 그게 방법이 되어서 어서지는지 몰라도 그런 방울이 없어.

107027 #1 것도 옛날어른이 배와준거.

107027 @ 팔만?

107027 #2 어, 풋이던 녹두던

107027 #1 것도 팻만 콩은 아니고

107027 #2 녹두가 더 그런 방울이 많아.

107027 #1 것ㄴ라 물마리엔 해

107027 @ 거믄 물 속에 잇는 팻을 엑스자를 그어주는거? 끌여가면?

107027 #2 응

107027 #1 아니 그냥 곧 노양 이렇게 불에 노민 그냥 허는디 솟디 노양 그냥 가스불만 앓지민 영영 해여.

107027 #2 끌여가면서도 멧번 해주민 좋아.

107027 @ 풋은 멧 분정도 삶습니까?

107027 #1 막 폭삭폭삭 헐 때

107027 #2 거 죽은 끌이젠 허믄 폭 슬마야돼. 다 영 건디리민 흐터질정도로 슬마야 경해야 죽 쓸거난

107027 #1 슬마가민 물을 경 많이 놓지마랑 슬마가민 풋에 물에 거의 들어. 물 어시민 그때는 불 꺼된 국자로나 영영 허민 그 풋이 민짜해. 경허당으네 장갑이나 고무장갑 경 이렇게이렇게 허민 문짜해 풋이

107027 #2 경해뵐 슬마야지.

107027 #1 경허도록 행으네 그때 쓸 놚그네 젓으멍 허민 죽이지.  
107027 @ 뜨거울때 그냥 쓸 놚불어?  
107027 #1 그 영 쫄때게 물 놚야 헐거.  
107027 #2 솟에 죽힐만큼 물 놚그넵에 그때 슬도 미리 시쳐네게 물 등강낫당으  
넵에 쓸도 같이 쏘아놔으넵에 젓으멍 썩.  
107027 @ 거기에 새알이나 이런것들도 놚수과?  
107027 #2 아이구 옛날엔 새알어시 그냥 먹지  
107027 #1 이제는 이 떡국도 좋아. 나 요번에 떡국 부녀회서 헐거 만월에치씩 사  
다그네 그걸로 식번 행 먹언  
107027 #2 좋주게 떡국 맛좋아  
107027 #1 게난 우리 손지덜 할머니 이거 잘도 맛있다 맛있다 나 이것만 거러쥬  
이것만 거러쥬  
107027 @ 설탕 그런건 안놔 그냥예?  
107027 #1 설탕 놀 필요 엇어. 죽에 먼 설탕이라.  
107027 @ 요즘은 육지식으로덜  
107027 #2 육지식으론 육지사람덜은 풋 슬마그넵에 걸러그네 꺾테기 쳐내동 허  
잖아  
107027 @ 막 부드럽게예.  
107027 #1 난 벨로 그거 안좋아이  
107027 #2 맛이 없어뵤여  
107027 #1 주쟁이 이서야 호뽀 포삭포삭허곡헌디  
107027 #2 응 씹는 맛이 이서야 되는데  
107027 #1 여기도 막 요셋사름덜 경 해영해여. 주쟁이 다행 뽕 데껴뵤  
107027 #2 난 그건 맛이 업더라고  
107028 @ 콩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28 #1 콩죽은 쥬 쉽고 쌍스러운 거야. 때로 먹어 때로. 내중에 데와 먹어도  
맛잇고이. 옛날엔 주로 콩죽을 행 먹엇주기.  
107028 @ 콩죽은 어떻게 먹습니까  
107028 #1 물 팔팔 끓이믄이 쓸 서꺼 영.  
107028 #2 응 배합시경 놚뵤. 물 양에 맞게 쓸하고 콩가루허고 그릇에 놔 배합시  
경 낫당으넵에 물 팔팔 끓이면은 그 젓는 거 영 들이청 젓으멍  
107028 #1 명울이 안지게 잘 저으민 될거 아니라  
107028 #2 저으멍 그거 슬슬슬슬 비와노멍 젓어그넵에 행 그다음부면 죽을 젓어  
야 뵤어.  
107028 #1 경 뵤민 이제 채슬 놚. 무. 무채 게믄 그거 잘 끝이민 맛잇고이 조끔  
두루 끌영 먹으민 배아과.  
107028 #2 오래 푹 끓이당으넵에 녹물 놚그넵에. 무나 배추나 놚그넵에

107028 #1 그거 낱 혼미를 퀘여. 병뎡이만 안지게 짓으면 좋은거  
 107028 #2 짓지 안허민 솟창에 넣어부러. 갱 죽이 다 뉘면은 팻닥팻닥팻닥 행 죽이 팔팔 뛰어게.  
 107028 #1 경허민 다뉘거야.  
 107028 #2 응 경허민 다뉘거.  
 107028 #1 죽 많이 쉰뉘네.  
 107029 @ 믰멸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믰멸도 마찬가지로?  
 107029 #1 믰멸썰 죽은 것도 환자 먹는거야. 호뎡만 쉰민 건 죽이 뉘여. 막 익음이 빨라.  
 107029 #2 건 약허난에 빨리 익어  
 107029 @ 믰멸죽은 가루? 공장에서 가루로 호뎡 간거?  
 107029 #1 가루가 아닌 그냥 쌀로 쉰. 그냥 썰차. 믰물썰로. 것도 환자 먹는거야. 죽을 쉰디 그 썩도 잘도 매끄러와  
 107029 #2 먹기가 잘도 좋아  
 107029 #1 경 많이 안썰 환자들이 믰멸에 썰 쪼끔만 서껴. 옛날에 우리 셋어머니 그런걸 잘해여. 우리 셋오라방 죽은 오라방 아플 때 그생각 남져게. 막 매끄러와  
 107029 #2 응 믰멸썰은 매끄러와  
 107029 #1 하영 안썰고 호뎡만 썰으네 난 막 셋어멍네 집의 큰어멍네 집의 막 돌아댕기난 경허연 호뎡 낱오른 셋년아 이레오라 이레오라 허영 그거 어멍네도 셋어멍네도 먹을거주마는 그 쪼끄만헌 솟디궐 날궐라 굶어먹으랜 헌 것이 막 생각이 남져. 믰멸썰죽. 그 아픈 오라방 먹어난 솟을. 하영 안썰영 허민 사발에꺼는  
 107029 @ 맛은 어떻헝디가  
 107029 #1 아니 막 매끄러웁디다.  
 107029 #2 막 매끄러와 믰물죽이  
 107029 #1 입에 노민 뉘작뉘작. 우리 어머니도 안해난디 우리 셋어멍이 아덜 우렁.  
 107031 @ 닭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유월스무날?  
 107031 #1 응 스무날. 닭잡아 먹는날  
 107031 #2 옛날은 어떻헝산디 유월스무날은 독잡아먹는날이엔 해그네 그날은 독잡아먹더라고 춤 그 의미를 모르겜어.  
 107031 @ 덩긴 더우난 뎡보신도 잇고예  
 107031 #2 그러게  
 107031 #1 우리 시어머님 독잡안 뉘당  
 107031 @ 여자들도 궐치 줘니까? 남자들만?  
 107031 #1 우리 미숙이 말궐거 나는 날은 스무날인디 독도 데뉘이하고 호뎡만 앓아내영 그자 오고생이 논냥 허고 독죽 쉰 아져완게. 혼 세시썰 되난 가져와서. 경헝 죽이영 나도 그날 아기 나니까 알아져게. 몰르지. 죽이영 고기영 다 먹엇지.

107031 #2 씨어머니가 가져왔, 쭈언?

107031 #1 응 쭈언 가져왔. 경헐 아기난디강 먹으난 난보난 이 영헌디 죽게, 아 이고야. 여자니까이 아래도 막 끼여끼여. 계난에 그 애기날 때 죽 아니떡넨.

107031 @ 우리 어머니도 경 그릅디다

107031 #2 죽이고 그루 무친거고 일절 삼가헌덴해. 절대 먹지말랜

107031 #1 경해그네 우리 친정어머님이 가까운디 사난 썩 행 낫당 썩을 폭 슬마 그네 그물에 모옥을 허랜 행 막 썩 길아안잔에 모옥을 해신디 흔 메틀 이시난 잘도 더웬 살질 못허크라. 문 더경 자부난 우리 앞에 호뎀 널러게. 널르난 대경이네 알넉 편이 빈디 잇잔아. 그디 팡 이성 물 떠다냥 막 빨래허주게. 그 팡에 바게쓰에 물 떠다냥 바람바람 지치고 영허난 잘도 시원허영 좋아게. 막 무랑무랑 덩당, 아, 경헐 때 우리 어머니가 완게. 서까름 어머니가 완. 아이고 이년생긴년 이거 어뎡헌 일고 게. 아기어뎡이 영허민 되느냐게 영허믈 되느냐게

107031 @ 찬물로 허믈 안돼

107031 #1 경허난이. 이거 땅땅 죽어부러게. 이 영둥이. 아, 경 골으난 그거 데껴 부러서 그 모옥해난 숙 이만헌거. 대껴부난 또시 그거 어머니가 앓다그네 솟디 난 물난 막 슬만 다라에 낱 이것에 낱안지라 낱안지라 막 해여 어머니가. 쟁 그 슬 하나완게. 그 숙 영 낱안지난 이디도 되고 이디도 되고게. 큰 다라에 물 놔네 숙 건져냥. 그건 이제도 잘도 존거 닳아.

107031 #2 썩이 약돼는 거주게.

107031 #1 어머니가 그때 거 보난게. 모옥허는거 안봐시믈 몰라그네. 계난 그때 야 영영허난 이디가 죽어부러게 . 경헐 커안장 영영 허믈 호뎀 이서가난이 그 슬 이 제슬 돌아완. 계난 썩물 좋은생이라.

107031 @ 계난 닭은 집에서 항상 키웠는데 그거를 털뽑고 이런거 해봐수과?

107031 #1 난 털도 안뽑고 잡아보지도 안헌디 나 어린때 득은 막 두므리씩 꿩웬 더라 아버지네가, 벨로 크진 안해. 흔아이에 하나씩 슬망으네 쥐부러. 이럴뎡 느 먹 구정헌냥 먹으랜 행 슬망으네이 게믈 무신 영 그릇에 낱으네 이거 죽은년도 하나 먹으라 셋년도 하나 먹으라 큰년도 하나 먹으라 경해여. 게믈 우리 성님이 질 옥으니까 질 큰걸로 보민 조개여. 질 옥으니까. 나보다 일곱슬 우의니까이. 그새에 하나 죽어부난. 경해영 험난 그걸 아뎡 먹음으로 험날 다 먹어지크냐?

107031 #2 맞추게

107031 #1 막 뒷날까지 둥그러. 득을 집에 하영 꿩우니까 흔므리에 두므리

107031 @ 아버지가 잡앗지예

107031 #1 아버지가 잡아신테주.

107031 @ 닭죽도 유월스무날은 어머니가 꼭 해줘수과?

107031 #1 응. 그거마 솟 하나에 지글지글 막 놔그네 끌여. 이년집의서 질룬거난 산거 아니지. 질룬거난

107031 #2 다 키워게. 옛날엔게 우갓이 막 널르니까.

107031 #1 집집마다 득 이시난 득 잡암덴 옥도 안해.

107031 @ 커서도 닭잡는건 할아버지가 해수과?

107031 #1 다허지. 나도게 오십구세에 우리아버지 돌아가시난 사삼사건 나부니깐 시집을 간 남편이영 살았지게. 간보난 우리남편도 직장도 다니곡 해도 난 득 혼번 털도 안뽑아보고 잡아 보지도 안현. 다 잡아그네 다 뽑앙 물만 끝이렌 해. 물 끌어 가민 그냥 왕 슬마. 뗏 번 그런거만 했주 득 잡아보지 안현. 난 아방이 손님덜 막 밤의 들앙왕 득 잡앙 떡젠해도 아방이 득이영 죽영 물 췌우렌 허민 물 팔팔 끝이민 그 물이영 막 지치믄이 그 득터력이 자기대로 나와 민작민작. 막 나오민 곡다기 나 왕 이젠 불 슴으랜 행 불 슴으민 확 그시령으네 그때부뎐 주어. 슬망으네 내오랜 술안주로. 경헌건 뗏 번 해낫주마는 득 잡는 건 일절 안해연. 또 여자가 잡을 생각도 안허곡게. 켌디 우리아방 그 득은 잘잡앙와.

107031 @ 그 닭 뼈를 지냉이가 좋아헌덴허명예.

107031 #1 게매. 어디 잘못 노민이 지네가 그 냄새에 왕 그 지네 가난거 먹으민 어떻헌덴 했더라? 어디 아픈덴인가 헌덴허데 게난 득은 잘 논덴 허메. 지네 못들게. 찻장에 놔도 문 잘 닫으령 허곡이. 뭐 득광 지냉이인 상극이엔 허더라고.

107031 #2 게 형제간도 싸와가민 득광 주냉이 ㄹ치 경험젠 옥허잔아.

107031 #1 경헌디 그 득이 주냉이 봐지민 막 물영 막 해가민 주냉이가 파닥파닥 허당 도망가민 또 강 걸 물어. 물어그네 막막 입에서 그냥 발만 두 개니까이 막 죽여. 경험 오래 푸닥거려가민 그 주네가 죽으민 다 먹어이. 그걸 봐나서 어린때.

107031 #2 나도 봐나서.

107032 @ 갱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갱이죽인가? 갱이죽은 안먹어봤지예.

107032 #1 갱이죽을 흐는데 뿔앙 뭐 자루에 담아 담앙으네 그걸 막 짜. 막 짜면 은 국물도 나오고 호끔 영근거 옛날은 베 험벅으로 허민 그 살도 쪽쪽 나오곡 허는 거 받. 우리어머니 난 아니고 허는거 받. 계영 쭈민 죽이 갱이 발도 엇곡 겁적 어시 난 맛있지. 경험 썩 먹어. 그거 홀트는 거 어머니 허는거 받.

107032 #2 난 그런건 아니보고 어머니가 쭈연주난 먹긴 해서.

107033 @ 이거말고 삼촌네가 죽 끌영 먹어보난 진짜 맛좋더라 특별나게 먹영 생각나는 건 이수과?

107033 #2 문어죽은 안먹어 보고 고등어죽. 맛있어.

### 범벅과 수제비

107034 @ 범벅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재료)

107034 #2 범벅은 뭐 고구마 범벅도 있고 ㄹ물범벅도 있고.

107034 #1 고구마 썰어낱 해영 맛좋아

107034 #2 썩범벅도 있고 범벅도 여러 가지지 뭐

107034 #1 썩범벅?

107034 @ 범벅은 어떻힙니까?

107034 #2 범벅은 고구마 썰어넣 허젠 허면은 물 팔팔 끓여그넝에 고구마 영 굵 게 썰어그넝에 노양 끌영 고구마가 익으민 그 우터레 믈꺄루를 놓양

107034 @ 고구마를 먼저 놓양

107034 #2 응 고구마부터 익혀야 되니까. 범벅은 젓어넣 익영 범벅이 되는거기 때문에

107034 #1 그 물막기 ㄱ를 해여그넝에 이젠 호뽀 부글부글 헐 때 불 꺼동으네 막 잘 저어야 돼. ㄱ를없이. ㄱ를이 잘 안젓이민 ㄱ를이 입에강 막 폭삭헐 때가 이 서.

107034 #2 슬마봐그네게 두어불 되든 고구마가 다 익을거아니냐. 그 우터레 ㄱ구 마ㄱ를 짝 비와봐그네 골라봐

107034 @ 그 뜨거운디?

107034 #2 응 뜨거운디 젓는걸로 행 골라그네 두경 닫아그네 또시 불을 호뽀 숨 아. 불을 호뽀 때여그네 보골보골 끌영 물나올만 허면은 불꺼놓고 이젠 뚜경 열아 그넝에 그 젓는걸로 배수기로 막 젓어.

107034 @ 아, 불 꺼놓고 젓어?

107034 #1 나는 배수기엔 말 안들어봤다. 난 납죽이엔만 허는디

107034 #2 납죽은 이딴말이고 배수기엔 현건 우리 외갓동넛말. 쟁 막 젓어야 그 ㄱ를이 선디 어시 쟁 그 고구마덜 좀 헤싸지곡 해그네

107034 #1 맛좋아. 고구마가 더 맛있지

107034 @ 아 불꺼가지고 젓어

107034 #1 불꺼야주기

107034 #2 경안허민 알로 타불주게.

107034 #1 경허곡 호뽀 지먹을 때는 숨아줘시난게. 그게 믈꺄루를 범벅이엔 허는 거주.

107034 @ 계난 사삼때 급허면 썰어실땐 이렇게 행 먹었다는 말이 그말이구나예

107034 #1 겐디 요딘 믈꺄루 같지를 안허난이.

107034 #2 같질 안허난

107034 #1 믈꺄루이 귀허여. 범벅도 못행먹어

107034 #2 보리ㄱ루 범벅

107034 @ 아, 보리가루 범벅은 어땡행 먹어마썸?

107034 #2 보리가루 범벅도 마찬가지로

107034 #1 것도 그렇게 허는디 맛이 믈꺄루범벅만 못허지

107034 #2 믈꺄루 범벅은 좀 쿠싱헌 맛도 싯곡 헐디이.

107034 #1 우린 믈꺄루를 혼번도 가는 건 못뵈

107034 #2 우린 새밭 이견에 갈안에 장만해봐서. 경행 집의서 우리아바지 마당질 허는걸 봐낫주기. 도깨들영 확 후리치고 확 후리치고

107034 #1 옛날엔 믈꺄루 해영 막 돛집의도 덜곡 행 오래삭지 안헌댄이.



107034 #2 응 오래간댄

107034 #1 늬의거 빌어당도 우리 막 더끄더라.

107034 #2 그것도 무신 예방으로 경헌 것 님아.

107034 #1 므멸낭 앓다그네 돛집의 노킨 늬서 경허민 므멸낭을 앓당 막 두껍게  
덜영 우의로 노람질 둘러게 노람질 둘러 주쟁일 씨왕. 경헌디 우린 므멸낭 어시난  
동넛삼춘이 므멸낭 쓰킨썩생 허민

107034 @ 아, 그건 소도 안먹고 허난 도새기안티 가정가는거로구나

107034 #1 경 내부는 것덜

107034 #2 경 안해도 이 저 도새기집을 덜으민 오래가곡 삭지 안허영

107034 #1 막 오래가 므물낭이 .

107034 #2 그런 예방법으로 므멸낭을 앓당 덜으는거 같애.

107034 @ 조침이든 콩집이든 줌 뉘헌디 므멸집은, 핏낭도 그치록 안헛댄 허는디  
예

107034 #1 핏낭도 불만 습는디 므멸낭은 돛집일 잘 덜어.

107034 @ 므멸낭도 불은 습아지고?

107034 #2 몰라 불습는건 못봐서.

107034 #1 도새기집만 더끄는건 환. 오래 자꾸자꾸 해가문 도새기집이 우터레 차  
츄차츄 두꺼워와. 잘 안삭으니까이

107034 @ 베겏속에 넣고 낭도 도새기허는디 허고

107035 @ 수제비가 즈배기잖아예. 것도 행떡어나수과?

107035 #2 것사 주로 행떡엇주게

107035 @ 거믄 뉘로?

107035 #2 보릿가루로

107035 @ 므물가루가 아니고?

107035 #2 므멸은 막 귀헌 걸로 해그넵에 수제비로 경 먹진 못허고

107035 @ 밀가루 어섯수과?

107035 #2 밀가루 난지도 오래지 안허고 밀농사를 안헛기 때문에

107035 @ 즈배기 혈때는 무싱거 낱? 멸치 다시ㄹ뉘건?

107035 #2 다시가 어디셔. 다시오 엇곡 그냥

107035 @ 소금만 봐?

107035 #2 그냥 물만 봐그네 팔팔 끝이민 칼국수나 수제비나 허민 손으로 툯툯  
줍아낱 틀어봐그네게 끝이민 그냥 간장 봐그네 간 맞청 먹는거주게.

107035 @ 거기에 뉘 놓는거?

107035 #2 놓는거 없어. 이제나 뉘 메리치나 낱 다시 만들영 먹는 그런게 엇주  
게.

107036 @ 칼국수도 보릿가루로?

107036 #2 칼국순 가끔 벨미로 아기들이영 혼변썩 먹을락말락 헛주게

107036 @ 는쟁이범벅도 뭐얼이지예?

107036 #2 응 뭐물

### 김치

107037 @ 김치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재료)

107037 #2 김치종류 오죽 많아?

107037 @ 옛날 제주도에

107037 #2 우리 제주도엔 경 여러 가지 해먹질 안해난

107037 #1 옛날옛날엔 무김치 배추김치만 행 먹었주게. 경헌디 봄나가민 갯늬물  
집친 행먹어.

107037 #2 갯늬물집친 봄나가민 행 먹주

107037 #1 뭐 저 파김치도 안행먹더라. 데왕으녕에 무쳐먹는건 해.

107037 #2 파김치도 행먹을 중 몰란 못해먹은 것 같애

107037 @ 부추도 새우리도 옛날엔 별로?

107037 #1 응 벨로고. 등글중 몰랑 못허난

107037 @ 그대신 유채 동지집친 해먹엇지예

107037 #2 동지집치덜은 주로 해먹엇주게

107037 #1 유채동진 안허고이 저

107037 #2 배추동지

107037 #1 배추동지. 응 봄나민 이. 유채는 몰라. 배추동지 허곡이, 갯늬물동지,  
갯늬물 해여그녕에 그 쿠싱허덴행 그 쿠싱헌걸 좋대행. 저 동녘으로 물김치도 행먹  
어이. 물김치도 이 즈쓸슬망 그 물농양 먹더라. 즈쓸물행.

107037 #2 모인즈쓸 쓸마그네 그 물 행. 쭈생이 따라그녕에

107038 @ 배추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배추김치 할때는 저 마농이영 뭐  
영 다 놓긴 놓디가 옛날에도?

107038 #2 옛날에도 마늘어신 김친 안해여.

107038 @ 짓갈도 놓고?

107038 #1 짓갈은 몰라. 짓갈 놓는건 우리 호뽀م 커사 봤주 어린땐 그냥 마늘허고  
생강만 낱 현거 닻아.

107038 @ 고춧가루?

107038 #1 고춧가루 놓지

107038 #2 고춧가루 안들어가민 김치가 안뵤니까. 고춧꺾를허고 마늘은 기본이니  
까 그거 낱 허엇주 나도 무싱거 접부찌 낱 허는거 못봐봐서.

107038 #1 응 욱은 후제는 놔신디 어릴때는 거 못봐봐서

107038 @ 뽕젓은 놓지 안해시카?

107038 #1 어릴땐 못봐서. 왜정때는 못봐서

107038 #2 먹으민 냄새도 줌 나실건디 그거 없어.

107038 @ 무도 항상 놓고?

107038 #1 무도 안놔

107038 #2 무 채썰엉 놓는 법은 엇고

107038 #1 경 안허민 그냥 썰엉. 그냥 썰엉 허당 남으면은이 그 양념행으네 버무  
령으네 이만씩덜 썰엉

107038 @ 납딱납딱?

107038 #1 경해그네 영 딱딱 이빨로 끈치멍 먹는건 봐봐서. 경 내중에 경 하영도  
안허고이 그거 남으면게

107038 #2 양념 남으면

107038 @ 배추 절엇당 허는건 똑같으고예

107038 #1 응 똑같아 그건. 아, 옛날에는이 이디서 소금 아껴그네 백계 바당물에  
강 시치민 얼마나 줄어들까이 바당물에 시청 통에 호끔 영 담갓당 영, 아이고 건정  
나오민 영 나 어머니영 강 정 와났져.

107038 @ 백개민 이호예?

107038 #2 응 이호 바당에 강으네 요만헌 통 찬물에 강 돌맹이로 누르멍 동갓당  
삼일 싯당 건정 정오젠 허난 거 찬물에 절여지랜게 소금 엇은때난

107038 #1 삼일 싯단?

107038 #2 응

107038 #1 겐 누게 안가져가부런?

107038 #2 경해도 기냥 시어.

107038 #1 옛날에는 서로덜 보아줄때난이

107038 #2 경행 건정 정오는다 옷이 잘잘잘잘. 그 조뭇 아정간에 게 태완에 그레  
싼에 지와노난 무신 물이게 어덜가게 . 잘잘잘 옷 다 적지멍 저단 짐치해났져.

107038 @ 경 향아리에 보관행 물어수과?

107038 #1 그냥 장독에 밖에 놔둬서 먹어.

107038 @ 겨울내내 먹고

107038 #2 겨울내내 먹영 봄나가믄 떨어져불고

107038 #1 봄나믄게 갯늬물도 호끔씩 행 떡곡

107038 #2 갯늬물 해당 물집치도 행떡곡 그럭저럭 사난

107038 #1 김치도 경 사시사철 다 이성 먹엇고

107038 @ 갯김치도 봄에 허고예

107038 #1 갯늬물도 봄나가믄 우죽우죽 잘 나와게

107039 @ 열무김치도 행먹고?

107039 #2 열무김치도 행 먹지. 열무가 막 옛날엔 어서서. 호끔 옥아사 나완

## 젓갈

107048 @ 젓갈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젓갈은 자리젓 멜젓밖에 어섯수

과?

107048 #2 우리어린때는 멜치자리젓배끼 몰라

107049 @ 경해도 자리 멜은 들면 이런데도 많이 돌아다니잖아예

107049 #1 멜이 많이 들민 막 멜 사례 오렌 이까지 올라와. 멜 해연 젓 담아그네  
고추 나와가른 젓 소곱에 바락 담아와그넵에이 익으민 막 고치도 빼영떡곡 해

107049 #2 맛있어. 경 놔두민 고추 익영 막 맛있어.

107049 #1 게난 그건 짜기 때문에

107049 #2 젓을 좀 짜게 담그니까.

107049 #1 이제 ㅁ치룩 간 맞게 햄시민 그냥 허민 그 것이 변허주마는 경 안해여  
게난 소곱을 많이 낱 짜게 허난 되는거주게.

107049 #2 옛날엔게 쪼끔씩 오래떡젠 경 짜게만 햏주게. 게난 옛날 어른이 짜게  
떡어나부난 지금도 싱겁게 햏은 맛이 엇언

107051 @ 아감젓은 안들어봐수과?

107051 #1 들어판

107051 #2 갈치아감

107051 #1 갈치 아가미 해그네 실개만 빼여동 막 그거 맛있어. 그 젓갈

107051 @ 옛날 이섯수과?

107051 #1 아가미젓도 막 옛날엔 어서서. 우리 좀 커야. 그어른이 사례왕 영 거  
령 사발 얼마씩 햏 풀더라고. 경햏 햏집의 어머니네영 삼촌네영 햏 막 사. 혼사발  
두사발 허명 막 사. 이것에 상으네 무 썰어노양 먹읍서양 허더라고 그사람이. 물 놓  
양 막 짜니까. 경햏 먹언 우리도 그것은 영 들르민 이 갈치 창자가 이만이 등겨.  
갈치젓갈은 맛있는데 고등어젓갈은 맛이 없어.

107051 @ 고등어젓갈도 담금니까?

107051 #1 별경허고이 맨 아가미만 췌고이 경허나 따로 가정오도 안허고 가정왕  
이결랑으네 떡켄 허민 그냥 주켄 허명 경헌디 벨로

107053 @ 자리젓 멜젓 만들어봐수과?

107053 #1 만들어봤지. 즈주 만들어봤지

107053 @ 자자리젓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합니까? 소금비율은?

107053 #2 난 그릇에 마련해그네 햏대햏으로 비율햏은 안담그고 옛날 어른덜 짐  
작상영으로 혼햏 현 격으로 짐작상영으로만 해나부니간

107053 #1 영 웨로 사민 얼마 놓니까 들으민 그사름 다 곱아줘. 그 푹는 사름이  
얼마 노랜햏. 겐디 얼마 노랜 현거 다 아니놓으민 맛이 좋고, 노랜 현대로 다 노민  
짜햏 허여.

107053 @ 비늘 다 다듬영 소금만 노민 꺄이파?

107053 #1 난 그냥 비닐차 허여불어. 비닐 다 다듬젠 허민 오래주게.

107053 #2 오래곡 자리젓 담그는 거는 다 다듬아부러도 맛이엇곡 물에 시쳐부러  
도 맛이없어. 그대로 햏야 웨

107053 #1 다듬영 헌댄도 허더라 허는딘

107053 #2 고대로 해야 돼어

107053 #1 우린 다듬영 안해반

107053 @ 쿠싱허젠허믄. 게믄 거기에 형끓이영 잘 썩우지 안행 쉬싸부는 경우도 잇수게

107053 #1 그런거 이서

107053 #2 멜젓은 담가도 배젓디 놔뒀도 돼는디 자리젓만큼은 벳 맞으면 안돼어. 념새 낭 못먹어. 그늘에 놔야돼

107053 #1 그건 삼수세 잇지이. 삼수세 허영 영 바깳디 들르민 쉬프리 안다닌덴.

107053 @ 삼수세가 뭇과?

107053 #2 아니 그건 옛날 어른덜 예방법으로 둘러메여그네 쉬프리 안다니게 헌 덴 둘러나신디이 견디 필히 자리젓은 햇빛엔 노민 안된다고.

107053 #1 응 그늘에 놔야돼.

107053 @ 것도 다 어른덜한테 배운거예?

107053 #2 아니 나 어릴 때 외가가 한림이난 일년에 한번두번 가주게 멀어부난. 나가 못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초승 되민 세배가젠허민 큰년아 ㄹ치글래 행 가고 영행 가민 한 예닐곱살때여실거라게 우리 외할머니가 고평으로 강 자리젓을 그릇 아정강 거려오더라고. 뒤에 장독도 내부러동 장독은 있는데 어린때 생각에도 저 할머니가 자리젓을 저 고평에만 강 낫당 정 퍼왓신고 해서게이. 겐 이제 켜 보니까 자리젓은 햇빛에 낱 안되니까 경 고평에 낫다는거라게.

107053 @ 멜젓 자리젓 담강 실패헌 적은 어섯수과?

107053 #1 어션.

107053 @ 쉬프리 싸불영 난감헌 적도 엇고마썸?

107053 #2 그런적 어서. 그건 관리허기 나름이지.

107053 @ 게믄 젓갈을 향, 망대기 어느정도 담갓수과?

107053 #2 망대기에 허지. 요만헌거.

107053 @ 그런건 어디서 사당으네 썬수과?

107053 #2 향아리 구워냉 푼는디가 이섯주게. 굴밭이라고

107053 #1 대정도 잇고이 광령도 잇고이,

107053 #2 광령 밑에 동네가 굴밭이엔 헌 동네가 이서. 그런것만 주로 해난 동네가

107053 #1 저 동네 황세왓도 잇고이

107053 #2 겐디 어디 그릇이 알아주느냐 허민 이 광령 밑에 굴밭에 그릇이 알아쥬.얹으면서도 모양도 좋고

107053 #1 그 동네이름이 굴가름이렌 . 대정그릇은 막 둔탁허고이 뿐이 없어게.

107053 #2 겐디 나생각인디 대정에서 나온 흑은 이 재료부떠가 다른 것 같애.

107053 #1 광령그릇이 잘도 좋앙으네이 개곱굽이 곱곡

107053 #2 모양도 좋곡 광령그릇엔 장을 담아도 대정그릇엔 장을 못담가  
 107053 @ 경 좋은디 광령 향아리가 잊어져부런. 삼촌네 그때 상온 향아리 지금  
 도 이서마썸?  
 107053 #1 있지  
 107053 #2 큰 항은 이제 하나 남아서.  
 107054 @ 그 자리젓이나 멜젓을 출래엔 해수과?  
 107054 #2 맞아 출래  
 107054 #1 반찬 가져오랜 말은 출래 가져오라  
 107054 @ 마농지도 출래고 젓갈도 출래고 밥에 먹는 반찬은 다 출래?  
 107054 #1 다 들어간거  
 107054 #2 다 통허는거. 반찬이영 안허영 출래

### 장아찌와 회

107055 @ 장아찌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마늘/유/파초/양하/모자반 등)  
 107055 #1 옛날에 양젓간지 맛있어  
 107055 #2 옛날에도 지 담양 했주.  
 107055 #1 깨 입은 별로 안헌디 양에는 잘해서  
 107055 #2 우리도 양에는  
 107055 @ 몀으로도 장아찌 담금니까?  
 107055 #1 그건 안해서.  
 107055 #2 옛날 찢넙장아찌 어떻 됄아신고 허민 찢읓을 둥근게 아니고 찢 열매  
 읓은 거. 뽕뽕 씹는맛 이실때예  
 107055 @ 옛날에 그거 해수과?  
 107055 #2 어. 그것만 해그네 그거 뜯아다그네 그것만 둥강 먹어낫주게.  
 107055 #1 곡지 툃툃 타단  
 107055 #2 응 곡지로, 열매, 그것만  
 107055 @ 양젓간도 허고예  
 107055 #2 양젓간은 옛날부터  
 107055 @ 술망 무쳐먹는게 아니고 장아찌로 허여?  
 107055 #1 장아찌로 허믄 오래오래 먹주게  
 107055 #2 오래먹어져  
 107056 @ 마농지가 즐기 연헌때 허는거잔아예. 마농도래기 허고, 마농대도 허고.  
 107056 #2 거 불리로만 그청먹는건 몰라. 이제사 행 먹어. 옛날엔 대 지만 행먹  
 고.  
 107056 #1 마농장아찌 이제사  
 107056 @ 마농도래기 그거는 더 맛중잔아예. 친구들이영 놀 때 그런거 가정강  
 먹지 안해나수과?

107056 #2 옛날엔 그 빨리만. 빨리 부튼거. 여자덜토 그건 경. 어머니 엇으민 몰래

107056 #1 옛날엔 먹을거 엇으난 마농질 앓앙 사탕ㄱ치 가정 먹엇던 허난. 쪽쪽 빨아먹으멍 째째헌거. 경해그네 이빨로 짹짹 . 과자ㄱ치룩 아정 땡기멍 먹어. 게민 어른덜이 자인 저거 밥먹을 때 먹을 거 아상 땡기멍 먹엄구나이. 영허멍

107056 @ 그른 여기는 우영팟디 마농을 안가난 어땡 사당

107056 #1 우녕팟디 먹을만큼은 다 심어. 사당은 안해. 그냥 씨도 이녁이 허고 지허는거나 슬망 먹는거나 다 이녁만큼씩 허지. 쪼끔 낮게 허민 나뉘어 신사름 주기도 허고

107056 @ 이것도 망대기에 담가?

107056 #1 망대기에

107056 @ 그건 된장만든 그 간장으로 현다는거지예?

107056 #2 응 것도 망대기로 하나 담아.

107056 @ 식초놓고 이런건 안허고?

107056 #1 것도 아니허고 그냥 간장만 딱 노앗다그네 몸 죽으민 영 바구니에 낵으네 간장 뜰랑 두 번만 끌어불면 흥번 햇당 열흘시민 또 흥곡. 우리성님은 경허드라고. 짜기야 뭇산디 흥나토 안시어. 호끔 짜긴 짜지.

107056 #2 짜긴 짜도 변허질 안허여. 바깳디 장독대 놔도 흥나토

107056 #1 그건 바깳디 놔. 그늘에도 안놓고 그냥

107056 @ 끓인 거를 마농지에 담아?

107056 #1 식형. 두 번을 끌어. 경해그네 해변갓당 몬들락헌 돌멩이를 주워다 놔당게 걸로 그냥 지들라게.

107056 @ 먹돌먹돌

107056 #1 응 우틀로 안올라오게. 경해그네 그냥 장독밑에 낵 앓앙먹어도 원 안짜매도 버랭이도 흥나토 안일고이

107056 @ 곱팡이는 안핍니까?

107056 #1 짜니까게.

107056 #2 팡이도 아니피어.

107056 #1 경 밥먹을 땡 지를 많이 먹어.

107057 @ 회종류는 어떤게 이신고예? 새끼회여 자리회여 방어회여 이런건 먹어봤수과?

107057 #1 도새기새끼 회는 행 먹으민 제일 좋덴 행 먹으민 막 오장이 시원헌덴 말은 해. 경헌디 그거는 웬만헌 사름은 못해. 남자덜이나 허주. 나도 이 아방아판 도새기새끼 사오랜 허민 동문시장 강 그사름이 해줘. 나 해도랜 해. 해만 주민 집의 왕 양념은 나가 해.

107057 @ 양념은 식초놓고 뭘 놓습니까?

107057 #1 식초놓고 그사름이 다 곱아줘. ㄱ른대로 행 먹는다 이녁냥으론 것도

목숨값은거지 못짤라, 못해. 다해줘 동문시장. 딱딱딱 해그네 비니루에 싸줘. 나도  
결 맺 번 사례 갖다 와신디

107057 #2 난 옛날에 흥번 먹어봤어.

107057 #1 자꾸 사례 가노난 오장이 씨원허텐 허드라고 . 경 곤드라고

107057 #2 아 오장 씨원헌거 맞아.

107057 #1 난 아직 먹어보진 안헐. 아방은 술 자시곡 허니까 잘 먹영 해영 허는  
디 경곤더라. 속이 허혈 때 먹으민 오장이 씨원헌덴 곤드라.

107057 #2 나가 아판 누워신디 아방네 친목회덜 일년에 한번 돼지 흥마리 잡양  
회식허잔아게이. 게난 어떻 새끼밴걸 잡앗던 모냥이라. 나가 아판 눈디 아방이 회보  
레 간덴 가더라. 가신디 한참 시난 이젠 완에 막 부엌에강 무싱거 허여 탁탁탁탁  
부엌에강 뭐 허지 안허는 어른인디이 나가 아판 누워불고, 아이덜 다 학교 가불고  
어리고 허난, 허연게마는 어이 저사름 일어낭 도새기새끼 회 이시난 호뎀 먹어봐  
경허난. 일절 먹어보도 봐보지도 안했주기. 경허난 나도 좀 입이 까다로완게 아무  
거나 먹지 아녀는 사람이라노난 난 아이먹켄 허난 흥적만 먹어보랜 아이 나 죽어도  
못먹켄 헐어. 아 눈딱 꺾양 흥적만 먹어보랜 막 사름 심영 억지로 막 맥이는 거라.

107057 #1 경허주기. 뭇ㄴ치 생각헐 행 와신디.

107057 #2 게난 춤 억지로 입 조끔 영 허난에 억지로 비와주난 게난 이 호룩끼  
들이싸보난 진짜 가슴이 씨원헌거라.

107057 #1 나 그말 들언. 먹어보진 안해도

107057 #2 경행 그때 아픈때 경해쥬 먹어보난 속이 씨원헐게 그다음에 아방 돌  
아간디 한참 이선 우리 셋아방집의 놀레가난 우리 셋오라방이 어디fp 간게 한참 시  
난 와선게 동문시장에간 새끼회 혈걸 다 사오고랜 허멍 집안에 다 먹읍셤 허멍 흥  
사발 쥬 아정와나서.

107057 #1 그디선 이 콩개역도 쥬. 콩개역 논덴 해어.

107057 @ 콩개역은 뭐파? 콩ㄴ루?

107057 #1 콩 보깡 곱양 주는 거 아져와난. 회에 노랜 콩개역을

107057 @ 콩으로 개역 하면 콩개역이 되는거지예. 우미처림

107057 #2 우미채엔 그거 필히 놔야 돼어.

107057 @ 우미채에 보리개역 놔도 되지예

107057 #2 보리개역도 괜찬아.

107057 #1 보래개역보다 콩개역을 더. 쿠시니까

107057 @ 게른 자리회 방어회 이런건 잘 먹어보지 안헐지예.

107057 #1 자리훤 가끔 먹엇지게. 자리회사 우린 모실포서 볼목리 강으네

107057 @ 옛날에, 아주 옛날에

107057 #1 아주옛날엔 안먹고

107057 #2 우린 옛날에 우리어머니가 자리장수 와서든 상 해여쥬 먹어나서.

107057 @ 그 맛이 어떻헐디가 어린뎀



107057 #2 어린때라도 맛좋더라. 비늘만 거시려가지고 장 많이 놔그네 칼로 막 다져.

107057 #1 경흐는게 아니고이 우리 본거는 이 영 일로 허영 가생이만 그차동 데 맹인 부뜰냥 막 즈질게 그냥 영영 허민 세질 안허더라. 이빨에 막 씹어먹어지게.

107057 #2 옛날엔 우리어머닌 다전행게 . 칼날로 뒤집어노명 뒤집어노망 막 다 전. 계난 가시 뭐 어서.

107058 @ 계민 출래중에 젤 맛좋은 출래가 뭇과?

107058 #1 우럭조림이 맛좋암직 허다. 우럭 잘도 고소해

107058 @ 뭇 낱 지집니까

107058 #1 콩에 피예. 피도 복삭해. 피 통으로 콩이영 허영 낱으네 복삭 뚜껍 안 열아뿡 지지민이 그 우럭이 좀 쪼잖아, 가시영. 거품이 부글부글해 경행 우리어머니 가 해주난 먹어봐

107058 @ 삼촌은 안해보고?

107058 #1 나도 해봐 그 뵈당. 우럭이 질 코소해.

107058 @ 콩은 물에 불렛당?

107058 #1 아니아니 불리지안해도 그냥 오래 보끄니까이 거기서 물웃덩 또시 익 어가명 물불영. 그냥 콩 놔도 돼. 경헨 해봐

107058 @ 된장만드는 콩예?

107058 #1 으게

107058 @ 고사린 식계때만 무쳐먹습니까?

107058 #1 식계때만 먹어도 지금은 다 먹어가난

### 장 담그기

107059 @ 장은 언제 담급니까?

107059 #1 장 담그는건 이 십일월 초나민 콩 슬마. 콩 슬망으네 콩 삶은게 메주가 플라야주게.

107059 #2 혼들 몰랑

107059 #1 혼들에 몰르느냐

107059 #2 혼들 몰랑 딱 허메게. 호끔 젓어뵈민 사십일

107059 #1 경해도 거자 십일월들에 장 담가이

107060 @ 된장 간장 고추장 이렇게 세가지 해수과? 막장?

107060 #2 된장은 장 등가그넵에 혼 삼개월 이시민 봄나민 메주 건정으네 썩든 된장이 되는거고 막장으로 허면은 장을 빼지 안허고 간장 어시

107060 @ 그른 삼촌네는 옛날에는 된장으로 허고 지금은 막장으로 헵니까?

107060 #2 간장 빼고 싶으면 간장 쪼끔 빼고. 경 아니허든 막장으로 그냥

107060 #1 간장 하영 뺀것보다 간장 조끔만 뺀 것이

107061 @ 지금도 사당 안먹영 햄수과?

107061 #1 된장만. 한번 하면 삼사년 먹어.

107061 #2 흔 삼년 먹주게

107061 #1 콩이 쪼끔씩 생기니까 그거하여그네 풀지도 못하고 쪽으니까. 흔말  
덥으면은 삼년을 먹어. 게문 따시 헐 때 것만 아녀그네이 또 콩 슬므곡이, 저 오일  
장에 강 밀 퇴왕으네 ㄱ를로 곱앙 흔뒋박 사당 서경으네 된장을 쟁놔뒤. 경행 흔  
십오일만 이시른이 된장이 그것이 우러냥 별경케 맛있어. 콩 슬마논 것도 그레 불  
영. 된장에. 경허난 불어놔 삼년이상 먹어. 경행 아이덜토 쪼끔씩 주고 곧힐때는. 나  
올리까지 세 번을 콩 슬망 노안.

107061 @ 옛날엔 고추장은 어섯수과?

107061 #2 고추장은 담강먹게 경 고추도 많이 아니갈곡게. 이녁 먹을 것만 쪼끔  
씩 허난

107061 #1 고추장을 해영 먹는 사름은이 돈이 많이 들곡이, 어디 육지에간 살단  
은 사름은 담강먹어. 게문 수군수군해. 저예웬 가내모네 못헐사름이엔. 촌에 살멍  
이런 고추장 담그멍 잘먹엿다 허는 식으로 . 고추장은 즈본이 많이 들주게.

107061 #2 제라허게 고추장 덤는사름은 곱가루 해그네

107061 #1 고추장 덤그난 막 갓썩게 , 갓쓰난이 어떻헐중 몰라그네 걷영허기도  
아까완 저 매실주 담갓당거 막 그냥 풍풍 비왔어 막. 고추장 우터레 올라오게. 아  
비왕 놔두난이 흔 일주일 시난 해영헌 갓 그것에 다 녹아부렁 어서.

107061 @ 갓 썩다는 말은 뭇과? 곱팡이 님은거?

107061 #1 곱팡이. 흔 일주일 시난이 그 매실엑기스 풍풍 비완 놔둔거 게난 막  
우터레 올라오게 비왔주게. 그냥 몰르고 알고 듣지도 아니허고 막 근근이 비와서.

107061 #2 게난 그 갓이 어서전

107061 #1 어서 ㅎ나토. 그 갓이 ㅎ나토 엇어전. 게난 ㅎ뽀 들긴 헐거여. 거 노  
난.

107061 #2 설탕을 놓지 말고 엇기를 만들영 논게 최고주게. 제라헌 고추장이주,

107061 #1 아이덜 제사때 아정은 청주도 흔뒋 낱 했주게

107061 #2 청주노민 곱팡이 안핀댄 허는디

107061 #1 안핀댄 허는디 펫더라. 싱겁게 현 생이라.

107061 @ 설탕이영 소금이영 짜게 허는 이유가 그겁디다.

107061 @ 계란도 띄워보고 이런건?

107061 #1 계란 허는건 간장 짜고 싱거운거 보젠 허는거지 우리대에

107061 #2 우리어머니 대엔 그런거 어서.

107061 #1 그건 영 짐작으로만 했어.

107061 @ 그대신 보관은 잘했지예

107061 #1 우리어머니 시대는 대부분 짜게 해. 짜게 허니까 곱팡도 안피곡 호뽀  
먹으면 된장도 짜고 허니까

107061 @ 형겘도 썩우곡 했지예

107061 #1 된장 허면은 형겘은 썩와야돼.

107061 #2 간장은 아니허고

107061 #1 응 된장만 썩우더라. 간장은 그냥 더끄는것만 솟뚜쟁이로 딱 더껏다그네 씨는디 된장엔 꼭리라도 앳이카부덴 허는건가.

107061 @ 어느만큼한 항아리에 얼마나 해수과

107061 #2 물허벅으로 열허벅 나 담앗젠 허난.

107061 @ 어머니랑 삼촌이랑 같이?

107061 #2 아니 나 시집은 후제

107061 #1 열허벅이나 헨

107061 #2 식구 많아부난

107061 #1 게믄 나보단 식허벅을 더해

107061 @ 게믄 콩을 뻗말을 슬믄거?

107061 #2 다섯말 슬믄거.

107061 #1 다섯말 흐민 열허벅에 경 하영 담나 흐허벅에 들썩

107061 #2 흐허벅에 두뿔 잡앗네 옛날에는 넌 뻗뿔 담앗나?

107061 #1 난 두뿔 아니난. 두뿔 놓지 말랜 해그네이 뻗말에 일곱허벅만 난 두뿔로

107061 #2 경허난 장이 맛종앗지게.

107061 @ 게믄 삼촌이 다 슬망 혼자만 어떻게 다 발로 밟안마씨?

107061 #2 아이덜코라 뽏으랜 헨

107061 @ 아이덜 뻗 명이?

107061 #2 아이덜은게 어린것덜은 못허고 욱은것덜 뻗명이 허곡

107061 #1 게도 어멍이 대중 허주기

107061 #2 게 나가 대중 일허주게. 어멍 돕넨 헛자 아이덜 호뽏 허당 가불민

107061 @ 다라이에 낵. 맨발로?

107061 #1 보선 신영

107061 #2 그냥 밀가루 푸대에 슸아그네게 그레 영 담아놔그네 큰 다라 속에 낵 들어상 불르주게.

107061 #1 콩 밀락밀락 나가지말랜 그디 담앗주게

107061 @ 뽏아난 다음엔?

107061 #2 다 그거 뽏아지면은 꺼내면서 영 손으로 모양내멍 네모나게 만들어그네 이젠

107061 @ 새끼줄로

107061 #2 새끼줄이 아니고 벗짚,

107061 #1 벗짚이 더 좋은거.

107061 #2 벗짚 그거 긴거 해여다그네 세가달로 묶어그네 축 메여그네 돌아매여.

107061 #1 야, 넌 세계로 헛나. 네모니까이 영 네모로 허영 돌아매신디

107061 #2 네 개에 갈라. 네 개도 갈르곡 식개도 갈르곡 해영

107061 #1 경행 아래 낱 호꿈 시들시들 물라야 걸메.

107061 #2 경행 말랑 발효되면은 혼 사십일 되면은 내류와그네 막 솔로 그 틈에 발효된거 곰팡이 그런거 솔로 막 칫솔도 들이대곡 시쳐간다 경 막 시청 이제 바구니에 건정 향아리 우에나 놔두며는 물 싹 빠지면은 이젠 날봐야. 장 담그고 메주 쭈는 날은 날을 봐야 되어. 아무날에나 허는게 아니라 또. 쟁 이젠 날 봐그네 전날이나 전전날이나 물 질어다그네 혼 허벅에 소금 큰뿔박으로 세 개 놔그네 자꾸 막 대로 젓어가명 물 질어당 노아가명 소금물을 만들어. 향아리에 받침 놔두민 곳인게 싹 가라안지주게. 날 봐당으네 장 담그는 향아리 싹어그네 어퍼그네 물기 어시 해야 되기 때문에 낫당 바싹 물르면 이젠 내여가그네 장독에 놔그네 메주 문쳐낱 소금물 거려놀때도 잇곡 소금물 문쳐 낱 메주 나중에 들이칠때도 잇곡. 난 경행 담곡.

107061 @ 게믄 그날 하루종일 걸리켜예

107061 #1 흐루도 넘어

107061 #2 장 담그는게 경 쉬운일은 아니주.

107061 #1 메주 담그는 날만 날보민 이 다른건 내내 해여도 돼.

107061 @ 한말에 메주 뿔개가 될건고예

107061 #2 한말에 다섯 개?

107061 #1 크개행 다섯 개.

107061 #2 크개 허민 다섯 개, 즉게허민 여섯 개

107061 @ 삼십개 정도면 한향아리에 다 담을 수도 이시켜예.

107061 #2 응 한 향아리에 담을 수도 이서. 우린 장을 많이 만들어먹젠 허난 향아리 두개에 담는거주게.

107063 @ 장 담글 때 금기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107063 #1 장 담그민이 고치도 세 개 숯 세방울 그거 딱 놓더라 간장에. 그거 예방이랜

107063 @ 육지는 보선도 붙이고 금줄도 달고 헌덴 허는디?

107063 #1 여긴 그런거 어서.

107063 #2 우리 어린 땀 그런 방법이 어서.

107063 #1 우리어릴 땀 이 고추도 아니봐난. 지금사 놓지.

107063 #2 고추도 숯도 아니봐라 우리 어머니넌

107063 @ 날보는 거 이런건 누구안테 물어보는거 마씨?

107063 #1 누구안테 물어보는게 아니고이 모날 잘해 모날.

107063 #2 모날도 좋고 토끼날 개날도 허고 . 자기 식구중에 본명일만 안뵈믄.

107063 #1 하여튼 대주허곡 본인은 꼭 봐야돼. 나 집윗어른 돌아가는 해에이 간장이 수시로 시퍼령해. 쟁 그간장 그냥 비와부러주게. 이상허게 경허더라게. 어이퍼령헌 것이 우의 딱 끼언.

107063 @ 이상헌 날이 잇다는거지예

107063 #1 경허난 대주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가부런.

### 떡류

107064 @ 떡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리떡, 곤떡, 설기떡, 솔변, 절변, 웃기떡,

107064 #1 시루떡허고 거 무싱거가 이서, 침떡, 기증펜

107064 #2 종류는 제에 따라 떡도 틀려, 왜냐허면 만약에 사람이 돌아가그네 축허잖아. 초제면“초칩니다” 그런 축그럴때는 그 곤떡도 두가지, 반달 곤떡이 있고, 똥글락 곤떡도 있고, 또 인절미 므말그루로 인절미 세미허는디 인절미는 사각짜리고, 세민 딱시 반달모양에 쉬 조금 속에 넣으네 즈앙으네 현게 세미,

107064 #1 게난 쪽 떡일름을 곱아부러 즈근즈근.

107064 #2 응. 게민 솔변, 절변, 세미, 인절미, 딱시

107064 #1 동글랑곤떡이엔 허여.

107064 #2 그 절변그라 동글랑곤떡, 동글락허게 만든게 절변이고 반들그찌 현게 솔변이주게. 경헌 그게 네가지, 또 이제 병거덕 사람손이 병거모양으로 만든 게 또 이서.

107064 #1 그 사이에 지름떡 허나 이서. 병거떡 허기전에 지름떡.

107064 #2 그거허고 딱시 저요만큼 만들어넣으네 숫갈허나 젓갈허나 영 두 그릇,

죽으민

107064 #1 권미떡이엔 현

107064 #2 권미떡은 번개떡은 산병이엔허고 그,

107064 @ 번개떡은 산병?

107064 #1 응. 산병, 떡 이름이,

107064 #2 응. 산병, 요렇게 행으네 젓갈허나 영 두 그릇내는 건

107064 #1 질메가지

107064 #2 저, 권미. 질메떡은 딱로 잇다게.

107064 #1 딱로 이서.

107064 #2 권미 질메떡은 아무 집이나 허지 안혀. 질메떡허는 집도 가끔 이서. 질메떡이엔 현 건 가끔 잇긴 이서. 질메떡이엔 현 건 이보다 가늘게 깎부라지게 만들기 때문에 질메떡이엔 이름이 있어. 경허곡 지름 떡이 있고.

107064 #1 영 부짱, 이렇게 부짱 떡을,

107064 #2 지름떡잇고, 똥글락곤떡보다 쪼금 적게, 경행으네 지름떡잇곡 다행 일곱가지야, 일곱가지,

107065 @ 시루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재료/도구/만드는 법/기타) 도구는 어떤 도구로 만드는가? 침떡을 시루떡이엔 허지에 침떡은 주로 무슨 침떡?

107065 #1 즈쌀로,

107065 #2 즈쌀로허곡 또 부자침이 잘 사는 집안엔 그 즈쌀ㄱ루 반, 쌀ㄱ루 반, 행으네게 부쳐, 부청으네게,  
107065 #1 것ㄱ라 무싱거옴 혼다마는 무신 쟁펜?  
107065 @ 기증편?  
107065 #2 아니 아니,기증펜은 따로 잇고,  
107065 #1 징부찌,  
107065 #2 징부찌떡이옴 허는거, 그거는 쓸걸로 따로, 일반 먹을 거는 쟈 냉 먹고,  
107065 @ 즈쌀ㄱ루허고 뽕쌀ㄱ루를 만들젠허민 다 ㄱ레로 ㄱ루를 만들어?  
107065 #2 아니, 큰일 제스때는 도구방애에 ㄱ루를 빼서 허고, 그 초상때 사름, 이 초상때 끝은때는 그 들방애,  
107065 #1 들방애, 들방애, 그디 강으네 사람덜 여러사람 땡기고,  
107065 #2 땡기고 밀리멍 치멍, 뽕사지는대로 꺼내근에 혼구석에서 처가멍 체로 ㄱ루로 처 가멍 우에건 딱시 낱 뽕고,  
107065 #1 주생이,  
107065 #2 게멍 여러사람이 모다들옴 강 허주. 친척덜이, 동네사람덜이영,  
107065 @ 초상이나 잔칫땡예? 초상이나 잔칫때도 시루떡, 침떡을 헨마씨?  
107065 #1 잔치때 안허고 초상대상때에이  
107065 #2 3년에  
107065 @ 3년만간에, 거믄 만드는 법 총총이?  
107065 #2 만드는 법이 막 복잡허주게.  
107065 #1 만드는 건게이. 시루에 영 시리에 안쟈 낱 시루에 멘처옴 풋을 이렇게 행 낱. 풋 풋 짹 섞어낱 그 다음 요마니 징혈마니 그 즈쌀 ㄱ루를낱.  
107065 #2 쟈상으로 마련행으네  
107065 #1 낱 펜펜헹게 풋쟈 놓아 그다음 시루 헹나 이빠이 ㄱ득이 나오지.그런 식으로,  
107065 @ 주로 풋이파?  
107065 #1 풋쉬  
107065 #2 주로 풋  
107065 #1 풋쉬  
107065 @ 맛좋아 풋쉬?  
107065 #1 맛좋아 경헹 쪽쪽쪽 허민 시루 이빠이해야지게.  
107065 #2 혼증혼증 그 영 부쉬지지 안헹 나뉘지게  
107065 #1 시루를 많이 허는 집은 다숫시 여숫시 해여. 시루로 시루 두 개로 숫도 말치숫디 해사 그걸 그 먹음만 헹게 아니고 혼 빗씩 매 집이 나눌 거난 먹음만 헹게 아니고, 동네덜 나눌거난

107065 @ 그믐 층이 멧층 혼 시루가 멧개 나와마씨?  
107065 #1 여더 아홉층, 아홉층, 알브게 허민 아홉층이네  
107065 #2 여덟층,  
107065 #1 올라오는 층덜이 막,  
107065 @ 아이구 게믐 혼빔은 그걸 멧개로 찢릅니까?  
107065 #1 영허민 이거 이거 큰 빔 두 개 맨들아이. 큰 빔 두 개 해뵈 어염으로  
너빔인디, 어염빔 두 개로 허고 상빔 두 개,  
107065 #2 가운데건 상빔이엔 허주게. 상빔, 가운데 거 두빔은 상빔.  
107065 @ 어염빔 두 빔, 상빔 두 개?  
107065 #1 양쪽으로 두 빔, 상빔 두 개.  
107065 @ 잘도 허는 거 봤수다?  
107065 #1 우리 허는거 보니까이 봤어 막.  
107065 @ 시루에는 풋 말고도? 저 녹두도 허고?  
107065 #1 녹니가이 흐깁 비쌍으네 잘 안해.  
107065 #2 녹디 많이 생산을 못허기 때문에 녹디는 허는 거 못보고, 풋도 우  
리 지금 빨간 풋이 아니고 본풋이엔 행으네게  
107065 #1 곱은디 마섯어.  
107065 #2 녹두색깔 비슷한 풋이 이섯어. 옛날에는 그 풋, 풋쉬를  
쉬로 많이 췌거든. 지금 빨간 풋이 아니고,  
107065 @ 가을에 나와마씨? 것도?  
107065 #1 것도 숲양 백시민 것이 더 맞아서.  
107065 #2 것도 맞디서.  
107065 @ 그믐 그거 통풋으로 안행 다 으짬니까??  
107065 #1 백상 백상 백사야 붓주게.  
107065 #2 것도 마섯어.  
107065 @ 돌확에 낱 백사?  
107065 #2 옛날 나무돌, 다라닭은 큰 도구리에 낱 덩드렁마께로 막 백상으네  
게 그걸 주로 췌주게. 떡시루,  
107065 @ 덩드렁마께를,  
107065 #1 덩드렁마께가 아니고 방해뵈는 방해끼가 있어. 둘이  
107065 #2 도구방애로도 강 뵈고  
107065 #1 남방애엔 행으네,  
107065 @ 남방애예? 게민 멧말 혼시루에 멧말 필요헐니까 즈췌이?  
107065 #1 석뵈, 석뵈엔 허드라고, 혼시리에 석뵈 들어간덴 소도루 소도루, 대두  
영 현거 말고 췌그만 뵈가 있어. 그 열 개 노민 혼말허는거, 췌 혼 말이민 계산해야  
췌 혼말에 석뵈가랴 허라 해여. 어머니덜이 보민, 췌 열말이민이 석뵈씩 계산해영  
해야지. 즈췌 혼섬씩 해여. 혼섬씩 그 떡 막 놓젠허민,

107065 @ 혼섬이민 멧말이 혼섬이꽈?  
107065 #2 열 다숫말이 혼섬.  
107065 @ 아이고!  
107065 #1 그 누누는 걸 해야지. 집집이 노누는 생각을,  
107065 #2 동네 다 나놔!  
107065 @ 게민 시리를 다 빌려와야컨게?  
107065 #1 시루 두개로 하루종일 쩌.  
107065 #2 빌려도 오고 집이걸로도 허고 게난 시루 어신 집도 벨루 어서.  
107065 @ 시리ㄴ망은 멧 개꽈?  
107065 #1 ㄴ망은 확실히 잘 모르켜. 건 안 세봤어.  
107065 #2 ㄴ망이 가운데 큰 거 허나 잇고, 돌아가멍 잇고 여덟 개 아홉 개?  
107065 #1 열 개 뽕직허다이. 한가운데꺼영 허민,  
107065 #2 가운데꺼 다 허민 겐디 그 구멍은 맨 처음에 저 뭐  
107065 #1 누멀꺄드라. 누멀, 누멀썸, 험벽을 꺄수가 없어 하노니까,  
107065 #2 누멀이파리 꺄던지 경안허민 무우꺄랑으네 구멍보다 좀 큰  
거 행 꺄랑으네 알게 꺄랑 구멍더레 툽툽 낡,  
107065 #1 누멀이 더 좋아. 배추썸이 좋아. 꺄기는,  
107065 #2 배추 이파리도 막고 무우로도 막고,  
107065 @ 만들양 시루떡은 초상난때 잔치엔 안쓰고예?  
107066 @ 송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재료/도구/만드는 법/기타) 송편은 무슨 재료로 어떻게 만듭니까?  
107066 #1 그 송편 나는 재료는이, 옛날엔 송편 안행 그냥 썸만 해신디 것도 신 식으로 뒤영이 그 썸을 다 못해. 제사때는 안해.  
107066 #2 축 어슨 제는 그 썸을 다 갖추지 안허고,  
107066 #1 초상대상 넘으민 축이 엇주게. 제사만 해영,  
107066 #2 제사때는 송편을 주로 만들어 쓰주 송편을.  
107066 #1 게민 간단해. 송편허고 지름떡허고 허민,  
107066 #2 웨가지로,  
107066 @ 썸이란 말은 먼 말이꽈?  
107066 #1 여러 가지 맨든거게.  
107066 #2 썸은 주로 썸썸한 거 여러 가지 허기 때문에 썸이엔 허고,  
107066 #1 은절미 세미떡 허는 거, 은절미, 솔변, 세미떡,  
107066 #2 지름떡 뭐 절변, 솔변 다 갖추왕 허기 때문에 그 썸이엔 허주기 그것ㄴ라 .  
107066 #1 썸이엔 허민 그디 다 들어가.  
107066 @ 소상, 대상엔 이런 걸 갖추왕 허고?



107066 #2 축이 이시민 소장 대상 아니라도 축을 고할 축 이실때는 지물을 다 갖추왕 해야돼.

107066 #1 그 이 남자어른덜 축 마지막에 세미 절변이 들어가. 글자로 들어가. 세미 절변이 들어가.

107066 @ 글짜로? 거난 꼭 잇어야 돼고,

107066 #1 지름떡, 곤떡까지 들어가.

107066 @ 축이 없다는 건 몇년 지난 제사파?

107066 #1 소장 대상 넘으민 축 어서.

107066 #2 담제까지 축 잇네

107066 @ 아아 담제까지 축 잇고, 담제가 3년?

107066 #2 담제축도 이서.

107066 #1 대상 넘영 3개월 시민 담제허니까이.

107066 @ 그믐 송편은 필로 만듭니까? 뭇쌀?

107066 #2 뭇쌀로,

107066 @ 뭇말정도 이것도 많이?

107066 #1 흘말이민 돼어.

107066 @ 이거 보름달 모양으로 똥그락헌 거 송편이렌 험니까 여기도 여기,곤떡?

107066 #2 솟천모양에 영 천 부청으네

107066 #1 반만 부청으네,

107066 @ 곤떡? 그게 솟천모양이렌 허는거고예?

107066 #1 송편사 어디든지 다 햐쥬. 서에도 허곡 동에도 허곡,

107066 @ 서에는 송편이 그 송편이 안 님아뵤어.

107066 #2 서러렌 송편 안허여.

107066 #1 슬랑슬랑허드라이. 영?

107066 #2 서러렌 송편 안허여. 우리 웨가에 강 들어보민이

107066 @ 아니 고내까지 헌거담은디. 저쪽 한림쪽엔 송편이 달라.

107066 #1 슬랑슬랑허지이.

107066 @ 그믐 뭇쌀로 허는 거 우리먹는 곤떡을 말햐미예? 보름달 모양이라는 건 들어봤수과 혹시 그게 똥그락허잖아예? 육지송편허고 틀려.

107066 #1 보름떡모양으로 헌 건 여긴 보름떡모양으로 헌 건 뭇 여기는이 곳혈때배기 안햐. 심방곳 혈때

107066 @ 건 들레떡?

107066 #1 심방 곳혈때 들레떡이엔 헌건이 어떻허든 쓰냐든 사람죽으민 장 밧디 행 가는거 고적으로, 들레떡으로 영 행 거 네 개노민 혼뵤치, 물떡도 네 개노민 혼뵤치,

107066 @ 네개에 혼뵤라? 뭇층 쌓앙으네 바구리 하나

107066 #1 바구리에 가정가민 떡을 수정 생 받아. 복친덜 해온 떡을 수정을 세어.

107066 @ 멧개를 가정가야.

107066 #2 게믄 촌수를 따정으네 스촌 까진 좀 많이 해가주게.

107066 #1 오촌ㄱ진 하여. 오촌ㄱ진 두마네치 하여.

107066 #2 스촌ㄱ진 두마네치허고

107066 #1 오촌 오촌 옥촌부떠는,

107066 #2 아이 건 집안으로 간다게 스촌부터

107066 #1 우리 오촌인디 두마네치 허여.

107066 @ 이젠 돌래떡도 차그만허게 나오고예

107066 #1 우리 노형은 아예 없어. 이제 장밋디 가봐도

107066 @ 게난 장밋디는 고적이랜 험니까?

107066 #1 이젠 고적 없어. 옛날에

107066 @ 아까 말했듯이 사촌까지 두말에치 하면 멧개가 나옵니까?

107066 #1 네 개씩 혼말이믄 열여섯개야. 혼말에치민 네 개는 구덕에 놓고 네 개 앓아불민 열두개가?

107066 @ 예, 열두개,

107066 #1 열두개만 받아. 네 개는 구덕테레 시리줘 우리 아저온 사람 가정가렌 주곡. 그 식이야.

107066 @ 돌아가성 메칠에 한번 가져가는거?

107066 #2 영장밋디 물을때

107066 @ 아침일찍이 만들엉

107066 #1 밤에 만들어야지.

107066 @ 그믄 사촌이 여럿이믄 다 자기꺼 가져가겠네? 거기 장밋디 온 사름덜 나눠준다는 말이구나예.

107066 #1 일헌사름덜

107066 @ 게믄 사촌이 없거나 허믄 어떻허여. 사돈에 팔촌까지도 이런거 해갑니까?

107066 #1 사돈도 그럴때는 다 그런 떡으로 허는디. 켜디 그떡 어실때가 오죽 오랫동안. 4:3스건 지나부난 하다가 말았지.

107066 #2 4:3스건 그해부면 어섯주기.

107066 #1 무조건 전엔 사람만 죽으민 그 떡을 해난.

107066 @ 일제시대도 이런 걸 해났구나예?

107066 #1 일제시대땐 더 잘했지이. 쪽 해서. 우리도 할머니가 세분이난 그 메느리덜 수정마다 그 허지.

107066 @ 거믄 쉬는 역시 풋? 송편에 쉬?

107066 #1 풋허고 느멸, 그 물떡허는디 물떡에는 느멸 행 팍 짜뵝 양념

허민 막 좋아. 먹기도 좋아. 답지지 안허고 콩나물 좀 쉬엄,  
107066 @ 아까 들레떡 그 고적?  
107066 #1 들레떡은 쉬 안 놀거고 물떡에  
107066 @ 아까 그 소상집에 가정가는거 말고?  
107066 #1 그거그거.  
107066 @ 물떡 들레떡이엔 안허고 물떡이엔예?  
107066 #1 들레떡도 허곡 사람 심리로 어떤 사람은 들레떡도 허고, 어떤 사람은 물떡 허고,  
107066 #2 겐디 주로 이렌 서러레가 들레떡을 많이 허주. 이렌 물떡을 많이 허여  
107066 @ 아까 큰 것이 물떡이파 이름이?  
107066 #1 동그락 이보다 큰 것이 물떡, 아니아니 들레떡,  
107066 #2 들레떡이지 물떡이나  
107066 @ 물떡은 어떤것과?  
107066 #1 물떡은 영헌거 싹 즈앙  
107066 #2 물떡은 영 즈앙 마주 더깁 반들ㄴ치,  
107066 @ 크기는?  
107066 #1 것도 이만이 커야돼.  
107066 @ 커. 그 속에 담는 것이 느멸?  
107066 #1 느멸이나 콩나물 서건 짝 물 짜동 양념해 노민 먹기가 잘도 좋아.  
107066 @ 눔삐가 아니고 느멸?  
107066 #1 눔삐도 허여.  
107066 #1 눔삐가 막 좋아.  
107066 @ 눔삐도 허고 느멸도허고 ?  
107066 #1 느멸 아니고 눔삐,  
107066 #2 거기 쪽파도 썰어놓고 양념 해그닝에,  
107066 @ 빙떡에 들어가는 재료영 똑 ㄴ쁜거예.  
107066 #1 빙떡 쉬ㄴ추룩.  
107066 @ 콩나물도 허고예. 풋도 허고예.  
107066 #1 풋 논거 보단 물떡엔,  
107066 #2 채소 논게 좋아. 먹기도 좋고  
107066 @ 이건 멥절때도 허지 안헉니까? 반달로 해가지고,  
107066 #1 그건 세미떡이지.  
107066 #2 세미떡. 요만씩허게게.  
107066 @ 크기가 다르구나. 물떡은. 게른 눔삐어신 여름엔 풋놓고예.  
107066 #1 건 흘 수 엇지게.  
107066 @ 게른 그것도 두말 흘 수도 잇고, 들레떡도 두말 흘수 잇고

107066 #1 촌수 가까우민 두말에치 해야주 먼촌은게 혼말에치,  
107066 @ 계난 돌레떡이 아닌 물떡이 주로해수와 노형은? 반달모양에.  
107066 #1 아니, 둥글락허게 해영 딱 고비치민 반들튀는거지.  
107066 @ 계도 물떡은 그 속에 뭐 노니까. 신경 더 쓰이긴 허주예. 계난 그걸 그 차롱에 담양 갖다 줏다는 거잖아예.  
107066 #1 나 어릴 때 것도 봐나서. 어떤디 가보민이 떡이 하나나 두 개나 좀 모 지레게 오는디가 이서이. 계민 그 복친더레 주는 게 덜줘. 두 개 모지레민 두 개만 줘. 네 개 안줘.  
107066 #2 경 해야 될거주게.  
107066 #1 딱 이던 찹고, 이던 모지레게 주는거지.  
107066 #2 딱 멩단 보멍 줘.  
107066 #1 계민 딱 말썽 나. 아무집의 떡 죽게 낱 아저갓젠. 막 집에 왕도 곶아.  
107066 #2 다 숫자 생 받기 때문에  
107066 #1 나가 그거 봐나부니까. 우리 할머니 두분 돌아가성 허는거 봐나부난  
107066 #2 난 경헌덴 들음만 헛주 아니 봐나부난.  
107066 @ 송편에는 쉬를 소금만 놉니까? 것도 슬망 뽏아? 복작 뽏입니까?  
107066 #1 쉬? 복작 뽏인게 맛있지. 두구락헌것보단.  
107066 @ 설탕도 안놓고?  
107066 #2 설탕이 어디셔.  
107066 #1 냄새도 못말았지. 소금은 간 호끔 해야지게 아맹해도  
107066 @ 쉬는 호끔 많이 놉야 맛있지예.  
107066 #1 경해야 봉긋봉긋 보기도 좋고 맛종주게.  
107067 @ 빙떡은 언제 올립니까?  
107067 #1 제스때도 허는 사름은 허곡,  
107067 #2 이젠 벨미로 햄주게.  
107067 @ 옛날  
107067 #2 옛날엔 주로덜 헛주게.  
107067 @ 초상에도  
107067 #2 응 초상에도 조문꾼덜 대접허젠 주로 빙떡을 헛주게  
107067 #1 흐루종일 그을리멍 앓아그네 믈는 사름 지지는 사름 행 둘이 행  
107067 @ 한여름에도 빙떡을 지져집니까?  
107067 #1 못해 더윈.  
107067 #2 한여름에는 못해.  
107067 @ 그대신 풋쉬 놓을순 있겠다예.  
107067 #1 더웁으네 벨로 허젠도 안허고이 . 연날도 여름엔 안해실거라. 불 때문  
에.  
107067 @ 빙떡 허는 거 한번 그라봅서.

107067 #1 ㄹ를 해그네 소금 쪼끔 영 놔그네 물 조금만 낡 막 저으민 것이 풀풀 해. 이렇게 해가든 병어리가 하나도 없지. 물 또 노앙으네 또 저어. 물 두 번만 노민 영 허영으네이 손으로 영헌 것을 안떨어정 쭈르륵 허민 된거. 거든 이제 빙 되어. 영행 쪽 떨어지면은이 얇아. 나 그거 우리 셋어머니 허는 거 받. 우리 셋어머니 막 해영으네 간맞추왕 영 해여그네 쭈욱 행 이디 바짱허민 이제 뗏져. 지지라. 경헨.

107067 @ 국자로?

107067 #1 국자로. 국자도 크민 사꼬가 이서이. 국자 아래꺼 쪼꼬만헌거. 국삭꾸 국삭꾸 해. 국자는 너무 크니까 둔허지게 쪼끔씩 놀거니까.

107067 #2 국자는 옛날에 나무떼기로 팡 허기 때문에 막 둔허고 커. 계난 국삭꾸 라고,

107067 #1 이걸로 흥나씩,

107067 #2 야, 이거 놔뒀구나야. 이거 옛날에 국자. 이걸론 영 떠그넵에 노민 너무 많잔아. 계난 쪼꼬만헌 삭꾸엔 헌게 이서.

107067 @ 이 나무로 된건 배수기엔 험니까?

107067 #2 국자 국자 배수긴 영 젓는거.

107067 #1 여기선 남죽이엔 허는디 서의 가난 배수기엔 허드라.

107067 #2 우리 외가엔 배수기엔 허여. 여긴 남죽이엔 허곡게.

107067 #1 빙떡 헐 땀 막 배수기로 젓어.

107067 @ 옛날엔 지금보다 더 크게 해수과?

107067 #2 영 길게 헛주게.

107067 #1 옛날엔 빙떡하나 먹으민 들직해여.

107067 #2 커.

107067 @ 거 감을 땀 차롱 가르창 거기서 해수과

107067 #1 차롱 옆영 해. 차롱이 물 안돌앙 좋주게. 도마보단이. 대니까 물을 안 고이여이. 뜨신거 놔도,

107067 #2 계난 대나무 차롱으로 허는거주기.

107067 @ 기름 불랑

107067 #1 기름 안불라. 기냥 해도.

107067 @ 그든 여기 헐때는 돛지름?

107067 #1 응 솟뚜껍에서는 이 돛지름 호끔 행 영 싹 둘렁으네

107067 #2 옛날엔 식용유가 안나난,

107067 @ 거 어디서 빌어당?

107067 #2 큰일을 허젠 허민 돼지 잡잔아게. 그런디 쓰젠 기름 따루 떼여그넵에

107067 #1 막 늪도 주곡이 자기도 쓰곡, 경해. 적광으네 단지에 담양놔당 그거 호끔 거려놔 무 영 찢르민 무 영 데경 두깡이에 쓸지.

107067 @ 무로,

107067 #2 무플랭이 영 손잡기 좋게. 넓이 요만큼 허게 하여그녕에 그걸 그 듯지름더레 영 찍영 불량 경 솟뚜경으레 싹 둘렁 맥이민

107067 #1 어른덜이 듯지름으로 헌 것이 빙이 뚜꺼왕 맛잇넝 허는디 난 뚜꺼운지 몰라 맛이,

107067 @ 배지근허주예 아맹해도

107067 #1 응 지름 헌것보단,

107067 @ 소기름 안허고 돼지기름으로 썰다는거지예?

107067 #2 응 듯질름베끼 엇엇주게.

107067 @ 빙떡을 몇개정도 만들아마씨?

107067 #2 혼 차롱 허여.

107067 #1 차롱에 수정세는 건 난...

107067 @ 믹멀 멧 말?

107067 #1 어디 해가는건 석돼민 딱 되어. 석돼 허민 충분해여.

107067 #2 충분허주게

107067 #1 것도이 너 방향으로 석돼 아니야. 우리 돼왓세기엔 헌게 이서. 그걸로 세게믄 돼.

107067 @ 좀팍보다 죽은거 돼왓세기로 세 개. 게믄 두돼 호뽀 넘으켜예.

107067 #2 사흙들이,

107067 #1 그걸로 열 개 낱 혼돼 허는거.

107067 @ 그거 행 허민 요만헌 차롱에 하나 담아질건가예. 사촌 이내 사람들안테 제사때, 누구 제사때 이런걸 행가코예?

107067 #2 부모제사때.

107067 #1 이것ㄴ라 돼왓세기엔 해. 이것보단 커. 이건 죽은거야

107067 #2 이건 너무 죽은게.

107067 #1 난 죽은걸로 사와서.

107067 #2 이건 단흙때기나 돼크라.

107067 #1 게도 걸로 쫄 거리곡 해낫주게 나.

107067 #2 맞다게.

107067 @ 이건 노형에서 썰던거지예.

107067 #1 나가 썰단거지. 우리아신 이거 호뽀도 안산 사발로만 거렁먹엇젠.

107067 #2 기?

107067 #1 돼왓세기 안사반, 그냥 아레미 사발로 쫄 거려당

107067 #2 난 썬냥 어디사 어떻사 해져신디,

107067 @ 게믄 어디에 행가봐수과?

107067 #1 어머니 돌아가실 때 아버지 돌아가실 때 상제는 허지 못허고 복친덜이 허는거. 복친은 켤당이지

107067 #2 가까운 켤당.

107067 @ 제사, 제사,  
107067 #2 제스펜게 부모 제스때나  
107067 #1 부모제스때 허지.  
107067 @ 뭘행 가나수과?  
107067 #1 난 술사곡 쓸허곡 행 가서. 떡은 안해반  
107067 @ 그전에 삼촌덜을 그런걸 행오는 사름이 이십니까?  
107067 #1 제스칩의서 떡을 다 흐니까 떡흐는 사름은 쪼금 드물어이. 많이 쓸 행  
가지. 빵이나 호뽀 사는 사름은 사.  
107067 #2 저 천안이 큰고몬 꼭 빙떡 혼차롱 지정 와낫쟁 해서.  
107067 #1 것도 잘허는 사름이 허여. 빙떡 흐는 사름은 얼마나. 거 보통으로 못  
해  
107067 #2 꼭 아버지 제스에 지정 와그네. 이제 빙떡 지정 가는거 줌헌 정신이  
아니라.  
107067 #1 맞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외갓칩의 허젠허민 꼭 빙떡 허영으네이  
혼차롱행 나신디 지영 가랭 해계. 배끄로 지영가랭 해.  
107067 #2 경허난 줌헌 정신이 아니주.  
107067 #1 차롱으로 행에 큰구덕에 담양 지완 보낸. 제스 먹으레 가랜. 사름이  
죽으니까 들렁 못가지. 또 빙떡은 무거와계. 빵보단  
107068 @ 상웨떡은 밀꺾루로 합니까?  
107068 #1 것도 집의서도 허여. 제스때,  
107068 @ 막걸리 낱 허는것과?  
107068 #1 소다허곡 막걸리허곡 두가질 노아. 낱 맞게 해영 잘  
107068 @ 술떡이랜도 험니까?  
107068 #1 그냥 상웨떡이엔 허지.  
107068 @ 이것도 쉬 놓고 허는건가?  
107068 #1 그냥 찌영으녕에이 다라에 반죽허영 꾸여그네이 다라에 영 낱 뭇  
어그녕에 방에강 담요나 탁 덮영 놔두민 것이 보고록이 올라와계.  
107068 @ 막걸리 놓고?  
107068 #1 응. 영 허민 쑥쑥 들어가계. 딱딱헌계.  
107068 @ 이스트 같은 건 안놓고?  
107068 #2 그딴건 안놓고,  
107068 #1 소다만 호뽀 낱지.  
107068 #2 막걸리영 소다만 낱,  
107068 #1 경해영 거 또시이젠 걸 꺼내영으네 흐뽀씩 솟갈로 건들명 요디 풋쉬  
호뽀 노아. 한가운데이. 호뽀 노양 영 맨들앙 느런이 낱 놔두민 것이 오골오골 줌  
올라와 또. 우긋우긋허게허영. 그뻬 솟디 낱 찌는거. 찌민 다된거.  
107068 @ 젓가락으로 찢르지도 아녀고?

107068 #1 찢러볼건 뭐? 손가락으로 찢어보는 건 술떡 할때나.  
107068 @ 손 주먹만큼 만듭니까?  
107068 #1 더 죽게,  
107068 #2 호뭇 더 죽게. 요맨씩 맨들아 처음엔,  
107068 @ 징 만들엉, 거기에 형겔 낄앙 거기다가 툽툽 낄 찢는것과, 가마솥디?  
107068 #1 응, 응.  
107068 #2 영 불영 놔불민 빵이 불어올라오멍 불어불주게. 게난 영 사이사이 뒤  
그넝에 경 낄 찢주게.  
107068 #1 지부짱은 잘 안해게.  
107068 @ 옛날엔 밀가루가 경 이서나수과? 밀가루 어실땀 뭇로 허여, 보리?  
107068 #1 보릴 곶아. 보리 곶앙 막 체로 칭  
107068 #2 보리썰 갈아.  
107068 #1 여름제사 당허민 하영덜 그걸해. 여름제사만. 겨울제사 그런거 못해.  
107068 #2 여름제사 그런 빵을 만들앗주.  
107068 #1 밀 갈앗당으네 밀 곶앙 허민 보리떡은 맛없어. 보릴 ㄹ 곶앙 현건.  
107068 @ 밀도 가을에 나오는데 여름에 어떡해마씨? 낫당?  
107068 #2 낫당.  
107068 @ 건디 무사 겨울엔 안해신고예? 겨울에가 더 한글헐건디.  
107068 #1 한걸해도이 다른때 곤떡 세미떡 막 나오니까게. 그 여름에 그거허젠  
허민 쉬기도 허꼭게.  
107068 #2 그 빵떡을 만들젠 허민 지금은 막걸리덜이  
107068 #1 빵떡은 빨리 쉬도 안해  
107068 #2 막걸리집에 가그네 사오른 되느디, 그때는 집이서 쉰다릴 만들앙 막걸  
릴 만들앙 헛거든. 게난 그것도 복잡해. 저니까 여름엔 안해.  
107068 @ 겨울에 안해.  
107068 #2 겨울엔 안해.  
107068 #1 우리 어머니네 친정엔 여름제사가 말로 많아. 집집마다 이서 막. 우리  
어머니부떠 시작허민 막 집집마다 여름제사라.  
107068 #2 우리도 여름제사 많아.  
107068 #1 겨믄 돌아가멍 다 상웨떡이라. 상웨떡 아년 집이 없어. 다 더우니까.  
새로운거 알앗다예. 여름에가 주로 상웨떡이고, 침떡은 겨울에가 주로고,  
107068 #2 우리 씨할머니 씨하르버지 여름이난 빵떡 많이 헛주게.  
107068 #1 유월 열여드랫날 열엇셋날 옥이네 집의 제스난에 스무날은 우리 셋어  
머니로  
107068 @ 겐디 이 상웨떡 말고예, 우리할머닌 중간엔 징에다가 툽그락허게 낄  
나중엔 썸디다.  
107068 #1 건 기증편.



107068 @ 건 또 다른거?

107068 #1 기증편. 그것 ㄴ라 침떡 달든건디 것도 상웨떡 ㄴ찌 좀 영

107068 #2 부꺼

107068 #1 부꺼올라온 것이 기증편이야.

107068 @ 건 무사 따로 해신고예? 것도 상에 올립니까?

107068 #1 것도게 시루떡 대리로 허는거지. 시루떡 대리로 아래 빗해영 올리민 되지. 상웨떡 밑에.

107068 @ 맛은 똑같을거 아니? 상웨떡이나 기증편이나. 재료가 틀린가마씨?

107068 #1 재론 똑같애

107068 #2 똑같애

107068 @ 밀가루로?

107068 #1 응 밀가루로 허곡, 또 퀘우는것도 ㄴ쁜걸로 퀘우니까이

107068 #2 부꺼올라오는 것도 ㄴ쁜 재료로 다 허여

107068 @ 기증편, 요것도 여름떡예? 두 개다 하진 않겠다예, 그래도.

107068 #1 흐는 집인 흐기도 허여.

107068 #2 건 받침으로, 땅 받침으로,

107068 #1 그거 낱 빵노민 보기 좋지 알로

107068 @ 어느걸 더 많이 허는고예. 상웨떡?

107068 #1 응 상웨떡을 더 많이 해.

107068 #2 상웨떡이 더 많주게.

107068 #1 기증편 현 사름이 쪼끔 멩심헌 사람.

107068 @ 것도 어렵구나.

107068 #1 응 어려운거니까 아조 신경 써야 하지.

107069 @ 제사때에 떡의 종류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제사때허고 상례때 떡이 달릅니까?

107069 #1 똑같애

107069 @ 경해도 틀린 것이 이시믄 뭇지?

107069 #1 틀린건 제사때보단 초상때 허는건 뭇이 틀리냐면 아까 곶앗잔아, 질멧 가지여 뭇 산벵이여, 권미떡이여 그거들어가니까

107069 #2 아까 말햇잔아. 절벤 솔벤

107069 #1 아 절벤 솔벤은 세미 인절미

107069 @ 제사에도 들어가?

107069 #2 제사에도 절편은,

107069 #1 제사에도 절편 흐는 집안은 가끔 해여.

107069 #2 건디 거 제사에는 네가지만 해여. 다섯가지만. 솔벤 절벤 세미 인절미 지름떡 그거 다섯가지만

107069 @ 곤떡은 없다예.

107069 #2 아, 곤떡도 이서. 겐디 이  
107069 #1 곤떡이게 세미 인절미  
107069 #2 절벤 솔벤이 곤떡이주게. 송편은 반들 ㄴ찌 만든 떡이 송편이고 절벤은  
똥글란게 절벤이고  
107069 #1 춤 세미 인절민 ㄴ물쌀이다이.  
107069 #2 응 ㄴ물쌀로 세미 인절민 허곡 경헨 다섯가지만 제스뎨 허곡 축이 어  
스때니까  
107070 @ 겨고 상례때는 뗏가지?  
107070 #2 일곱가지.  
107070 @ 제사때 다섯가지 솔벤 절벤 세미 인절미 지름떡 중에 지름떡은 안허지  
예.  
107070 #2 것도 허여.  
107070 @ 다섯가지에 추가되는게? 권미떡허고?  
107070 #1 질멧가지허고 산병  
107070 #2 질메 산병 권미떡까지  
107070 @ 이거 세 개가 더 추가되는거예?  
107070 #1 응  
107071 @ 설기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71 #2 설기떡이 그게 하얀 솔로만 치는게 설기떡이야.  
107071 @ 혹시 나까시리 들어봤수과? 심방할 때 돌리면서 막 던지고 받고 떡점  
치는거,  
107071 #1 일부러 심방들이 시루를 놀리젠 찍어드랜 허영 심방 혈때마다 허질  
아녀고 헌집만 허여. 그 시를 올리는게. 보통으로는 못해. 심방이 해난 사람이 허지  
영 올랑 탁 받고 영 올령 받는거 잘도 힘들고이 이거 맞지 아니허믄 아래 떨어지믄  
안돼. 손에서만 놀아야 돼. 게난 해난 심방이 그 시루를 올리켤 허여.  
107071 #2 그것도 신에 따라,  
107071 #1 흔말에 반. 반허는 시루가 이서. 그런 시루로 허주 흔말 허지 못해 무  
거완. 못올려. 걸로 우리 셋어머니네이 지운이오빠 혈 때 그 시를 올리더라. 절대  
안떨어져. 경헨 그 시루를 잘 올리는 좋댕허곡 어찌당 떨어지믄 막 안중댄. 안중댄  
해 아래 떨어지믄,  
107071 @ 점치믄 가리착 뉘씩 이런것도 잘나와야 된댄. 게난 그 고망 터진 덴  
뗏군덴 인정걸어야 뉘곡 경헨디다예.  
107071 #2 멩두를 노면은 그게  
107071 #1 멩두엔 행 칼 닳은거주게이. 요딘 칼이고 요딘 등어리라이. 게믄 이거  
칼 닳은게 두 개라이. 칼이 영 뉘믄 안중고  
107071 @ 마주보면 안중고,  
107071 #1 영 포개여그네 영 되면 좋아. 한밧디레 가민

107071 #2 날이 혼군데로만 누민 좋곡, 이렇게 누민 안좋은. 경행 멩두 낡 산 노는거 보멍 인정거는 거주게.

107071 #1 인정겁서 인정겁서 행 낯당 안되민 또 걸민 또 주민 고맙습니다 심방이 고맙습니다 허멍 절해.

107071 @ 나까시리 하고 관계 어시 보통때 설기떡은 언제 헉니까? 제사?

107071 #2 설기떡은 소상때,

107071 @ 애기 돌?

107071 #2 돌에는,

107071 #1 돌에 시루떡 허는 집...사당덜... 옛날엔 해낯지. 시루떡 행덜 먹엇지.

107071 @ 설기떡은 언제 허는고예?

107071 #1 설기떡이랜 허는 것이 흰것만 허는게 설기떡이라이.

107071 #2 백시리 완전히 흰것만 행 백시리

107071 @ 그건 언제 헉니까?

107071 #1 아기 돌때도 행 먹고이 어떤때는 옛날더랜 집의 앗앙 놀때는이 심심 허민 쓸덜 모영으네 그 떡행 먹을 때도 이서. 시루 혼시루 행 앗다낡 비영. 그냥 이디덜만. 옛날엔 먹을게 없잔아. 돈정 살 것도 엇고허난

107071 #2 그날 백시리 행 먹어샤. 좁쌀시리 행 먹엇주.

107071 @ 맞아 좁쌀시리. 게문 옛날에 나까시리 허는 것도 좁쌀로 해신가예?

107071 #1 좁쌀로 헉거갈애. 게난 걸 시루차 허니간게. 시루 영 떨어지믄 시루 딱 깨어져부러.

107071 #2 거 흰쌀로 허주게 경 좁쌀로 해시냐?

107071 #1 소곱에 허는건 물론디 난 올리는 것만 봐신디 알더레 안떨어지드라구.

107071 #2 거 흰쌀 흰쌀. 좁쌀 아니라 거 백시리라.

107071 #1 순금이그 때 굿당해신디 순금이 빙춘이랜 현 심방이신디 막 체격도 조코 현 사름이 걸 올려.

107071 @ 백시리도 설기떡에 들어가는것과?

107071 #1 백시리가 설기떡,

107071 #2 응 백시리가 설기떡,

107071 @ 굿혈 때 주로 췌던게 설기떡? 그 의미는 뭐랜 생각햐수과? 무사 풋 안 들어가고 깨끗허게 해신고예?

107071 #1 그 심방들은 풋을 안씨.

107071 #2 쉬를 안췌주게.

107071 #1 풋 안낡 영영 동글락헌 곤떡, 그걸 다테엔 헤이, 다테떡도 그냥 곤쌀로만도 허고 고구마 삶안도 허고

107071 @ 다테떡은 언제 쓰는거마씨?

107071 #1 심방. 또 우리 본향갈 때. 본향에 당에 갈때도 그떡행 아정가.

107071 @ ㅁ멸쌀

107071 #1 ㅁ뭇썰 떡도 행가고 근썰로 다데떡  
107071 #2 그때는 쌀이 귀했기 때문에  
107071 @ 어떤모양이우파 다데떡은,  
107071 #2 똥그랗게만 해영 만들어.  
107071 #1 영영 해냥 영영영영 달화가든 똥글락 되어.  
107071 @ 곤떡 비슷허여? 뭐 안놓고?  
107071 #2 뭐 안놓고  
107071 #1 동글랑 곤떡보다 크지.  
107071 @ 그든 나가 말헌 돌래떡인디  
107071 #2 돌래떡보단 죽고,  
107071 @ 그계 요즘 먹는 돌래떡이런 험니다계.  
107071 #2 응 돌래떡이엔 험실거라.  
107071 #1 다데떡이엔 안행이.  
107071 @ 손바닥만이헌거예. 심심해여. 아기덜은 안먹어  
107071 #1 심심해여  
107071 #2 맛좋아 그계.  
107072 @ 인절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72 #2 인절미는  
107072 @ 뭇썰?  
107072 #1 아니 ㅁ뭇썰로 대개 해여.  
107072 #2 ㅁ뭇썰 허주계. 쌀이 귀허기 때문에,  
107072 #1 반죽해여그네이 안반 우에 노양 또 절긱대가 이서. 영영 허는거  
107072 #2 밀대  
107072 #1 경행 은절미마니 두껍게 허민 칼로 여피꺼 해동 칼로 찐라.  
107072 #2 사각나게.  
107072 @ 정사각형으로 네귀반듯허계?  
107072 #2 응 네귀반듯,  
107072 @ 크기는 손바닥만허계,  
107072 #2 응 손바닥만이, 나 손바닥만이  
107072 @ 봐난거 닳아. 멍질에 가든 꼭 그거 이시든 난 맛 어서.  
107072 #2 그거 인절미  
107072 @ 밀가루로 된건 맛있는데 ㅁ뭇로 된건 안내려가. 근디 지금 생각헿 보  
민 그계 쥬 비싼거.  
107072 #1 비싼거지.  
107072 #2 지금 막 비싼거주계. 지금은 썰보단 더 비싼거,  
107072 #1 ㅁ뭇이 쥬 비싼거여 이젠,  
107072 @ 그계 인절미였구나예. 우리가 요즘 말하는 인절미는 찹쌀인절미 콩가

루에 문형 먹는건디 전혀 다른 거우다예

107072 #1 전혀 다르지. 질이 다른거라.

107072 @ 그믐 인절미 자체는 정사각형만 이수과?

107072 #2 응 정사각형만,

107072 @ 그 반달로 된건?

107072 #2 세미.

107072 #1 반달된 거는 솔벤도 잊지.

107072 #2 솔벤도 반달

107072 #1 솔벤도 반달이고이, 너귀반듯하게 딱 오령 줍으민 세미떡이라이. 막 니게방장허영

107072 #2 니게방장허냐게 동그랑허게 허영 줍아야 세미떡이지게.

107072 #1 흠 무시걸로 떳구나이. 사발로 땡, 영 밀영

107072 #2 밀영으녕에 딱 이거라이. 이 둘레 ,

107072 @ 세미하고 솔벤만 구별해 줘서. 똑 ㄱ튼 ㅁ떨인디?

107072 #1 세미는 이런거 영 행 나오민 줍으는거.

107072 @ 해그네 납작허게 해영,

107072 #2 응 납작허게 해그네 이런 걸로 꼭끼 눌렁 떠. 게믄 동글랏게 나오잔 야. 게믄 이젠 쉬, 가운데 쪼끔 놔그네 영 줍아그녕에 그게 세미주게.

107072 #1 게믄 반돌이주게.

107072 @ 솔변은?

107072 #2 솔변은 하얀 쓸가를 행으네 반죽해그녕에 것도 영 밀대로 막 밀영 밀 만큼 밀어지면은 옛날에 그 분이 잇더라고 본, 영 췌로 만든,

107072 @ 똥글락헌거?

107072 #1 아니 솔벤 분이 있어. 솔벤만 뜨는 본

107072 #2 똥글락헌건 아니고. 그 본으로 뚝뚝 눌러본 반달모양으로 딱딱 찍영 나와. 솔변은,

107072 @ 그믐 쉬 안노는게 솔변?

107072 #2 응 건 쉬 안놔.

107072 @ 건 안봐봐수다. 그믐 인절미랑 솔변이랑 맛이 비슷허켜예.

107072 #1 비슷허지. 쉬 안노난,

107072 @ 쉬 안놓곡 ㅁ떨로 만들앙 그냥 드리척 솔망?

107072 #1 아니 솔변은 ㅁ떨로 안해

107072 #2 솔변 쌀ㄱ를로,

107072 #1 꼭 쓸로만 해

107072 @ 무산고예.

107072 #2 솔변 절변은 꼭 쓸ㄱ를

107072 #1 세미 인절미 두 개만 ㅁ물로 하여

107072 @ 절편은 또 어떤 모양이파? 네모?

107072 #2 절편이엔 헌건 똥글랑 곤떡

107072 @ 돌래떡 닳은거?

107072 #2 응 돌래떡 닳은거.

107072 #1 죽아. 죽게 해.

107072 @ 비슷하면서도 뭔가 다 다르고 의미가 잇네예.

107072 #2 계란 아매도 옛날도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라가지 모양 내면서 떡을 멘든거라.

107072 @ 어디 책 보난 별모양 달모양 우주 만물을 다 넣어십디다. 겨고 계란 고사리 지진거 뭇과? 들어봐수과?

107072 #1 계란전.

107072 #2 계란전이엔 해그닝에. 우린 그냥허는디 우리 죽은뜰넨 고침인디 꼭 고사릴 올령 헌덴. 고사리 세 개. 하나에 세 개씩. 고사리도 크고 죽고허난 딱딱 짬짬, 곱게. 계란전 하나에 고사리 세클 논덴. 놔그네 뒤집어.

107072 @ 그거는 쥬 우에 놓지예? 무사 우에 놓는지 알압수과?

107072 #2 몰르크라 것도. 의미가 이실건디. 쥬 우의 올라가주기.

107072 #1 맛도 좋곡 보기도 좋곡 허난 우의 놓지.

107072 @ 한림에서는에 거 포따리렌. 귀신포따리,

107072 #2 게매 귀신포따리엔 허주기. 그것에 쌍간덴 행으네

107072 #1 아, 포따리

107072 #2 포따리렌 행으네 저 고침의 그런거 잘허여. 우리 죽은뜰네가 고침인디. 꼭 그걸 해여.

107072 #1 죽은뜰네 고침의? 우리 현숙이도 고침의

107072 @ 들어봤엇구나예. 솔벤 절벤에 대해서 오늘은 알게 땃다예.

107075 @ 웃기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웃기떡, 기름떡, 별떡,

107075 #1 웃기떡이 뭐야?

107075 @ 우에 노난 웃기떡인생이우다. 지름떡, 그걸 요기서는 지름떡이엔 험니까?

107075 #2 응.

107075 @ 그거를 별떡이엔은 안해봤고예?

107075 #1 벨떡도 이서이?

107075 #2 별떡은 별ㄱ치 만들영 판으로 떠그네

107075 @ 그게 지름떡 아니파?

107075 #2 것도 지름떡.

107075 #1 그게 지름떡이다이.

107075 @ 그 지름떡은 어떻 뭇로 합니까?

107075 #2 것도 쌀로. 입쌀로.

107075 @ 요즘은 찹쌀로 행 먹어부러들

107075 #2 입쌀로. 입쌀가루.

107075 @ 옛날은 멥쌀로예. 입쌀

107075 #2 거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우리 커울땐 이 그 만들기 있잔아. 만드레기 빨정게 꽃 피영 물들어곡

107075 @ 맨드라미를 만들기랜 햄신가?

107075 #2 응 그거 뜯어그넵에 물 짜그넵에 지름떡에 반죽에 낱 찌그넵에 빨강 케 경 곱게 허드라고.

107075 @ 전라도도 경헛댄 헛니다 우리 씨어머니네.

107075 #1 그건 아니 봐반.

107075 #2 경허민 그 빨강허면은 막 보기도 좋곡 먹고 싶어그넵에 우리 해난 생 각이 나. 거 만드레기 꽃

107075 #1 그 꽃이 어딿나게.

107075 @ 여름에는 이수게.

107075 #2 여름에 가끔 보민 어디 이서.

107075 #1 집집마다 엇지게.

107075 #2 땡기당 보민 가끔 보여.

107075 @ 자꾸 어머니가 경 허는거 봐수과?

107075 #2 응 어린때니까 어떻게 만드는건 모르고,

107075 #1 야네 어머니가 특별히 좀 자상헌 어머니라서. 자상해여 땡 어른보단.

107075 #2 자상허곡 못허는게 어서 떡에 대해선.

107075 #1 사름 몸을 아니아껴그네. 곱게 만들젠허곡 맛있게 만들젠 허는건 야네 어머니라.

107075 #2 우리 큰어머니도 송편을 잘 못허여이. 셋어머니도 몸애경 뭐 굿은일 허지 안허쟁 허곡 우리 큰어머니 더 몸 애경 무시거 굿인 일 허쟁도 안허곡 떡도 송편도 맹글른 둥그락둥그락 허곡허여이 게문

107075 #1 숨씨가 어시난 거지.

107075 @ 그문 절변을 밀에 눕니까 술변을 밀에 눕니까? 그 놓는 차례차례

107075 #1 시루떡부떠 쥘 모녀 아래.

107075 #2 시루떡 밀에 놔낱 그다음엔

107075 #1 절벤. 믱떡 아래 노네

107075 #2 응 믱떡 아래 노난에 인절미 갈아놔그넵에 그다음에 세미. 몰라 집 집마다 것도 틀릴걸. 난 우리 양침인 나가 주장행 허기 때문에

107075 #1 요디 은절미 놓곡 요디 술벤놓곡 영 돌아가잔아. 요딜랑 세미놔. 경허 른 쪽쪽 우터레 올라가지. 돌아가명

107075 #2 세미 인절미 모녀 갈아놓고 그다음에 술변 반달곤떡 갈아놓고 그다음엔 퉁글랑 곤떡 갈아놓고 그다음엔 츠레츠레로 지름떡 갈아놓고 그다음에 이젠 권

미떡하고 산병하고 쉼질멧가지엔 헌건 쉼 우에 놔.

107075 @ 떡도 죽고?

107075 #1 우린 산병이 질 우의 놔. 그거 보기 좋잔아. 산병사게 대소상 할때만 허난게.

107075 @ 그 별떡 만드는 본 누게가 만들어주고 헌건 기억 남수과? 집의 이섯이예?

107075 #1 대개 이서고. 지름떡 본이엔 헌거.

107075 @ 해봐수과?

107075 #1 허지게. 본으로 딱 뜨민 쉬와게.

107075 @ 그거 반죽할 때는 따른 떡하고 다릅니까?

107075 #1 아니 똑같은 걸로. 영영 밀어노양,

107075 #2 뜨는거니까 쉬와 거

107075 #1 술벤도 뜨꼭 절벤도 뜨꼭 지름떡도 뜨꼭 허는 거 이신디 우리셋어멍네 집의

107075 #2 응 식가지 본 이. 쟁 흥케미에 무쎁 돌아댕겨나신디 어디사 가부러신 지원.

107075 #1 우린 셋어멍네 집의로 빙빙 돌앙. 경허곡 셋어머니 떡 허레 올땐 그거 가정 와. 가정왕 해낭 또 해나쁜 가정가곡 당신네 꺼난.

107075 #2 우리 양칩인

107075 #1 건 집집마다 경 허진 안허곡.

107075 #2 흥방상에 흥집이만 이서. 게쁜 그 방상에 친척집인 다 돌아가멍 쓰주게

107075 #1 돌아가멍 떡도 허곡 허니까. 흥 때 가정강 써낭 가정오곡

107076 @ 고사나 당에 가지고 가는 떡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사나 당에 가지고 가는 떡중에 다데떡 말곤 어서수과?

107076 #1 할당당에 갈 때 가져가는 떡은 손으로 만들앙 가져가.

107076 @ 것이 돌래떡 아니?

107076 #2 다데떡 배끼 엇어. 그거 흥가지배끼 엇어.

107076 #1 호뎀 낫게해영 아이덜 흥나썩 먹게도 허곡게. 난 그냥 손이로 만들앙가.

107076 #2 다 손으로 만들메

107076 @ 뎀쌀예

107076 #1 응 뎀쌀로

107076 @ 뎀뎀? 한뎀?

107076 #2 한뎀은 되주게.

107076 #1 한뎀 다 안해도 되고이. 흥뎀민 실컨 해. 즐게 허는거난.

107076 @ 떡은 그거예? 처음엔 믈로도 허고?



107076 #1 응 믫물도 허고 입쌀도 허고,

107076 @ 좁쌀이나 보리나 이런걸론 안해보고예.

107076 #1 아 걸론 안해봐서. 허지도 못허여.

107077 @ 굻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굻떡에는 다데떡하고 백시리하고? 그런거 들어봤수과? 오메기떡 달믈거 고리동반떡이랜 해그네 일곱방울 고망 똥렁 전상떡이랜 행으네

107077 #1 것도 이 굻허는 집이는 햄실거라. 난 그런떡 안해반.

107077 #2 헛거 못봐반. 고단이 따랑 그런거 허는디가 이서실거라.

107077 @ 빵 사당 올리곡 허지 안헛니까?

107077 #1 빵은 허지도 안허고 다데떡 호끔 여유있게 헛당으네 굻 구경허레 친척덜 오민 입 다시랜 영 사라에 떡 땃개씩 낳으네 하나씩 먹읍서 허민 쟈 높은 두개떡고 뜬 높은 헛나떡고 경 막 차근차근 주지안허여. 거 다해나민 떡이 많주게이. 오래오래 앗앙 아이강 이시민 다해낭 설르민 마이 주지. 배불도록 먹지. 가정도 가랜 주고

107078 @ 이외에 어떤 떡들이 있었고, 언제 떡을 해먹엇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썩버무리 썩떡 개떡 뭐 이런거 제사상엔 안나와도

107078 #2 봄나민 썩 캐당 썩버무린 주로 해먹주게.

107078 #1 썩버무리 헛기전에 연날에 우리 쫄 모연게. 헛똥씩 가져오라 허여. 게민 그냥 똥로 안헛 사발로 떠그네 가져가민 그거 여랏이 열사람이 열 개 아져간거 다 물 담갓당 남방에에 낳 광광 쟈. 아이구 나 그거 허젠 허난 얼떡언이.

107078 #2 친구덜이 겨울에 놀멍 심심허면은 우리모듬이 그것ㄴ라 모듬이엔 허주게이 모듬떡 해먹게이 행으네

107078 @ 아 모듬떡,

107078 #2 응 모듬떡이엔 허주게 모다서 모영 허난 게그넝에 허연 먹어난 말이 주게. 난 모듬도 아니해봐서.

107078 #1 아이구 순만이 각시 오라리사람이난이 어디 그러코 춤 띠디는 쫄만가져강 정순이집인 할머니 착허난 쫄 아져가민 다 해주는디 낭도 가져오랜 해 지들낭 헛가지씩 가정오랜 순만이각시 아이구 그 낭 아져온디가 없어 그디배끼. 게민 이 옥이영 열이영 낭 서의가 문딱 헛가지씩 아지고 어멍 집의들리민 혼나 낭 아져감덴.

107078 #2 그렇지

107078 #1 어디 낭 아져감덴. 쫄 몰래 곱젓다그네. 것도 어머니 알게사 쥐? 몰래 곱젓당... 아이구 그 예헛 생각허민.

### 소와 고물

107079 @ 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떡 속에 놓는 쉬. 풋 깨 완두콩 설탕 뭐 이런거.

107079 #2 옛날엔 설탕도 없었고 완두콩도 없었고.  
107079 #1 팻콩? 팻콩이나 거 했지. 옛날에 강낭콩 어디 허는디도 잇어신디.  
107079 @ 팻하고 깨?  
107079 #1 깨도 쪼끔씩 허는거. 주로 팻이야 팻  
107079 @ 무? 콩주름?  
107079 #1 그거는 빙떡에 이  
107079 @ 빙떡에는 콩주름도 들어갔다  
107079 #1 응 콩주름에 무에 서텨  
107079 @ 만두는 어섯수과?  
107079 #2 만두도 해먹을층 몰르고  
107079 #1 몰라몰라  
107079 @ 신촌쪽엔 잇더라고예.  
107079 #2 우리 어릴때는 만두가 뭇줄도 몰라  
107079 @ 주로 쓰는 거는 팻  
107079 #2 쥘 쓰는 게 팻이 많이 썰지.  
107079 #1 팻이 많이 썰주. 녹두도  
107079 @ 고구마도 안놓고 밤도 안놓고  
107079 #1 녹두도 맛잇는건디 양이 적게 나오니까이 경 많이 허질 안해여  
107079 #2 많이 생산덜 안허기 때문에  
107080 @ 그른 이번엔예 떡을 입혀서 먹는 거 육지ㄴ튼 경우는 콩ㄴ루에 뭇형떡  
엇잔아예. 제주도에서는 그런거 뭇형 먹어난 것이  
107080 #1 뭇 뭇허먹어난 건 이 차조 차좁쌀 해연 오메기떡 해여그네 이거 무청  
떡어. 속에 뭇 감제도 안허고 오메기  
107080 @ 뭇 무쳐 마씨? 꿀 아니든 옛?  
107080 #2 팻  
107080 #1 팻이 아니고 콩개역ㄴ를. 콩 보깡 ㄴ를 헨거.  
107080 @ 오메기떡을  
107080 #1 오메기떡을 그것에 무청먹어  
107080 @ 콩ㄴ루. 정말 경행 먹어난마씨?  
107080 #1 응 콩 보끈 콩개역이엔 허여. 콩개역.  
107080 #2 콩가루  
107080 #1 영행 등그렁 먹으면 코씨 헨게 맛잇주게  
107080 @ 노랑허잔아예. 크기는 어느정도 헨마씨?  
107080 #1 크기는 요만씩 허여 요만씩  
107080 #2 요만씩 허주기  
107080 @ 그건 술만드는 것과 먹는 것과?  
107080 #1 아니아니 먹젠 허는거.

107080 @ 고맙습니다?

107080 #1 아니야니

107080 #2 그건 일부러 먹젠 짜끔씩 만들어그네

107080 #1 모두미 ㄹ치 행 먹는거. 모두미지. 계난 기냥 이녁 식구끼리

107080 @ 꿀이라도 찍영 먹으면 완전 맛 좋겠다예

107080 #1 맛있인디 꿀이 그때 이서?

107080 #2 꿀이 얼마나 어려웠다고. 개방이네배끼 잊어실거라 노형에 이.

107081 @ 떡에 얹힌 속담이나 금기사항 . 떡치는디 어지르지 말라

107081 #1 시루떡 헐 때. 어떻허당 아이 시루떡 앓정 확 들어왕 말글아부러도이 막 영해여 오지말랜. 시루 앓진팬. 그 시루 하루종일 허주게. 큰일헐 때

107081 #2 시루떡을 그 솟대다 앓당 올려봐그네 돌아가명 다 트멍 막으면 한참 때면은 짐이 올라오잔아. 짐이 올라오기 전에는 일절 판사람 그 앞에 부엌에 나타 나지 못해여

107081 #1 흥는이만 흥는사람만

107081 #2 그 짐을 올라온 다음엔 들어가도 되는데 짐올라오기 전엔 일절 완전 히 통행금지 시겨부러. 겐디 짐 올라오기 전에 어디 먼디 살다가 앓다 허면은 그 사람 오면서 내창을 건너온 사름이라이, 그 사름이 와그네 그디 멩것다 허믄 시루 떡이 그냥 그디 돌아가명

107081 #1 아무리 썬도 안익어 그 떡은

107081 #2 막은거를 팍 팍팍팍 짐으로 차댕겨부러그네 막을수가 없어. 게믄 경 떡을 익질 안해여.

107081 #1 계난 그 시린 판 쳐부는거지.

107081 #2 짐이 우터레 수직으로 올라와야 떡이 익을건디 경허다보면은 짐이 바 잣더레 다 뺄어나가불기 때문에 떡이 익지를 아녀.

107081 @ 그런 경험이 이서마씨?

107081 #2 계난 완전히 시루떡 할때는 정성들영 해야 되주 부정헌 사름도 못들 어가고

107081 #1 나도 그거 허여그네 물론것도 봐서. 헤싼. 안되면. 헤싸부린

107081 #2 그거 익질 안해여그네 완전히 판쳐부러. 해볼게 잊어, 먹어볼게 잊어. 거난 ㄹ들은 그냥 그대로 이션.

107081 #1 게믄 그냥 영영도 먹영 치와불곡. 경 다음 시리부턴 막 조심허영으네 부엌에 가지말라 부엌에 가지말라 막 어른덜이 해.

107081 @ 다데떡이나 이런거 먼저 하나 먹어볼거나 허믄 안됩니까? 일허당 막 판난건 먹을수도 잊지예. 어린아이들은

107081 #1 지일 먼저 헌걸로이 쓸거 싹 가져볼민 허멍 먹어.

107081 @ 아이덜도 주고마썸?

107081 #1 아이덜도 주곡

## 별식

107082 @ 순대, 수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어떤 과정에서 만들고 이 수애는 주로 어떤 때 만들었수과

107082 #2 잔치때 초상, 대상에 허고 고기에 셔터떡젠게.

107082 #1 고기 혼모리에 순대 혼점은 똑 들어가니까이.

107082 #2 반마다. 꼭 순댄 해야돼

107082 @ 도세기 멧무리 잡습니까 보통?

107082 #2 옛날은 보통 혼무리 잡앙 했주게.

107082 #1 혼무리로 삼일 못해

107082 @ 아덜푼는 사람이 잡습니까 딸푼는 어멍네가 잡습니까.

107082 #2 둘다 잡아야주게

107082 #1 다 지네 잔치허니까.

107082 @ 암컷 수컷 다

107082 #2 다 수커

107082 #1 두 무리 허는디도 있주게. 우리도 그때 권난이 헐 때 두무리 잡안

107082 @ 그거 창진 다 수애 답을 거 아니예?

107082 #2 응 다 답을거.

107082 @ 그거 대창 소창 다?

107082 #1 대창은 내불고 소창만. 대창은 넓으니까 안되지. 슬망 먹어부러.

107082 #2 썰어봐그네게 그레 무치덜

107082 #1 경헌디 그 대창고기가 참 맛있어.

107082 @ 여기에는 뭘뽀 들어갑니까? 허는거 봐봍디가?

107082 #1 순대엔 잘 봐야웨 양념을 이. 무를을 보리로 무는데 브리무를을 흑게 곱아 즈질게 곱지 마랑. 쪼끔 흑게 곱양으네 딱 배합허영 무물무를도 호뽀 들어가 고 찰무를도 호뽀 들어강 허는디 그디 양념을 다해. 마늘 썬마늘도 다정 그리행 놓곡

107082 #2 마늘 다지믄 많이 들어가

107082 #1 썬마늘도

107082 @ 옛날에도 봐수가?

107082 #1 응 다 노양 해사 반찬이난게이 순대는. 경행 막 무락무락 셔꺼그네이

107082 @ 찰, 밥 슬믄것도 놓고?

107082 #2 밥행 놓아

107082 #1 밥도 놓고

107082 @ 파 그런건 안놓고?

107082 #1 파도 놓아.

107082 #2 경해야 맛있지

107082 #1 알로 다 줄라맹 놔둬. 한쪽으론 창자를 줄라매든 올론

## 기타

107092 @ 이외에 이 마을에서 해 먹었던 음식이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반추, 건 어떤것짜?

107092 #1 반추, 우리도 거 집이 갈양 알로 비영그네 거죽 막 벗겨뒀 이렇게 이렇게 썰면은이 뿌직뿌직 부터이 막 우리집이 이서난 큰어멍 셋어멍네 집이 다 심연.

107092 #2 옛날어른들은 심어듬서

107092 #1 심으민 새끼 창 막 나와. 발벌영

107092 #2 경해그네 비영으네 경 해떡드라.

107092 #1 야이 이제 철주네 집이 이서.

107092 @ 어떻게 장아짚?

107092 #1 그걸이 비영 겁데길 멧번 막 베끼멍 영 썰어냥 일로 자꾸 요만씩 떼어내야지. 먹을만씩 경행,

107092 #2 영 짤라내민 떼어져

107092 @ 어떤 모양마씨? 파인애플 같은 거?

107092 #2 그 파인애플 나무 똑 닮아. 반추엔 헛게

107092 #1 썩이 이렇게 막 널브게 뻗어 이마니, 반추썩이 파인애플썩보다 크지 막 크지

107092 #2 그 저 파인애플 나무 닮아.

107092 #1 반추썩이 파인애플썩보다 더 크지 막 크지

107092 #2 짤라노민 꺾데기 베경뒀 속엿건만 허민 그

107092 #1 우리 어릴땐 걸렁으네이 우산허켄 허멍 들렁도 다녀나서.

107092 #2 파인애플나무 비슷합니다.

107092 @ 이파리도 해마씨?

107092 #1 이파린 버려두고 몸똥아리,

107092 #2 파인애플

107092 @ 양젯간같이

107092 #1 양젯간 아니고 바로 나무ㄴ치웬건디

107092 @ 대나무에 죽순

107092 #1 죽순 이렇게 굵더레 가민 발로 새끼차멍 이꺼장 뿔어정 나와

107092 #2 새끼차멍 나오는데 꺾데기 모양이 다 떼져

107092 @ 옥수수처럼?

107092 #1 옥수수처럼 아니고

107092 #2 옥수수처럼 아니고 착착허게 꺾데기가 저절로 들막들막 이 들러지멍 떼민 떼어져. 다 베껴 꺾데기 기러기 반착만큼씩 잘라. 쟁으네 그 한 개씩 떼어지

잖아.

107092 #1 야 혼번 월랑마계당 갈 때 뵈와주께

107092 #2 지금도 이서

107092 #1 응. 이서.

107092 #2 누게네 집이?

107092 #1 철주네 집이 철주어멍네집이 어떻 행 막 하난 비영 데껴불ㄴ렌,

107092 @ 뗏개를 해서 뭐 저 간장에 담가?

107092 #1 그거 흥나해도 막 하 잘도 하.

107092 #2 그 저 여러갑이니까. 막 두꺼와.

107092 @ 늘 내내 먹어마씨?

107092 #1 그지. 늘 내내 먹고 말고 그거 그 이제는 먹을 꺼 하노난 그디 우리  
아신 너르난 관상으로 아땅 심언게 관상으로,

107092 @ 그 다음 또 여기서 별미로 해 먹엇던 거 잊수과??

107092 #2 진 그자 양얏간지하고 그거하고 마놓지.

107092 #1 그것도이 건 집집마다 없어.

107092 #2 그건 집집마다 없어.

107092 @ 깻잎같은 거 유잎같은 경우는 그 저 열매도 허고예?

107092 #1 응. 쫄은 임시 쫄도 당강 먹지. 연현 때이.

107092 #2 유도 열매 열면은,

107092 #1 쫄파리도 먹어. 열기 전에,

107092 @ 이파리를 쫄파리 헉니까?

107092 #1 쫄파리엔 해. 이파리엔 허고 옛날엔 쫄파리엔 헉지이. 대개이,

107092 @ 상추 그런것도 이섯고예?

107092 #1 상추도 상추엔 안행으네 부루엔 해여.

107092 #2 부루, 일본말인거 같애.

107092 #1 우리말은 부루야 부루,

107092 #2 상추엔 안행 부루엔 해낫주게.

107092 #1 “부루 톨양오라” 해 어머니덜이 우영에 강, 상추 해오렌 벨로 안해.

107092 #2 상추엔 현 건 표준말이고

## 8. 주생활

### 구조

108001 @ 이젠 집이우다. 집을 지엇던 경험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자가  
집 짓진 안치예?

108001 #2 여자가 집 짓진 안치게.

108001 #1 어머니가 집 지성 사는 것만 봤지.

108002 @ 집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초가, 기와, 흙, 돌 등)

108002 #1 초가집,

108002 #2 기와집,

108002 #1 쓰레트집,

108002 #2 쓰레트집도 중간에 나왔주게. 4·3사건 현 후에,

108002 #1 그 초가집이 흑집이지.

108002 #2 옛날엔 기와집허고 초가집배끼 없엇고, 쓰레트집은 이 4·3 후에 아주 후에야.

108002 #1 초가집만 흑집이고이. 쓰레트집허고 기와집은 다 세멘으로 해. 흑으로 안해. 기와집광이 쓰레트집은 세멘, 돌도 영 막 모나게 돌맹이가이 사모 나게 영 막 곱게 헤영으네 딱딱 맞게 놔. 초가집은 그냥 돌 아저당으네 흑 노명 허는데이.

108003 @ 집채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안거리/박거리/모커리 등)

108003 #2 응. 것배끼 엇지이.

108003 #1 것배끼 엇지이. 모로 아진건 모커리허곡게. 바로 아진건 바꺼래엔 허지.

108003 @ 바로 아진 건?

108003 #2 바로 영 마주 안진 거.

108003 #1 바로 이렇게, 일로 아지민 쉼막은 또 아질띠 어시민 일로 안자이. 쉼막은 계민 건 모커리라.

108003 #2 영 마주 안지민 안꺼래 바꺼래, 큰 건 안꺼래, 작은 건 바꺼래, 모치기로 지시민 모커리

108003 #1 아맹해도이 죽고 크고 남쪽에 안즌 건 안꺼래라. 남쪽으로, 북쪽은 바꺼래라이. 북쪽이 흔계단 내려.

108003 #2 안꺼래, 바꺼래, 모커래,

108004 @ 삼칸집 짓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구체적으로)

108004 #1 삼칸집은이 스칸집 스칸은 어떻행 스칸이나 허민 이간은 두 개라.스칸 삼칸 이간 안에 벌른 걸로,

108004 @ 방이 몇개짜? 삼칸집은

108004 #2 삼칸집은 방이 세 개.

108004 #1 스칸집은 네 개. 스칸집은 계난 이 마당더래 문이 네 개라이. 구들 두 개, 마루, 부엌 경허민 네 개.

108004 #2 옛날에 잘 살암젠 현 집이나 짓엇주게.

108004 #1 문부장네 스칸집이야. 부제난

108004 @ 삼칸집은 뭐가 잇수과? 구들

108004 #1 구들 두 개, 마당더래 문이 세 개라. 구들문, 마리문, 부엌문, 경헨 세

개.

108004 @ 뒷문도 잇수과?

108004 #1 뒷문은 말을 안해. 앞문으로만. 뒷문 딱라가니까.

108004 #2 뒷문은 2개.

108004 #1 그디 스간집 짓었다. 벙일이 그 집이 흐나

108005 @ 주춧돌, 기둥, 보, 도리, 서까래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8005 #1 그게 주춧돌도 영 스칸으로 허면은 방을 두 개씩 허민 방 흐나에 주춧돌이 네 개라. 기둥을 세왕 위로 해영 불라. 방 흐나에 네 개라이. 네 군대 주치 네 개해영 방 흐나에 주치 너개민 주치 4간이민 멧개라이? 그거 계산허민 웨어. 사 사 십육,

108005 @ 기둥은 보, 도리, 서까래?

108005 #1 응. 기둥도 그 주치에 따라, 주치에 다 딱른 거. 주치에 딱 세우니까 이 아래 썩으카부덴, 돌 주치에 바치는 거

108005 #2 지둥이 주춧돌에 따르는게 아니고 지둥에 주춧돌이 따랐주게.

108005 #1 게메 건 주치에 딸르나 경허곡 옆으로도 더 잇더라이.

108005 #2 옆으로도 네 개 주춧돌이 이서야주게. 압이 현관문 압이 딱시 지둥, 주춧돌이 막 여라개라.

108005 #1 게매. 주춧돌이 십육이 넘음직흐다.

108005 #2 넘어.

108005 #1 구들 바끄로 고평도 이시난 고평쪽으로도 바깥딜로 기둥을 세와야 축을 싸지.

108005 #2 그렇지.

108005 #1 경허난이 주요 이십개도 넘음직 흐다. 영 생각흐난,

108005 #2 스무겐 웹직 현게.

108005 #1 주춧돌이,

108005 #2 압이 지둥에 큰 주춧돌이 들어가네.

108005 #1 그 큰 집은이 그 밖에 기둥을 행 발로 뽕양 기둥 돌멍 막 놀아난 거 이서. 기둥으로 뽕양 아이덜.

108006 @ 외, 산자, 인방, 반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8006 #1 아 그거는 그 기둥광 기둥사이에 토기엔 해여. 토기, 대나무해영으네 영영영영해영 우이로 먼저 해 놓고, 가로 영 해영. 썩끼 꼬양 썩끼로 얼거.

108006 #2 산네끼로 얼거.

108006 #1 얼거냥 흑 뽕양 흑에도이 보릿집 딱딱 찍영 그레 냥 뽕야. 나테로 짤라 냥, 그레 냥 뽕야. 진거니까게.

108006 #2 쟁 안허민 너무 질기 때문에게.

108006 #1 그 집 남자나 허주 여자는 못해.

108006 @ 산네끼로 얼컹?



108006 #1 응. 손네끼로 혈뎨 둘이 허드라이. 마주 산이 영 그레 디밀민 또 저  
 기서 이레 영 디물아줘. 양쪽으로 사, 토기 얼글 때, 혼사람만 허지 못해.

108006 #2 에 흥나만도 해져.

108006 #1 일로 영 이레 톨명, 다 둘이만 허드라 둘이 상.

108006 #2 아이고 혼차 나만 텅겨낫져게.

108006 #1 짓놉빌영 혈때 우리도 우리 아버지 놉 빌영허난 닥 둘이 상 남자 아  
 장허당 둘이 상 토기 엷을 때

108006 @ 흥도 밟고예.

108006 #2 요구냥으로 굽텅어리 디물림 요짜으로 강 요짜 고평으로 손까락 디밀  
 야그네 끄내영 허고

108006 @ 게난 힘들주게예

108006 #1 영 디밀양 빠내는것보단 울로 영 디물아주민 좋지. 바당으네 디물아주  
 고, 일로 또 반양으네 드물아주고

108006 #2 옛날 저 양석집 짓일 때 나혼자만 굽텅치기 다 이어줘신디.

108006 #1 게난 혼자만 사름빌려아전 돈 들지 말젠게

108006 #2 사름 어스니까 어떻해게.

108006 @ 여끄는걸 다 엷엇다고?

108006 #1 사름 빌른 돈 줘야주게

108006 @ 땃살 때마씨?

108006 #1 시집강 아기난때지

108006 #2 스물뎨슬

108006 #1 경보 난때 짓엇지?

108006 #2 그렇지. 아방 군인 갓다왕 짓어서네게

108006 @ 엷어난 다음 흥 발라?

108006 #2 여꺼난 다음에 흥을, 옛날 초가집덜은 마당이 막 녘잔아. 마당에 막  
 쉼스랑으로 흥을 파. 팡 이만큼 해그네 그 구텅이 파듯 파 놓아그네

108006 #1 거 마당꺼 아니라. 판디꺼 파당허지.

108006 #2 판디겓도 파당은 햄져마는 팡오지 못허는 때는 어떤때는 파그넵에 그  
 디

108006 #1 그디 불를 흥은 호꿈 좋아

108006 #2 돌맹이 주워동 그거 파놉그네 흥질허는 날이엔 해그넵에 동네사름덜  
 빌어. 게문 동네사름덜 여자분덜은 물덜 질어오잔아. 그 흥에 놀 물을. 길어오곡 친  
 척들은 또 이젠 흥긱흥는 날이엔 밥 흥숯씩 해다주곡, 게민 동네사름덜 남즈고 여  
 즈고 다 모여와그넵에 여즈분들은 허벽으로 물져당으네

108006 #1 다 참석행으네이 차룽에 거려왕 담곡이 무시거 몹이나 갓당 우리어머  
 니 놉두민 자반행 흥낭푼 허곡 행

108006 #2 반찬으로게

108006 #1 지곡 들르곡 행 강 안네 그집의강. 흑질허는 집의강. 게민 거 반양 그 밥으로

108006 #2 경해그녕에 물을 저다그녕에 그 흑 판더레 막 낭으네 남즈어른덜 들 어상 막 밍으멍 그 물에 흑에 막 배합치게게. 배합치기 해논 다음에는 그 보릿대를 보릿대덜 너미 기니까 나대로 이제 둘에셋에 짤라그네 그레 낭 또시 막 밍아. 흑을 뒤쌌다 노뒤쌌다 막 젓이멍 밍아그녕에 이젠 다 글로로 배합이 잘 되면은 그때부 떤 이제 그 벽에다 부치주게. 벽에다 뜨면서

108006 #1 떠당 노아. 누게 떠다놔주민

108006 #2 떠다노는 사름이 잇고 들르는 사름이 잇고

108006 #1 들러주는 사름도 이서. 들러주민 받아그네 착 부멍 이렇게이렇게 막

108006 #2 혼쥼 쥼그녕에 착 던져야 쪼각더레 잘 부터가지.

108006 #1 영 허민 안부떠이. 힘주영 착 때리멍 때리는 식으로 부쳐야 그디 돌아 쳐. 흑이. 게민 이러케 이러케 골라.

108006 @ 남자들이 주로

108006 #1 남자덜이 대부분 헨디 여자 허는건 드물고게

108006 #2 그런건 남자분덜이 다 허주게

108006 #1 그 흑질허는 날은 남즈들이 와

108006 #2 동넛사름덜 다 모여와.

108006 #1 흐뽀씩 헨건게

108006 #2 해쥼생 헨 막 빌어. 전날 저녁 땡기멍 다 빌영 놔두민 그날은 다 모여 와그녕에.

108006 #1 건 공결로 해줘 다.

108006 #2 게난 서로가 돌아가멍 경 해주게

108006 #1 게난 동네에 상뒤빌라 허여. 상뒤영 해이 상뒤. 늡이엔 안행 상뒤 빌 렌 허민

108006 #2 그 일꾼덜 맥이는 정심을 친척덜이 다, 밥을 혼쥼씩 해그네 것에 먹을 반찬 허곡 해그네 혼집씩 해그네 혼 차룽에.

108006 #1 맞아

108006 #2 겐 누게 집의서 해온밥은 맛 좋게 해왔져 댓져 해가멍

108006 #1 풋도 하영 낫져 곤쥼도 많이 낫져 . 곤쥼이엔 해 입쥼이엔 안해. 곤쥼 낭 밥 맛 좋게 헛젠. 곤쥼낭 밥해주라 영해, 아기가 밥 안먹어가든

108007 @ 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8007 #1 구들 거의 같애. 삼간집은 죽은구들 흐뽀 죽지 스간집에 구들은 거의 같애. 평수가. 딱딱 사각으로 나와.

108007 @ 퀘는 어느 구들에다 늡니까? 큰구들에만, 다?

108007 #1 백장은 다 허지

108007 #2 퀘 놀 백장은 다 만들어.

108007 #1 그 백장은 뒤으론 굴목이니까. 굴목 우에니까  
108007 #2 게문게 이불도 개여그네 그디 노곡. 옛날엔 그 놓이 어섯주게. 요도  
개민 백장에 놓고, 퀘 백장에 놓고  
108007 @ 거기는 이불 놓는디파?  
108007 #1 응 이불허곡 와단수엔 행이  
108007 @ 단수파 퀘파?  
108007 #1 퀘엥 허곡 단수엔 헌건 이 서랍장게.  
108007 #2 서랍장 그튼게 단수. 단수도 일본말  
108007 @ 옛날엔 서랍장보다 퀘가 더 많지 안헉니까?  
108007 #2 응 퀘가 더 많아. 퀘주장  
108007 #1 퀘가이 통쇄 영 중그니까 돈돈해. 서랍장은 영 땡기는 거난 뭐 노민  
도독놈이 들어도 가져가불고게이. 저건 중강으네 열쇄만, 열쇄이 할머니덜 요레 곱  
에 막 창 다녀. 땡겔 창다녀 지랑지랑. 우리는 아버지가 집에 하영 잇곡 집 비질 아  
널거난 그런거 안헌디 우리셋어머니도 창다니고 큰어머니도 창다녀. 아이덜 어서부  
난. 집에 어시난 누게 들민 과가불카부덴. 막 치매폼에 지랑지랑이, 혼 세 개까지  
108007 #2 아이덜 어성 창댕기는구나. 우리도 노상 사름 이시난이. 우리할머니도  
클때에 우리 순자성님 외할머니 손에서 크난 주로 가이밖에 어서난  
108007 #1 대문을 딱 더끄민이 이 대문 우에 원산이엔 해여 원산 그디 열쇄 특  
놔동 가, 문 중강, 경행 원산우에 열쇄 놔시메 그거 아상 뭐 허렌 허영 연락도 허곡  
108007 @ 대문이든 상방?  
108007 #1 상방 대문 바깥딜로 대문이라.  
108007 @ 그다음 이문간은 달르고예  
108007 #1 이문간은 마당으로 들어가야. 이문간 신집도 막 드물어  
108007 #2 옛날에 부жат침의가 이문간 이섯주 이문간도 드물어  
108007 #1 모양내명 이문간도 따 그디 해나신디. 이문간 신 집원 막 부제침이  
108007 @ 대문우에 어디 보라 해낫구나예  
108007 #1 대문이 아니고 마당으로 들어가그네이 상방 문이라 대문이엥 해. 상방  
에 들어가는 문이라 그 원산우에 열쇄 이시메 문올앙 뭐 앓이라 영 해.  
108007 @ 원산, 안으로 잇다는 거지예?  
108007 #1 아니 바깥딜로. 영허민 이디 영 문중그민 이디 영 낭토막 이레 쪼끔  
행 잇어. 게문 열쇄를 이디꺼 뽕앙으네 그렐 놓아. 쟁 그런건 안창 땡기고 퀘 열셀  
창댕기는거.  
108007 @ 방 큰방 죽은방 시렁. 시렁이?  
108007 #1 시렁이 뭐야, 쳇방?  
108007 @ 아랫목 윗목  
108007 #1 어, 그건 방안네서 아랫목 윗목 허지.  
108007 @ 굴목 허는딘 다 잇수과?

108007 #1 다 이서. 굴묵 때야 살지 옛날엔 굴묵 안때영 살민

108007 @ 큰방은 어떻 굴묵 때어? 죽은방은?

108007 #2 죽은 방은 밖으로 때게 만드는 디도 잇고, 대개 보른 부엌으로 때게 만들어.

108007 #1 삼간은 부엌으로 때. 사간은 바깥디로 영 들어가져

108007 @ 상방?

108007 #1 상방으로 말고 구들 쪽으로 영 들어가게도 허고 어떤디는 이 바로 축 바깥딜로 바로 바로 네고랑 들어강, 더 좋아 그디가. 경행 무시거 톡 세와불민 요쪽에는 불치담양 농곡 요쪽에는 굴묵 빨거 그디 막 데미고

108007 #2 빨감

108007 #1 바로 굴묵 바로앞에 내민 더 좋아. 연기도 부엌더레 안들어가고이 불 때도, 그 창문에염으로 영 들어가게 된거는 불때면은 이 글로 연기나왕 막 방에 들어가곡게. 경 막 창문 더경 계영 호끔호끔 신식 뒤편가니까이 밖으로 문을 내더라이. 신식으로 짓인 집덜은. 연기 안들어가게.

108008 @ 마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마루에 파가지고 무시거 구웁먹는 것도 이서나수과?

108008 #1 우리는 그걸 몰라.

108008 @ 마리를 상방이렌 허지예?

108008 #1 응 상방

108008 @ 상방에서는 뒤편 주로 헉니까?

108008 #1 상방에서는게 그냥 모여앗앙 상방이 너르니까 그디 앓아그네 무신 회의도 허곡 의논덜토 허곡이 식구도 우린 식구가 다 상 들어놉 먹을 정도라 널렁. 계곡 옆으로이 맥 그든거 곡식을 막 싸. 막 싸놉.

108008 #2 곡식도 싸놓고 남자덜은 상방에서 맥도 짜지 신발도 짜지 명석도 짜지 주로 그디서 헉주게.

108008 #1 명석이 이쪽으로 돌아가명 막 앓앙 남자덜이 줄아. 계영 다 줄으민 다 뉘영 탁 세우민 이까지 진진행.

108008 #2 우리아버진 주로 상방에서 그걸

108008 #1 우리아버진 명석은 안줄아반. 맥도 안줄아보곡 신삼는것만

108008 #2 우리아버진 다 혀. 명석도 허민 즘질게 잘 줄아.

108009 @ 고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8009 #1 고팡에 칠성잇는 사름이 혼동네민 혼 너댓집배끼 아니. 벨로 어서.

108009 #2 우리동넛 사름은 엇나게. 칠성이엔 헌건 모신디 엇어.

108009 #1 택수네 고팡엔 모셔난이

108009 #2 게매 택수네 경행 낫젠 난

108009 #1 정의서 오니까. 큰돌만 돌황댕긴텐 허니까이. 경 모셔그네이 제스뎨 차룽에이 떡도허곡 밥도허곡 채소영 다 비왕으네 앓당 향아리 뚜경 영 가리청 낫당

그거 가져올땐 몰라도 놓는것만 봐나서.

108009 #2 거 초상 상해보담 먼저 헌댄허멍?

108009 #1 먼저 안해. 허멍게 허멍. 초상에 허멍

108009 @ 뭐뭐 놓디가?

108009 #1 아니 제상에 헌거 다놔.

108009 @ 고팡에 창뎡. 네모난거 잇잔아예. 그건 무사 냅니까?

108009 #1 아, 어두부니까게. 고팡가젠 허민 캄캄허니까게

108009 @ 공기통허랜?

108009 #2 공기도 통허곡 그거 호뎡 밝으랜게

108009 #1 경행 무시거 들어오카부댄 철망 뜯어진거, 채 치는거 우리집 보민 그 런거 해영 영 바치더라.

108009 #2 쥐 들카부댄. 짐승 들락날락 허카부댄

108009 @ 향아리는 어떤 향아리들이 거기 이십니까?

108009 #1 향아린 뭐 뚝 ㄴ뚝 향아리지뎡.

108009 #2 큰것도 잇고 작은것도 잇고 중간것도 잇고 막 작은 것덜토 잇고

108009 @ 푸는체 ㄴ뚝 것도 다 거기다 놓고?

108009 #1 살림살이가 좋은 집의는이

108009 #2 허벅도 좀 금가그네 물 못담는 것덜은 무시거 종자덜 담아그네 고팡에 앓다놓고

108009 #1 씨,씨 밧디 갈 씨. 거난 이거는 씨나 담양 놔뎡직허다 해.

108009 @ 맥도 잇고?

108009 #2 맥도 잇지. 계난 맥은 고팡에.

108009 #1 아메도 중이가 잘 들어오긴 해, 고팡에. 중인 오민 쎄플아그네 막 그 냥 그 곡식을 이레 막 내볼아. 계난 막 막앙 허는디

108009 #2 경헌따문에 상방에. 상방은 사름 왔다갔다 해그네 상방에 쥐가 안드나 들게 문닫곡 허난 그 상방 허구석에 큰 맥에 즐 담아놔그네 구석에

108009 #1 경행 우의 텨영 또 싸 두줄로

108009 #2 경 흥 3층까진 싸

108009 #1 계문 우의 막 부뜨지, 이거 부떠. 3층 놔가민

108009 #2 향아리 놓당 남으민 그 맥 해그네 상방에

108009 @ 고팡엔 거의 맥보다는 향아리?

108009 #2 향아리 주장

108010 @ 이번 정지로 감수다예. 정지에는 뭐가 잇수과? 살레?

108010 #1 살레는 정지에 아니놓고 또 챗방이 이서.

108010 #2 챗방이엔 현건 저짜 작은방허곡 마루허고 사이에 부엌더레 가는 좁은 마루가 있어.

108010 #1 찻장 ㄴ라 살레엔 해 살레 연날말이 살레. 살레에 강 뉘 갖당노라 현에

108010 @ 부엌에 있는디도 이십디다. 상방에 잇는디도 잇곡

108010 #1 난 부엌에 살레 논디 벨로 못반디. 다 챗방에 놔. 영 만들아 살레 놀디를 영 만들민 살레가 흐 세칭도 허곡 네칭도 허여이. 살레 우의를 소금단지 놓더라이. 소금단지 해그네 영 노프게 노민 소금 거려오랜 허민 난 막 그디 살렐 블랑 거려나서. 쟈 우에 소금단질 노아나서.

108010 @ 무산고예?

108010 #2 우린 소금 망대기에 행 뒤에 그 장항논디 항아리에 놓더라.

108010 #1 우리어머닌 이 그디 놓더라. 게민 아 우리언니가 이 소금단지 놓곡 깡이것을 해여게. 쟈 우린 칠년 차이난에 나이가 막 어리난 깡일 잡아당 맛있게 막지를 담아이. 파에 대가리 다듬아당 여름이난 파 썰어놓곡이 콩 보까 놓곡 고치 놓곡 허민 막 쿠시롱허주게. 쟈 아 우리 언니가 일곱살 차이곡 우리 아시영 열살차이라이. 그걸 가까이 영 노면은 우리가 앗앙 떡카부텐 쪽 우이로 밀려볼민이 걸 앗질 못해. 풀 쫄란. 풀 안들어가. 쟈허민 어머니ㄴ라 막 곱아. 아이 성 저디 막 해부난 등겨줍센 행 어머니가 등겨주민 흐 사발 거렁주민 먹으민 깡이 거렁 먹엇던 막 성이 나신더레이 우리 먹을 때 ㄴ치 안먹영 성은 돌아댕기니까 뭐 우리영 밥 ㄴ치 먹나? 성제만 깡이 많이 먹엇젠 옥들어난거 원 안잇어부러게.

108010 #2 메, 성도 벨허다이.

108010 #1 지가 잡아왔주게.

108010 #2 아 같이 먹어야주게.

108010 #1 좀 우리성이 까다롭잔아 게난

108010 #2 이거네 성 막 까다로완이 동생 동생으로 아니여견게.

108010 #1 성제가 쟈 올라아산 살레에 심백질 해가명 영해도 미치지 못해. 나 흐 다섯 살 때난 성이 열두살이라이.

108010 @ 거난 챗방에 살레가 잇엇다는거? 물항은 어디다 놓니까?

108010 #1 물항은 부엌에 놓지.

108010 #2 부엌 구석지게

108010 @ 밖에 놓진 안허곡?

108010 #2 아니아니, 그 부엌 마당에서 들어오는

108010 #1 마리쪽더레 물항 놓고 또 이쪽더레 솥앗질더렌 검질도 앗당 놔사주. 불습는 검질. 솥 앗진 곳댕이에

108010 @ 솥덕도 뗏개 앗집니까?

108010 #2 솥덕은 세개

108010 #1 보통 세 개 허고이 부엌이 너른디가 이서이. 너각진디도 이서. 니개

108010 @ 게민 뗏 말치 솥 허고?

108010 #1 큰솥 두말떼기허고 말치 들이민 세 개라이. 둘말떼기는 소죽 끝이는거게. 2 메주콩도 솥곡

108010 #1 떡 쟈떡곡. 시루쟁 놔 그것에 너르니까이. 게난 주로 말치솥 두 개에

서만 밥허곡 국허곡 해. 게영 너개 허민 요디 영 쪽은솟 또 앓지민 반찬도 거기서 허곡. 우리 큰어머니네가 네 개 앓진디 이서. 너르니까이. 스간집이난.

108010 #2 우린 삼간이라도 부엌 막 널르게 앓정해서. 집짓일때부떠 우리 어머니가 막 부엌이랑 크게 해줍센 곶아고. 게문 하르버지네들이 부엌 두 개 허문 딸난댕 허멍

108010 #1 응 옛날에 경 ㄱ라

108010 #2 응 딸 하영 난댕 허멍 막 경 농담허멍덜 짓어나서.

108010 #1 부엌 널르민 딸 많이 나니까 집짓을 때. 겐디 널른게 좋긴 해 곱곱허 연 즈으민.

108010 #2 잘도 좋아

108010 #1 밥도 거기서이 상 노양 딱 거려놔 먹고게.

108010 #2 부엌에서 밥도 먹곡

108010 #1 마루레 안가져강. 좁은딘 밥상을 못놔

108010 @ 그 밑에는 흑이잔아예.

108010 #2 흑인디 검질뜰지.

108010 #1 검질 깔앙 해. 검질 깔앙. 검질 언제나 북삭이 깎아. 갱 요디도게 검질 해당 뜰민 이쪽에는 게도 깨끗헌디민 맨날 쓸민 흑이라. 반질반질해. 갱 방석 세계 낡으네 밥먹을땐 거 깎앙 먹고이.

108010 @ 방석은 나룩짬으로 만듭니까?

108010 #1 거 무신 새끼 꼬양 짜더라고 짜.

108010 @ 나무방석도 잇고?

108010 #2 나무방석은 엇고

108010 #1 부엌에 깎앙앗는 방석이 줄이 줄.

108010 #2 집 덮언 걸러매는 줄, 그 줄로 부엌방석을 짜더라고.

108010 #1 그것이 질민 짤라부러. 짤랑 걸로 빙빙 열거그녕이 요만씩헌 걸 세 개, 딱 거자 세 개 해, 그런 방석이

108010 #2 똥그랑케 만들앙으네

108010 #1 게문 딸한집인 그거 세 개 깎앙 앓고 어신집인 할망하르방도 깎앙 앓고.

108010 @ 불치는 거름에 쓴댄했지예. 언제쯤?

108010 #1 불치는이 ㄱ득으민 바깥더레 퍼내영 그 오줌, 그 오줌을 다 모여놔게, 향아리에 담양, 갱 오줌냄새가 쨌로 더럽지게이, 오래오래 썩으면. 그 오줌 불치 중앙 혼글채앗당 농곡 했다그네 밧디 갖당 주민 그 밧 이 막 알아지게 좋아. 조도 갈 때 산디 갈 때 영 해보민. 그냥 맥에 담앗당 앓당으네 허끄민이 불치 아정간게 효과가 벨로 없어.

108010 #2 오줌에 썩여야

108010 @ 오줌에 썩일 때는 도새기통시에서 허지 앓고 그 조끗디

108010 #2 그 조꼴디 노는디 영 따로 해여. 따로 영 돌맹이 행 싸그네 요만큼 만  
들어야 웨어

108010 #1 불치막에 우의 허영 뭐 덮음도 허고이,  
108010 #2 빗물 아이들어가게. 우린 경 췌계는 안쥐봤져.

108010 #1 우린 자꾸 경허드라  
108010 #2 우린 몰차 그냥 허경. 몰차 담아다그네 그냥

108010 #1 우린 오줌향 예염에 이 요만이 해그네 영 맨들앗더라고. 췌 그레 갖다  
놔그네 오줌 해그네 영 막 즐락즐락 지쳐냥 또 혼글체 앓당 그레 불치냥. 맨날 경  
허더라.

108010 #2 아니 우린 경 안헨  
108010 @ 살레에는 또 뭘 놔수과?  
108010 #1 우리 쓰는 그릇 다 놔주게.  
108010 #2 밥 거러먹는 그릇계.  
108010 @ 사기그릇이파 놏그릇이파?  
108010 #1 사기그릇. 건 그디 안놓지. 제스허는거난.  
108010 @ 평상시에 먹을땐 놏그릇엔 안먹어?  
108010 #2 안먹어.  
108010 #1 놏그릇은 제스헬때만 쓰주.  
108010 #2 제스헬때나. 계난 따로 써나민 시쳐그네 깨끗이 따깡 말령으네 바꾸니  
나 무신 상자에나 얹어그네 고팡에 곱정놔뒤.

108010 #1 뭐 상자도 허영 무신 사과상자 이  
108010 @ 놏냥푼이 같은거는  
108010 #1 것도 이서  
108010 @ 건 밥먹을 때 거령은 먹어수과?  
108010 #1 그냥 먹을 때 아니고이 누게 큰일 헬때  
108010 #2 큰일때나 내려냥 그런것도 써  
108010 #1 그냥 먹을땐이 나무로도 박새기, 나무박새기도 이서.  
108010 #2 남박이엔 헨거  
108010 #1 그거에 밥거령 먹어. 남박이 우린 이 그거 두 개더라고. 큰거 죽은거.  
사름 한땐 큰것에 먹고 죽은땐 죽은것에 먹곡.  
108010 #2 대개 혼집의 두 개세개 셔놔주게.  
108010 @ 그릇 씻일때는 풍풍도 엇고 어떻헨 씻어수과. 물만 적성?  
108010 #2 물로만계. 옛날엔 그 기름기 잇는 음식을 벨로 안먹엇주게. 춤 뵈장에  
밥만 먹어시니까  
108010 #1 풀, 호박입인가 무싱걸로 막 씻더라  
108010 #2 호박입으로 씻어. 호박입. 그 지름기 묻은건. 호박입 까랍잔아.  
108010 @ 까라우니까



108010 #1 호박 섭으로. 물 털엉 걸로 씻더라.  
 108010 #2 호박입으로 씻는건 나도 봐나서.  
 108010 #1 퍼렁해. 물이 호박입 물이 막 퍼렁해이.  
 108010 #2 기름기 잇는거 먹어나민 그릇이 끈덕끈덕해그네 그냥 잘 안 시쳐지니  
 까, 호박입은 까라운거난 게른 호박입 툃다다그네 그걸로 막 수세민것츄록 경해서  
 허더라고.  
 108010 @ 여름에는 잇주만 따를때는  
 108010 #2 따때는 몰르겏더라고.  
 108010 #1 다른때는 뭇으로 햄신고?  
 108010 @ 향아리에 길어온 물로?  
 108010 #2 으게.  
 108010 #1 그걸 떠냥. 켄디  
 108010 @ 그 물은 어떻 길어옵니까?  
 108010 #2 그물은 아침내 길어오주게.  
 108010 #1 아침에 어떤 부지런헌 어른은 강 흔번 질엉오랑 밥흐는 어른도 잇고  
 이,  
 108010 #2 세백이.  
 108010 #1 경안허른 딸덜 시민이, 딸덜 일러그네 물질어오랜 경행으네 어머니 밥  
 해여. 게영 우리어머니이 우리 어리니까 욱으난 나가 햇주마는 일곱슬 차이나난 맨  
 날 성 일렁 물질어오랜 해서. 경글아. 큰년아 일어난 강 물강 질어오라 질어오라.  
 막 흔 번 글양 확 일어나질 안허여. 흔 세 번쯤 글아야 강 일어난 저와.  
 108010 @ 그른 동생들은 모른책 행 자고?  
 108010 #1 막 어릴 때 어릴 때. 성 시집가분 후젠 우리도 젓지.  
 108010 @ 땃 살부터 보통? 열다섯?  
 108010 #1 열다섯 나른 허곡말곡. 우리 성이 열여덟에 시집가난게이.  
 108010 #2 열 살만 먹으민 물덜 질엇저게. 흔 일곱슬부떠 병에 부떠 모녀 정오기  
 시작해 병.  
 108010 #1 사기병 이서나서 사기병. 념작헌게이 주둥이 오조록행 요새 막 뭇에  
 나오잔아.  
 108010 #2 요만큼허곡 부린 영 좁곡 헌 병이 이서나서 옛날에. 게난 그런 애덜  
 지는 물질어오는 병이라.  
 108010 #1 그걸로 물질어오민 사발로 두사발배끼 안해.  
 108010 #2 일고여덜살만 되든 그거 영 정행 차롱에, 차롱에 끈내끼 해그네 지와  
 나서.  
 108010 #1 그거 질당 호뽀 커가민 두벵들이병이랜 허연  
 108010 @ 두벵들이? 앞엇거는?  
 108010 #1 건 그냥 짝은벵은 그냥 벵들인 업서. 그건 그냥 즈근 벵인디, 두벵들

이 뽕은 물질어오민 호끔 하. 게문 건 두뽕들이뽕 다음인 허벅

108010 #2 대바지.

108010 #1 대바지나 두뽕들이나 거의 ㄱ뜨지 안허카?

108010 @ 두뽕들이 다음 대바지, 대바지 다음 허벅?

108010 #1 경 딸덜을 경 부러먹어 엔날엔

108010 @ 경허른 어명안티 데군데군허거나 그런건 어섯수과?

108010 #2 데군데군 헛당 어떻 맞아지주.

108010 @ 맞일땐 어디 때립니까 어머니? 빗자루로? 부지뽕이로?

108010 #2 부지뽕이로도 때리곡, 옛날에 헤이구 이제도 잊어부러지지 안허여.

108010 #1 난 어머니안티 벨로 맞아난 기억은 어서

108010 #2 난 딱 흥번 맞아나서. 어떻헐 맞아신곤 허민이

108010 #1 와썩 맞으민 잊어불질 안헐건디이, 그런게 없어. 난 호끔이 빨르곡이 말 잘들어부러. 성치룩 아녀.

108010 #2 나흥곡 우리 큰오라방이 여섯솔 차이거든. 여섯솔 차이난 저 생이오름 앞에 저 그녇이할망넌 밧을 반작해신가? 하여간 누게네 밧을 반작해서이. 여름만 들민 우리어머니영 아버지영 가명

108010 #1 우리가 생이오름 밧이 시영 매날 가나신디. 나가 땡점시민 너네 보지 이 생이오름이난.

108010 #2 우리 큰오라방 그거 돌 넘영 다음 여름일거라게. 가이가 구월월에 나난. 아이 애기 보당 점심때랑 애기 젓뻬이레 오랜이, 게난에 아이구 대진이 할망신디 업어다주랜. 경헐 업영간 할망신디 멧겨도그네 해전 가달춤허명 놀안 할머닌 이젠 스뭇 죽끝이명 뻬연 아예 젓뻬이렐 못갓주게. 게난 즈낙이 어머니네 올만허난 이제 할머니가 애기업언 이제랑 집이 가랜 어머니 올만 뵈시난 가라가라 허연 가난 아이구 즈낙허당 부찌뽕이로 때리느디 거난 그자 애기 부러대껴동 도망간 할머니집 가부러나서. 게난 맨 안맞고게. 간 막 올명 가난 할머니 아이구 나똥아 무사무사 나강생이 무사무사 허난에 가난 막 우리어머니 때려부런 허난 기여 아이고 가지말양 나영 집이서 자겐 해영 할머니가 즈낙허난 떡곡 할머니 집이서 자단 뒷날아침 으식으식 일어난 이젠 할머니가 글랜 나가 어명ㄱ라 막 욱허켜 욱허켜 들양강 어머니안테 막 욱흐는책 허명 기척헐 살앗주게. 나 흥번 딱 경해나서. 거 잊어부러지지 아녀.

108010 @ 경해도 애기 봐신디 어머니는 무사?

108010 #2 젓뻬이레 낮이 안가부난게. 게난 젓은 막 불영 못전덜거 아니라게.

108010 @ 게문 그애기는 지금 살안?

108010 #2 지금 살안게 나광 여섯살 차이난게. 우리 큰오래비. 게난 게 낮이 젓뻬이레 가카부덴 헌디 안가난 젓은 불영 못전디지 흥난게 저낙뽕게 막 욱허주 아니 욱허여?

108010 @ 그 할머닌 친할머니마씨?

108010 #2 응 친할머니

108010 @ 그할머니 뭣 살까지 살아수과?

108010 #2 우리할머니 팔십 못살양 돌아간거 님아. 우리 할머니 즈손들이 막 많아도 가민 예고 나강생이 나강생이 허멍 그냥 불때당도 마당더레 나왕그네 막 안양 들어가. 경 즈손덜 애껴그네.

108010 #1 우린 할머니 몰라. 우리 언니 날 무렵에 돌아가셔부난. 우린 하르버지도 일찍 가불고 할머니도 일찍 가불고.

108010 @ 부엌에서 일어난 일들예. 어머니가 생각나겐다예. 그믐 뭇시에 일어난 경 물질레 간다는 것과? 혼자는 무섭잔아예?

108010 #1 아니 막 사름덜 이서. 일찍덜 일어난 막 가부난.

108010 #2 옛날엔 막 동세백덜 물질레덜 가부난 사람 막 많아.

108010 #1 인척에 그 삼촌 막 부지런해여이. 인척 일어난 물질어당 밥해, 계문 지침시작 허민 아이구 동남아지망 벌써 일어난 물질 완져. 허멍 일어난 큰년아 강 물질영 오라. 막 우리어머님 경해낫주게. 지침 허민 그 지침 알아져. 지침소리.

108010 @ 도대체 뭇시에?

108010 #2 네시 반쯤이나 뒤희덜 물질레 가실거라.

108010 #1 그 때 첫득 울영이.

108010 @ 혼자 가수과? 친구들이영?

108010 #2 혼자만 갖주기. 그 세백이 새아침에 친군 어멍 강. 혼자만 가도 길레 물질레 가당보민 다 사름덜 이서.

108010 #1 아래서 왕 저가는 사름, 위의서 왕 저가는 사름

108010 @ 어디로 갖댄 해수과 물질레

108010 #1 이제 이 한라대 서쪽에 물구렁이 다 메와부런게. 물구렁 두 개영 므쉬 맥이는 물 두 개 이신디 왜덜 건 메와부러신고이. 원 짝 메와부런. 혼적도 어선게. 밧 맨들아부런게.

108010 @ 위치는 알아지쿠과?

108010 #1 아이고 알곡말곡게. 우리 죽장 거기 살아신디

108010 @ 거기 이름이 뭐우과?

108010 #1 새구렁이엔 현건 말제 하난 새구렁이고 이 구렁이 두 개난 먹는물터엔 우누룽 알고룽

108010 #2 먹는 물통이 두 개고 구진 물통이 두 개라게

108010 #1 므쉬 먹는 물 아래꺼는 새못디 새못.

108010 #2 건 말제 관생이라이 새못이엔 현거 보난

108010 #1 건 말제 관거고, 우에건 말제 관거. 쉼모시

108010 #2 무사 새못이엔 햄서?

108010 #1 경헌디 못이름이 새못디 새못디 강으벵에 쉼 물 벵영 오라 허여. 새못 저기 새못이신디 원노형도이. 겐디 이것고라 새못이엔 허여. 겐디 우리 만감이 삼촌

네가 새뭇디 살앗댄 해. 그 동네 이름이 새뭇 같애. 새뭇데 멩질떡으레 가라 영허고 이. 경행 우녁물 마랑 쉼뻬이는 물은 말제 파니까 새구릉 새구릉 해. 아이 흔적이 이선게 원 넘은해 그디 잘안다녓어이 간보난 멘짜 메겨부런. 어느동안에 거.

108010 #2 거 밧임제들이 메와부렀네.

108010 #1 폭난에 산 사름이 메왔어?

108010 #2 게 산사름이 메와실테지.

108010 #1 겐디 그 우리 셋어명네 밧디 만딱 물통이라이. 그게이 새뭇대까지 들어가신디. 우리 셋오라방넨 그거 아니행 풀아서.

108010 #2 지적도 상에 안빠정 시난 메와겿주게.

108010 #1 게난 그 모통이에 무시거 나난디. 그 빨근고치, 거 뿏 따먹는거. 거 일름 뿏여마는

108010 #2 구기자게.

108010 #1 구기자이 뽕 돌아가명 못 구릉에 나게. 자기대로 낭. 막 벌경케 익어. 우리 거 탕먹음이 일이라. 막 강 탕 오고. 벌경케이 가을되민 막 익어게.

108010 #2 거 이 옛날에 인심덜 좋아그넨네

108010 #1 그뻬이 일본ㄱ치 일본ㄱ치 엔 해나서이.

108010 #2 옛날에 우린 뿏 일름 몰르니까 일본꼬추엿 해나신디이 옛날엔 인심조난 그자 아이구 저디 물나는디 성님네 밧디꺼 뻬채 내놓읍서. 팡으네 물구렁 만들 앙 해떡게 경덜해여게. 경행 판 해부니까 그거 지적도 상으로 들라지진 안헛젠 허드라고.

108010 #1 맞다이

108010 #2 경허난 그거 땅 산사람들이 경 메와앗아부렀댄 허는거라.

108011 @ 이번엔 문설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뿏 문지방 밧지말라 이런거 나.

108011 #1 문지방도 정제문지방은 췌찬아. 대문지방 불르면은 이 그 남즈가 어디 나강으네 말을 질리운텐. 남자어른이 어디 바꿨디 나강 말헛 때 툭툭 질리운텐 허드라고. 갱 대문지방 밧지 말랭허여 아이덜안티. 블라가민 지방 밧지마랑 다니라 밧지마랑 다니라. 정짓문지방은 어뻬 아녀고. 대문지방만

108011 #2 아버지방도 여잔 밧지말랭 허주게.

108011 @ 아버지가 밖에강 말이 막힌덴?

108011 #1 아버지를 집이서 대주엔 해, 대주. 아버지나 아덜네는 남자는 대주엔 굴아이. 대주가 어디

## 10. 세시풍속

정월

110001 @ 정월 명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월명절을 음력 1월1일이잖아 예? 그문 이것 때문에 준비허젠 허문 막 신경쓰잖아예.

110001 #1 쓰지

110001 @ 정월명절은 어떤 의미가 이수과? 쯤 큰 명절이잖아예.

110001 #1 그래. 팔월달보단 정월명절이 더 이 정월초하루난 허는거난 신경쓰지, 허명도.

110001 #2 일년 마무리형 또 새해를 맞이허는 날이기 때문에 떠 신경써져실테주 게.

110001 #1 우리도 씨어머님 혼자만이난 팔월도 허곡 정월도 허곡 다 헌디 우리 둘이 허난게. 나는 정월허민 동생 팔월 해주게. 경허민 게난 한걸허지. 게난 우리 어머님 볼때도게. 아이구 난 나 혼자만도 팔월허곡 정월허곡, 제사를 땃번사 헌디 수정을 몰라.

110001 #2 그렇지.

110001 #1 우리 씨어머님이. 수정 몰르게 허고랜 허여.

110001 #2 또 양구해노난게 할수 이서게.

110001 #1 생가에 사람 죽으민 삭제도 혼덜 두 번 출려가곡 허고랜. 우리어머님 이. 게난 어떤땐 해진거 생각허민 일년내내 헌거 해질말가, 마흔번 해져서렌 일년에 마흔번. 일년내내 헌게 세어보난. 우리 씨어머님 경 ㄱ라. 삭제ㄱ지 다 들어가난.

110001 @ 경허고 옷은. 애기들옷은 때때옷도 있고...

110001 #2 일년에 마흔번을 어떠난 경 핫던고. 아맹 양 왔주마는.

110001 #2 삭일을 초하를 보름 쉼놓곡 행으네이

110002 @ 정월 대보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월 대보름은 해수과? 제주 도에도? 음력 1월15일.

110002 #2 정월대보름 허는 사름은 허고. 우리런 사름은 해보도 못허고

110002 @ 육지는 막 오곡밥도 해먹고

110002 #2 오곡밥도 해먹곡 막 크게 허잖아요. 견디 제주사름은 벨물걸.

110002 @ 경해도 보름달 뭐 보명 무상걸 헌다든가 어디 절간에 간다든가 뭐 이 런 것들은

110002 #1 우리 절 댕기난 절엔 쪽 강으네 이 오곡밥 먹지. 나가 안행 먹어도.

110002 @ 정월보름날?

110002 #1 정월보름날. 오곡밥 허주게. 정월보름날.

110002 @ 보름달 뜨면 그게 의미가 있거나 뭐 그런건 뭐 이수과? 전라도쪽엔 강 강술래 부르명 놀았져. 소원 빌었져.

110002 #1 응 막 보민 뉴스에 나완게.

110002 @ 달집 태왔져. 여기도 저 그때쫘 뭐 햄수게. 새별오름에. 불도 막 붙이 고.

110002 #1 게난 거 이제사 허는거지. 옛날엔 안했어.

110002 @ 계난예.

110002 #2 옛날덜은 그런게 잊주게. 밭담더래 축제들이 하도 많이.

110002 #1 옛날엔 그런거 저런거 제주에선 벨로 어섯어.

110002 #2 옛날엔 먹고 살기가 바빠노니까 그런게 어섯어.

110002 @ 화전허는 사람이나 몰라 있을 수 있지.

110002 #2 우리 어릴 때 커올때는 정월 보름엔 정월보름인가 그자 오크밥 해떡  
넌 말만 들었주,

110002 @ 브름 팡팡 부는 디 그거 했당 큰일나게 제주는

110002 #2 응... 흠치

110003 @ 액막이 들어봐수과? 방사(防邪)에... 그런거는 많이 허드라예.

110003 #2 정월보름날 정월 보름떡 행 떡젠 행 모듬이. 저번에도 야이 말했주마  
는. 어머니네 모르게 쓸 혼뒤씩 곱졌다그네, 혼 넷이가 모여그넵에 그거 해영 앓다  
그네 시루떡을 치는디이, 자기 이름을 써 놔게이. 쪽지에. 요거 혼 징에는 누구, 요  
거 다음에는 또 요거는 누구, 경 이름 썩 놔그넵에 떡을 치어. 떡을 청 내놓으면은  
쏟양 보면은 다 잘익으면 다 존거라. 견디 하난 익고 하난 안익었어. 계민 잘 익지  
아니헌 사름은 그해에 운이 나쁘다, 안좋다. 견디 운이엔 헌건 이 사람 아프는거 배  
끼 없더라. 허는 일이 안되고 몸이 안좋은게 운이주게.

110003 @ 다 가난해부난 아프는 것이 쥬 문제주게.

110003 #2 응, 경헌덴 허멍덜 그런 떡을 많이 썩 먹어나서.

110003 @ 아, 처음 들어본다예. 누가 골아주지도 안해도. 경 떡청...

110003 #2 그런건 해나서. 그런 것덜은.

110003 @ 액막이도 집집마다 동쪽에는 헛디다. 아침새벽에 심방빌영 간단하게  
이제 부엌에서영

110003 #1 집집마다는 아닐거여, 그거.

110003 @ 집집마다는 아닐거우다. 동쪽에서 많이 헛디다예

110003 #1 그런거 허는 사람이 줌 이서. 미신 믿는 사람게. 미신 안믿는 사람은..

110003 @ 액막이, 액막이.

110003 #1 계난 액막이가 미신 안믿는 사람은 안해. 미신 믿어야 해.

110003 #2 액막이는 대개 이 정월들에 허주게이. 정월들이 상들이라고 해가지고  
정월들에 허는디, 이 우리 노형도 이 가끔 그 일년에 한번 그런거 집안에서 액막이  
곳을 허는 집안이 이서. 열이네네 항상 했네. 열이네 마당제도 해나시네.

110003 #1 마당제가 아니고 칠성제. 뒤에서. 칠성기도.

110003 #2 아니, 칠성제도 허고 마당에서 막 해났져게. 계민 우리 아기 강당으네  
게 열이가 야, 메틀날 우리집 오일장 굿햐서 굿햐서. 왕 구경허곡 허여 행으넵에.

110003 #1 난 굿떡 얻어먹곡 막 가나신디 마당제 허는게 아니고 칠성제. 뒤에서  
허드라고.

110003 #2 아니. 난 마당에서, 마당에서 허는거만 봐나서.

110003 #1 마당에도 해냐?

110003 #2 마당에서만 허는 거만 봐나서.

110003 #1 난 칠성제 행 강 태우 키왔덴 해. 어렵게 키왔덴. 경허곡 우의로 아들 죽엇덴. 올 육월달에.

110003 #2 게매, 우의로 아덜 성제가 죽어신디, 경헨 아덜로 못키우난 강 태우 나난 그 칠성제가 마당젠가 해야 조켄 허난 허고, 그 저 태우가 시님말로 놔부러났네게. 연자 (불청) 내영왔져게. 미녕 두필인가 혼필인가 들연에, 났단에. 간 내오랜 행

110003 #1 어디 용장굴? 용장굴이랜 해신가?

110003 #2 용장굴이엔 허던가, 덕지동이랜 허던가, 행으네 연자가 강 내오고렌 허더라.

110003 #1 덕지동도 그 스춘이 해나니까...

110003 #2 덕지동엔 해서.

110003 #1 덕지동이 이제 그 양 뉘시가 열이네 할머니 오라방 아들 아니가. 그 스님이. 경 거 허당. 경고라, 태문이 아버지가. 스님은 허고싶엉 허는거라? 살림 못허난 그거 벌어먹엉 살젠 해주. 경허당 호뎀 벌어진안 안행으네이, 택일허는거 해부런. 양 뉘여만은. 양 태..

110003 #2 덕지동 와서랜 헨게 덕지동.

110003 #1 덕지동이 닳아뵈여. 스춘이곡

110003 @ 덕지동 절간?

110003 #2 응, 절간.

110003 @ 수운교

110003 #1 응 수운교 맞아

110003 @ 그던 절간, 민족...완전한 절간이 아니다, 사람덜 많이 다니더라고예.

110003 #2 천도제 허여.

110003 #1 저디가 수운교야. 수운교 거기가 크드라. 원당봉

110003 @ 원당봉? 거기 수운곶가?

110003 #1 거기 수운교 아니?

110003 #2 어디, 어디가?

110003 #1 원당봉

110003 @ 원당봉은 절간

110003 #1 그냥 절간? 원당봉. 저기 태운이각시 땡기는다. 수운교 아니?

110003 #2 수운교 아니라.

110003 #1 천태종?

110003 @ 천태종이여 태고종이여

10003 #1 태고종은 아니고, 천태종? 그디가 이 우리 공설운동장에서 해마다 천왕사 다닐 때 천왕사에서 초파일날 행진, 등 행진을 허여. 경허민이, 관암사 다음엔

거기라. 출렁 오는 게 보민 이, 코끼릴 만들었으네 탁 구루마에 시경 와 , 코끼리, 천태중에서, 그 원당봉에서. 잘도 잘행 와.

110004 @ 그러믄 이번에는 예 포제, 금줄, 붉은 흙 뿌리기, 제관, 마을제, 이런거 봐나수과? 남자들 하는거? 음식 만들거나...

110004 #1 일년에 한번 허주기. 동네마다. 일년에 한번 허네. 국궁백 허는거.

110004 @ 언제 날보곡 헉니까? 정월달에

110004 #1 정월달에 삼일 회 허나?

110004 #2 응

110004 @ 포제턴 어디 이수과?

110004 #1 응?

110004 @ 포제허는디, 포제터

110004 #1 새마을금고, 춤 새마을회관에 딱 거기 놔둬. 1층에

110004 @ 예. 이제 돈덜 나오난예 다 포제덜 살림십니다. 남자들.

110004 #1 아니 옛날부터 건 아니해보지 아년 계속 쪽 해완.

110004 #2 계속 쪽, 옛날엔 못살아도 해완. 옛날엔 돈이 어서난.

110004 @ 합청 안행 정준은 따로?

110004 #1 이녁 부락만씩 해

110004 #2 자연부락 단위로 다 허.

110004 #1 이녁 부락만씩

110004 #2 처음엔

110004 @ 생으로 올려?

110004 #1 도새기 전마리

110004 #2 옛날엔 가구당 댕기면서 쌀덜, 쌀로 받아

110004 #1 쌀 흔뉘씩 받아.

110004 #2 보리쌀이믄 보리쌀, 좁쌀이믄 좁쌀, 자기네 먹는거. 경 흔뉘씩 받아다 그넵에 그걸 풀양으네 돈 만들어그넵에 들어가는 재료를 준비해놔주게. 겐디 이젠 마을돈이 많으니까 그런게 없이 마을돈으로.

110004 @ 남자들 무신 목욕허고 막 그냥 땃일동안 음식 조심허고

110004 #1 삼일, 삼일, 이젠 딱 삼일 해여.

110004 #2 삼일정성이주, 삼일

110004 #1 삼일은 거기서 살아

110004 @ 여자들토 음식만드는 사람

110004 #1 응 부녀회에서

110004 #2 응 음식만드는 사람덜토

110004 @ 또 뉘뉘마썸? 도새기 흔마리허고

110004 #2 도새기 흔마리허고, 생선도 썸겔로,

110004 @ 옥돔?



110004 #2 응, 비늘 하나 건드리지 아녕, 창자만 빼여도그넵에, 쟁 소금물에 쪼금 담갔당 건정그넵에 물 싹 빼여그넵에 헤영 그거 쓰고

110004 #1 소고기도 썰겔로

110004 #2 소고기도 포육으로 썰겔로. 썰겔로 쓰고 뭐든지 다 썰겔로.

110004 #1 다 썰겔로 써게. 미나리고 미역이고게. 그 세가지 허여그네.

110004 #2 썰겔로. 이 감주도, 감주도 허면은 주시 걸러그넵에 썰겔로, 숨지 아녕 썰겔로.

110004 #1 경 다 현 다음에 슬망 먹어.

110004 #2 경 다 썰겔로 써.

110004 @ 과일은?

110004 #1 과일도 계난...

110004 @ 떡은?

110004 #2 떡은 안허고, 떡은 안허고 과일은 대추 밤, 뭐 다 다섯가진가 들어가 고

110004 #1 그걸 잘행 이녀이 몸정성행 허민 이, 집의서 이녀 멩감헌것보단 더 좋덴.

110004 #2 그렇지게

110004 #1 그걸 멩심행. 계민 누게가 하영 해나서. 저 대경이어멍 산때. 요라번 그후론 해서. 계민 우리 뒤에 미나리 나난 미나리 허레 왕 경 곶아. 꼭 미나리도 이, 돌미나리 해당 해.

110004 @ 금줄도 허고 험니까? 그 보진 못허지예, 여자들은?

110004 #1 계난 그디게 당헌 그 부녀회에서 멩명 허영 허민 그 허는 사람,

110004 @ 삼촌은 부녀회 때 해난 거짜, 지금?

110004 #1 계난, 부인회... 겐디 부인회 허기 전에 그 어느 집이서 가정집의서 어느 집의서 험셴 허든 그냥 거 안허켄 아녕 허여. 경 돈도 아이받고 그냥 공곶로, 봉사료, 경 험명

110004 #2 공곶로 경 살아지는 사름덜은 생각허영으넵에 동네를 위해서 춤 희생 정신으로 허는 사름덜은 해났주.

110004 #1 계난 삼일은 일 못허꼭 어디덜 안가꼭 그거 준비행 해야, 늬도 아이빌 영 자기만 허여. 거, 정성허니까.

110005 @ 안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0005 #1 안택? 안택?

110005 #2 응

110005 #1 안택이엔 현건 멩감이야. 일년에 혼번 멩감허는 사람은 멩감을 해 집 의서. 멩감을 허민이, 무당 빌어당 집의서 곳허는거. 심방안택.

110005 @ 들에서 하는게 아니고?

110005 #1 안택이엔 현건 멩감. 계난 우리동네 멩감 해난 집의가이, 이동에도 도

남삼촌네, 옥이네, 그 둘이만 했어. 둘이만 일년에 한번 쪽 하고, 우의 가문 열이네  
혹 꼭 저 아갑장네, 아갑장네 그디백인 안했어. 저 누게도 안했지이. 이삼할망네 안  
했지이. 안해난.

110005 @ 경허민 뭐가 좋아마씨, 멍감?

110005 #1 멍감허민 그냥 딱 이녁이 좋게 해줍센만 빌민게, ( ) 왁신가. 이녁만.  
몸은 아니고 이녁 집안이.

110005 @ 돌래떡 그런것도 험니까.

110005 #2 응 돌래떡 허여. 메 치고,

110005 @ 메 치고

110005 #2 메치고 돌래떡 허고. 과일이영 다 들어가. 그때도.

110005 #1 심방 흐를 처녀허여. 호를 처녀 밤의 왕.

110006 @ 게른 보리밭 밟기. 저번에 한번 곱았지예? 보리밭 밟아주는 것이 정월  
달에?

110006 #1 정월달에. 정월달에 해사게. 보리 막 아이클 때 해사 블라도 밀어나지  
아녕. 커불면은 보리가 상허지이.

110006 @ 옛날 눈올때도 뭐 했겠다예.

110006 #1 눈오기 전의. 눈온땀 아니고이. 젓영 안돼.

110006 #2 눈와나민 눈에 늘어정 늘어지지게.

110006 #1 그땀이, 그때 막 요라이 연날에 우리 몬 블라가민 이, 막 보리밭디 몬  
지가 팡팡해.

110006 #2 왜정때도 블라나서 왜정시대도

110006 #1 왜정때 왜정때

110006 #2 왜정때 블라나서.

110006 #1 불랑으네 그냥 한번 쪽 가민 뒤에 그냥 몬지가 팡팡팡팡. 보리밭디.  
요랏이 수누는건 왜정때 막 불르랜도 해. 시청에서 나왕 막 보리 불르랜 해. 왜정때  
불르랜 행 막 블라나서. 경허민 막 요랏이 수눌영으네 보리터에 가나서.

110007 @ 정월에 하는 행사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우다. 옛날에 '결궁'에 대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0007 #2 결궁.

110007 @ 이서수과?

110007 #2 응

110007 @ 어렸을 때도 봐나수과?

110007 #2 응응. 결궁도 일년에 한번은 해여.

110007 #1 결궁 해나서.

110007 #2 결궁도 일년에 한번

110007 #1 동네서 경 허면은 돈 어떻게 자금행 허는건 몰른디 난 딱 그거 하나  
생각난다. (상자?) 교환이민 그때 혼 열멧살인디, 나보다 혼나 우의난 이, 어디 돈

성으네 돈 오백원짜릴 착 내놔 탁 오백원짜릴 하나 주더라고. 경 집집 강 허민 막 돈을 회사해. 회사덜 허여. 막 고팡두드레 강 막 쭈어나라 쭈어나라 막 행 나오곡

110007 #2 집집마다 들어가민 막 보민이 그냥 한 장구치멍 복치멍 막 허주게이. 경행 나와가민 돈덜 주어나서.

110007 #1 뭐 나온 집의도 있는디 원 상진이네 그 생각이 짝 나는거. 상진이 돈 오백원이 딱 두둑헨 오백원짜리 혼냥이 딱행 있는거라.

110007 #2 아, 그때 어디 돈이 신고이? 들어볼거아냐 이제랑.

110007 #1 아 이젠 들어보젠 해신디 고평 당허민 잊어부런. 이번에 와서민 막 들어봐야겨.

110007 @ 꿩과리 치고 잘허는 사람 이서수과?

아니 영 누가 왕으네 고깔씩영 왕으네 막 허더라. 남자영 여자도 몇 명 해.

110007 #1 나 영 골으난, 들어봅서게. 1 지금은 잊어부러실거라. 부모넨 안헌디, 그 아덜이

110007 @ 지금도 험니까?

110007 #1 아니, 지금은 안해

110007 #2 지금은 안해여

110007 @ 언제까지 결궁은 봐나수과?

110007 #1 결궁헌 때가 왜정때라

110007 #2 왜정때에

110007 #1 우리 어털 때가 왜정때라.

110007 @ 왜정때 일본사람덜이 막진 안해수과?

110007 #2 막진 안허고.

110007 #1 36년간을 왜정때 살아시난 우리가 이제 36년을

110007 #2 막진 안허난 해실테주게. 꼭 결궁은 허드라고.

110007 #1 왜정때 부름씨 혼 생각을 허민 조그마니 해주.

110008 @ 입춘에 대해서 골아줍서.

110008 #1 옛날엔이 예전날 어디 가민 검질 막 짓으민이, 저 사름 강알 짓은 사름 와나난 경 검질 짓엄덴 어른덜 막 장난으로 골아났덴.

110008 @ 여자들한테 너무하는 거 닻아. 여자들은 꿈짝도 말라는 말인지

110008 #2 계난 여자들 꿈짝 못허연.

110008 @ 계난 그 입춘날 남자들이 그 보리 내보면 보릿점, 그런 거 혹시 들어봐수과?

110008 #1 1 응

110008 @ 뗏 불리 해가지고 진짜

110008 #1 보릿발 보릿발

110008 @ 보리뿌리

110008 #1 응 보리뿌리

110008 #2 보리뿌리, 그거 멧개허민 시집 좋나, 보리 좋나, 나쁘다.

110008 #1 그거이 보릿밭이 세 개로 과짜 행 딱 나민 좋고, 보릿밭 멧갯 매여. 멧갯, 흐나만 난 것이 잇넨 하나만, 돌랑이 하나만, 그 해는 경도 안중넨, 하나만 난 게. 세 개로 과짜 난 건 그 해가 막 좋고,

110008 @ 두 개는?

110008 #1 두개는 무난허고, 흐나 난 건 잘도 그해 안중넨,

110008 @ 여자도 밧 봅니까?

110008 #1 여자는 안봐. 장난으로 곤는거야. 검질것으민 강알 짓은 사람 왓젠 허연.

110008 @ 보릿밭을 보는 사람이 누구짜 강으네?

110008 #1 그건 잘 모르커라. 겐디 남자들이 여자덜은 잘 모르는다 남자들은 그런 말 하. 보리 식개를 딱 매어판 경

110008 #2 보리밭디강 보리 매영황으네 경 잘 봐.

110008 @ 그날 강 매야지예?

110008 #1 새쩔드는 시간 알앗당 딱 새쩔드는 시에,

110008 @ 새쩔드는 시에?

110008 #1 응. 딱 시에, 새쩔드는 시간을 알앗당,

110008 @ 신기하다예. 시간은 누가 그렇게 점치는것과?

110008 #1 아니, 멧시에 든넨 말 자꾸 어른덜 말해.

110008 @ 부적도 그때 부칩니까.

110008 #1 응. 멧시에 드난 멧시에 부치렌 이제,

110008 @ 게난 얼마나 정성을 해시민 절간에서도 그런걸로 경 허고.

110008 #1 경헌디 절간에선 경 혈수가 어서. 경 오닐 새벽이 간덴 허민, 어떤 사람은 아시날 갖당 그때 허는다, 아시날 경 다 가져게. 우린 경 시간에 붙여보질 안해서. 이제까지. 절에 경 다녀도. 그 아침 새벽에 허민 새벽에 가져게. 그냥 그날 아정왕 그때 붙여불곡, 또 저녁때 붙이민 저녁땀 부칠수 있지. 그런 때 강 줌 허곡. 시간에 허는 사름은 막 멧심허는 사람 하서.

110008 #2 그거 시간 맞춰 허진 못허주게.

110008 #1 우리도 해마다 부찌주게이, 절에 다니난. 나가 절에 땡긴지가 한 오십년이라. 오십년간 해서.

110008 @ 어느 절 다넘수과. 노형?

110008 #1 처음에 시작은 천왕사 다니고 지금은 외도1동 광제사랜 현디. 그디 스님이 천왕사 스님이라서.

110008 @ 입춘날은 멧심헌덴 여자들은 안움직여?

110008 #1 움직여사 무싱거 경 벨로.

110008 @ 입춘은 뭐짜?

110008 #1 새철 드는 날이 입춘

110008 @ 새철 드는 날이 뭐가 중요한것과?

110008 #1 계매.

110008 @ 계절이 들어오고 봄이 시작된다는 거?

110008 #1 옛날은 하근 거 볼때난 그런 날을 보주, 어디 가지마랑 집이만 시라 해도 지금 무시거 경 막 잘 봤서? 새철드는 날 뭐.

110008 #2 새철드는 시간엔 집이서 방맹이질도 못허게 해여.

110008 #1 뭐 바느질허민 뭐 생손알린텐 행으네 바농질도 못허게 해나서. 그 시간에는, 생손 알린텐,

110008 #2 소리나는 것도 못허게 허고,

110008 #1 우리 집앞에 뗏 집이 흙 해당으네 막 집 짓어부난 못이 되어부런게. 계난 일름이 마당못이라. 마당못.

110008 #2 그 중간에 셔난 것이?

110008 #1 아니 우리 올레에 마당못 셔났네.

110008 #2 그 마당못 해꿈 현 것이.

110008 #1 계난 그디 그 스방에 사름덜이 다 그디서 흙 팡 흙 일렁 집 짓어부렀덴. 이녁 집의꺼 아녕. 계난 그 공땅이니까이, 계난 못 되고랜게. 못 돼부난 그냥 그디강으녕이 어둑으민 무시거 아정강 착착 두드려. 계민 그 동녘집의가 우리 오촌이라. 야, 해지난 거 허지말라게이. 그 뒤로 왕게. 야, 날그라 셋년아 해지여세. 거 마께질 허지 말라이. 허지말라이.

110008 #2 응. 해 진 후제도 그 방맹이질 못허게 허연.

110008 #1 허지말렌. 거리 안네에. 난 몰란에, 지연에 강 착 두드리민 어떻 들영 완에 뒤으로 왕으네 셋년아, 영 허든 그걸로 영영 박박 뒤태영 빨아그네 마께로 두드리지 말라이. 해져부러세. 그어른은 애기도 흥나토 아니 나본 어른이 그런걸 지키더라고.

110008 @ 입춘 아닌데도 해 지난

110008 #1 아닌데도 해 어신때 방맹이질 허지 말렌.

110008 @ 우수, 우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0008 #1 우수?

110008 @ 우수 경칩, 입춘 우수 정월에 우수라는 절기에 대해서

110008 #2 그런 절기가 이서. 그런데 그건 모르겠어.

## 2월

110009 @ 이월은 영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간/출입처/금기 사항. 영등 할망 들어올 때는 뭐를 하지 말아라, 또 경칩 춘분 들어봐신가마씀?

110009 #2 영등할망 들어올때는 머리감지 말렌은 해여. 머리 감아불면은 구데기 나온덴,

110009 @ 빨래가 아니고

110009 #2 응 빨래가 아니고  
110009 @ 머리 감지 안행 살아져?  
110009 #2 게메  
110009 #1 진상이네 할머니, 막 유식허여.  
110009 @ 살아수과?  
110009 #1 아이구 돌아가셨주. 잘 고라줘, 우리고라. 경해도 잊어부런. 이거 허지 말라 저거 허지말라. 그 생각 남다야, 이거 말 곱아가난.  
110009 @ 영등할망 생각 안남수과?  
110009 #1 경행 그 어른 이, 우리 어머니보단 막 우윗 어른인디 글도 막 잘 알아. 한자, 한자. 한자도 잘 알아. 그 어른이 누젠고 허민 이, 창선이 알아지나? 광평, 그디 고모. 현침할망이라.  
110009 #2 기?  
110009 #1 광평고모, 창선이 고모라. 친고모. 막 유식해 할망.  
110009 @ 삼촌, 영등에 대해서는? 곳도 안봐보고?  
110009 #2 응 곳도 안봐보고 영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  
110009 @ 바당에 해녀들이  
110009 #1 아, 맞다이, 좀녀들 해녀긋 허는구나이. 영등 나가랜이, 정월 보름, 저 이월보름 되믄이. 맞다, 영등긋 행 영등긋 보레  
110009 @ 보름 전에 다 허주게. 우도로 나간다  
110009 #1 올때는 영등 들어올땐이 우도 왕 흐룻밤 장으네 나흘날 들어왕 () 온덴 허여. 우도로 먼저 오고 우도로 먼저 들어가고,  
110009 #2 우도로 왕 흐룻밤 자그네게 제주도로 온덴 허주게.  
110009 @ 저 귀덕으로 온덴 안들어봅디가?  
110009 #1 아니, 여기선 우도로 온덴 해여. 우도로 가꼭 우도로 오고,  
110009 #2 우도로 왕 흐룻밤 장 이레 넘어 왕, 이제 삼일인가 닷센가 살양 갈땐 딱시 그디 강 흐룻밤 장 올라간덴,  
110009 @ 경 들읍디가?  
110009 #1 우린 경 들은 것 같아. 그 비가 그 사람네가 올 때, 우장 썩 오민 막 비 왕 어질허고이. 므른 옷 입영 우장 안 썩 온땐 햇빛 생 일 막 출러. “아이고 올린 할망도 우장 안 썩 온생이여 일도 잘허고 ㄱ물양 좋다” 해 어른덜이, 비와 가민 “영등할망 우장 썩 와분 생이여 맨날 비왕”  
110009 #2 우장 썩 영등할망 들어온생이여 해낫주게.  
110009 #1 비와가민 비가 출출 오기도 허여이. 영등 들어오민이.  
110009 #2 막 브름불명 날씨가 안 좋을때가 이서.  
110009 @ 저기 보말이나 이런 거 다 까 먹어부난 빈덴 현 말 들어봤수과?  
110009 #1 응. 꺾테기 보민 꺾테기만 소록이 이서. 영등 나가분 후에, 영등 아니 온 때는 그거 없고이. 다 욘아 잇고, 수두락엇 대신엔 세 개 이시민 두 개는 비고

하나는 읊지 안해.

110009 #2 영등할망 들어 왕 문밖 까먹어 불엇젠 글아.

110009 @ 봐 봤수과?

110009 #1 바당에 가지 우리. 어린 뎨 바당에 다녀난게. 강으네게 공꺼니까게. 가민 깡이도 잡아당으네 젓행먹고, 보말도 잡아당 솥양으네 내영 국도 끓영 먹고, 반찬도 해 먹엇지.

110009 @ 진짜 비어이서마시?

110009 #1 진짜로 비어 이서, 많이 비어 이서. 보말이 그거이 보말이 아 쫄랑헌 거 이서. 비어 이서. 앳양보민 비고, 앳양보민 비고해, 그 쫄랑헌 보말, 검은 거 쫄랑헌거 그거 보말이 아니고 것ㄴ라 뒤렌 허는고? 이 꼬뎡이로 끌랭이로 찢라 똥 쪽 빨민 쪽 나와. 거꾸로 쪽 나와. 또꼬망으로 쪽 빨민 나와. 쪽쪽보말 거 닦다이. 것이 많이 비엇드라고, 주성보민 비고 주성보민 비고,

110009 #2 겐 영등할망ㄴ라 문 까먹영 가불언생이엔,

110009 #1 영등할망이 안 올뎨 경 빈 게 벨로 없는데,

110009 @ 영등할망이 막 세긴 쉼생이라. 브름이 막 불고예?

110009 #1 응,

### 3월

110011 @ 3월 한식 명절, 찬밥 먹는데 허멍 헌 한식명절 안들어봐수과?

110011 #1 무사 안들어게. 우리 한식명절 왜정때 막 허멍 굽으멍 하나배끼 못허게 해노민 빨리 행강으네 확 대문 더꺼그네이 제만 냉겨동 영 서로 뎡기도 안허곡 경 한식을 못허게 허난 경헨

110011 #2 왜정시대 한식을 못허게 했나게? 정월명질을 음력으로 허지 안행 양력으로 허렌 허난 했지. 경허난 게났지.

110011 #1 게민 음력 명질행 문 더꺼신가?

110011 #2 게난 우린 음력으로만 사용허난게 음력명질을 흐젠 허난게 막 문 더 쟁 다덜 해났지

110011 #1 양력은 막 마음냥 허곡, 음력건 흐젠 허문 막 굽양으네 몰르게 경 확 문더쟁 허곡

110011 #2 한식명질이 아녕 정월명질을

110011 #1 응 정월명질 음력 허는거

110011 @ 아, 일제 강점기 그런...

110011 #2 왜정시댄 양력만 허는 지네 나라 풍습 따라 양력으로만 허렌.

110011 #1 막 조사뎡겨난게. 서기덜이. 시청 서기덜이. 흐는가 안흐는가 알아보젠. 경허민 문 딱 달아부러.

110011 #2 방엔 불 켜놔그닝에 문 더꺼놔 해난.

110011 #1 처음엔 아닌치룩 행으네이

110011 #2 건 해방된 보난 음력으로 허는 집이 음력으로, 양력으로 허는 집인 양력으로, 양력이 더 많아.

110011 #1 겨난 그 양력으로 헐 때는 멩질을 네 번 헐 거 다섯 번 했구나. 정월 멩질 두 번째연. 음력은 몰르게 해그네 허고 양력은 막 알아지게 흐렌 허영 허곡.

110011 @ 한식멩절은?

110011 #2 한식멩절도 해났주게.

110011 @ 청명 곡우... 한식멩절은 차가운 밥 먹고 이런건 혹시 안들어봐수과?

110011 #2 거 무신말인지 모르켜

110011 #1 차가운 밥은 무사 상우의 씨넝케 올려? 차가운 밥 허게.

110012 #2 숟가락 노민 보리밭디 보리비레 가고

110012 @ 한식멩절 보리멩절 지내면 마썰?

110012 #1 응

110012 @ 청명때는 4월5일이 식목일잖아예. 그때가 청명, 하면 무신 일들 해수과?

110012 #1 그 고비에 멩질이라이.

110012 #2 응

110012 #1 청명 고비에 멩질인생이라, 한식멩절. 그 전도 되고 후도 되곡 허더라이.

110012 @ 청명 때는 뭘 해수과?

110012 #1 뭐 허는게 없어.

110012 @ 무슨 산소라든가 청명때는 나무 심는거나 이런거

110012 #1 산소에 가. 무싱거이 소행이도 산에 강 케고,

110012 #2 산에 강으네게 잔디 벌어진딘 잔디 해당 입히고 풀도 뽑곡

110012 #1 그 소털 파분디 잔디 파분디 그거 손봐. 날 안봐도.

110012 #2 소털 그 산에 강 길릅기 때문에 소털이 들영 막 파분 산이 잇어이. 경현 산에 이제 흑 파다가 딱시 그 파분디 맵고, 산때 강 일허는건 청명날을 주로 잡았던

110012 #1 청명엔 가도 뭐 우속메엔 해도 일 엇넨 행 청명에 산에 가는 거 우선 산에 가는거다이 청명에.

#### 4월

110013 @ 4월 초과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0013 #2 난 절간에 안다녀

110013 @ 4월 초과일에는 무사 갑니까?

110013 #1 부처님 태어난 일엔 초과일 주로 행으네 기도를 네여게.

110013 #2 그날은 부처님 오신 날이엔행으네게 막 크게 허주게.

110013 #1 등들 다 돌아매이. 자기 일름 썩, 등 다 돌아. 경허민 일년내



내 등을 새해 초과일때까지 등을 돌아 케민 그 등은 아상 다 거제해뵈 새로,  
 110013 #2 등이 틀리지, 1년 드는 등이 싣고, 그날만 드는 등이 싣고, 등이  
 세가지라. 난 절간 안 땡겨도 그건 알거든.  
 110013 @ 1년 지난 거는 태와 불고?  
 110013 #2 그날만 헛거는 그날 불공 끝나근에게 마지막에 다 빼어근에 다 태와  
 부는디 1년등은 1년을 내내 든대로 그냥 잇다근에 다음해에,  
 110013 #1 1년 등은 1년에 5만원, 등 하나에,  
 110013 #2 십만원이라. 천왕사  
 110013 #1 우리 광재사는 5만원  
 110013 #2 천왕사는 십만원  
 110013 #1 아니올런, 게도 올렛젠허드라 5만원으로, 8만원으로 뵈, 십만원갓덴  
 곱아라. 작년까지 8만원해신디.  
 110013 #2 아니 아니, 작년부터 십만원  
 110013 @ 한 사람이?  
 110013 #1 혼 사람이  
 110013 #2 혼 사람이 십만원, 작년부터  
 110013 #1 난 손지꺼허고 아덜컨만 돌아.

## 5월

110015 @ 단오 명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단옷날은 뭐 행 먹읍니까?  
 110015 #2 5월 단오명절은 해영 먹영 술궤락 노민 보리밭디 보리 비레가곡.  
 110015 #1 다른 명절허곡 똑같이 해먹어나신디.  
 110015 @ 이젠 안허잖아예.  
 110015 #1 이젠 막 허지말라 허지말라 해가난 안햐고.  
 110015 #2 옛날엔 정월명절은 우리 산 사람에 비허민 아침밥이고 또 저 한식은  
 간식이고, 오월단오는 정심이고, 팔월추석은 저녁, 우리 산 사람에 비허민  
 110015 @ 경허난 단오도 중요한거다예.  
 110015 #2 경행 스멩질해낫젠 허주게.  
 110015 #1 계난 두 번만 먹영 살렌 햐서. 귀신도 두때만 먹으렌 허는 식이라. 자  
 기 혼자 제사는 생일날 허고, 죽은 날  
 110015 @ 단오 명절이 특별하게 다른 건 어섯수과?  
 110015 #2 특별하게 다른건 없고 아무 풀이라도 백가지 뜯영 먹으민 딸령 먹으  
 민 만병통치가 뵈덴해나서. 단옷날이  
 110015 @ 풀들이 좋구나예. 경해도 독초는 안뵈고 아무 풀이나  
 110015 #1 연동꽃이엔 막 허는 사람이 시여.  
 110015 #2 연동꽃이엔 현 꽃은 연날부터 한약재에 들어가는 거고  
 110015 @ 인동꼬장 아니고?

110015 #2 우린 옛날엔 연동꼬장이엔 현디, 이젠 운동꼬장이라. 건디 우린 어린 때 커울데에 그 꽃타레 막 땡겨나서게이. 꽃 바구니에 타당에 널영 말류왕 놔두민 약방에 받으레 오더라구이. 받으레 와. 근으로 혼 얼마 해그네.

110015 @ 많이 해수과?

110015 #2 많인 못허주마는 해당 풀아나서.

110015 #1 게문 그 사름덜이 막 들류왕 골랐당 무신 약 재료로 들어가는 것 같애.

110015 #2 어, 옛날부터 건 약초로 들어간덴 해그네 해났져.

110015 @ 그 약초에 사름덜이 뭘 행 먹어나수과?

110015 #2 뭘 그냥 해먹는 건 못봤고,

110015 @ 백가지 약초로 해서 먹으면 좋다? 단웃날예?

110015 #1 그 연동고장 나무 줄기도이 당뇨병 이신 사름은 슬망 먹으면 괜찮덴, 당에 좋덴

110015 #2 뭘 연날부터 약초로 들어가는 거난 좋을거라. 아이고 아침에 세백이 어머니 조반허는 사이에 그거 혼참 탕

110015 #1 그 꽃 아침의 피영 소들아불어.

110015 #2 아침엔 막 바득바득 보기 좋게 피주게이. 경 아침세백이 어두룩행 꽃도 잘 안보일 때 일어남 그 담 짝 우에 하얗게 고장 피민 그 하얗게 보이주이, 날은 어둑어도 경허른 어머니 조반허는 사이에 그거 따오젠 세백이 가그네 그거 따당 혼참을 따당 널어동 어머니영 밧디 가꼭 허연. 쟁 몰라그넵에 났다그넵에 와서민 폴아그넵에 돈도 얼마도 주지도 안허곡,

110015 #1 안줘? 어머니가 폴앙?

110015 #2 어머니가 폴앙 씨부런 주지도 아녀났져.

110015 #1 난 경 아년다. 프랑 나가 다 나가져. 삼동도 타당으네이 폴앙 나 돈허곡

110015 #2 난 나돈이엔 현건 해보지도 아녜져.

110015 #1 난 아시영 나영 식술 차인디 아신 쪼끔 어려부니까이 막 먹어불젠만 허민 먹지말렌 허명 삼동타당 곱져불곡

110015 #2 년 아시영 행 ㄱ치 영 크니까 혼디 난 밑에 동생들이 다 어리니까 삼동도 타민 먹기가 바쁘니까 폴아보지 못해서.

110015 #1 막 점빵에강 곱경 놔두민 이 알아져. 영 혼주먹 딱 췌어난거. 이거 누구 췌어났나 허민 줌췌허여. 지가 먹어지난이.

110015 #2 삼동 타단 폴아본 적이 었다.

110015 #1 난 막 폴아난. 열이영 옥이영 서의가 앓앙.

110015 #2 느넌 경 잘해났네.

110015 #1 서의가 동갑이난이

## 6월

110017 @ 닭 잡아 먹는 날, 6월 20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0017 #2 게메 스무날은?

110017 #1 스무날 닭 잡아 먹는 것이 몸에 좋은거이. 우리도이 닭을 새끼를 깨와이. 깨우민 막 독이 혼 열다솻므리까지 막 달달달달 해. 게민 혼 아이에 혼므리씩 아버지가 다 그 병아리 혼꼬 큰 거, 다 잡아 양 솥양 혼 솥디 솥아. 게난 크지 안은거라. 그냥 사발에 대접에 혼나씩 낵 먹으렌 해. 혼나씩 먹으렌,

110017 @ 죽도 췌 먹고예?

110017 # 우린 큰 거 혼므리 행으네게 식구가덜 므치 먹어나서.

110017 #1 죽은 므치 먹고, 독은 혼나씩 쥐. 혼므리씩 우린 집이 새끼 키우난게.

110017 #2 아, 우리도 병아린 주로 깨완,

110017 #1 장병아리로, 그건 더러 질루고 풀기도 좋고,

110017 #2 겐디 그건 무신 뜻이 이실거라?

110017 #1 아맹해도 스무날 독 먹으민 몸에 좋은가?

110017 @ 더우니까예?

110017 #2 더우니까 이 여름 더위깨렌 그걸 복날에 했던가 윈,

110017 #1 몸에 조난 아맹해도 그걸 행 메연,

110017 #2 하영튼 무신 의미가 이신디

110017 #1 스무날 독 잡아먹는 날이엔 행으네,

110018 @ 초복, 중복,삼복(三伏)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0017 #2 초복, 중복, 말복이엔 해나신디.

110017 #1 삼복이 말복이야. 그건 몰르커라.

## 7월

110020 @ 칠월 칠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0020 #2 칠월 칠석은 하늘에 견우와 직녀를 만나는 날이엔 허주게. 하느레 영 보민 미리내 다리가 이서. 미리내엔 허주기. 가만이 영 보면은 내창므치 딱 다리가 이서. 진짜로.

110020 #1 서우트레 줄이 짝 강 이신디. 그 견우가 미릿내 가가민 이디이디 영 이신디 어느 사이에 강 둘이 만난덴. 미리내 사이에 났당 견우가.

110020 #2 만나젠허민 그게 다리가 물이었던 모양이라. 만나젠 허민 다리가 이서 야 만날거 아니? 게민 그 그날 넘어나면은 이 가마귀 머리가 부서져. 게민 그 견우와 직녀가 만나면서 가마귀 머리로 다릴 놔부난 놔 건너나부난 가마귀 머리 벗어졌젠 막 해나서.

110020 #1 경헌디 난 건 물론디 그 허는 시간이 껌껌헤볼드라 하늘이. 하늘이 막 어둑어분덴, 껌껌헤분덴 하늘이

110020 #2 응 , 그 시간에

110020 #1 둘이 만나는 시간에. 우린 그 시간을 몰라나신디

110020 @ 비가 오거나

110020 #1 아니 비가 아니와도 그냥 껌껌해분덴. 청명햇단 하늘이. 경헨 그 시간 이후민 환해지꼭 하늘이. 그 견우 만나는 시간만. 게난 그 전우도이 좀 껌껌헌때 만나는 것 같애. 훗헌 때 만나질 안허고이. 하늘이 껌껌헌덴 허니까.

110020 @ 만난게 비오젠 허난 그런 하늘이 되는지도. 비가 눈물이렌도 들어수다 게.

110020 #1 만난 올당 보난? 난 전우 만나는 시간이 껌껌허니까 어둡은디 만나는 식으로 어둡은신가 생각했지

110020 #2 누구 안보이게끔 경 못보이게 경 그런덴

110020 @ 비가 많이 온덴 허니까

110020 #1 하여튼 전우 만나는 시간은 껌껌헌덴 해여. 그 시간 넘으면 또 하늘이 맑은덴. 쪽 (얼깡금? ) 허는게 아니고이, 시간만 넘으면. 겐디 그 시간 길이를 몰랑 줌 자불민 그시간 봐보질 안해여서. 건디 어른덜이 전우 만나는 시간은 언치낙은 껌껌헨덴.

110020 #2 응 어른덜 그런 말 해나서.

## 8월

110025 @ 별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자도 갑니까?

110025 #1 추석전인 무슨 일이 셔도 별초를 해.

110025 #2 별초를 아니허면은 추석맹질 먹으레 그 초상이 받걸령 오지 못헌덴 허주게.

110025 #1 흐흐흐 하여튼 추석전이 다해야돼. 게꼭 놉덜도 보멍 욱허여. 추석전 이 안해시민 못생긴것덜 행으네 추석 멧질전이 별초도 안헨져 아무산 영행으네 막 그 어른들이 욱해.

110025 #2 그런 의미가 잇기 때문에 욱 허여지는거주게

110025 #1 대개는 별초전에 허여. 어찌다가이 어디 욱지나 가불영이 어신사람도 더러 그때 못오면은 그런 때나 흑시 잇주이, 제주도 아장 사는 사람은 다해여 다.

110026 @ 팔월 명절이 설날하고 뭐가 달라마씨?

110026 #1 똑같이 허는디 추물만 그때따랑 달라. 과일만 달리 헨지. 다른 건 다 똑같아.

110026 @ 보통 옛날 제주도에서는 어떤 과일을 올렸수과?

110026 #2 옛날엔 과일이 경 제주돈 혼치 안해낫주게. 제주돈 과일이 윈 어서나 셔. 게난 옛날에는 과일이렌 헨자 저,

110026 #1 세가지 세가지,

110026 #2 응, 멧가지 못써낫주게.

110026 #1 그 땡유지는 옛날엔 꼭 써이. 냄새난뎨 헨 좋뎨 해영이.

110026 #2 땡유진 향이 좋기 때문에 그 향으로 높은 디도 그 유진 써나신디, 육지 닻지 않행으네 과일을 땡가지 쓰지 않은 거 닻아.

110026 #1 식가지 더 쓰지 않은 거 닻아.우리 어머니네도 보든 식가지 땡유지허민 배 사과허민 세가지지.

110026 @ 땡유진 쓴쓴헌디 무사 것밖에 어시난?

110026 #1 냄새가 좋아. 향이 좋아.

110026 #2 향이 좋기로 유잔 꼭 써. 유진, 옛날 유지,

110026 #1 비린 것도 가신뎨 해. 땡유지 쓰면은 비린 것도, 웬만 비린 것도,

110026 #2 높은디도 쓰는 거.

## 10월

110029 @ 절기: 입동, 소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0029 #2 음력 시월엔 가을 곡식 거뭍들이는 거.

## 11월

110030 @ '동지 팥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납평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0030 #2 납평날?

110030 @ 납평날이 옛만드는 날이파?

110030 #2 응

110030 @ 며칠날로 정해져수과?

110030 #1 아니, 그거 허는 집의도 드물곡이, 옛허젠 허민 납평날에 옛허는 건 들어보진 아너곡, 그냥 한글허민 한글헌 시간 따랑 옛허주이, 납평날에 옛헌말 난 처음 들엄다.

110030 #2 납평날에 옛허민 거 약이 된다고 해가지고 경헨에 그거 좀 멍심행 허는 집이나 집안이나, 그 사람마다 허진 못허곡계.

110030 @ 동지팥죽은 어뎡해수과?

110030 #1 동지 팥죽은 조금허민 다 행 먹어.

110030 #2 동지날이민 웬만허민 다 아침이덜 썰 먹어.

110030 #1 아침 조반으로. 웬만헌 집은 다 행 먹어, 막 젊은이덜 헨 중 몰랑이, 새사람덜은 경헌 사름이나 배끼는. 중사람 데레는 그자 행 먹지. 우리도 아니해먹어 보진 안해서.

110030 @ 무사 행 먹어신고예?

110030 #1 우리도 동지 팥죽 안 먹어보진 안해서. 감기 안 헌뎨,

110030 #2 동지 팥죽 먹으민 감길 안헌다고,

110030 #1 어른들이 경헨, 난 안 먹어본 역사가 어서. 해마다 먹엇지, 부모네가

해주난,

110030 @ 신이라든가 무신 고뿔 안들어보고예?, 도채비라든가 붉은 색깔 뭐 이런 거?

110030 #2 어떤 집안엔 뭐 동지죽 쑤면은 뭐 그릇에 걸영으네 집바까디 가근에 집 네 귀에, 집너귀따지에 영 떠 놔똥으네 먹넨 허는 집안도 이서.

110030 #1 혼동네에 하나 시나마나,

110030 #2 겐디 그런 집이 드물고게.

110030 #1 거 무당이니까 경 말허는 거지게. “어떤 딴 경해라.”

110030 @ 동지 풋죽은 어머니가 끓여주지예? 어떻게 끓입니까?

110030 #1 어머니가 끓여 주고 우리도 살림사난 행 먹엇지.

110030 #2 우리도 살림사난 우리대로 행 먹엇지게.

110030 @ 풋만 넣지예? 쓸도 섞영?

110030 #1 풋을 미리 밤에 삶양 놔똥이. 푹허게, 슬이 많아.

110030 #2 풋을 물 담앗당으네 밤에 삶양 놔똥. 겐당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국자로 국자등땡이로 솟창에레 막 이렇게 문대어.

110030 #1 게문 잘 익은 풋이난에 거자 부서져.

110030 #2 겐으네 막 문대면 거의 부서지주게. 거의 문대지민 이젠 물 놓고 쌀 시쳐근에 농곡해그네게

110030 #1 풋을 많이 노면은 죽이 맛있고이. 풋 조금 낡 쓸 많이 노민 맛업서. 풋이 많아사 풋죽이,

110030 @ 쓸은 어느 정도 눅니까? 풋 얼마에 쓸은 어느 정도? 물에 불렸던거?

110030 #1 아냐. 그냥 씻쳐 놓는데, 반반 노민 쓸이 많아. 삼분에 혼 일 흐김 더놔. 일에서 조금 더 노민 돼곡. 반은 낡으네 쓸이 많앙 맛업써.

110030 @ 쓸 안 놔도 안돼곡?

110030 #1 안돼고, 그 아예 아니 물르짚 때 믈른 때 거리는 거 잇잖아? 뭐 사발이나 뭐 음식 걸렁 거릴 때?

110030 #2 무신 그릇으로,

110030 #1 마련헐 때, 그 삼분의 일은 노민 조금 죽은디 일을 흐끔 더놔.

110030 @ 풋부터 끓이당 쓸 눅니까 ㄴ치? 으깬 후에 쓸을 노는거지예? 끓이민 돼는거?

110030 #1 풋부터게 풋 끓영으네 다 행 국자로 데기면은 다 까지지.

110030 #2 다 문대어지면은 이제 물놔그네게 이제 영 젓어놔그네게 이제 쓸 놔그네게 영 덮영으네게 불 때다근에 자꾸 젓어야 돼어. 쌀이 가라안자그네에 솟창에 넣어볼까봐.

110030 @ 약헌 불에?

110030 #2 응.

110030 @ 뭣 분 정도 끝입니까?

110030 #2 켜 오래 푹 끝이면은 요번 날도 곧앗주마는,

110030 #1 혼시간 땀어. 혼시간, 혼시간 땀어. 끝이는 시간이 솟이  
큰 걸로 해영게,

110030 #2 응. 식구가 다 먹을 걸로, 식구가 많으면,

110030 #1 남으면 점심도 먹고게 걸로. 혼시간 끝어야 땀어. 혼시간 잡  
아야 땀어. 끝이는 시간만

110030 #2 두시간은 안땀어도 아땀해도 1시간 받은 땀어.

110030 @ 제대로 배와시쿠다예. 늬이 헌건예.그난 정성이 들어가부난,

110031 @ 납평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옛만드는 거 해봤수과? 12월에 한  
걸허니까?

110031 #2 한걸허니까

110031 @ 보통 무슨 옛을 험니까?

110031 #2 으 차줍쓸로게.

110031 #1 차줍쓸로 해야 그 색깔도 좋곡이.

110031 #2 차줍쓸 밥해그네게 질게, 차줍쓸 밥을 진듯허게 해그  
네게 그릇에 떠 낱 다라민 다라에 퍼 낱으네게 굴꺾루 굴 그 꺾를마니  
아니고 굵게 꺾라진 것도 좋아. 그 옛허는거는 체로 걸를 꺼니까 경해그네 젓영  
으네게 배합행으네게,

110031 #1 아니야 그 주생이 체허민 감재쭈시 먹질 못해. 거 주생이 걸러부러사,

110031 #2 아니야. 옛날엔 우린 쉼 쥐불어났져. 먹지 안행, 옛날 옛날에 못 살때  
나 주서 먹엇지. 게그네게 이젠 그 향아리에 그걸 낱으네게 그 어디 저,

110031 #1 남죽잇는 조쩍에 굴 낱 막 물 낱 막 젓어.

110031 #2 젓영 배합시켄게,

110031 #1 영 젓어가민이 그때부터 굴 놓고 쓸노민이 막 사르르해여. 흐  
르르흐르르해여.

110031 #2 응. 풀기가 어서.

110031 #1 막 땀단것이 저어가민이 막 물이 많아. 그때부터,

110031 #2 굴가루 뉘부니까,

110031 #1 켜 그땀 득시게 행으네, 방에 뉘 담요나,

110031 #2 아침에 행으네 예를들렁, 아침에 행으네 헛다 하면 뜨신 방구석에강  
끌곡 다음날은 다음 날 아침은 걸렁 주시 다 빼영 저녁때 땀민 발효행으네 부  
젝이 줌 거품이 올라오기 시작허여. 게근에 허른 다음날은 다음날 아침엔 그걸 이  
젠 걸렁 주시 다 빼근에게 큰 솟에 낱으네게 나무 불때는디 응근이,

110031 @ 물만 물만?

110031 #2 그 물만, 켜 응근하게 때면서 저서가면 저시면서 은근하게 아땀해도  
흐루중일 때어야 해여.

110031 #1 닭이나 꿩이나 노면 좋지.  
110031 @ 멧시간 꿩이멍 이제 고기 봐?  
110031 #2 거의 돼민,  
110031 @ 열시간?  
110031 #1 하루종일 걸려.  
110031 @ 약한 불로마씨?  
110031 #1 약한 불로 해야지. 늘어부렁 안으로 타부러.  
110031 #2 밀으로 늘어불기 때문에.  
110031 @ 저어 가멍?  
110031 #2 음. 자꾸 저어 가멍,  
110031 #1 옛 만드는 게 제일 시간 걸려.  
110031 #2 막 시간 걸리주게.  
110031 @ 가마솥 하난 이렇겐 아니고?  
110031 #1 가마솥은 아니고 경 큰것엔 아니고,  
110031 #2 가마솥은 아니고 그자 두말떼기, 두말떼기엔 헨거 말가웃떼기, 큰 솥  
테, 막 오래 걸려.  
110031 @ 멧돼, 혼말?  
110031 #1 두말떼기로 허는 것도 혼 말은 안행으네 쓸 이만헌 돼로 두  
돼, 꿀 혼 돼민 두말떼기로 해야돼.  
110031 #2 그렇지.  
110031 #1 두말떼기로 게민 ㄹ득허민 두말떼기 굿곡허난  
110031 @ 멧말을 두말떼기엔 험니까?  
110031 #1 여기 말치솥은 혼말떼기렌허곡이, 두말떼긴 들레가 크주게 이마니  
영 커..  
110031 #2 솥중에 켈 큰 솥이주게. 옛날에 촌에서 쓰는 솥,  
110031 @ 가마솥?  
110031 #1 가마솥 말고  
110031 #2 가마솥 밑에 꺼,  
110031 #1 가마솥은 어디 경 큰일헐때나 쓰지이.  
110031 #2 옛허는게 시간 걸리고 힘들어. 한참,  
110031 #1 옛허는사람이 막 부지런헌 사람 부지런헌 사람, 막 착헌 사람, 게을른  
사람은 못허여.  
110031 #2 아침이 해근에 3시쯤 돼 예를들엉 3시쯤 뵈다허민 그때부턴 옛물이  
풀풀헨기가 나오기 시작허여. 저녁때 돼가민 풀풀허여. 저녁때 돼면은젓는 걸로 이  
렇게 들르민  
110031 #1 덜 끈어져. 줄 안 끊어지도록 다 돼엇텐 허여근 주루릉이 다 나오도  
록 주루릉이 경허민 불 꺼부러. 주루릉이 우리 어머니 허는 거 받. 영허난 “이젠 다



뻘져.” 그전엔 영허민탁 끈어지민 “더 해야 될로구나”

110031 @ 꿩이든 닭이든 삶양 살만 놔?

110031 #1 삶양 익으면 막 찢어게. 고기를 손으로 찢어,  
110031 @ 또 혼번 끌어마씨?

110031 #1 아니 것에 낵 해가민 간데없어.  
110031 @ 뜨거운디?

110031 #2 3시쯤 닭이덩 꿩이든 놔. 즈낙뵤도록 이젠 끌어. 고기도 막 찢깃찢  
깃허면서 달고,  
110031 #1 찢어으네게 그 빼다귀 다 어시 해뵤게.  
110031 #2 빼다귀 쳐 내어뵤.,  
110031 @ 어디다 놔가지고 한꺼번에 못 먹잖아?

110031 #1 못 먹으면 아이덜도 거렁 주고 단지가 이서이.  
110031 #2 아이덜 주고, 남으면 요마큼헌 그런 거 담아놓는 그 단지가 잇더라고.  
하얗게 백들에 저,  
110031 @ 꽃그려 진 거?

110031 #1 응. 꽃그려 진 거, 것에 담양 놔둬서.  
110031 #1 그런 거 이신 집인 담고게. 경안허민 그냥 단지에도 담앗당으네이,  
110031 #2 우리 어명은 그런거 성으네 그것에 놔둬서 혼 숟가락씩 먹고,  
110031 @ 아버지만 먹는 건 아니로구나예?

110031 #1 아니, 누게 오면은 벨미로 거렁 옛 먹어봐이 허꼭 해. 집집마다 어신  
거난 어신 거난 쥐야지. 매 집이 안허는거난 거난,  
110031 @ 떡도 적정 먹고?  
110031 #2 떡도 적정 먹고  
110031 #1 술 혈 때 그 술오메기떡 나 흥나 흥 몇번은 찍어 먹어나서, 거 걸여  
낵, 술오메기떡 술 혈 때게. 적정먹젠 떡 아사낵 사탕하나 어신때난 사탕하나 찍어  
먹는 거나 마찬가지. 더 맛있서. 게민 줍양으네  
110031 #2 육지 사람덜은 그런 옛 행으네 고치장 햄네. 설탕 그런 거, 물엿 그런  
거 안 썩,  
110031 #1 그것도이 잔치허젠허민 그 생과 혈 때, 그거 해여 여기. 생과 슴  
집집이 거 잔치허젠허민 잘도 생과 많이 허지.  
110031 @ 생과가 뭇파? 과자 닳은 거?

110031 #1 응. 과자 닳은 거, 하얗거, 생과엔 허드라고 그것ㄴ라 생과, 사돈침  
이도 보네.  
110031 @ 만들어 봤수과?

110031 #1 난 안만들어 봐신디 육지서 우리 일 간때 만드는 걸 봐나서. 거 만들  
젠허민 사람이 막 여럿이 와. ㄴ치 막 만들양으네 영 놓고 썰고 포개고 경 허드  
라고.

110031 @ 언니가 많이 먹었져. 동생이 많이 먹었져. 어무니가 아버지 줄꺼 먹었져라든가 누가 아팠으네 익모초 낳으네 특별하게 했거나 그런 것들 기억나는 거 잇수과?

110031 #1 익모초 약이라. 약이니까 배 아픈 사람이 먹어이. 익모초 배아픈디 대개 “익모초 낳 옛 해주라” 영해여. 아이덜 배아프텨허민 “익모초 낳 옛 해주라” 경해여,

110031 #2 익모초 약이라. 여자덜은,

110031 @ 막 쓰고 경허지 안허여? 아이덜은 안먹고,

110031 #1 막 써. 써. 거 많이 노민 잘도 써. 나도 어릴적엔,

110031 @ 아이덜은 안먹고,

110031 #1 약에 막 먹으렘 허민, 부모 무서왕, 나도 걸 먹어난, 나도 어릴 때 배아팠허난 거 먹으렘 허난 그 생각이 나.

110031 #2 난 서울에서 맨스오단 딱 끊어전게이

110031 #1 여자덜은 것도 빙이지.

110031 #2 딱 끊어전 해연 어머니ㄴ라 경 곁으난 익모초해당 그냥 쓰난 곁 놔네 물엿 행 딸리단에 그거 행 해줴게 거 먹으난 탁 터지더라고

110031 #1 거 봐. 그거 약이네. 게난 익모초 여자애 약이라.

110031 @ 나름대로 겨울에도 몸을 생각했다는 거다예. 차좁쌀이 중요하긴 중요했구나. 메밀도 아닌 좁쌀로 몸을 보신했다는거에

110031 #1보신이 아니고 그 익모초 혈땀 꼭 차좁쌀로 허지. 익모초 옛날부터 배아플 때 먹나. 배아프민 익모초 행 딸령 먹으라 허곡. 막 썩 못먹어. 경허난 옛으로 딸령 먹는거지.

## 12월

110033 @ 친구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0033 #1 친구간 사이는 이사할 때 날 안 뺀 그냥 이행 가는거게.

110033 #2 온 신이 다 옥황에 올라 가 분 시기니까, 일주일동안은, 이살가든지 무신 집을 고치든지 뭐해도 탈이 없다고 해가지고 친구간은 경허드라고 ,

110033 @ 게난 보통 지킬려고 노력했지예 요즘은 많이 달라져도,

110033 #1 이제는 이사를 이제는 아무 때나이, 아무 때나 이사도 가고,

110033 #2 친구간은 잘 지켜,

110033 #1 옛날은 그런 잡구신이 많이 셔난 거 닳아 이제보다 .

110033 #2 게메 게 무사 나 안글어나? 요즘은 하도 사람이 목썰야노난 사람이 사름 죽여노난 신이 이셔도 발달을 못헨 잇덴허난게,

110033 #1 옛날은 아맹해도 귀신이 많으니까이 조심 안,

110033 #2 옛날은 사람덜이 경 많지도 안허고 사람덜이 순허고 인정도 많곡허난 경 귀신이 홑단 경 많앙 뭐 해나신지 몰라도,

110034 @ 이사 갈 집은 어떻게 구합니까?

110035 @ 이사갈 때 무엇부터 가지고 갑니까?

110035 #1 솥, 밥솥,

110035 @ 밥솥하고 또?

110035 #2 푸는체.

110035 #1 옛날엔이 맨 처음엔 푸는체 영 푸는 거 히고 체 므녀 갖당 놔뵤 그 거 갖당으네 부엌에 놔 뵤, 딱시 왕 그 다음에 가져갈 땐 솥단지를 가져가. 푸는 체하고 체 영 치는거허곡 두 개, 거 질 먼저 가져가.

110035 @ 푸는체를 왜 가져가는지를? 누가 알건고예?

110035 #2 그 의미를 모르겠어. 그 뜻을 의미를.

110035 @ 또 이사 갈때는 빗자루로 안쓴덴 허잔아예?

110035 #1 그거 알만헌 사람이 지금 업서 업서. 다 죽어불언, 아무도 으서이.

110035 #2 빗자루 도마, 칼은 내부러 뵤 가.

110035 @ 도마, 칼도? 것도 처음 들어뵤수다.

110035 #1 아니 칼은 안 가정가. 칼허고 빗자루 빗자루,

110035 @ 빗자루는 쓸지 안는다는 거지 빗자루도 안 가져가?

110035 #2 안 가정가

110035 #1 쓸어버리는거난 그냥 그 집이 내부러. 새 집이 강 사당 씨. 그집이서 사당,

110035 #2 뜻은 모르겠어.

110035 @ 아, 사당? 도마는 또 무산고예?

110035 #1 아이 도마는 가정가드라. 우린 가전완. 칼만 내부런.

110035 #2 도마도 내부러, 칼 도마 내부런, 칼 도마,

110035 @ 칼은 무산고예 그런 이유는?

110035 #1 찰라부는 거니까 새집이서 사당 씨.

110035 #2 찰라부는거니까 안 좋은 걸로,

110035 @ 쓸어분다, 찰라분다 이것이 안좋은거니까 놔 뵤간다,

110035 #1 이제 이거 풀이허는 사람이 업서. 우리 우에,

110035 @ 아이 푸는체는 알아야뵤는데 왜?

110035 #2 그러게.

110035 #1 푸는체도 이렇게 푸니까 막 나가는 거 아니여이.

110035 #2 이렇게 영 푸면은 구진거 다 나가는 거니까 경허난 내부런 저,

110035 #1 나가는 게 아니고 건 가정가네.

110035 @ 그니까 하하, 구진 거 나가고 좋은것만,

110035 #2 좋은것만 압더레 계난 그건 가정가는 것 같애.

110035 @ 술은 또 밥해먹는 거난 중요허고

110035 #2 계난 옛날엔 부돌이엔 허영 남자덜 담뱃불 붙이는 거 그걸로 옛날엔

성냥이 막 귀헛게. 그거 착착 해가든 옆에 불뚱이 튀어. 그걸로 복삭헌 검질에 갖당 불이민 호끔 연기가 나와이.

110035 #1 막 옛날에

110035 @ 불씨 놔뒀당 허는 건 아니고?

110035 #2 옛날엔 성냥이 나오기 전의 그런걸로 해그닝에 불을 따오면은

110035 @ 아침에 걸 누가켜? 어머니가?

110035 #1 아버지가 허지.

110035 #2 아버지가 허는디. 어떤 때는 밤에 온기 쇠뚱이영 무시거 물론 것덜 먼저 행으닝에 그 구석에 불 연기를 끊어지지 안허게 그걸 살라그닝에 피왕 놔뒀.

110035 #1 그것도 호끔 진때라. 그것도 혼빳디 일어낭 보민 저집의 연기가 나. 허민 불 담으레 막 와.

110035 #2 불담아 가. 이웃집 사름덜. 잉걸 호끔 담양 가그닝에 후 불민 불 일어 나민 걸로

110035 @ 불 담으레 갈 땐 무신 사기그릇이나

110035 #1 아니야니, 그자 가민 무신 역새 물론 것에

110035 #2 역새물론 거나 복삭헌 찌꺼기 그런거 몽청으네 무췌 아저가.

110035 @ 경허당 바람이라도 불민

110035 #2 경허민 꼭 줍주게. 꼭 췌어. 꼭 췌영 브름 안받게 영 몸으로 막양, 브름 불면은 그 불이 일어나불잖아.

110035 #1 경허난 먼딘 안가고 가까운디 가는거주게.

110035 #2 어떤땐 부엌에 들어가자마자 불이 일어나면 솟 알려레 픽 데경

110035 #1 우리집원 두사람배깁 불담으레 아니와. 그어른허곡 이, 상중이각시. 그 영 혼 올레 아니난. 그 영 두 사름만 불 담으레 오곡 땀 사름은 아니와. 가까우니까.

110036 @ 집알이는 어떻게 합니까? 집알이가 집들이 아닌가? 뭐 가정 갑니까? 아니민 그디서 선물을 뭘 줍니까?

110035 #1 가정오는 건 엇고 여기서 뭘 가정 가드라고. 쓸을 가정 가신가? 우리 도남 네가 집을 막 좋게 지엿주게. 다덜 강 해원 놀곡 심바람허곡 떡곡 허는디 올 때 주는 건 어서 벨로. 갈 때 다 빈손으로 아이가. 쌀 가정가서. 쌀.

110035 @ 꼭 해야 되는 떡이나 밥이나 이런 건 어수과?

110035 #1 엇어.

110035 @ 돛케기 혼마리 올리고 동쪽에는 집들이 혈때도 도새기 혼마리 다잡아야 된덴 허는디

110035 #1 가정집 경 도새기 혼마리 호는디가 어서. 국궁백 혈때만 도새기 머리로 허지 판디선 머리로 안췌.

110035 #2 고사지넬 땐 머리만 쓰주게.

## 11. 놀이

### 연(薦)

111002 @ 연의 종류를 말씀해 주십시오.

111002 #1 깔랭이 득찐건 가오리연이주게. 우리 지집아이도 아이덜 해가민  
흔디 막 거 해드렌 행 저꺼지 든당,

111002 #2 장연이엔 헌건 사각난 연ㄴ라 장연, 가오리연은

111002 #1 가오리연은 깔랭이 득찐 막 길게 부청으네,

111002 #2 꼬리 부친 게 가오리연이엔허고,

111003 @ 연을 어떻게 만듭니까?(가오리연/방패연) 그거 해낫수과? 누가 만듭니  
까 건 ?

111003 #2 아버지들이 만들영 주주게. 남자덜이 주로, ,

111003 @ 남자덜이, 만드는 거 보앗수과?

111003 #2 응.

111003 #1 거 대막대기 깨어근에 깨끗이 영 막 즐라.

111003 #2 대나무 해영 깎아야 돼어 칼로.

111003 #1 영 행 사모나게 해영 한가운디 이렇게 이렇게 영 해야돼

111003 @ 아버지 잘 만들엇수과? 게른 남동생덜이 주로 했수과? 삼촌네도 했수  
과?

111003 #2 여자덜은 안허고, 남자덜이,

111003 #1 여자덜은 연 벨로고 남자 허는 거 흐낌 빌영으네 영 돌아  
보꼭 허주기.

111003 @ 연은 어느 계절에 주로 헙디가?

111003 #2 정월,

111003 #1 정월부터 봄에이,

111003 #2 정월부터 이월초ㄴ지는 남자덜 연 띄왓주게.

111005 @ 연싸움을 어떻게 합니까?

111005 #2 아이고 연싸움덜은 막 해여. 연싸움을 허젠허든,

111005 #1 그 실이 좋아야 돼.

111005 #2 실을, 실을 그 풀해근에 풀 매겨. 풀 매겨근에게 해영 풀리와. 갱 행  
얼레에 감으면은 실이 뻗뻗해지면서 실이 찢기주게. 게민,

111005 @ 누가 해줘? 남자아이가?

111005 #1 힘도 좋고, 아니, 어떤 어른덜은 자상허민 아버지가 해주기도 허여.

111005 #2 아버지가 해주는디도 이서. 경허든 그 연싸움을 허면은 실에 실을 걸  
렁으네 막 서로가 막 땡기고 막 허잖아.

111005 #1 착착 땡기민 연이 이레 땡기민 그 연이 이레 확 갓당, 저레 가민 저레

갓당 서로 만나게 돼민 약헌 실이 끈어지주게. 게민 이거 지는거야. 그때부턴,  
 111005 #2 약헌 실이 끈어지민 지는 거야.  
 111005 @ 유리ㄴ루 백상 유리 대경?  
 111005 #2 유리ㄴ루 백상 유리ㄴ루 실에 풀에 서팅 경행 배합해영으네 메  
 경 게민 실이 사락사락허멍,  
 111005 #1 유리 이것이 실더레 가민 안헌 아이꺼나 이제 부트민 그냥 끈어져. 유  
 리로 꿰영, 그냥 끈어져.  
 111005 @ 째고 그런 건 없고?  
 111005 #2 째고 그런 건 없고 재미로 그 연싸움을 부친거난,  
 111005 #1 째기도 허지. 아맹해도 이기곡 저가민 불평이 나긴 나지. 그거 안허젠  
 헐 수는 업지. 허지 말아불지.  
 111006 @ 연 만들기와 날리기에 얽힌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에  
 서 연 날리기를? 옛날은 전봇대 어시난예?  
 111005 #2 사거리 나강으네게 길에서도 허곡 보리 간 밧디 들어 강덜도 막 허고,  
 111005 #1 보리 콩 비어난 조 해난 밧은 안 갈앙 놔뉜, 해야 콩 갈거난, 그런 밧  
 이 비어게. 게민 큰 밧도 비어. 게민 그 밧디 들어 강 막 놓고, 그런 거 해어.  
 111005 #2 보리 간 밧테도 막 들어 강 뛰어. 경해도 욱허지 안해. 그 보리 밧앙  
 존거난,  
 111005 #1 보리 간 밧띠는 흑이시난 줌, 조팍은 땅이 좋아.

### 제기차기

111009 @ 제기차기는 어떻게 승부를 가릅니까?  
 111009 #1 승부 가릴때는게 많이 허민 승부를 가리지. 못허는 사람은,  
 111009 #2 오래 여러번 차민 그 사람이 이기는거주게.  
 111009 #1 잘 허는 사람은 백개도 해.  
 111009 @ 어떻 만듭니까? 여자도 험니까?  
 111009 #2 여자는 못허여. 남자, 그건 주로 연날리기허고 췍기차긴 남자, 뜸돌들  
 르는 것도 남자,  
 111007 @ 제기는 어떻게 만듭니까? 지금은 그렇게 해도 옛날은 뭘 낭 헛수과 동  
 그라미?  
 111007 #2 옛날엔 창호지 영 사각나게 영 짤라근에게 그 돈이민 엽전 큰 게 이  
 서. 엽전이엔 현 돈이 크게 이서. 그거 놔그네 그거 행으네게 실로 뽕뽕 묶어그네  
 종어로 가위로 저 놀개모냥에 문딱 쫄라. 가위로 영 짤랑으네 저 모양  
 돼주. 겨문 경 행 쫄기차기허드라고,  
 111007 @ 만들어 쥐봤수과?  
 111007 #2 나도 우리 동생 만들어 쥐봐서. 우리 남동생이 나허고 차이가 많이 잇  
 기 때문에.

111009 #1 이제이 할망덜토 그거 허랜허영 흐나 두 개씩은 허여.

111010 @ 재기차기에 업힌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 자치기

111012 @ 자는 어떻게 준비합니까?

111012 #1 요만씩허여이 자치기이? 착 때령 착나고, 착 때령 착나고 요만씩 허드라고, 길이가,

111012 @ 여잔 안합니까?

111012 #2 여자도 웨어.

111012 @ 이견 여자도 웨여예. 어느 나무 삭다리?

111012 #2 아니 삭은 나무 아니고 그냥 생생헌 나무해영허믄, 썩라근에 요만큼 썩라. 긴건 요만큼허고, 썩른 건 요만큼 허고,

111012 #1 손에 잡는 건 썩금 질게 허고, 착 때리는 건 썩브게, 아래건 치기라우이 잡은 건 자고

111012 #2 만약에 거 썩른 걸을 밑에 좀 영 높게 좀 뭐 받쳐. 경허민 거 진 거를 요 끄뜨머릴 착 치민 그걸 썩은 게 탁 튀면서 일어서잖아. 게민 탁 튀영 착 글겨게. 탁 튀영 올라오민 저만춤 가주게. 착 치영 네중에는 그 손에 웬 긴 걸로 재봐. 영해영 경헨 멧발 나갓나 그거 재방으네 이제 멀리 나간 건 이긴 걸로. 경헨 자치길 해낫주.

111012 #1 착 치영 멀리 나가민 “야! 멀리 나갓다. 멀리 나갓다.”

111012 @ 이긴 아이는 뭐 준덴 험니까?

111012 #2 아이 뭐 선물도 안주고 기자 재미로

111012 #1 뭐 업어준것도 달마. 나가 해여그네이 즐령 못헿 업어난거 달마뵈여.

111012 #2 난 업어줘보진 안해여서.

111012 #1 우리 서의가 동갑이난이. 나가이 맨날 허민 그런거 썩리더라고. 썩리민 나가 잘 업어진 생각만 남서.

111012 #2 게난 것도 처음에 약속허기에 따라게. 지민 업어줄락 허민 업어주곡

111012 #1 지네가 이겨지민 이 나신디만 그자 업어줘 업어줘 막 허민 아니 업을수도 엇고이.

111012 @ 어틸 때 생각 나켜예

111012 #1 그생각 남서. 게난 나가 질 하영 업어진거 님다. 나는 늣 업히지 못허곡 옥이엔 현 아이가 나신딘 조카뵈이라이.

### 공기놀이

111041 @공기는 어떻게 준비합니까?

111041 #1 그냥 공기,

111041 #2 공기놀이,

111042 @ 공기는 어떤 순으로 진행합니까?

111042 #1 돌로 막 막상,

111042 #2 돌로 돌맹이를 막 막스멍 깎아근에게,

111042 #1 동글락허게 만들어야지. 다숫개를,

111042 #2 동글락허게 요만큼씩 만들아근에 다숫개,

111042 #1 하나는 손에 췌곡 너개,

111042 #2 하나는 손에 췌곡 네겐 밑에 놓곡,

111042 #1 두 개도 췌곡 세 개도 췌곡, 문딱 췌으네 영, 손 파들락허민, 못허민, 영 행도 영, 이거 흐는 거 옥이 잘해. 영 허는거, 너개 낚 너개 다 잡고, 옥이 이거 잘해.

111042 #2 공깃돌 많이 해서.

111042 @ 공깃돌허젠 봉강 놔두곡 정도 해낫수과?

111042 #1 그거 속돌이엔헨 게벼운 돌이 이서. 그 돌 봐지민 탁탁 막상으네 손도 안 아파.

111042 #2 속돌은 속에 흐깎 승승승승 구멍나듯헌 돌이 속돌이주게. 그게 가벼와. 먹돌은 탄탄허기 때문에 손이 아파.

111043 공기놀이애 얽힌 추억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웃놀이

111054 @ 웃가락은 무슨 나무로 만듭니까?

111054 #2 웃가락은 옛날애 그 윤누리 나무가 찢긴 나무라게이. 가늘아도 막 찢경으네 바로 영 꺾어지지 앓는 나무라.

111054 #1 감나무도 허고 복숭아나무도 허고 민작헌 건 끈어당은애 딱 깨민 웃이라. 경헨 해여 경, 감나무도 허고 복숭아나무도 가지깽이,

111054 #2 복숭아나무가 주로, 옛날애 여자덜 웃놀이 옛날애 허는건 요만씩 요만씩게,

### ‘뽕기치기’

111072 @ ‘뽕이치기’는 어떻게 합니까?

111072 #1 아, 그거는 그거행으네 멧개씩 행 영 수정 세영으네 흐 밧디로 누민 수정으로 따떡어. 그거 뽕이치기,

111072 @ 영 잡앗뽕

111072 #1 아니 뽕뽕 돌당 착 허민 그 뽕이가 형클어지민 틀린 거야. 흐쪽더레만 딱 누위사,

111072 @ 어떻마씨?

111072 #1 그 뽕이를 행으네 이추룩 행으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막 돌리당 “얍”허영허민 형클어져. 이디도 가불고 게민 진거. 뽕이를 세영 뽕이를췌게. 그 아



이가 빵이를 날 줘. 빵이를 주주 뭐 다른 거 주는 거 어서. 나 그거해난. 빵이 따먹기라. 빵이 따먹기,

111072 #2 어릴 땐 먹을게 없으니까.

111072 #1 그거주게 새ㄱ장이주게.

111072 #2 새ㄱ장.

111072 @ 새ㄱ장예? 그믐 초가집 이는 새예? 그렇게 많이 빵이가 열었수과?

111072 #1 그거 큰 때,

111072 @ 그거 과먹으레 일부러 막?

111072 #2 일부러 새빳디 가.

111072 #1 아이덜 안장 빠와. 그걸 먹을거라고.

111072 @ 어떻게 내기해마씨?

111074 @ 역새는 빵이 못먹어마씨?

111074 #2 역새빵이가 더 맛써.

111074 #1 것도 처음 나갈 때 먹어. 안 쟈 때. “어욱빵이 빠 먹으레 가게! 어욱빵이 빠 먹으레 가게”해여.

111074 @ 푸지갯다예?

111074 #2 푸져 그거. 길기도 허고, 연헌 때는 막 부드러워. 어릴 때는 막 부드럽고 굵고 길고 허난이 거 푸져.

111074 #1 우리 빵일이 사난 그 곳동올레 나오민 그 만기 삼춘네 빳디게. 그디 어욱이 맨 천진디 혼쭈씩 빵 돌 우이 막 빵 놔두민 우리 도남 삼춘“이거 치우라 이거 치우라” 어지럽게 해놔덴 아이덜 어욱이 막 기난게 까먹어난,

### 고무줄놀이

111075 @ 일본거로구나예, 한번 불러봅서?

111077 @ 제일 많이 했수과 고무줄은?

111077 #2 고무줄은 주로 했주게.

111077 #1 그냥 고무줄 몽클영 아정뎡겨.거 허젠, 소나이놈덜도 야학에 말앙 혈때도 일부러 확 걸렁 그차불고이

111077 @ 경 해놔구나예?

### 줄넘기

110782 @ 줄넘기는 어떻게 합니까? 베뜰락?

110782 #1 것도이 하나들 세영으네 건 해나서.

110782 #1 절로나가민 빙빙 치는 사람은 돌리게만 허고,

110792 @ 줄넘기에 얽힌 추억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베는 뭐고 질빵은 뭐과?

110792 #1 질빵이 베지 뭐.

110792 #2 베는 거 벳짚으로 만든 게 베고 질빵은 무슨 기지로 만든게 질빵이고, 베히고 질빵이 틀리주게. 옛날은 그 벳짚으로 벨 많이 꼬아근에 산내끼 꼬듯,

110792 @ 신사라는 안헛수과?

110792 #2 신사라는 워낙 질긴거라 그건이 소 밧갈 때 쓰는 줄을 만들고, 소 걸러매는 줄도 만들고,

110792 #1 신사라 경 많이 심지 안하더라.

110792 @ 역새가지고도 무싱거 막 느끈애기 만듭디다예?

110792 #2 역새로 만들양허면은 역새 ㄱ장 그 나가기 전에 맨 꼭대기에 껍질, 그 ㄱ장 피영 올라가기 전에 뽕이 빠 먹다가 세영 못 먹을 정도 뽕면은 막 세영 못 먹을 정도 뽕면은 올라가기 전에 그걸 뽑아다가 그걸 물리다가 그걸 까근에 그걸 뽕면 혼다만은, 그걸로 끈을 만들민 그렇게 질겨. 그거 행으네 심방도 허꼭 허잖아게. 미, 미, 미쁘쟁이엔 해그네게,

110792 #1 맞다. 신발 ㄱ는 거,

110792 #2 신발 ㄱ는 거, 그걸로 초신만들젠허민, 그걸로 영 췌영으네게,

110792 #1 늘 네 개 해사,

110792 #2 이 저 가늘게 췌영으네, 그걸로 산내끼 꼬아근에게 이디 신 그 늘을 만들어놋주게.

110792 #1 그거 ㄱ라 미쁘쟁이엔 혼다이, 미쁘쟁이,

110792 #2 미쁘쟁이이엔 해나서.

110792 #1 그거는 다 깨영으네 꼬양 새끼로 막 가늘게 꼬양 그걸로 신 삼는 거 맞아. 그것이 막 귀해여.

110792 #2 기한에 잘 ㄱ리와야 돼기 때문에 막 귀해.

110792 #1 그거 뽕이 뽑아당 거 뽕다이. 뽕이 뽑아당,

110792 #2 미쁘쟁이 뽑아당게, 미쁘쟁이 허잖아. 미쁘쟁이 뽑아당게,

110792 #1 맞다. 미쁘쟁이 뽑아당

### 그네뛰기

111080 @ 그네뛰기는 어떻게 합니까?

111080 @ 어, 떡구실낭에?

111080 #2 응. 올레덜 떡구실낭이나 폭낭이나 이시민 거기 굽은 질긴 벳줄해그네 들양 매영 네부러듬서,

111080 #1 매영놔뒤. 그냥,

111080 #2 들양 매어듬서,

111080 @ 뗏솔 때 건?

111080 #1 우리가 열서너솔도 안난때 닙아. 그냥 올라근에 거 허민 누게 세게 밀리민 다치지. 세게 밀리지 말양게. 쫘금씩쫘금씩 갔다 왔다 해야지 세 개 밀리민 저 ㄱ지 강 사람 막 어정쟁,

111080 @ 그네뛰기를 제주도 말로 뭐렌 했수과?

111080 #1 줄레뛰기,

111080 #1 그네뛰기

111080 #1 아니 그네보다 줄레 뛰기가 낫다게. “줄레뛰레 갖다왔구나”영 해. 우리 어머니가 끄는 말이.

111080 #2 그네들은 주로 뛰엇주게.

111081 @ 그네뛰기에 얽힌 추억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12. 통과의례

### 혼례

112011 @ 구식 결혼식의 절차를 말씀해 주십시오.

112012 @ 중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마을에서 눈 맞앙가곡 그런 일은 었수과?

112015 @ 혼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품목, 수량 등) 새각시 옷이나 이런 건 지네가 알앙?

112019 @ 대반(對盤)이나 중방(中房)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일화)

112019 @ 중방은게 들어오민 새시방보민 그자 저 무싱거 새시방 다른 사름 나가 근에 악수허곡 그자 손잡으민 그자 들어오는 거난,

### 제례

112049 @ 제사 준비는 어떻게 합니까? 메치

112049 #1 제사는 대 소상 제사논이

112049 @ 오일장 무뎜 샅니까?

112049 #2 오일장 가그네 뎜썰도 받고, 과일도 사고, 젓그심도 사고, 제숙도 사고,

112049 @ 제숙은 뎜마씨?

112049 #2 바닷고기,

112049 @ 바닷고기는 어떤 거마씨?

112049 #2 생선,

112049 @ 생선말고 옥뎜을 올려야 뎜어마씨.

112049 #1 응,

112049 @ 옥뎜 없을 때는?

112049 #1 옥뎜으실때는 뎜 우럭도 가에 고기난 우럭은 그 다음 고기난,

112049 #2 비늘 이신 건 뎜어.

112049 #1 비늘 어신 건 안 올려이 갈치 그튼 건 안 올려.

112050 @ 제물로 무엇을 준비합니까?  
112050 #1 제물 시루떡허고 시루떡은 백시리라이 백시루떡.  
112050 #2 옛날에 어디 근쌀 이션 백시리 쳐시니?  
112050 #1 상에 올릴 꺼 백시리 아니냐 상에 꺼야. 먹는 거야 조떡허주만?  
112050 #2 산디ㄱ루 혼빃만 낵 징부찌 해서. 혼징만, 백시리가 어딿  
냐?  
112050 @ 혼징예?  
112050 @ 게믄 조로 다 조?  
112049 #1 조떡에 근쌀 영 반 노민 뉘.  
112049 #2 즈쌀ㄱ루허고 쫄ㄱ루허고 반반 부청,  
112049 #1 건 상에 올리는 것만,  
112049 #2 상에 쫄 거는 켌 시루가 막 여러 징 놓잖아. 풋놓고 혼징 낵,  
풋놓고 혼징 낵 쉬놓고 허민, 게민 그런 건 먹고, 혼 징은 반반 부청  
헌 거는 상에 놓고,  
112049 #1 것ㄱ라 징부찌렌 해여. 이름이 징부찌,  
112049 #2 하도 우리 제주돈 근쌀이 귀해노난,  
112050 @ 귀해노난 제사허젠허민 미리하나씩 하나씩 해야지예?  
112049 #1 그런 췌이지.  
112051 @ 제일 신경 쓰이는 것이 어떤거 마씨?  
112051 #2 제일 신경 쓰는 건 콩나물 아찌는 거,  
112051 @ 콩나물은 어떻게 준비합니까?(시루에서 키우기)  
112051 #1 콩 물에 킷다가 건청 시리에 힘벅 깔앙 자박대에 놔야. 하루에 두  
번만 우로 물을 줘. 골고루, 게민 알로 물떨어지잖아. 게민 또 그 물 막 골르민  
또 그 물 거렁 그 우트레 물주고, 주고, 여름에 여름에, 겨울에는 또 것도 달라야.  
여름제산 걸로 허고 겨울제산 방에 놔야지. 뜨시게,  
112051 #2 뜨셔야 빨리 기니까  
112051 #1 콩나물 그 시루를,  
112051 @ 그믄 형겘위에 콩만 노민 썩이 нама씨?  
112051 #2 응. 썩이 나.  
112051 #1 오늘허민 널 나.  
112051 #2 아침에 물 당갓당 저녁엔 건져근에 물 썩 빠지와근에 그 시루레밑에  
그 구멍에 시루에 밑에 힘벅 깔앙으네 그 우이 쏘아놔그네게,  
112051 #1 또 힘벅 덮어,  
112051 #2 우에 뜨시 형벅 덮영 놔두민 우로 물주곡물주곡 허민 알에 물 바침  
그릇을 놔야주게. 춤 경 허당보민, 나그네,  
112051 #1 옛날엔 자박대 행 자박대 딱 영 나무 두 개에 걸청이 시리 딱 놔게.  
요래 영 걸청 이거 자박지민, 게민 물주민 아래로 빠지곡게, 우이론 물주곡, 경허민

오늘허민 내일 보민 뽕족뽕족 남서.

112051 #2 게민 일주일이민 다 크주게. 일주일이민우리 먹게끔.

112051 #1 딱 일주일 기한 행영으네 콩늬물 놔야 해.

112051 #2 일주일기한 해영,

112051 #1 제사허고 놓는 날 허고,

112051 @ 콩주름이엔 햇수과?

112051 #1 콩주름

112051 #2 콩주름

112051 #1 아이 “콩주름 놔살건디” 허여 어른덜이 제사 돌아와가민,

112051 @ 어느 정도 험니까? 시루가 이시민 시루 가득?

112051 #1 아니, 건 콩에 따라가게. 콩에 많이 노면은 가득 올라오고, 경 이녁 먹을 만이만 해여.

112051 #2 먹을 만큼만 놓주게.

112051 #1 더러 시리 반허민 돼주. 반, 반허민 올라와.

112052 @ 제육(祭肉)은 어떻게 준비합니까?

112052 #1 그거믄 돼.

112052 #2 상어적 허는딘 꼭 허여.

112052 #1 우리는 안허는디 우리 언니네 집이 보민 꼭 상어적을 허여.

112052 @ 상어적은 이름이 뭐엔 햇수과?

112052 #1 고기가 상어주게.

112052 #2 고기이름이 상어주게.

112052 #1 게난 그 젓갈 놀 때에 상어적을 문전에 놀 때이 우리는 세그지 노민 문전에 네그질 놓는 거다이. 상어적 노면은이. 네그질 놓고 그 우에 바닷고기 하나 덮어. 쟈 건 문전에 합청 허여. 고기를 합청,

112052 @ 문전에 혼그지씩 놓고, 세고지씩,

112052 #1 세고지씩 행

112052 @ 어디서 구해 오는고예?

112052 #1 아무디 강 구해도 구해. 구헬 수 잇어,

112052 #2 옛날에도 시에 고기 푯는 디가 셔난거 님아.

112052 #1 동네는 추렴헬때도 잇고, 시에 가민 고기 푯는 식육점이 잇지이. 옛날부터, 식육점은 잇어.

112052 #2 많이 없어도 가끔 흥나씩은 이셔난 것 같애.

112052 @ 보통 멧고기 험니까?

112052 #1 건 뭐 보통 우리 허는 건 뭐 열그지 이상은 허여이. 멧젠허민 갈라 먹을 걸로 허민 경허민 상에 올리는 건 세그지씩 허니까, 혼가지,

112052 @ 바닷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여러 개 해젯수과? 어신때라부난

112052 #1 어신때라부난 경 여라개 못허고,

112052 @ 보통 꼭 해야되는 고기 적갈은 뭐?  
112052 #2 꼭 해야되는 건 돼지고기적,  
112052 @ 돼지고기적, 오징어라든가 소라나 이런 건 안했다예?  
112052 #1 이딘 해변 아닌 오징어 곁은 건 경 못허고이 난 보민 꼭 소고기 돼지고긴 흔거 닳아. 우리 아버지네도 보민, 고깃점을 그때 요만씩 해. 요만씩 해. 동글락허게 허영은예이. 우리 막 먹으민 흔변에 먹지. 안 짤랑, 그추룩해여. 옛날덜은,  
112052 #2 요만씩게 요만씩게,  
112052 #1 요만씩 해영 웨어. 고기적은,  
112052 @ 지금처럼 길게 안행?  
112052 #2 지금 고기 흔 점이민 석점만들아.  
112052 #1 길게 안해여. 석 점 만들아. 흐깁 더 슬찌게 허지. 게도 뭉클락허연 사람 먹는게 많주게.  
112052 @ 적갈로 하는 건 상어고기가 주로 바닷가?  
112052 #2 응. 바다고기적갈은 상어적.  
112052 @ 문어  
112052 #1 아니, 문어도 아니고.  
112052 #2 건 생각도 못허고,  
112053 @ 적은 몇 종류 준비하며, 누가 합니까?  
112053 #1 옛날엔 아버지가 해신디 다 남자가 해이. 우리는 떡허고 다른 거 허당 보민게 어머니네 우리 혈 때 아니고 어머니네 혈뎌, 꼭 아버지가 적갈 하드라고,  
112053 #2 꼭 남자분들이,  
112053 @ 적은 뭇짜? 적갈을 말하는 거?  
112053 #2 응.  
112053 @ 그믐 종류가 소고기, 돼지고기, 또 상어 세가지?  
112053 #1 세가지.  
112053 @ 세가지 기본예.  
112054 @ 떡은 몇 종류를 준비합니까?(종류와 껍는 순서/5종이 갖추어진 떡)  
112054 #1 떡은 뭇 모멸떡, 곤떡해여.  
112054 @ 제사에?  
112054 #1 모멸떡, 곤떡 시루떡 경헨 세가지라. 시루떡, 모멸떡, 곤떡.  
112054 @ 모멸떡은 뭇렌 험니까 그때 이름이 잇엇수께?  
112054 #2 세미, 인절미,  
112054 @ 곤떡은그냥 곤떡?  
112054 #1 곤떡은 솔변, 절변  
112054 @ 솔변, 절변은 이 저 뭇쓸로 허는 거가 솔변, 절변? 세미, 인절미는 모멸로 허는 것이 세미, 인절미짜? 그런 식으로 구별해마씨?

112054 #1 그런 걸로 구분하고 허기도 경 허고,  
112054 @ 종류와 껍는 순서? 맨 밑에는  
112054 #2 맨 밑에는 시루, 껍는 순서가 다 틀려. 이녀 생각나는 대로,  
112054 #1 아냐. 그자 모멸은 미리 놔.  
112054 #2 깨매, 나도 경해신디,  
112054 #1 세미 인절미, 거 모르는 거.  
112054 @ 모멸 그 다음?  
112054 #2 그 다음 절변, 솔변, 솔변 놔놔 그 우에 절변,  
112054 @ 솔변은 뭐고, 절변은 뭇짜?  
112054 #2 솔변은 반달떡, 절변은 동글랑곤떡,  
112054 #1 또 그 우이 지름떡도 이서이. 쪼끔헌거.  
112054 @ 이름은 뭇짜? 지름떡 이름은?  
112054 #1 지름떡 쪼끔헌거. 질 우이 놔.  
112054 #2 해끔안 헌거, 반달떡 반마니허게.  
112054 @ 작으니까 제일 우에 놓는것짜?  
112054 #1 응. 제일 작으니까 그건 쓸 것만 행 뭇개 허지도 안해.  
112054 @ 뭇개 놓는 그런 건 엇고예?  
112054 #1 하나 하나. 하나놔.  
112054 @ 문전상 하나, 여기 하나, 두 개만, 지름떡이, 이 떡이 반달, 보름달 모양 안들어봤수과?  
112054 #1 보름달은 동그랑헌게 보름달 아니이? 동글랑 곤떡이 보름달이고 게, 반달이 솔벤, 솔벤이 반달 이야.  
112054 @ 반달이라고 누가 그거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허는 건 안들어봤 수과?  
112054 #1 그런 역스는 안들어보난,  
112054 #2 그건 못들어 받. 그것도 의미가 이성 만들어실꺼라.  
112054 @ 순서 제일 마지막에 계란 그건 뭇렌 험니까? 계란, 고사리 낳으네 허 는 거, 압지롱허게 해가지고?  
112054 #1 계란전, 그건 전지지. 바로 전지, 고사리 한가운데 세 개, 세 개쪽쪽 낳으네 영 전 지지는 거.  
112054 @ 떡위에 놓는 게 아니로구나?  
112054 #1 아니아니, 따로이 쪼그만헌 사래에 따로 올려. 따로 뭇점 따로 올려.  
112054 #2 전진 딱로 올려.  
112054 #1 문전에만 떡 우에 놓지.  
112054 #2 문전엔 다 합허영 올리난게.  
112054 @ 그른 제일 우에 놓는 게?  
112054 #2 지름떡,

112054 #1 전지는 따로, 문전에만 올림. 무사산디 이젠 안허는디 우리 어머니  
고사리 식개 똑 노렌해. 그 이유는 모르크라.

112054 #2 고사리도 이 제스때 멩질때에 채소 다른 건 못해도 꼭 고사리 허는  
이유가 귀신덜이 세가달 들린거난 그 귀신덜이 그 세가달 들린 고사리로  
짜간덴 허영 고사릴 꼭 쓴덴허여..

112054 #1 남은 거 받았간덴 고사리, 고사리 영 세가달 떡을 받았간덴,

112054 #2 고사리 쓰는 이미가 그 뜻이렌,

112054 #1 옛날 어른 말덜이 “아이고 고사리 혼쿨 해영 먹어야 허컬” 영 해. 막  
죽은 식계에민 “고사리 혼쿨 행 먹어야 혈컬” 제스혈말을 그치록 곱아.

112054 @ 고사리 혼쿨이 뭇파?

112054 #1 “고사리 혼쿨” 이엔 현 건 하나, 고사리라도 해영 흐깁  
떡켄 현말로게 혼방울 허는 거 혼쿨게, “아이고 고사리 혼쿨 행 먹어  
야 혈건디” 거, 죽은 식계에이 이녁초상말고 작은식계덜이 이서. 뭇 시누이 죽  
은디 잇고이 경 츠레어신 제스는 “고사리 혼쿨”이엔 곱아. 어른덜

112054 #2 하영 안행 흐깁허난 혼쿨이엔 허는 거,

112054 #1 그 식계에엔 누게 주지도 안허고이 지네식구만 행 먹영 아사불어.

112054 #2 옛날 어른덜 고사릴 아홉성제렝 허주게. 보리 해똥도 꺾어오고  
보리 거두와똥도 강 꺾어덜 오주.

112055 @ 과일은 몇 종류를 준비합니까?

112055 #2 과일은 세종류게. 옛날은 과일덜이 셔셔.

112055 @ 세 종류가 어떤 과일?

112055 #1 땡유지 똑 쓰고, 땡유지 하나허고이 배, 사과.

112055 #2 배, 사과허고 유지허고 요 세가지. 과일덜이 어디셔셔.

112056 @ 채소는 어떤 것을 준비합니까?

112055 #2 콩주름허고 고사리허고,

112056 @ 또 하나?

112055 #2 무채나,

112056 @ 시금치도 올렛수과?

112055 #2 시금추도 옛날엔 시금추, 옛날엔 무채가 어시난 그자 고사리 콩주름  
만,

112055 #1 아주 옛날엔 시금추 난 지가 얼마 안돼난 우리때에 낫주.

112055 #2 시금추엔 현 건 이름도 몰라나서.

112057 @ 진설은 누가 합니까?

112055 #2 아버지가 허주.

112057 @ 남자가 없으면?

112055 #1 남자 없어도이 어디 그 친족에서 왕 해줘. 옛날덜은 여자가 허곡 막  
안해.



112055 #2 가까운 친족이 미리 오랑 해줘.

112058 @ ‘메’, ‘갱’은 누가 뜯니까?(시어머니/며느리)

112055 #1 그거는 부엌에서 어머니가 뜨지. 친척에서 다 올려.

112058 @ ‘메’는 ‘갱’은 뭇파?

112055 #1 메는 밥이고, 갱은 국이고,

112058 @ 무사 경 곶앗수과?

112055 #2 몰라. 그냥 국뜨라 안행 갱뜨라 해여. 메걸이라 갱뜨라 해여이.

112058 @ 큰며느리한테 많이 시켰겠다예?

112055 #1 대개 큰며느리가 하지. 여기 어시민 또,

112055 #2 게메 어떻행 “갱”이엔 곶아신고이?

112055 #1 게매, 메, 갱, 아니 그냥 국뜨렌 안행 “지금도 갱 뜨라”해여. 새사람덜도 다 갱이엔 허여. 밥이엔 안행 지금도 메, 갱이라. 쪽 내려온 거.

112055 #2 돌아간 분한테 올리는 건 메엔 허주게.

112059 @ 헌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특히 초헌관)

112059 #2 초헌관은 맨처음에 절해영 잔드리는 게 초헌관이주게.

112059 @ 그믐 누구파?

112059 #2 건 만약에 큰아덜이면 큰아덜, 조상, 장손, 그런 사람덜이주.

112060 @ 파제(罷祭)는 몇 시에 합니까?(子時/당일제)

112060 #1 옛날엔 딱 12시에 해. 12시민,

112060 #2 12시허고 1시 사이에 개고냉이 다 줌들어분 그런 시간에 귀신이 왔다갔다 뜻에서 그 시간을 이용해서 제를 냉것덴 허는디 뭐 지금 열시로 해불곡

112060 #1 그 앞에 허는 건이 그 제라허게 아니 죽은 사람덜은 초장에 해분다고 해. 초저녁에 해부는 것사 차례로 허는 제사가 아니주 해. 그냥 얘기덜도 어신 사람이 그런 사람이나 허믄 막 처음으로 그 시간 아널 때 허는 식젠 제라헌 귀신이 아니, 제라헌 즈순덜 신 사람은 꼭 그 시간에 해신디 지금은 것도 바파전이.

112060 @ 당일제는 뭇파?

112060 #2 당일제는 돌아간 날 해부는 거,

112060 @ 건 어떤 때 경?

112060 #1 옛날엔은이 돌아간 아시날을 뭇날했나? 아니, 전날허니까 경 그 12시 넘어서 그 날이 돌아온덴 헨, 오닐 죽으민 어제 제스 해여. 경허민 12시를 기다리는 거야. 경해야 죽은 날이 그자그자야.

112060 #2 케난 당일제스는 그 돌아간날을 제스를 허기 때문에 일찍 해불지. 10시만 돼가민 쥘 냉겨불지.

112060 #1 좀 일찍 해도 게도 그 날 돌아가신날 허니까 이왕 응감을 해가는 걸 알지. 케난 옛날 제스 당일허젠허민 다 신고 햄네이. 다이 전날 해난거 그날로 허젠허민 신고해야돼 그날 허쿠덴,

112060 #2 그렇지.오닐 제사민 오닐 신고해야돼

112060 @ 요즘은 다 당일제로 해야돼켜예?

112060 #1 당일제로 행은에 거으다 대개 일찍해여계. 뭐 직장덜 텅이곡허난 제스 먹영 강 집이 강 줌도 자곡 허젠,

112061 @ 문전제(門前祭)는 어떻게 지냅니까?(제사의 전후, 제반 걷기 등)

112061 #1 제일 먼저허는 거 제일 먼저

112061 @ 뜨는 것도 제일 먼저 뜨고?

112061 #2 뭐든지 먼저,

112061 #1 췌는 것도이 고기나 무싱거 떡이나 다 먼저 해영 놔.

112061 #2 문전제부터 먼저 췌여.

112061 @ 제반 걷을 땐 문앞으로 가정왕 허는 이유가 뭇파?

112061 #1 문으로 들어오니까 문전으로 허는거지. 뭐 옛날에 “문전 모른 나그네가 이서”문전부터 먹어야지. 영 그런 속담이 이서.

112061 #2 문전으로 나가곡 들어오곡 허난, 문전 모른 나그넨 엇는 건 맞아.

112061 #1 글로 오곡가곡허니까이.

112062 @ 제반은 어떻게 합니까?

112062 @ 거기서 딱당 그 조왕할망 가스렌지에 놓곡 헷디가? 그것도 해난 다음?

112062 #1 옛날에 그거 해당 지붕우에 얹으난에 지붕우트레 짝 올려.

112062 @ 바로 밤에예?

112062 #1 바로 밤에, 초가집이난이 지붕우에 올리민게 그 줄 이시난 줄로 다 감싸정 그디 딱 앓지.

112062 @ 제반은 밤에 그렇게 던지면 그렇게 밤에 까마귀가 읍니까 아침에?

112062 #2 아니, 아침뽀민,

112062 #1 아니, 볏아가사, 아침이 막 빨리 왕 먹는딘 막 좋덴해여. 어른덜이 좋덴허고, 어떤딘 영 판 “아이고 저딘 까마귀도 아니 오랏져. 어쩌난 올린 거 그냥 보염쨌” 왓당 먹으민 좋덴,

112063 @ 지제(止祭)는 언제 합니까?(4대 봉사) 지제가 뭇파?

112063 #1 지제(止祭)엔 현 거는이 4대뽀민 지제허는 건 제스 안해영 묘제로 허는 거,

112063 @ 지제는 뭇고 묘제는 뭇파?

112063 #2 지제(止祭)는 제를 안허쿠덴 설러부는 거, 제를 안허쿠덴, 제스 멩질을 안허쿠덴 설러부는 거,

112064 @ 묘제(墓祭)는 어떻게 합니까?(준비→음복)묘제는 뭇파?

112064 #2 묘제(墓祭)는 산으로 강 허는 게 묘제고.

112064 #1 1년에 흥번

112064 #2 산 앞으로 강,

112064 @ 육지식이지예?

112064 #1 제주식이지 제주가 다 경 하여.  
 112064 @ 그른 언제 갑니까?  
 112064 #1 다 날 정행 거자 봄에 하여.  
 112064 #2 거자 봄에 해.  
 112064 #1 팔월 초하루에 허는 것도 이서 우린,  
 112064 #2 우리도 서이 경 허매.  
 112064 #1 팔월 초하루에 하여. 질 큰 산만, 질 큰 옷대산에 그 시작을 그때 해부러텐, 산이 머니까 별초 허영 묘zell 지냉 와.  
 112064 #2 질 옷대산에 팔월 초하루에 허당 이젠 날 변경시경으네 8월 낭 첫 해에 하여. 공일날에 택행,  
 112064 @ 아예 그건 딱 별초랑 연결이 뉘게, 두 번 안강으네 한번에예?  
 112064 #2 흔번에 별초 해뒤근에 그 곳에 그냥 제 냉경  
 112064 @ 그게 메칠마씨?  
 112064 #1 팔월 초하루,  
 112064 #2 경헨 그걸로 쁘당덜 다, 그걸로 쁘당덜 그날 다 점심뵈여.  
 112064 #1 하영튼 팔월 초하루 넘어서, 팔월 초하루부터 시작허는 거라. 별초, 산별초, 그때부터 시작이라. 그 전엔 벨로 흐는디 없지. 팔월 초하를전엔,  
 112064 #2 아이구 경해도 이젠 거저 미릿에 해블어.  
 112064 @ 1년에 흔 번, 묘제?  
 112064 #2 1년에 흔 번게.  
 112064 @ 어디까지 험니까 왕할아버지?  
 112064 #1 지제헌 할아버지부터허영으네 뉘 옷대도 계속허니까 뉘 언제면 말것 산디 모르지.  
 112065 @ 제사와 관련하여 금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112065 #1 어디영 피도 영 어디 영 피도 나카부덴,  
 112065 #2 제스가 닐 모리 영장나도 그디 가지 말아야지  
 112065 #1 출릴 사람만  
 112065 #2 제 불사람만  
 112065 #1 어디영 피도 나카부덴,  
 112065 #2 제스가 닐 모리 영장나도 그디 가지 말아야지  
 112065 #1 제 불사람만

### 13 민간요법

113004 @ 버짐(진버짐, 마른버짐):  
 113004 #1 버짐도 머리에 나는 거주.

113004 #2 버즘은 머리에도 나고 잇당 얼굴에도 나는 수가 이서. 경헌디버즘도 막 여러 가지,

113004 #1 이젠 거 못봐이,

113004 @ 영양실조주게.

113004 #1 도리버즘이엔 해영으네 똥글락허게이

113004 #2 도리버즘이엔 현 건 영 똥글락허게 딸라정으네게 이 바위편이 영 똥글락허게 딸라진 그릇은 흐김 해뜩해뜩허고 딸라지면서 요 가운딘 뽕족뽕족 무슨 피부ㄴ치 나게. 무싱거 나게. 도리버즘이엔 해게.

113004 @ 도리가 똥파?

113004 #2 영 딸라정으네 영 똥글락허게 나니까 도리버즘이엔헌거 같아. 이제 생각해보난

113004 #1 지금 잘 못봐.

113004 #2 옛날엔 막 그런 버즘도 아이덜 나나서. 요즘은 그런 거 없어이게도이.

113004 @ 군버짐은 뭐고 진버짐은 뭐고?

113004 #1 군버짐은 그냥 아이덜 그냥 얼굴에 무싱거 비작비작나민 쟈이 굶어샤? 군버짐나게, 굶영 살암샤 군버짐 나게. 비작비작해.

113004 #2 경 똥글락안해영 그냥 송송송난게 군버짐,

113004 #1 군버짐엔 벨로 막 물기나지 않해. 군버짐엔

113004 #2 군버짐은 경 나지 않아.

113004 #1 허물로 나야 물이 나지. 허물에야 고름도 나고이 허물은,

113004 @ 도리버즘, 군버즘 이섯수과? 춤, 꿈 바르고 이런 건 안봐봤수과?

113004 #1 아니, 어른들이 보민이 애기덜이 이디 무싱가 뽕ㄴ롱허민 쟈백 이명 어머니가 세로 할타주는 것도 반 어머니가 애긴때,

113004 #2 겐디 춤을 불라주는다, 이 춤자나면은 아침에 춤자냥 일어나면은 아무것도 물도 안 먹영, 입을 안다셔본때 안다셔본때 춤 영 헤그네 영 불라주민 그게 막 약 웬텐주게.

113004 #1 잠 자난 때가 춤이 약이라렌 허주 어른들이

113004 #2 옛날어른들은 그런 걸 주로 썻주게. 옛날어른들은

113004 #1 잠 자난뒤에 춤이 약이라 춤이 약이라. 입 안 다성 가만이

113004 #2 입을 안노려본때에 춤을 해당으네 불라주민 그게 막 약으로

113004 #1 경헌 할타주민 좋기도 현 생이라. 어머니 세로게 애기 어린애기고 허난,

113004 #2 게난 것도 입 안다셔본때 세로 할라주는 것도 허여.

113010 @ 다래끼?

113010 #1 다래끼 눈에 나는거난 으서져이.

113010 #2 다래끼 눈 알바위 난 건 “개썸낫져 개썸낫져” 해여이, 경헌디 그것도 아침이 자당 일어난 아무것도 입을 안 먹어본때에 춤을 자꾸 불라주당 보민 삭

아저블어.

113010 #1 우바위 난 건 개좃, 개좃이엔 안하고 들럿이엔 했지.

113010 #2 들럿이엔 말도 옛날은 안골안 “ 들럿났져 들럿났져” 이것도 중간에 나온말이라.

113013 헛바늘: 셋가시 일엇져.

113014 천연두: 마누라

113015 홍역: 마누라

113016 학질: 오늘은 아프민 낼은 걸렁 아픈 거.(떨며, 날걸리병)

113026 @ 땀띠: 땀띠

113026 #1 극지말라, 극지말라.

113030 @ 감기: 고뿔

113030 #1 콩늬물 딸렁 먹으라 우리어머니가,

113032 @ 딸꾹질: 틀구지

113032 #1 추운 기가 나민 나는 생이라. 뉘 덮어주렌,

113036 @ 설사:

113036 #2 고사리 숲양 기름 많이 낡 볶아그네 먹으렌허여. 설사 켜텐,

113040 @ 배인 데:

113040 #2 옛날엔 담배, 부짱 쳐 매연

113040 #1 출비당 비민, 들싸움 ㄹ장으로 아버지가 쳐매주난 나안, ㄹ장 피민 ㄹ장해당 둘이가 싸움부청 그거가 고개 숙영 털어지민 혼대 때려. 흐”  
ㄹ 오롯허여. 꺾어진아이가 매맞아.

113041 @ 모기 물린 때:

113041 #1 춤 불리는 게 최고야.

113042 @ 뱀 물린 때:

113042 #1 딱 찼라. 이레 못가게.

113042 #2 머리카락 뽑양 일로 묶은덴 허여.

113042 #1 묶어 놓고 병원에 가도 가. 머리로 올리민 죽넨 해.

113042 #2 독살이 머리에 올리민 죽넨,

113043 @ 벌 쏘인 때:

113043 #1 사람오춤, 백번 좋아.

113043 #2 소변도 약이엔 헨 블라신디 소변보다도 구지뽕 딱다근에 이거 하얗게 그 고름나민 그 벌 쏘 침 가난디만 토끼 영 영 블라도 아프당것도 싹 녹이고 부시당도 싹 쳐져. 옛날 나가 해봤주,

113044 옷 오른 때: 칠냥

#### 14. 경험담, 속담, 금기어 듣기

114001 @ 죽을 뻔했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4002 @ 도깨비를 만났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4002 #1 옛날에는 이제는 도깨비 안나는데이 옛날에는이 이디 살아도 요 우로 도깨비 낭으네 막 저레 벌렁벌렁벌렁 막 감덴“ 저도깨비 보라 도깨비 보라” 막 경헌디 사람 따라가민 그 불이 어서져불어 사람 막 구경허연 따라가민 경헌디 그때는 그디 43스건에 막 죽어나니까 그 도깨비가 사람죽은 헛개야. 경헌디 이제는 사람덜 다 살고 집 지서부난 그것이 어디 날 트명이 이서. 옛날은 이디 밝이난게 밝이난 도깨비 낭으네 “저 우영밧디 뛰엄쩌 쥐엄쩌” 근딘 맨 사람죽은 터라. 옛날 43스건때, 게난 걸 나지만 이젠 뭐 그런 거 어디 길 트명이 잇게, 헛개도 조용헌때 나오주 이젠 변화해부난

114002 #2 이젠 사람 무서왕 헛개덜도 활동 못허는 생이라. 사람이 사람 죽여노난 신이 무신 활동해점서,

114002 #2 약헌 사름은 봐도 그냥 경 허는디 췌 사름은 도깨비가 그냥 언제 어서져분덴,

114003 @ 참외나 수박을 서리했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4004 @ 어렸을 때 들었던 재미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4006 @ 예전의 삶과 현재의 삶을 비교하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114006 #1 지금에야 살기 좋았지. 예전에 산 거 생각허민, 백프로 달라졌지. 백프로 달랐지. 옛날에 우리 어머니 살때사 사람 사는 게 춤 일만일만행 살아신디,

114006 #2 완전이 뜬 세상이주.

114006 @ 그래도 옛날 인심이라든가 좋았던 점도 잇잖아예?

114006 #2 옛날 인심이야 좋았지.

114006 #1 옛날에는이 어디 불났져허민이 허벽정으네 물 정 다 오랜 안해도 그 허벽정 갖당 불 다 꺼. 이제 소방서가 그때 어신때난, 허벽으로 물로, 다 허민, 그 물허벽을 다 부렛당으네 그디가 그 저 불나난 집인 곳을 하여게. 그거 아사나야 허벽을 저온텐해. 그냥 저와불민 딱시 불난텐, 부떠온텐. 겐, 고만이 부러뵤 그냥 갖 단 제 심방 빌어당 행으네 제 아사나민 그뻐 허벽져가라하여. 게난 허벽 그냥 못정가. 제 앓기전인,

114006 #1 그 물허벽 정가는 건 느나어시 저가.

114006 #2 느나어시 저가. 불났덴허민 무장 짹짹, 물져가민 그거 반앙 비우멍 불끄고 여자분들은 저가곡,

114006 #1 그걸 소방서로 하여.

114006 #2 그런 건 많이 해나서.

114006 #1 진짜 이제 생각해봐도 물허벽 저난 생각을 허민 그거 헉난 의리가 좋아뵤어이. 어디 불 닳텐 연기 나가민 그냥 허벽정 물 정 돌아. 그 집더레 돌아.

## 제2절 어휘

### 1. 인체

#### 얼굴과 머리

201001	머리	머리, 머리뺨, 대갈뺨
201002	대가리	더맹이, 더망생이, 데망생이, 데강생이
201003	크다[大]	크다
201004	숫구멍	숨굴, 숨굴
201005	제비초리	제비꿀랭이
201006	머리털	머리털
201007	머리카락	머리카락
201008	길다[長]	질다
201009	짧다[短]	졸르다
201010	빗[梳]	머리빗
201011	얼레빗	얼레기
201012	참빗	챙빗(니 내리는 거)
201013	땅다	다우다, 답다.
201014	비녀	비녀대
201015	고수머리	곱슬머리
201016	가마[旋毛]	웬가매, 느단가매
201017	쌍가마	쌍가매
201018	가르마	앞갈라
201019	이마	임탱이
201020	넓다[廣]	널브다
201021	이마빼기	임탱이
201022	솜털	간세터럭
201023	얼굴	양지
201024	낫[面]	놋, 뺨
201025	웃다[笑]	웃다
201026	그리다[寫]	그리다
201027	세숫대야	세숫대양
201028	씻다[洗]	씻다
201029	거울	민경
201030	보다[見]	보다

201031	뺨	뺨
201032	뺨따귀	뺨때귀
201033	때리다[打]	뜨리다
201034	볼	볼
201035	볼따구니	볼뻬
201036	볼거리	볼거리
201037	광대뻬	볼뻬, 광대뻬
201038	보조개	보조개
201039	주름살	주름살
201040	눈[目]	눈
201041	흰자위[目]	흰공자
201042	검은자위	검은공자 애기공자(속에 동글랑 흰 거)
201043	눈꺼풀	눈두껍이, 눈두께
201044	거적눈	덕개눈이
201045	눈썹	눈썹
201046	질다[濃]	시커멍흐다. 질다.
201047	속눈썹	속눈썹(눈바위에 있는 거)
201048	양미간(眉間)	양사이
201049	수침(垂針)	그뚝
201050	거머리	(아기때: 침 맞일때 성했져)
201051	폐롭다	폐랍다
201052	눈곱	눈뽀찌기
201053	눈초리	눈각
201054	사팔눈	사팔떼기(흰눈이 요레갔다 요레갔다 허는 사람)
201055	눈웃음	눈웃음
201056	코	코
201057	만지다[撫]	믄직다
201058	콧마루	콧대(콧대 오그라지민 구눔이 시켄),콧등땡이
201059	세다[強]	썰다
201060	콧구멍	콧고망
201061	코딱지	코딱지
201062	콧물	콧물
201063	닦다[拭]	따끄다. 쓸다.
201064	콧수염	콧쉬염
201065	인중	임중
201066	입	입
201067	쓰다[苦]	쓰다(칼갈)



201068	참말	춤말, 바른말
201069	거짓말	거짓말, 거짓깎(아이덜)
201070	바르다[正]	바르다
201071	답달하다	답달하다
201072	입술	입바위, 입술
201073	헐다[毀]	헐다
201074	입놀림	입노렘
201075	말하다	말근다
201076	입방아	입방정, 헛입(놈의 말 허대다)
201077	허풍	허풍
201078	뇌다	노다시리다
201079	침[唾]	춤
201080	삼키다[吞]	숨진다
201081	가래침	개춤
201082	뱉다[吐]	바끄다
201083	느침	니치름
201084	턱받이	턱받이
201085	혀	세
201086	활다	할르다
201087	헛바늘	셋가시
201088	이[齒]	니
201089	앞니	앞니
201090	송곳니	걸니
201091	덧니	덧니, 덧발이
201092	버드렁니	빠더렁니
201093	어금니	어금니
201094	사랑니	사랑니
201095	옥니	오근니, 오그라진니
201096	옥다[曲]	오그라지다
201097	돋다[出]	돋다
201098	음물다	악물다
201099	턱	턱, 아귀턱
201100	턱살	턱술
201101	빨다[稍峽]	빨아지다
201102	수염	쉬염
201103	귀	귀
201104	귓바퀴	귀짜락

201105	긷불	긷불
201106	긷구멍	긷고냥
201107	긷칭(고막)	긷창
201108	긷지	긷밥
201109	긷이개	긷오비(긷밥 후비는 거)
201110	가는긷	ㄴ는긷
201111	긷밀	*
201112	구레나룻	녹대쉬엄
201113	목	야개기, 모가지
201114	굽다[顛]	슬지다
201115	모가지	모가지, 모개기
201116	멕살	멕살, 목고대
201117	잡다[執]	잡다
201118	뒤통수	뒷더맹이
201119	꼭뒤	상가매
201120	뒷덜미	뒷고개

#### 상체

201121	어깨	득지, 우득지
201122	어깨뼈	우득지뼈
201123	어긷죽지	우뚝지, 푸는체짱
201124	겨드랑이	저갱이, 저드렁이
201125	팔	폴
201126	팔뚝	폴따지
201127	새기다[刻]	새기다
201128	팔심	폴심
201129	힘줄	심줄
201130	닭살	득술
201131	팔꿈치	폴
201132	팔목(=손목)	홀목
201133	뼈	짱
201134	뼈다귀	짱, 뼈다귀
201135	손	손
201136	왼손	웬손
201137	오른손	ㄴ단손
201138	왼손잡이	웬쟁이
201139	손등	손등얼이

201140	손바닥	손바닥
201141	손톱	손끝
201142	들다[擧]	들다
201143	흔들다[搖]	흔들다
201144	거스러미	거심, 손거심
201145	할퀴다	극주다
201146	손가락	손꼬락
201147	엄지손가락	엄지손꼬락
201148	검지손가락	안조웨기, 곰지손꼬락
201149	가운뎃손가락	상손꼬락, 장가락,
201150	약손가락	논웨기, 미멘도
201151	새끼손가락	새끼 손꼬락
201152	손살	손꺼림
201153	가슴	가심
201154	뛰다[跳]	뛰다
201155	젓가슴	젯가심
201156	멍치	멩치, 멩치팡
201157	명자리	오목가심
201158	젓	젯
201159	젓꼭지	젯꼬고리
201160	젓명울	젯명울
201161	짜다[擗]	짜다
201162	울다[鳴]	울다
201163	배[腹]	배
201164	기다[匍]	기다
201165	고프다[餓]	고프다
201166	배꼽	베또롱, 베똥
201167	옆구리	옴갈리
201168	갈비뼈	갈리뼈
201169	등	등, 등팡
201170	밀다[推]	밀다
201171	굽다[曲]	굽다
201172	등때기	등뎡이
201173	가렵다[癢]	ㄱ렵다
201174	긁다[抓]	긁다
201175	걸리다	저리다
201176	등목(=목물)	(등뎡이 밀라, 등뎡이 물 지치라)

201177	찬물	촌물, 실려운 물
201178	등마루	등믈
201179	등뼈	등짱

#### 하체

201180	허리	즌등이
201181	잔허리	ㄴ는 즌등이
201182	가늘다[細]	ㄴ늘다
201183	엉덩이	엉등이
201184	살집	잠지폐기
201185	볼기	잠지폐기
201186	엉덩이뼈	영치뼈
201187	궁둥이	궁둥이, 방뎡이
201188	궁둥이뼈	궁뎡이뼈, 부피뼈(도세기에 씀)
201189	살	슬
201190	새끼똥구멍	새끼또고냥
201191	더럽다[汚]	덜롭다, 추접흐다
201192	가볍다[輕]	가뻬다
201193	무겁다[重]	무겍다
201194	살	삿강이, (즈금테기사이)
201195	가래똥	삿강이 명을
201196	다리[脚]	다리
201197	서다[立]	사다
201198	허벅다리	허벅다리
201199	넓적다리	넓적다리(무릅 곧 우이)
201200	무릎	동모릅
201201	무릎뼈	동모릅짱
201202	뼈다[櫛]	ㄴ목끄다
201203	정강이	정갱이
201204	정강뼈	정갱이뼈
201205	종아리	종아리, 종애
201206	장판지	주슬
201207	오금	오금테기
201208	복사뼈	귀마리뼈
201209	발[足]	발
201210	걸다[步]	걸다
201211	긋다[凶]	긋다

201212	헛발질	헛발질
201213	발목	발목
201214	겹질리다	ㄴ모까다
201215	발등	발등
201216	발바닥	발바닥, 발창
201217	발부리	발뿌리
201218	차다[蹴]	차다
201219	간지럽다	즈굽다, ㄴ릅다
201220	간지럼	저굽
201221	발가락	발까락

201221-1	엄지발가락	엄자발까락
201221-2	둘째발가락	상발까락
201221-3	가운데발가락	가운디발까락
201221-4	넷째발가락	논웨기발까락
201221-5	새끼발가락	새끼발까락

201222	발살	발꺼림
201223	까치눈	발 눈튼거
201224	티눈	퀴눈이
201225	고린내	ㄱ랑내, ㄴ린내
201226	발톱	발굽
201227	발뒤축	발뒤척이
201228	쓸개[膽]	실개
201229	허파	북부기
201230	마음	ㅁ심
201231	곱다[麗]	곱다
201232	창자	창지
201232-1	큰창자	대창
201232-2	작은창자	즌베설
201233	목숨	목숨, 멩
201234	빼앗다[脫]	뻬다
201235	한숨	훈숨

## 2. 육아

## 발달

202001	서다[孕]	설다
202002	시다[酸]	시다.
202003	기쁘다[喜]	지쁘다
202004	입덧	입덧
202005	낳다[娩]	낳다
202006	태(胎)	아기방석
202007	탯줄	베똥줄
202008	나이	나이
202009	어리다[幼]	어리다
202010	터울	몬이
202011	갓난아이	물애기
202012	싸다[包]	싸다
202013	어린아이	물애기
202014	사내아이	스나이 놉
202015	계집아이	지지빠이
202016	아깁다	을큰헝다. 아깁다.
202017	아이보개	아기엽개
202018	엽저지	아기엽개
201019	품다	쿰다, 안다
202020	오줌	오죤
202021	오죤독	오죤단지, 오죤항.
202022	오죤버캐	오죤정갱이
202023	오죤싸개	오죤쌌기
202024	누다[便]	누다
202025	나무라다	내무리다
202026	지린내	찌렁내
202027	마렵다	므렵다
202028	꾸지람	욕
202029	배냇저고리	봣디창옷(고름도 실로)
202030	기저귀	지성귀
202031	배두렁이	배블레기(아기 존둥이에)
202032	포대기	걸렁이
202033	보자기	포대기, 포따리
202034	보따리	포따리
202035	풀다[解]	클르다

202036	끄르다	클르다
202037	치네	지성귀
202038	띠	걸랭이(끈으로 걸랭이 행)
202039	개구멍바지	ㄱ장중의

### 재통과 놀이

202040	죄암죄암	즘매즘매, 줌즘
202041	곤지곤지	곤지곤지
202042	따로따로	뜨로뜨로
202043	도리도리	마니마니
202044	짹짹	던데던데
202045	부라부라	*
202046	걸음마	섬매섬매,
202047	걸리다	걸리다
202048	곤두박질	삿가닥질
202049	곤두서다	삿가닥질사다
202050	가동가동	개동개동, 가당가당
202051	안다[抱]	안다
202052	안기다	안기다
202053	목말	목
202054	흥내	승
202055	흥내질하다	승털다
202056	엄살	엄살
202057	쌈	시알
202058	자라다[成長]	질다
202059	부아	부에, 용심
202060	참다[忍]	춤다
202061	심술	심술
202062	밋다[憎]	밋상블르다, 밋다.
202063	옛말	옛말
202064	자치기	자치기
202065	구슬치기	다마치기
202066	딱지치기	빠지치기
202067	통차기	찢돌이(돌=떡대차기)
202068	숨바꼭질	곱음재기
202069	숨다	곱다
202070	소꿉놀이	자파리

202071	놀다[遊]	놀다
202072	실뜨기	실뒤슬락
202073	풍계물이	*
202074	줄넘기	베뿔락(혼자), 베칠락
202075	줄다리기	줄등기기
202076	수수께끼	예숫제길락
202077	공기	공기
202078	공깃돌	공깃돌(게벼운 속돌 봉가당)
202079	던지다[投]	던지다
202080	고누	*
202081	땅뺏기	땅따먹을락
202082	사금파리	찢돌이
202083	말놀음질	말탈래기
202083-1	생말타기	말탈래기, 말타기
202083-2	죽은말타기	*
202084	대말[竹馬]	*
202085	달음박질	들음박질
202086	겨루다[競]	져루다
202087	제기차기	쩍기찰락
202088	헤엄치다	헤엄치다
202089	웃놀이	웃놀이
202090	웃가락	웃가락

202090-1	도	한 짝만 짓혀졌을 때	도
202090-2	개	두 짝 짓혀졌을 때	개
202090-3	걸	세 짝이 짓혀졌을 때	걸
202090-4	웃	네 짝 모두 짓혀졌을 때	웃
202090-5	모	네 짝 모두 얹어졌을 때	모

202091 동무니 동매

202091-1	외동무니	한 동만으로 가는 말	흔동매
202091-2	두동무니	두 개의 말을 한테 어울러 가는 말	두동매
202091-3	석동무니	세 개의 말을 한테 어울러 가는 말	석동매 ,석동매
202091-4	넉동무니	네 개의 말을 한테 어울러 가는 말	네동매, 넉동매

202092 막동 막동매, 막동산



202093	보리웃	보리웃(서툰사람 노는 거)
202094	줄목	줄목(계속 모가 여러번)
202095	이기다[勝]	이기다
202096	승강이	실랭이
202097	싸우다[鬪]	싸움박질흐다
202098	패싸움	싸움박질, 태싸움
202099	모다기령	태싸움
202100	편백하다	웬백하다
202101	팽이치기	팽이치기
202102	팽이	팽이
202103	돌다[回]	돌다
202104	바람개비	브름도래기, 브름돌애기
202105	연	연
202106	방패연(쟁연)	춤연
202107	가오리연	개오리연
202108	연달	연대

202108-1	머릿달	연의 머리에 붙인 대	머릿대
202108-2	꽂숫달	연의 가운데에 길어로 붙인 대	가운디데대
202108-3	꺄달	연의 네 귀에 '×'자 모양으로 엮붙인 대	연대
202108-4	허릿달	연의 허리에 붙인 대	허릿대

202109	방구멍	가오리구녕, 들연(들구멍)
202110	꼭지	꼭지
202111	갈개발	갈개발
202112	벌이줄	연술

202112-1	머릿줄	연의 머릿달 양 끝에 매는 벌이줄	벌이줄, 머릿줄
202112-2		연의 방구멍 위쪽 꼭지에 매는 벌이줄	꺄줄
202112-3	꽂숫줄	연의 꽂숫구멍에 꿰어서 꽂숫달에 잡아매어 비스듬하게 올라와 가운데 줄과 한군데로 모이는 벌이줄	줄음에줄
202112-4	활벌이줄	연의 머릿달 양쪽 뒤로 돌아가 활시위처럼 잡아당기어 맨 벌이줄	
202112-5	가운뎃줄	연의 방구멍에 매는 벌이줄	가운디줄

202113	얼레	실패
202114	두모얼레	*

202115	네모얼레	*
202116	감다[捲]	*
202117	개미[연놀이]	밀
202118	퇴김	연싸움
202119	그네[鞦韆]	뒤천, 주천
202120	밀신개	발판
202121	굴렁쇠	*
202122	구르다[轉]	굴르다
202123	썰매	썰매
202124	자전거	자전거
202125	키[身長]	지레
202126	키다리	키다리

### 생리와 질병

202127	하품	하우염
202128	선하품	하우염
202129	기지개	질트는 거.
202130	기지개하다	질트다
202131	경기하다	정기흐다
202132	놀라다[驚]	놀라다
202133	졸음	졸음
202134	졸다[眠]	졸다
202135	졸리다	조랍다
202136	잠	즘
202137	귀잠	제라흐즘 (반대:여시즘,선즘)
202138	자다[眠]	자다
202139	잠꼬대	헛말
202140	잠귀	즘귀
202141	잠꾸러기	즘푸대
202142	몸부림	몸질
202143	몸부림하다	몸질치다
202144	트림	게틀락
202145	딸꾹질	틀국지
202146	재채기	허깅이
202147	개치네췌	허쉬
202148	방귀	똥
202149	방귀뀌다	똥뀌다

202150	방귀장이	똥박쟁이.
202151	구린내	똥내
202152	노린내	기시린내
202153	사레들다	사레들다
202154	감기	고뿔
202155	기침	지침
202156	홍역	마누라
202157	학질	학질
202158	천연두	마누라(큰마누라, 죽은 마누라)
202159	곰보	억배기
202160	비듬	비듬
202161	기계총	기계총
202162	독창	득창
202163	두부백선	도리버즘
202164	웃	칠
202165	버짐	버짐
202166	마른버짐	군버즘(희뽕희뽕)
202167	진버짐	츄버짐
202168	주근깨	프리츄
202169	기미	지미
202170	사마귀[黑子]	말축
202171	여드름	여드름
202172	멍	멍
202173	퍼렇다	퍼렇ㅎ다
202174	굳은살	구진술
202175	부스럼	부시럼, 허멀
202176	종기	종기
202177	습종	*
202178	나다[生]	나다
202179	붉은발	*
202180	다대	허멀딱지
202181	고름[膿]	고름
202182	고장물	구진물
202183	낫다[癩]	낫다
202184	아물다	아물다
202185	표적	표적
202186	생인손	대전

202187	앓다[痛]	앓다
202188	두드러기	두드레기
202189	땀띠	땀띠, 땀두드레기
202190	소경	봉사
202191	청맹과니	*
202192	먼산바라기	*
202193	애꾸눈이	웨눈배기
202194	사팔뜨기	사팔떼기
202195	다래끼	둘럿, 개좃(우바위), 개씹(아래),
202195-1		개씹(아래)
202195-2		둘럿, 개좃(우바위)
202196	언칭이	얼챙이
202197	외언칭이	웨얼챙이
202198	쌍언칭이	쌍얼챙이
202199	귀떡다	귀막다
202200	귀머거리	귀마구리
202201	병어리	말모로기
202202	말더듬이	말다드레기
202203	혀짤배기	세졸레기, 세다데기, 세다드레기
202204	입비뚫이	입트래기
202205	구안괘사	퐁
202206	가납사니	말퐁어리, 말쟁이
202207	곰배팔이	*
202208	곱사등이	곱세
202209	절뚝발이	절뚝발이, 전태
202210	얇은뱅이	아즌뱅이
202211	문둥이	용다리

### 3. 친족

203001	아버지	아부지
203002	어머니	어머니
203003	아비	아방
203004	어미	어멍
203005	할아버지	할아부지, 하르방
203006	할머니	할무니, 할망

203007	남편	남편
203008	아내	각시
203009	부부	두갓
203010	싫다[厭]	긋다
203011	좋다[好]	좋다
203012	아들	아덜
203012-1	큰아들	큰아덜

203012-1	큰아들	큰아덜
203012-2	둘째아들	셋아덜
203012-3	셋째아들	말젯아덜
203012-4	막내아들	막녕이, 막둥이, 죽은 아덜, 죽은거

※아들이 다섯인 경우

203012-5	큰아들	큰아덜
203012-6	둘째아들	셋아덜
203012-7	셋째아들	큰말젯아덜
203012-8	넷째아들	죽은 번째아덜
203012-9	막내아들	막녕이

※아들이 여섯, 일곱, 여덟인 경우도 가능하면 조사

203013	친아들	친아덜
203014	의붓아들	다심아덜
203015	딸	딸
203016	친딸	친딸
203017	의붓딸	다심딸
203018	자식	즈식
203019	없다[無]	엇다
203020	자손	즈손
203021	어비딸	에이딸
203022	어비아들	에비아덜
203023	닮다[相似]	닮다
203024	어이딸	이이딸
203025	어이야들	으세끼
203026	말이	믈이
203027	막내	막녕이

203028	형	성
203029	누님	누님
203030	누이	누이
203031	언니	언니
203032	아우	아시
203033	외아들	단아덜, 웨아덜
203034	외딸	단딸, 웨딸
203035	쌍둥이	골루기
203036	다르다[異]	달르다
203037	같다[如]	골다
203038	양자	양
203038-1		양 들엄져
203038-2		양 들암져.
203039	처녀	처녀, 애기씨
203040	총각	총각
203041	혼인	혼인
203042	날[日]	날
203043	사주보다	사주보다
203044	중신	중신, 중매
203045	권당	퀘당
203045-1	답덜	식구가 많은 사람
203045-2	방상	친척
203046	얏은잔치	*
203046-1	암창개	암창개
203047	사위	사위
203048	며느리	며느리
203049	시아버지	씨아부지
203050	시어머니	씨어머니
203051	장인	가시아방
203052	장모	가시어멍
203053	외할아버지	웨할아부지
203054	외할머니	웨할무니
203055	삼촌	삼촌
203055-1	삼촌	삼촌
203056	아주버니	아지방
203057	아주머니	아주망
203058	환갑	환갑

203059	늡으신네	늡신네
203060	꾸정꾸정하다	*
203061	살다[生]	살다
203062	고로롱팔십	꼰롱팔십
203063	병추기	*
203064	거동하다	으뭉ㅎ다
203065	손자	손지
203066	손녀	손녀뜰
203067	친손자	성손지
203068	외손자	웨손지
203069	친탁	성탁
203070	외탁	웨탁
203071	내척	성웁
203072	외척	웨웁
203073	종내기	종내기
203074	시누이	시누이
203075	올케	시누이
203076	큰아버지	큰아버지
203077	큰어머니	큰어머니
203078	작은아버지	죽은아버지
203079	작은어머니	죽은어무니
203080	조카	조캐
203081	고모	고모
203082	고모부	고모부
203083	이모	이모
203084	이모부	이모부
203085	외삼촌	웨삼촌
203086	넛할아버지	넛할아버지
203087	넛할머니	넛할머니
203088	넛손자	넛손지
203089	홀아버	홀아방
203090	홀어미	홀어멍
203091	친아버지	친아방
203092	친어머니	친어멍
203093	의붓아버지	다심아방
203094	의붓어머니	다심어멍
203095	웁딸	비런뜰

203096	누구	누게
203097	남[他]	남

#### 4. 의복

##### 옷감과 세탁

204001	옷감	옷감
204002	꿴다	끈다
204003	명주	멩지
204004	명주실	멩지실
204005	명주옷	멩지옷
204006	줄다[縮]	줄어불다
204007	무명	민영
204008	무명실	민영실
204009	닷새무명	닷새민영(흙어-제주에는 없다)
204010	엿새무명	옷새민영 갈옷만드는)
204011	생목	생미녕(들어보지 못하다)
204012	광목	광목
204013	베	베
204014	베옷	베옷
204015	베치마	베치매
204016	숨	소게, 멘네소게.
204017	풀숨	*
204018	숨틀	*
204019	숨틀집	*
204020	목화	멘네
204021	목화다래	멘네드레기
204022	누에	누에
204023	누에채반	*
204024	번데기	*
204025	고치	고치
204026	뽕잎	뽕닙
204027	뽕나무	뽕낭
204028	산뽕나무	산뽕낭
204029	오디	뽕낭올매
204030	다듬잇돌	다듬잇돌



204031	다듬잇방망이	서답마깨
204032	펴다	폐우다
204033	빨다[漉]	빨다
204034	거품	개꿈
204035	물거품	물거품, 물부굴레기
204036	빨랫돌	빨랫광
204037	빨랫방망이	물마깨
204038	빨랫바구니	질구덕
204039	헝구다	헝구다
204040	빨랫줄	빨래줄, 서답줄
204041	마르다[乾]	므르다
204042	바지랑대	작대기
204043	널다	널다
204044	걷다[收]	들이다
204045	바래다[褪]	발래다
204046	헝겂	헌벽
204047	찢다[裂]	찢다
204048	나부랭이	헌벽세기

### 복식

204049	바지	바지
204050	바짓가랑이	바짓가랭이
204051	저고리	저고리
204052	치마	치매
204053	치맛자락	치맷즈락
204054	풀치마	깍치매
204055	옷고름	곰
204056	옷깃	옷짓
204057	옷섶	옷섶
204058	단추	단추
204059	매듭단추	므작단추
204060	동정	동정
204061	소매	소매
204062	중의	중의
204063	갈중의	갈중의
204064	적삼	적삼
204065	도포	도포

204066	두루마기	두루막
204067	장옷	장옷
204068	고쟁이	고장중의
204069	토시	손도매.
204070	누더기	두대기
204071	거지	동녕바치
204072	구두쇠	뺏쟁이
204073	잠방이	잠뱅이
204074	허리띠	허리띠
204074-1		*
204075	주머니	주맹기
204076	호주머니	계와
204077	넣다[入]	들여놓다
204078	버선	브선

204078-1	버선목	발목이 닿는 부분	브선목
204078-2	버선꿈치	발꿈치가 닿는 부분	브 선 뒷 치 기
204078-3	버선등	발등이 닿는 부분	브선등
204078-4	버선코	앞쪽 끝에 뽕족한 부분	브선코

204079	길목버선	헌 브선
204080	버선발	브선발
204081	대님	다림
204082	감발	*
204083	홀옷	홀옷
204084	겹옷	*
204085	숨옷	소게옷
204086	얹다	얹루다
204087	입다[着]	입다
204088	이불	이불
204089	이불깃	이불깃
204090	이불잇	이불잇
204091	홀이불	홀이불
204092	겹이불	*
204093	사이	*

204094	누비이불	누비이불
204095	이불보	이불포
204096	보풀	보푸레기
204097	홀청	홀청, 이불안
204098	요	요
204099	옷잇	요수건
204100	눅다[臥]	눅다
204101	누이다	눅지다
204102	담요	담요
204103	방석	방석
204104	앉다[座]	앉다
204105	베개	베개
204106	베갯잇	베갯잇
204107	베갯머리	머리맡
204108	베갯모	베게모메기
204109	목침	목침
204110	삿갓	패랭이
204111	패랭이	삿갓(대)
204112	유건	유건
204113	병거지	병것
204114	밑짚모자	밑낭패랭이
204115	미사리	삿갓망
204116	짚신	초신, 짚신
204117	제총박이	*
204118	딴총박이	깍신
204119	미투리	미투리(어웁쪽으로 고운짚신)
204120	삼다[造履]	삼다
204121	나막신	남신
204122	가죽신	가막창신
204123	부르트다	북물다
204124	벗다[脫]	벗다
204125	설피	*
204126	문수	몽수, 치수
204127	부채	푼채
204128	미선	선재, 미선
204129	부치다[扇]	부끄다

### 바느질과 도구

204130	반진고리	바농상지
204131	가위	ㄴ새
204132	마르다[裁]	몰르다
204133	골무	골미
204134	실	실
204135	실꾸리	실꼬리
204136	실패	실패
204137	바늘	바농
204138	찌르다[刺]	찌르다
204139	바늘겨레	줄레
204140	바늘귀	바농귀
204141	꿰다	꿰다
204142	집다	주다
204143	실밥	실밥
204144	접다	줍다(흔자 흔치씩)
204145	곱치다	바금치기하다(뒷바느질하다)
204146	휘갑치다	감치다
204147	재봉틀	미싱
204148	다리미	다리웨
204149	다리다[麤]	다리다
204150	인두	운디
204151	인두판	운디판
204152	누르다[壓]	누르다
204153	씨아	물레

204153-1	(씨아 기둥)	가락을 끼우는 좌우에 있는 두 개의 기둥	물레지둥
204153-2	썰기	가락과 장가락이 마주 붙어 돌아가도록 밑에서 받치는 나무	물레케마리
204153-3	(깔개)	씨아질을 할 때 씨아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타 앉는 앉을개	베클방석
204153-4	씨앗귀	가락 끝에 파배기처럼 생긴 톱니	멘주기
204153-5	씨아손	손잡이	브디
204153-6	가락	씨를 빼는 톱니	가레기

204154 물레

204154-1	괴머리	물레의 왼쪽 가로대 끝 부분에 놓는 받침 나무	퀘머리
204154-2	괴머리기둥	괴머리에 세워진 기둥	퀘머리지둥
204154-3	설다리	물레의 바탕 위에 세우는 두 개의 기둥	물렛지둥
204154-4	가로대	물레 몸통과 괴머리를 가로지른 나무	가레기
204154-5	물레바퀴	물레의 바퀴	*
204154-6	꼭지마리	물레의 손잡이	물렛즈록
204154-7	동줄	물레의 바퀴와 바퀴를 이은 줄	가레기줄
204154-8	가락고동	괴머리의 두 기둥에 가락을 걸기 위하여 고리처럼 만들어 박은 물건	*
204154-9	가락(옷)	실이 감기는 쇠꼬챙이	가레기
204154-10	굴뚝	물레의 몸이 실린 중심의 굴대	*
204154-11	물렛줄	물레의 바퀴와 가락을 걸쳐 감은 줄	깨

204155 자세

\*

5. 음식

주식

205001	밥	밥
205002	쌀	술
205003	쌀독	술항
205004	담다[入]	담다
205005	보리밥	보리밥

205006	끓어오르다	괴다
205007	빠다[渴水]	틈들다
205008	조밥	조팍
205009	덜다[減]	덜다
205010	흰밥	곤밥
205011	팔밥	폴밥
205012	반지기	반지기
205013	고두밥	선밥
205014	먹다[食]	먹다
205015	누룽지	누녕이
205016	눌은밥	누녕이밥
205017	더운밥	뜨신밥
205018	식은밥(찬밥)	식은밥
205019	툇밥	툇밥
205019-1	패밥	패밥
205019-2	파래밥	포래밥
205020	밥보	밥푸대, 밥체시.
205021	밥술	숫가락, 수저
205022	밥알	밥방울
205023	끼니	때
205024	늦다[晚]	늦다
205025	이르다[早]	이르다
205026	공밥	공밥
205027	놀다	놀다
205028	승냥	승냥
205029	화독내	그끄렁내
205030	국	국
205031	나물국	늑말국
205032	콩국	콩국
205033	춧국	냉국
205034	냉국	냉국
205035	건더기	건지
205036	국물	국물
205037	굶다[飢]	굶다
205038	죽	죽
205039	덥다[暑]	덥다
205040	흰죽	곤죽

205041	팔죽	폴죽
205042	섞다[混合]	섞으다
205043	콩죽	콩죽
205044	갱죽	*
205045	깨죽	깨죽
205046	녹두죽	녹디죽

### 부식

205047	반찬	출레
205048	테우다	테우다
205049	김치	짐치
205050	배추김치	늑멸짐치
205051	무김치	늑뻘짐치
205052	열무김치	열무짐치
205053	물김치	물짐치
205054	나박김치	나박짐치
205055	갓김치	갓짐치
205056	파김치	파짐치
205057	깍두기	깍두기
205058	메주	메주
205059	담그다	등그다
205060	간장	간장
205061	장물	장물
205062	된장	된장
205063	소금	소금
205064	소금버캐	정쟁이
205065	소금장수	소금바치
205066	간	간
205067	맛	맛
205068	간하다	간하다
205069	콩나물	콩주름
205070	숙주나물	녹디주름
205071	무나물	늑뻘채
205072	고사리	고사리
205073	고사리나물	고사리
205074	고사리밥	*
205075	썰다[切]	썰다

205076	곳[場所]	고단
205077	고비	든고사리
205078	미나리	미나리
205079	부추	세우리
205080	상추	상추
205081	시금치	시금치
205082	푸성귀	승키
205083	오이	외
205084	물외	물외
205085	참외	츄외
205086	수세미외	스가웨
205087	만물	챗물
205088	끝물	막물
205089	개똥참외	*
205090	원두막	원두막
205091	깻잎	펜잎, 유잎
205092	고추	고치
205093	풋고추	풋고치
205094	고춧가루	고치ㄱ루
205095	맵다[辛]	맵다
205096	작다[小]	즉다
205097	호박	호박
205098	청등호박	*
205099	호박잎	호박닙
205100	시들다	시들다
205101	더덕	더덕
205102	젓	젓
205103	자리젓	자리젓
205104	멸치젓	멜젓
205105	아감젓	*
205106	짜다[鹽]	쭈찌롱ㅎ다
205107	초(식초)	초

#### 별식

205108	흰떡	곤떡
205109	백설기	시리
205110	부스러기	보시레기



205111	송편	증편,
205112	소[떡소]	쉬
205113	고물	쉬
205114	도래떡	돌래떡
205115	설다[未熟]	설다
205116	만두	*
205117	가루	ㄱ루
205118	국수	국수
205119	칼국수	칼국
205120	삶다[烹]	습다
205121	수제비	즈베기
205122	물다[淡]	물다
205123	범벅	범벅
205124	미숫가루	개역
205125	볶다[炒]	볶다
205126	붕지	붕다리
205127	과줄	과줄
205128	옛기름	골
205129	감주	감주, 감취
205130	달다[甘]	들다
205131	술	술
205132	막걸리	막걸리
205133	붓다[注]	붓다
205134	기울다[傾]	지울다
205135	주다[授]	주다
205136	마시다[飲]	먹다
205137	준(罇)	술춘(열엇뵤=흔춘)
205138	엎다	어프다
205139	술고래	술푸대
205140	술독	술항
205141	술심부름	술부름씨
205142	술장사	술장시
205143	숨기다	곱지다
205144	찾다[索]	춧다
205145	들이켜다	들이쓰다
205146	갑시다	ㄱ끼다
205147	지짐이	지짐이

205148	누름적	누름이
205149	산적	적갈

**부엌과 그릇**

205150	부엌	정재
205151	부엌문	정재문
205152	불때다	불때다
205153	불등걸	잉경
205154	불뚱	불뚱
205155	부엌비	정지 비차락
205156	내[煙氣]	네, 연기
205157	낮다[低]	낮다
205158	높다[高]	높다
205159	그을음	그스렁
205160	검댕	숫검댕이, 수꾸메기
205161	아궁이	아궁이, 숫강알
205162	재	불치
205163	모으다[集]	모이다
205164	부뚜막	숫덕(돌 식개 hkd)다락허게 아짱)
205165	봇돌	숫덕(식반디)
205166	솔	숫
205167	옹달솔	서두태기
205168	무쇠솔	무쇠솔
205169	끓다[沸]	궤다
205170	솔뚜껑	숫뚜껑이
205171	솔귀	숫천
205172	솔전	숫천
205173	솔바닥	숫창
205174	솔밑	숫창
205175	솔검정	숫검댕이
205176	부삽	불삽, 불갈래
205177	군손	헛손
205178	군일	헛일
205179	살강	살래
205180	부지깻이	부지땡이
205181	짚방석	정지방석
205182	성냥	성냥

205183	성냥개비	성냥살
205184	성냥갑	성냥곽
205185	부시	부술
205186	부싷돌	부들
205187	부싷깃	불찍
205188	부시쌈지	불찍쌈지
205189	부시통	불통, 불찍대
205190	등잔	불각지
205191	관술	술각
205192	호롱	초롱
205193	남포등	등피
205194	젍깃불	슬깍불, 쯤깃불
205195	불켜다	불싸다
205196	숯	숯
205197	검다[黑]	검다
205198	숯가마	숯구멍이
205199	뜬숯	숯
205200	숯검정	숯검댕이
205201	불타다	불습다
205202	탄내	그끈내, 그끄렁내,
205203	불태우다	불스르다
205204	불티	불똥
205205	끄다[消火]	끄다
205206	화로	불화리
205207	돌화로	돌화리
205208	청동화로	정동화리
205209	봉당	복덕불
205210	화룻불	화리불
205211	불찌다	불츠다
205212	화상(火傷)	화상
205213	부손	불수까락,
205214	부젓가락	불저분
205215	다리쇠	쇠발쇄
205216	석쇠	석쇠
205217	물독	물항
205217-1	새를 땅아 동백나무 따위에 거꾸로 매달아 이슬이나 빗물을 향아리에 받아 넣는 물건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지순물	

205217-2 ‘춤’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받아두는 독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205218	담배	담배
205219	피우다	피우다
205220	용고뚜리	담배골초
205221	담뱃대	담뱃대
205222	빨다[吸]	빨다
205223	물부리	물부리
205224	담배통	담배통
205225	담배설대	자죽대
205226	담배쌈지	담배쌈지
205227	재털이	재털이
205228	벼루	베리
205229	상	상
205230	그릇	그릇
205231	비다[空]	비다
205232	주발	놋그릇
205233	사발	사발
205234	뚜껑	뚜껍이
205235	접시	젍시
205236	굽달이	제기
205237	대접	대접
205238	보시기	보시
205239	종지	종지
205240	간종지	장종지
205241	순가락	수까락
205242	젓가락	저분
205243	수저통	수제통
205244	실거지	실거지
205245	구정물	구진물
205246	도시락	동그랑
205247	주전자	주전지
205248	냄비	냄비
205249	바가지	낭박세기(콩죽)
205250	박	꼭
205251	뒤옹박	두렁박
205252	조롱박	꼭박세기
205253	쪽박	죽박

205254	양푼	냥푼
205255	조리	조리
205256	단지	즈막단지
205257	뚝배기	뚝배기
205258	시루	시리
205259	시룻밑	시룻마개
205260	시룻변	시룻마개
205261	경그레	시룻징
205262	함지박	남박, 남바세기, 도구리
205263	바구니	구덕
205264	소쿠리	차롱
205265	대[竹]	대냥
205266	이대	수리대
205267	왕대	왕대
205268	숨대(분죽)	수룻대, 수리대
205269	제주조룻대	ㄴ대
205270	굳은대	왕대
205271	무른대	수리대
205272	항아리	항, 암통게(부리 큰 거), 솥통게(부리 작은거), 망대 기(중간거), 단지(작은거), 즈막단지(질 작은거)
205273	물동이	허벅
205274	뒤주	두지
205275	도마	돔베
205276	칼	칼
205277	식칼	돔베칼
205278	빼다[拔]	빼다
205279	무디다[鈍]	무끼다
205280	갈다[磨]	갈다
205281	숫돌	씬돌
205282	날카롭다	느실다
205283	행주	상베
205284	번철	숫뚜껍이
205285	국자	국자
205286	밥주걱	밥자, 우금
205287	죽젓광이	남죽
205288	수세미	수세미
205289	떡살	떡판(솔벤판, 절벤판)

205290 밀판 안반  
 205291 밀개 홍짓대  
 205292 소줏고리

205292-1	(고리 위통)	소줏고리의 위통	고소리장태
205292-2	(고리 알통)	소줏고리의 아래통	고소리알통
205292-3	귀때	술이 내려오는 부리	고소리뿌리
205292-4	(받이뿔)	부리로 떨어지는 술을 받는 병	(두벵드리뿔)

205293 빗다 술등그다, 술따끄다.  
 205294 풍로 간데기  
 205295 삼발이 시발쇠  
 205296 달이다 딸리다

## 6. 가옥

### 형태와 배치

206001 집터 집터  
 206002 초가 초가  
 206003 길[路] 길  
 206004 골목 소리길  
 206005 좁다[峽] 비좁다  
 206006 낡다[古] 헐다  
 206007 기와집 지세집  
 206008 흙집 흑집  
 206009 돌집 돌집  
 206010 오막살이 오막살이  
 206011 외채 단채  
 206012 안채 안꺼리  
 206013 바깥채 맞꺼리  
 206014 안팎채 안팎꺼래  
 206015 문간채 이문간  
 206016 곁채 모꺼리  
 206017 짓다[作] 짓다  
 206018 장독 장항독

206019	덮다[蓋]	더끄다.
206020	장독대	뒤
206021	헛간	헛간
206022	외양간	쉐막
206023	잃다[失]	잃다
206024	마구간	물막
206025	변소	통시, 듯통
206026	부춘돌	디덜광
206026-1	부출	*
206027	기척	기척
206028	맞서다[拮]	맞사다
206029	냄새	내움살
206030	맡다[臭]	마트다
206031	울담	웃담
206032	울안	우жат
206033	터알	우영팟
206034	가리	늘
206035	보릿가리	보릿늘
206036	짚가리	찍늘
206036-1	출늘	출늘
206037	틈[隙]	트멍
206038	가리다[積]	늘다
206039	사닥다리	드리판
206040	이영	느람지
206041	주저리	주쟁이
206042	엮다[編]	여끄다

#### 내부 구조

206043	차양	풍채
206043-1		풍채
206043-2		발풍채
206044	디딤돌	이이돌
206045	난간	난간, 무똥
206046	마루	마리, 상방
206047	마루문	대문
206047-1	‘호령창’	지계문
206048	마룻널	마리널

206049	구들	구들
206050	구들장	구들돌
206051	종이	종이
206052	얇다	얇롭다
206053	구들직장	고망우럭
206054	큰방	큰구들
206055	들다[入]	들다
206056	윗목	뱃자리
206057	아랫목	안자리
206058	천장	천장
206059	닿다[觸]	맡다
206060	웃바람	우풍
206061	안방	죽은구들
206062	방문	지계문
206063	비[帚]	비차락
206064	빗자루[柄]	빗즈룩
206065	쓸다	쓸다
206066	버리다[棄]	데끼다
206067	바람벽	백브름
206068	걸다[掛]	걸다
206069	벽장	백장
206070	시렁	선반
206071	선반	선반
206072	헛대	해, 헛대
206073	도배	도비
206074	귀얄	풀술
206075	풀비	풀비
206076	찾방	챗방
206077	광	고광
206078	두다[置]	두다
206079	광문	고광문
206080	간수하다	간수하다
206081	안뒤결	뒤
206082	지붕	지붕
206083	함석	양철
206084	지붕물매	*
206085	이다[蓋]	이다



206086	평고대	거왕
206087	처마	처마
206088	처맛기슭	지붕가생이
206089	낙숫물	지신물
206090	댓돌	이이돌
206091	흙	흑
206092	진흙	촌흑
206093	찰흙	촌흑
206094	흙덩이	흑병덩이
206095	새벽	찢흑
206096	흙질	흑질
206097	이기다[沓]	흙뿌다
206098	산자(撒子)	토기
206099	기둥	지둥
206100	상기둥	포지둥
206101	뒤틀기둥	칸지둥
206102	세우다	세우다
206103	주춧돌	주춧돌
206104	서까래	주년서리
206105	용마루	상마루
206106	보	포
206107	대들보	대들포
206108	반자틀	드리
206109	귀틀	귀틀
206110	외(椳)	토기
206111	인방	도리
206112	문설주	문지둥, 문입쟁이,
206113	문곶도리	안도리(죽은드리)
206114	문얼굴	드리
206115	문틀	문틀
206116	문머리	웃지방
206117	문흙	문흙백이
206118	문지방	알지방
206119	지계문	지계문
206120	닫다[閉]	더끄다
206121	창문	창문
206122	잠그다.	중그다

206123	창호지	창오지
206124	띠창문	유리ㄴ망
206125	구멍	고망
206126	미단이	미단이
206127	여단이	돌치귀문, 웨다지
206128	살문	쌀문
206129	널문	널문(겉문)
206130	덧문	겉문
206131	문틈	문트멍
206132	돌쩌귀	돌치귀
206133	암톨쩌귀	암돌치귀
206134	수톨쩌귀	숫돌치귀
206135	문고리	통쇄
206136	배목	대목, 문친
206137	괘	괘
206138	열다[開]	올다
206139	장식	장석
206140	자물쇠	통쇄
206141	열쇠	열쇄
206142	부수다[碎]	부시다
206143	서랍	설랍

**연장**

206144	툽	툽
206145	양날툽	양늘베기툽
206146	거도	거도
206147	틀툽	틀툽, 큰툽
206148	툽밥	툽밥
206149	자귀	제자리
206150	옥자귀	극쇄
206151	노루발장도리	못빼기
206152	못뽑이	지릿대
206153	박다[釘]	박다
206154	배척	함마
206155	끌	끌
206156	망치	망치
206157	방망이	방맹이

206158	대패	대패
206159	개탕대패	흙대패
206160	송곳	송곳
206161	뚫다[鑿]	뚫르다
206162	곱자	곱은자
206163	먹통	먹통
206164	먹줄	먹실, 먹줄
206165	먹칼	먹술
206166	흑손	흑손
206167	쇠흑손	췌손
206168	나무흑손	흑손
206169	흑받기	삼태
206170	들물래	*
206171-1		줄호랭이

## 7. 생업

### 농업

207001	농사	용시
207002	밭	밭
207003	밭가	밭에염
207004	밭담	밭담
207005	밭빼기	드루쟁이
207006	병작(竝作)	병작
207007	갈다[耕]	갈다
207008	쟁기	잠대

207008-1	양지머리	쟁기의 좌우 손잡이	양지머리
207008-2	쟁깃술	쟁기의 몸 아래로 비스듬히 뻗어 나간 나무	성에 잠대무클
207008-3	한마루	쟁기의 성에와 술을 꿰뚫어 곧게 선 나무	*
207008-4	성에	쟁기의 윗머리에서 앞으로 길게 뻗은 나무	성에
207008-5	좀생이막대	쟁기의 위 덧방을 누르는 나무	벧갈,
207008-6	보습	쟁깃술 바닥에 끼우는 쇠조각	보습
207008-7	벧	보습 위에 비스듬하게 덧댄 쇠조각.	벧
207008-8	물추리막대	쟁기의 성에 앞 끝에 가로로 박은 막대기	선비줄 거는 거
207008-9	‘뚝’	좀생이막대 아래에 끼워서 쟁깃술의 각도를 조절하는 막대	벧뜰레,

207009	옥보다	속다
207010	겨리	저리
207011	벧밥	흑덩어리, 흑병애
207012	곰방메	곰베
207013	밭머리	멍에
207014	밭두둑	두둑
207015	밭고랑	고랑
207016	밭이랑	이랑
207017	거웃	고지
207018	극쟁이	쟁기
207019	씨레	*

207019-1	손잡이	씨레의 손잡이	*
207019-2	찍게발	씨레의 손잡이와 몸통을 이어주는 2개의 기둥	*
207019-3	몽둥이	씨레발을 박을 수 있는 굽은 막대	*
207019-4	씨레발	씨레 몽둥이에 박힌 뾰족한 살	*
207019-5	나루채	씨레 몽둥이 앞 양쪽에 박은 나무	*

207020	번지	*
207021	팽이	켁이
207022	곡팽이	못켁이
207023	파다[堀]	파다

207024	쇠스랑	쉐시랑
207025	삼	갈레죽
207026	따비	따비
207027	거름	걸름
207028	걸다[肥]	걸다
207029	씨앗	씨
207030	알씨	알씨
207031	백씨	백씨
207032	뿌리다[撒]	뿌다
207033	망태기	밀망텅이(작은 두경 더끈거), 씨망텅이(두경 없는거)
207034	콩계	섬피
207035	남태	남태
207036	들번지	*
207037	김[雜草]	검질
207038	김매다	검질매다
207039	애벌매기	초불매기
207040	두벌매기	두불매기
207041	세벌매기	세불매기
207042	가다[去]	글라
207042-1		글라가게
207043	호미	글갱이
207044	홍아기	사대소리
207045	눅	눅
207046	시키다	시키다
207047	품삿	눅
207048	비짜다	비짜다
207049	결두리	중석
207050	품앗이	수눌음
207051	삼태기	글채
207052	낫	호미

207052-1	낮자루	낮의 자루	호미즈룩
207052-2	슴베	자루 속에 들어박히는 뽕족하고 긴 부분	호미늘
207052-3	낮쟁기	낮자루에 슴베가 박히는 부분을 단단히하기 위하여 둘러 감은 쇠	단갈
207052-4	낮놀	슴베가 빠지지 않도록 낮자루에 구멍을 뚫어 박는 쇠못	*
207052-5	낮공치	낮의 슴베가 휘어넘어가는 덜미의 두꺼운 부분	낮공치
207052-6	날	풀을 벨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	날

207053	베다[刈]	비다
207054	새 패기	*
207055	새끼	숙끼
207056	꼬다[索]	꼬다
207057	매듭	막작
207058	노	숙끼
207059	끈	노끈
207060	참바(바[索])	쉐앗베
207061	짐바	쉐석
207062	질빵	짐페
207063	잇다[承]	잇다
207064	길마	질메
207065	소길마	소질메
207066	말길마	말질메

207066-1	길맞가지	길마의 몸을 이루는 말굽 모양의 나뭇가지	질멧가지
207066-2	앞가지	길마의 앞부분이 되는 민둥산 모양의 나무	앞가지
207066-3	뒷가지	길마의 뒷부분이 되는 편자 모양의 나무	뒷가지
207066-4	궁글막대	길마의 앞가지와 뒷가지를 꿰뚫어 맞춘 나무	궁근막대
207066-5	둥우리막대	궁글막대 아래 댄 나무	ㄱ들게
207066-6	경거리	소의 궁둥이에 막대를 가로 대고 그 양 끝에 줄을 매어 길마의 뒷가지에 좌우로 잡아매게 되어 있는 물건	ㄱ들게 끈
207066-7	경거리끈	경거리막대의 양 끝에 매어 길마의 뒷가지와 연결하는 줄	오랑
207066-8	경거리막대	경거리끈에 매어 소의 궁둥이에 가로 대는 막대	ㄱ들게 낭
207066-9	배뎛끈	길마를 엮을 때에 배에 걸쳐서 즐라매는 줄	오랑

207067 멩에

멩에

207067-1	목대	멩에 양쪽 끝 구멍에 꿰어 소의 목 양쪽에 대는 가는 나무	줍게
207067-2	붓줄	멩에 양 끝에서 비겨미까지 연결된 줄	습비줄
207067-3	한태	붓줄을 마소의 등 위로 잡아매는 줄	멩에줄, 등태줄
207067-4	(오리목)	붓줄 끝에 맨 비겨미와 쟁기의 물추리막대를 연결하여 매는 줄	오리목
207067-5	비겨미	붓줄이 소 뒷다리에 닿지 않도록, 두 끝을 턱이 지게 하여 붓줄에 꿰는 막대기	들뽕이

207068 지게

지게

207068-1	지겟다리	지게 몸체의 맨 아랫부분에 있는 양쪽 다리	지겟다리
207068-2	지겟가지	지게 몸에서 뒤쪽으로 갈라져 뻗어 나간 가지	지겟가지
207068-3	지게세장	지게의 두 다리 사이에 가로 박아 맞추어 놓은 나무	지게셋냥
207068-4	지겟등태	지게를 질 때 등이 배기지 않게 붙인 등태	지게등태
207068-5	지게꼬리 (밑뺨)	지게의 짐을 잡아매는 줄	지게줄
207068-6	지겟작대기	지게를 버티어 세우는 긴 막대기	지게막뽕이

207069 바지게

\*

207070 발채

\*

207071 물지게

물지게

207072 이삭

ㄴㄴ리

207072-1

이석

207073 짚

짚

207074 익다[熟]

익다

207075 개상

도깨

207076 벼훅이

보리클

207077 그네

클

207077-1	보리 이삭(둥근 살)	보리ㄴㄴ리
207077-2	밭벼 이삭(넓고 모난 살)	산디ㄴㄴ리

207078 타작하다

도깨질ㅎ다

207079 땀

땀

207080	진땀	진땀
207081	젖다[濕]	젖다
207082	죽을힘	죽을힘
207083	겨를	저를
207084	도리깨	도깨

207084-1	도리깨채	도리깨의 자루로 쓰는 긴 막대기	도깨어시
207084-2	도리깨열	도리깨채의 끝에 달려 곡식의 이삭을 후려치는 곧고 가느다란 나뭇가지	도깨아덜
207084-3	도리깨꼭지	도리깨장부 끝의 구멍에 끼워 도리깨열을 잡아매게 된 작은 나무 비너	도깨틀레

207085	여물	여물
207086	쭈정이	줄레
207087	풀	출
207088	풀밭	출왓
207089	풀꾼	장남
207090	풀단	출뭇
207091	신다[載]	시끄다
207092	마차	구루마, 사람(물바레기)
207093	복두	쉐앗베, 췌베
207094	명석	명석
207095	덕석	덕석
207096	거적	거적
207097	체	체
207098	가는체(고운체)	ㄱ는체
207099	굵은체	대체
207100	말총체	총체(ㄱ는체)
207101	챗바퀴	*
207102	챗다리	*
207103	어레미	얼맹이
207104	키[箕]	푸는체
207105	키질	푸는체질
207106	까불다	퍼불다
207107	드리다	불리다
207108	‘술박’	즘팍, 술박
207109	풍구	*



207110	흡	흡
207111	흡되	옥취기
207112	되	관뒤
207113	관되	관뒤
207114	사삿되	사삿되
207115	말[斗]	말
207115-1	통말	말
207115-2	모말	*
207116	가웃	가웃(한말반)
207117	끓다[不充滿]	골르다
207118	고무래	당그네
207119	불당그래	죽은당그네, 굴묵당그네
207120	떡둥구미	창맥(큰), 맥(주간), 망탱이(죽은)
207121	가마니	가맹이
207122	꿇다[引]	꿇다
207123	곡식	곡석
207124	흩다[散]	글어불다
207125	자루[袋]	푸대
207126	부대(負袋)	푸대
207127	거두다[收]	거두다
207128	게으름	간세
207129	노라리	노일저대, 간세다리
207130	보리	보리
207131	보리밭	보리왓
207132	누리다[黃]	누렁허다, 노랑허다
207133	밟다	블르다
207134	까끄라기	ㄹ시락
207135	보리쌀	보리썰
207136	보릿겨	것ㄱ른 ㄹ루
207137	겉보리	것보리
207138	쌀보리	슬보리
207139	맥주보리	맥주보리

207140	보릿짚(보릿대)	보리낭
207141	매끼	깨
207142	깜부기	감비역
207143	귀리	대우리
207144	조	조
207145	조밭	조팟
207146	차조	흐린조
207147	메조	모인조
207148	슈다	소끄다
207149	조이삭	조코고리
207150	서숙(黍粟)	서숙
207151	비비다	보비다
207152	허수아비	허채비
207153	좁쌀	좁쌀
207154	조짚	조짚
207155	벼	나룩
207156	벼이삭	나룩ㄴㄴ리
207157	볍씨	볍씨
207158	못자리	못자리
207159	밭벼[山稻]	산디
207160	밭벼 이삭	산디ㄴㄴ리
207161	밭벼밭	산디왓
207162	밭벼쌀	산디쌀
207163	밭벼짚	산디짚
207164	맷돌	ㄴ래

207164-1	맷돌짜	맷돌의 위아래 돌	ㄴ래우알착
207164-2	윗돌	맷돌의 위짜	웃착
207164-3	아랫돌	맷돌의 아래짜	알착
207164-4	매암쇠	맷돌 위짜의 한가운데 뚫린 구멍	중수리ㄴ망
207164-5	맷수쇠	맷돌의 아래짜 한가운데 박힌 물건	중수리(고레조쟁이)
207164-6	맷손	맷돌의 손잡이	ㄴ래즈룩

207165	맷방석	ㄴ랫방석
207166	매함지	ㄴ래도고리, 맷도고리(작은상,제사할대 매 오리는)
207167	풀맷돌	정ㄴ래(죽은,ㄴ멸 급흔는 거)

207168	풀매	풀ㄹ래
207169	췌기	세역
207170	방아	방애
207171	쌍방아	두콜방애
207171-1		세콜방애
207171-2		*(다데겨서 못한다고)
207171-3		*(다데겨서 못한다고)
207172	방아확	남방애특
207173	방앗간	방앗간
207174	븨비다	부피다
207175	방앗공이	방애귀
207176	남방아	남방애
207177	연자매	믈방애
207178	방앗돌	믈방앗돌
207179	연자맷간	믈ㄹ량, 믈방애, 믈방앗간
207180	절구	남방애, 절귀
207181	절긋공이	방애귀
207182	뺨다	뺨다
207183	늪	니
207184	고르다[擇]	고르다
207185	씹다[嚙]	씹다
207186	겨	체
207187	콩	콩
207188	콩잎	콩잎
207189	기름콩	콩주름, 콩주름
207190	콩깍지	콩깍질
207191	콩짚	콩깍질
207192	꼬투리	콩깍지
207193	두부	뚝비
207194	두붓물	뚝비물
207195	뜨겁다	지겁다
207196	비지	비제기
207197	찌꺼기	찌끄래기
207198	완두	보리콩
207199	강낭콩	강낭콩(가을), 두불콩(늦은봄)
207200	동부	뚝비
207201	팔	폴

207202	팔알	팔방울
207203	팔밥	팔밥
207204	녹두	녹디
207205	깨(참깨)	퀘
207206	들깨	유
207207	참기름	참지름
207208	깻묵	젻쯔시, 임지쯔시(늑물지름)
207209	고소하다	코시롱ㅎ다
207210	메밀	므멸
207211	메밀밭	므멸밭
207212	나깨	므멸는쟁이(두가지-즂진)
207213	메밀꺄질	므멸체
207214	메밀국수	므멸국수
207215	메밀수제비	므멸즈베기
207216	메밀칼국수	므멸칼국수
207217	메밀떡	므멸떡, 므멸빙떡
207218	메밀묵	므멸묵
207219	무르다[軟]	물르다
207220	고구마	감저
207221	절간고구마	감저빠다기
207222	찌다[蒸]	치다
207223	썰다	썰다
207224	감자	지슬
207225	마늘	마농
207225-1	마늘대	마농대, 마농낭댕이
207225-2	마늘밀	마농뿔리
207225-3	마늘종	마농쥁
207226	마늘장아찌	마농지
207227	파	패마농
207227-1	파밑동	패마농불리
207228	무	늑뻬
207229	무청	늑뻬썸
207230	시래기	*(헐츄몰름)
207231	장다리무	*
207232	열무	늑뻬늑물(츄마기늑물)
207233	배추	배추, 늑멸
207234	고깁이(배추)	늑멸속

207235	나물	늑물
207236	채소	승키
207237	걸대	유레기, 꺾대기
207238	다듬다	다듬다
207239	값	값
207240	옥수수	강낭대죽부루기,
207240-1	옥수수	대죽부루기, 강낭대죽
207241	수수	빋대죽
207242	쌀수수	오동대죽
207243	비목수수	빋대죽
207244	사탕수수	사당대죽
207245	수수깡	대죽

### 어업

207246	잠녀(潛女)	잠네
207247	물질	물질
207248	물옷	소중이
207249	물안경[水鏡]	눈
207249-1		큰눈
207249-2		죽은눈
207250	테왁	테왁
207251	망사리	망사리
207252	비창	비창
207253	작살	소살
207254	어부	보채기
207255	뜯채	죽마지
207256	그물	그물
207257	돛단배	초석배
207258	이물	*
207258-1	이물간	*
207258-2	이물사공	사공
207259	고물	*
207259-1	고물간	*
207259-2	고물사공	사공
207260	돛	돛
207261	마룻대(돛대)	*
207262	마룻줄(용총줄)	*

207263	활대	*
207264	외대박이	*
207264-1	두 대박이	쌍뚫대
207264-2	세대박이	*
207265	노(櫓)	노
207266	결노	*
207267	상책(노착)	*
207268	노잎(노깃)	*
207269	노앞	*
207270	노뒤	*
207271	노손	*
207272	놋구멍	*
207273	놋쭯	*
207274	닷	*
207275	닷가지	*
207276	닷줄	*
207277	닷돌	*
207278	닷걸이	*
207279	키[舵]	*
207280	킷구멍	*
207281	키잡이	*
207282	강다리	*
207283	상앗대	*
207284	떼[浮筏]	테우

#### 기타

207285	이웃	이웃
207286	더불다[興]	어울리다
207287	마을	믄을, 믄실간다(어디 가는 거)
207288	고을[村]	골, 모관골(제주시), 정의골
207289	누리[世]	시상
207290	윗마을	웃드르
207291	옮다[移]	옮기다
207292	아랫마을	해변사름, 해변것덜
207293	마을가다	믄실가다
207294	밤마을	밤마실
207295	가게	점빵

207296	구멍가게	구멍가게
207297	다녀오다	댕겨오다
207298	심부름	심부름
207298-1	부름씨	부름씨
207299	잔돈	우수리, 존돈
207300	남다[餘]	남다
207301	거스름돈	주리, 우수리
207302	있다[有]	잇다
207303	에누리	에누리
207304	우수리	우수리
207305	받다[受]	받다
207306	나머지	남은 거
207307	흥정	흥정
207308	빚	빚
207309	빚지다[負]	빚지다
207310	변리[邊利]	벨리(이갓돈)
207311	늘다[增]	늘다
207312	대장간	불미왕
207313	풀무	불미
207314	손풀무	손불미
207315	모루	무리쉐
207316	모루채	메
207317	갓양태(양태)	양태
207318	망건	망근
207319	망건골	탕근골
207320	탕건	탕근
207321	결다[編]	줄다
207322	사냥	사능
207323	사냥개	사능개
207324	사냥꾼	사능바치
207325	쏘다[射]	맞추다, 장역하다
207326	핑잡이	핑바치
207327	고	코
207328	올가미	코
207329	덧	덧
207330	나누다	나누다
207331	갖다[持]	췌다

## 8. 수와 단위

수

208001 하나~열

208001-1	(1)	하나
208001-2	(2)	둘
208001-3	(3)	셋
208001-4	(4)	넷
2080015-	(5)	다섯
208001-6	(6)	요섯
208001-7	(7)	일곱
208001-8	(8)	요덟
208001-9	(9)	아홉
208001-10	(10)	열

208002 세다[數]            세다

208003 알다[知]        알다

208004 스물~백

208004-1	(20)스물	스물
208004-2	(30)서른	서른
208004-3	(40)마흔	마흔
208004-4	(50)쉰	쉰
208004-5	(60)예순	예순
208004-6	(70)일흔	일흔
208004-7	(80)요든	요든
208004-8	(90)아흔	아흔
208004-9	(100)백	백

208005 한~엿            ‘되, 말’을 연결하여 말해 보십시오.



	단위	되	말
208005-1	(1/한)	흔뉘	흔말
208005-2	(2/두)	두뉘	두말
208005-3	(3/서, 석)	석뉘	세말
208005-4	(4/너, 녀)	녀뉘	네말
208005-5	(5/닷)	다숫뉘	다숫말
208005-6	(6/엿)	말가웃, 엿뉘	요숫말

208006 한두 ‘개, 되, 말’을 연결하여 두 개씩 세어 보십시오.

		개	되	말
208006-1	(1-2/한두)	흔두개, 흐나두개	흔두뉘	흔두말
208006-2	(2-3/두세)	두세개	두석뉘	두서말
208006-3	(2-3-4/두서너)	두서너개	두서녀뉘	두서너말
208006-4	(3-4/서너)	서너개	서녀뉘	서너말
208006-5	(4-5/네댓)	너댓개	너댓뉘	너댓말
208006-6	(5-6/대여섯)	대여섯개	대여섯뉘	대웃말
208006-7	(6-7/예닐곱)	예실곱개	예실곱뉘	예실곱말
208006-8	(7-8/일고여덟)	일고요덥개	일고요덥뉘	일고요덥말
208006-9	(8-9/여덟아홉)	요답아홉개	요답아홉뉘	요답아홉말

208007 여남은 여남은(열)개 넘는

208008 서른남은 설남은개 넘는

### 단위

208009	뺨	흔뺨
208010	집게뺨	흔조리
208011	발[單位]	흔발
208012	밟다	발다
208013	필(무명/명주)	필
208014-1		

208014-1	무명	민영 마흔자
208014-2	명주	멩주 마흔자
208014-3	광목	광목(1통=30마)자여듭치가 흔마
208014-4	베	베 스물석자~스물턱자

208015   마지기(평)           말지기(노형:150평=흔말지기)  
208015-1                   노형:150평=흔말지기  
208016   못                   못  
208017   뭉다[束]               뭉다  
208018   나르다[移]           날르다  
208019   동                   무생이  
208019-1                   못  
208020   조짐                   흔즐레  
208021   바리(종류)           바리  
208021

208021-1	보리	12못(두못씩 시경)
208021-2	조(이삭 있음)	6못(요숫못), 8못(큰쇄)
208021-3	콩	6못(요숫못)
208021-4	밭벼	산디6못(요숫못)
208021-5	꿀	출50못(흔바리)
208021-6	띠	새 12못(두못씩 시경)
208021-7	각단	6못(요숫못)
208021-8	어욱	어욱(요숫못)

208022   모금                   흔굴레  
208023   섬                   섬(15말)노형  
208023-1                   열닷말  
208024   덩이                   덩어리(무테기)  
208025   포기                   폐기  
208026   그루                   흐나 둘~  
208027   돌이(양태)           테  
208028   마리                   므리  
208028-1   두[頭]               두므리  
208028-2                   므리

208029	축	축
208030	퀘미	퀘미
208031	쌍(돼지)	흔 자리
208032	채(집)	채
208033	장(무덤)	*
208034	컬레(신)	배, 컬레
208035	바퀴(운동장)	바퀴
208036	뭇	뭇
208037	죽	죽

## 9. 민속

### 통과의례

209001	꿈자리	꿈사리
209002	아이서다	애기설다(선하우염 하면)
209003	삼신할머니	삼싱할망
209004	깃저고리	봇디창옷
209005	배넛머리	베안내 머리
209006	들	첫돌(똥)
209007	새 색시	새각시
209008	새 신랑	새수방
209009	가마	가매
209010	시집가다	시집가다
209011	시집보내다	시집보내다
209012	장가가다	장개가다
209013	장가보내다	장개보내다
209014	함	함
209015	위요(우시)	우시, 들러리
209016	대반(對盤)	중반(젊은사람), 대반(나이들고 복 좋은사람)
209017	신부상	신부상
209018	휘다[樛]	휘다
209019	이바지	이바지
209020	부조	부지
209021	사돈	사돈
209021-1	안사돈	안사돈
209021-2	바깥사돈	뱃사돈

209022	겹사돈	부찌사돈
209023	상갓집	초상집
209024	수의	호상, 수의
209025	상복	상복
209026	상제	상제
209027	상주	상주
209028	만상제	큰상제
209029	두건	두건
209030	복치마	복치매
209031	상장(喪杖)	방장대
209031-1		왕대
209031-2		머귀냥
209031-3	손지는	수리대
209032	짚동	짚동이
209033	일포제[祖奠]	일포제
209034	조문하다	ㄱ렴가다
209035	뫼자리	산터, 산자리
209036	지관	정시
209037	패철	췌
209038	관	관
209039	상여	상여
209040	보장(寶帳)	화단
209041	계(契)	화단계
209042	상두꾼	상뒤꾼
209043	장삿날	영장날
209044	장지	산자리
209045	광중	궤광터
209046	횡대	갯관
209047	호충	호충
209048	무덤	무덤
209049	산담	산담
209050	돌장이	돌챙이, 석공
209051	토롱	토롱
209052	산역	봉분싼다.
209053	마치다[終]	ㄹ치다
209054	벌초	벌초
209054-1	소분	소분, 벌초

209055	묘위전	자전(벌다)
209056	고충	글충
209057	제사	식계
209058	제삿집	식갯집
209059	편틀	편떼
209060	퇴물	테물
209061	떼	떼
209062	갱(羹)	갱
209063	제육	제숙 제찬(육고기)
209064	제편	침떡
209065	인절미	인절미
209066	절편	절면
209067	웃기떡	지름떡, 꽃전
209068	반기	반, 식계뒤물
209069	반기하다	테우다
209070	뒤	반
209071	면례(緬禮)	*

#### 세시풍속

209072	설날	설맹질, 정월맹질, 정월초하루
209073	세배	세배
209074	명절	맹질
209075	결립	결궁
209076	금줄	금줄
209077	매다[結]	매다
209078	장구	장귀
209079	설장구	살장귀
209080	팽과리	팽과리
209081	영등할머니	영등할망
209082	단오	단오
209083	물맞이	백중물
209084	모래찜질	모살뚝
209085	추석	팔월맹질

## 10. 신앙

210001	점	점
210002	점쟁이	점쟁이
210003	안택	멩감
210004	당	당
210005	무격	심방
210006	굿	굿
210007	굿판	굿밭
210008	명두	멩두
210009	추다[躡]	추다
210010	소지(燒紙)	소지
210011	사르다[燒]	슬다
210012	살(煞)	살
210013	삼살방(三煞方)	삼살방
210014	도깨비	도채비
210015	낮도깨비	낮도채비
210016	허깨비	허깨비
210017	어둑서니	그신세, 그신대
210018	무섭다	ㅁ습다
210019	겹쟁이	겹쟁이
210020	고사(告祀)	멩감, ㅁ사
210021	고수레	겹명
210022	포제	포제

## 11. 자연

### 들

211001	들	드르
211002	풀[草]	풀
211003	방화(放火)	방화
211004	붙다[點火]	붙다
211005	내[川]	넛창
211006	넛가	넛마위
211007	물가	물곶
211008	따르다[從]	따르다
211009	건너다[渡]	넘어가다
211010	낭떠러지	엉덕

211011	다리[橋]	드리
211012	가깝다[近]	브디다
211013	멀다[遠]	멀다
211014	덤불	덤벌
211014-1	가시덤불	가시왕
211015	돌무더기	돌설덕
211016	갈림길	삼거리, 스거리
211017	묻다[問]	듣다
211018	비탈길	굴렁질
211019	벼랑길	지름길
211020	내리막길	굴렁질
211021	오르막길	동산질
211022	길가	질긋
211023	큰길	대한질, 한질
211024	분화구	굴
211025	꼭대기	꼭대기
211026	오르다[登]	올르다
211027	기슭	산앞
211028	산바람	*
211029	산꼬대	*
211030	상고대	상강, 첫서리
211031	구렁	굴렁밭
211032	고랑창	고랑
211033	건너가다	넘어가다
211034	넘어지다	쓰러지다(옆), 옆어지다(앞)
211035	자빠지다	자빠지다(뒤)
211036	천상수	죽은 물
211037	숲	자왈, 꽃밭, 툔
211038	성(城)	성담

**바다**

211039	바다	바당
211040	바닷가	바당긋
211041	바닷물	촌물
211042	바닷바람	하늬브름
211043	깊다[深]	지프다
211044	얕다[淺]	야프다

211045	물먹다	복먹다
211046	모래	모살
211047	모래밭	모살밭
211048	자갈	갯돌, 자갈
211049	갯가	갯것
211050	펼	펼
211051	먼바다	먼바당
211052	파도	절
211053	파돏소리	절소리
211054	듣다[聞]	듣다
211055	너울	큰절
211056	곰뉘	*
211057	물걸	물절
211058	잔물걸	*
211059	무수기	*

	무수기	방언형	날짜
211059-1	한무날	*	*
211059-2	두무날	*	*
211059-3	서무날	*	*
211059-4	너무날	*	*
211059-5	다섯무날	*	*
211059-6	여섯무날	*	*
211059-7	일곱무날	*	*
211059-8	여덏무날	*	*
211059-9	아홏무날	*	*
211059-10	열무날	*	*
211059-11	열한무날	*	*
211059-12	열두무날	*	*
211059-13	(열서무날)	*	*
211059-14	아끈췌기	*	*
211059-15	췌기	*	*
211059-16	한조금	*	스무사흘

211060	여	여
211061	곶(串)	*
211062	물밀다	물들다



211063	밀물	들물
211064	물싸다	물싸다
211065	썰물	싼물

### 시후

211066	오늘	오닐
211067	내일	넬
211068	모레	모리
211069	내일모레	넬모리
211070	글피	글피
211071	그글피	그글피
211072	어제	어제
211073	그저께	그지께
211074	그끄저께	그직아시날
211075	새벽[曉]	새벽
211076	꼭두새벽	초새벽, 동새벽
211077	해[太陽]	해
211078	빛	벧
211079	아침	아척
211080	낮	낫
211081	저녁	저낙
211082	저녁거리	저낙그슴
211083	초저녁	초즈낙
211084	밤[夜]	밤
211085	한밤중	한밤중, 지픈밤중
211086	하늘	하늘
211087	땅	땅
211088	구름	구름
211089	푸르다	푸리다
211090	별	벨
211091	은하수	미리내
211092	달	들
211093	차다[充滿]	차다
211094	달무리	들머리, 들갓
211095	초승달	초승들
211096	보름달	보름들
211097	그믐달	그믐들

211098	햇무리	*
211099	무지개	향고지
211100	쌍무지개	향고지
211101	봄	봄
211102	여름	여름
211103	가을	그슬
211104	겨울	저슬
211105	입춘	셋절
211106	동지	동지
211107	초하루	초하루
211108	보름	보름
211109	그믐	그믐

211110-1	하루	하루
211110-2	이틀	이틀
211110-3	사흘	사흘
211110-4	나흘	나흘
211110-5	닷새	닷새
211110-6	엿새	엿새
211110-7	이레	일레
211110-8	여드레	요드레
211110-9	아흐레	아흐레
211110-10	열흘	열흘

211111	사나흘	사나흘
211112	너더댓새	너댓새
211113	대엿새	대엿새
211114	지나다[過]	지나다
211115	삭망	삭망
211116	저물다	즈물다
211116-1	‘구물다’	구물다
211117	지다[落]	지다
211118	이월달(영등달)	영등달
211119	선달	셋달
211120	올해	올히
211121	내년	내년
211122	내후년	내후년

211123	작년	작년
211124	재작년	재작년

**날씨**

211125	별	벧
211126	별살	벧살
211127	따스하다	뜨뜻하다
211128	땡별	즈작벧
211129	가을별	ㄱ실벧
211130	양지받이	*
211131	아지랑이	아지랭이
211132	그늘	그늘
211133	그늘대	그늘캐
211134	나무그늘	낭그늘
211135	쉬다[休]	쉬다
211136	그림자	굴메
211137	바람	브름
211137-1	바람위	*
211137-2	바람아래	*
211138	맞바람	맞브름
211139	바람받이	바람받지
211140	바람살	브름살
211141	회오리바람	도갱이주제
211142	동풍	셋브름
211143	남풍	마브름
211144	서풍	섯갈브름
211145	북풍	하늬브름
211146	비[雨]	비
211147	굳다[堅]	굳다
211148	빗줄기	빗살
211149	장마	장마
211149-1	봄장마	5월장마
211149-2	가을장마	* 여름장마
211150	곰팡이	곰팡이
211151	소나기	췌네기주제, 췌네기
211152	여우비	넘어가는 비
211153	가랑비	ㄱ랑비

211154	이슬	이슬
211155	시원하다	시원하다
211156	도롱이	도롱이
211157	가물다	ㄱ물다
211158	가뭇	ㄱ뭇
211159	흉년	승년
211160	비바람	비브름
211161	안개	어남(셋저)
211162	번개	편개
211163	천둥	천둥
211164	벼락	베락
211165	홍수	내
211166	눈[雪]	눈
211167	함박눈	험백눈
211168	오다[來]	오다
211169	싸락눈	스레기눈
211170	도둑눈	*
211171	내리다[降]	느리다
211172	희다	희다
211173	춡다	춡다
211174	떨다[慄]	털다
211175	고드름	동곳
211176	녹다[融]	녹다
211177	얼음	얼음
211178	얼다[氷]	얼다
211179	곱다	곱다
211180	진눈깨비	비눈
211181	우박	*

**방향**

211182	앞	앞이
211183	뒤	두이
211184	곁	곁이, 쪽기띠
211185	옆	옆이
211186	위	우이
211187	아래	아래
211188	밝다[明]	븨다

211189	어둡다[暗]	어둑다, 왁왁허다
211190	왼쪽	웬쪽
211191	오른쪽	느단쪽
211192	밑	아래
211193	흐르다[流]	흐르다
211194	안[內]	안에
211195	밖	바깸디
211196	구석	구석치기
211197	모서리	ㄴ생이
211198	가[邊]	곶
211199	가장자리	어염
211200	가운데	가운디
211201	곧다[直]	곧다

## 12. 동물

### 가축

212001	소[牛]	쉐
212002	막다[防]	막다
212003	암소	암쉐
212004	수소	숫쉐
212005	쇠소	식쉐(검은+노랑)
212006	불까다	불블르다
212007	불알	불
212008	황소	부룽이
212009	얼룩소	어럭쉐
212010	부리망	망울
212011	쇠고삐	콧줄
212012	끌다	끌다
212013	송아지	송애기
212014	배넛소	벵작쇠
212015-1	하룻~열룻	

		소	말
212015-1	하릅(1)	근심송애기	근심
212015-2	이듭/두듭(2)	다간송애기	다간
212105-3	사릅(3)	사릅췌	사릅
212015-4	나릅(4)	나릅췌	나릅
212015-5	다습(5)	다습췌	다습
212015-6	여습(6)	*	*
212015-7	이릅(7)	*	*
212015-8	여듭(8)	*	*
212015-9	아습/구릅(9)	*	*
212015-10	열릅/담불(10)	*	*

212016	작두	작두
212017	쇠죽	췌것
212018	구유	도구리
212019	말[馬]	말
212020	죽다[死]	죽다
212021	많다[多]	하다
212022	암말	즈매
212023	수말	웅매
212024	망아지	몽생이
212025	가라말	가라말
212026	청총마/총이말	백미물
212027	절따말/적다마	불근물
212028	얼룩말	얼룩말
212029	유마	육매
212030	백마	백미물
212031	고라말	*
212032	곰배말	*
212033	조랑말	조랑말
212034	달리다[走]	달리다
212035	마소	물므쉬
212036	글경이	*
212037	털[毛]	터럭
212038	말고삐	물석
212039	당기다	등기다
212040	낙인	낙인
212041	개[犬]	개

212042	짓다[吠]	주끄다
212043	쓰다[用]	쓰다
212044	수캐	수캐
212045	암캐	암캐
212046	강아지	강생이
212047	비루	비리, 도령이
212048	비루먹다	비리올르다
212049	고양이	고냉이
212050	암고양이	암고냉이
212051	수고양이	숫고냉이
212052	도둑고양이	드룻고냉이
212053	살쟁이	삭코냉이
212054	닭	득
212055	암닭	암득
212056	수닭	장득
212057	떨떠구니	물터거리
212058	산맥	산맥
212059	닭의어리	득망
212060	닭장	득망
212061	달걀	득세기
212061-1	노른자위	노린알
212061-2	흰자위[卵]	흰알
212062	끓다[腐]	끓다
212063	빙아리	빙애기
212064	까다[剝]	깨우다
212065	돼지	도새기
212066	수돼지	숫도새기
212067	암돼지	암도새기
212068	추렴하다	추렴흐다
212069	가르다[分]	갈르다
212070	고기[肉]	괴기
212071	일شم씨	손شم씨, 일성머리
212072	생둥이	서툰바치
212073	새끼 돼지	자릿도새기, 새끼도새기
212074	돼지우리	통시
212075	돼지고기	똥궤기
212076	적	적

212077	적꼬치	적꼬지
212078	굽다[炙]	굽다
212079	무판(푸줏간)	*
212080	기르다	질루다
212081	둘치	지스랭이
212081-1	둘암소	지스랭이
212081-2	둘암말	지스랭이
212081-3	둘암돼지	지스랭이
212081-4	둘암개	지스랭이
212082	거위	거위
212083	오리	오리

#### 벌레와 곤충

212084	벌레	머랭이
212085	파리	푼리
212086	쉬	쉬
212087	쉬슬다	쉬싸다
212088	가시	장머랭이
212089	구더기	구데기
212090	쉬파리	쉬푼리
212091	쇠파리	쉐푼리
212092	똥파리	똥푼리
212093	모기	모기
212094	물다[咬]	물다
212095	각다귀	닥다귀
212096	장구벌레	*
212097	벼룩	베룩
212098	빈데	빈데
212099	이[蝨]	니
212099-1	서캐	쉬
212100	서캐훤이	챙빃
212101	지렁이	지렁이
212102	회충	개우리
212103	거머리	거덜
212104	바구미	*
212105	콩바구미	*
212105	곰뻥이	곰뻥이



212107	땅강아지	하늘강생이
212108	그리마	*
212109	쥐며느리	콩벼랭이
212110	노래기	노래기
212111	지네	지냉이
212112	진딧물	진취
212113	진딧물내리다	진취일다
212114	하루살이	흐루살이
212115	눈에놀이	눈에눈이
212116	달팽이	들벙이
212117	민달팽이	집어신 들벙이
212118	거미	거미
212119	개미	개염지
212120	왕개미	왕개염지
212121	불개미	*
212122	메뚜기	말축
212123	방아깨비	심방말축
212124	여치	세세말축
212125	사마귀[螳螂]	극주애기
212126	귀뚜라미	세세 말축
212127	풍뎅이	두메기
212128	장수풍뎅이	*
212129	무당벌레	무당벌레
212130	쇠똥구리	쉐똥벌레
212131	딱정벌레	*
212132	집게벌레	짹제기 벌레
212133	하늘소	*
212134	노린재	*
212135	나비	나비
212136	호랑나비	호랑나비
212137	날다[飛]	날다
212138	사슴벌레	*
212139	잠자리	밥주리
212140	고추잠자리	고추밥주리
212141	장수잠자리	*
212141-1		*
212142	매미	재열

212143	매미허물	홀
212144	말매미(왕매미)	왕재열
212145	쓰르라미	*
212145-1		꽃재열
212146	소금쟁이	소금바치
212147	방개	방개
212148	반딧불이	불란디
212149	벌	벌
212150	꿀벌	칭벌
212151	꿀	칭
212152	땅벌	땅벌
212153	말벌	사상벌, 왕벌
212154	붓다[腫]	부시다
212155	진드기	진독
212155-1		진독
212155-2		부그리
212156	송충이	솔충버랭이
212157	개구리	글개비
212158	올챙이	멘주기
212159	맹꽁이	맹마구리
212160	두꺼비	두테비
212161	뱀	베염
212161-1	뱀띠	베염띠
212161-2	뱀허물	베염홀
212162	용	용
212162-1	용띠	용띠
212163	도마뱀	득다귀
212164	구렁이	구렁이
212165	살무사	똥줄레(물에 희어댕기는 가는 거), 물폐기(머리뺨이 납작 눈 펠룽),

#### 들짐승

212166	여우	여우
212167	노루	노루
212168	염소	염송애기
212169	토끼	튀끼
212170	족제비	족제비

212171	쥐	중이
212172	값다	값다
212173	쥐구멍	중이고망
212174	박쥐	박쥐
212175	다람쥐	다람쥐
212176	오소리	지다리
212176-1		*
212177	지달(이)	지다리
212178	지달피	*
212179	멧돼지	산도새기
212180	원숭이	원숭이
212181	원숭이띠	원숭이띠
212182	호랑이	호랭이
212183	호랑이띠(범띠)	범띠
212184	꼬리	फल랭이

**날짐승**

212185	새[鳥]	생이
212186	꿩지	फल랑지
212187	깃[羽]	깃
212188	새총	생이총
212189	새가슴	새가심
212190	참새	밥주리생이
212191	비둘기	비둘기
212192	제비	제비생이
212193	매	소로기
212194	참매	참매
212195	솔개	똥소로기
212196	까치	까치
212197	까마귀	까마귀
212198	딱따구리	*
212199	삿꾸기	삿국새
212200	종달새	종달새
212201	올빼미	으뺨
212202	꿩	꿩
212203	까투리(암꿩)	암꿩
212204	장끼	장꿩

212205	평알	평득새기
212206	꺼병이	평빙애기
212207	두루미	두루미
212208	기러기	기레기
212209	갈매기	갈매기

### 바다 동물

212210	고등	구쟁기, 조쟁이
212211	개울타리고등	*
212212	명주고등	*
212213	눈알고등	*
212214	밤고등	*
212215	팽이고등	*
212216	각시고등	*
212217	두드럭고등	*
212218	대수리	*
212219	타래고등	*
212220	대롱뿔고등	*
212221	제주개오지	*
212222	애기삿갓조개	*
212223	거북손	*
212224	따개비	*
212225	군부	굼벵이
212225-1		*
212226	진주담치	*
212227	소라	구쟁기
212227-1		*
212228	전복	전복
212228-1		*
212228-2		*
212229	전복갑	*
212230	오분자기	오분새기
212231	게	깡이
212232	바위게	*
212233	부채게	*
212234	엽낭게	*
212235	참게	참깡이

212236	꽃게	*
212237	소라게	게들레기
212238	그물무늬금게	*
212239	집게발	아강발
212240	갯강구	*
212241	말미잘	말미잘
212242	성게	구살
212243	말뚝성게	숨
212244	군소	물토새기
212245	새우	새우
212246	불가사리	*
212247	수세미	*
212248	해파리	해푼리
212249	낙지	*
212250	문어	물꾸럭
212251	서대	*
212252	해삼	미
212253	멍게	멍게
212254	바닷물고기	바닷케기
212255	맑다[淸]	맑다
212256	흐리다[濁]	흐리다
212257	잘다[細]	줄다
212258	썩다[腐]	썩다
212259	비늘	비늘
212260	배따다	배타다
212261	생선(生鮮)	생선
212262	미끼	니겁
212263	갯지렁이	갯지렁이
212264	낙시	낙시
212265	낙싯대	낙싯대
212266	만들다[造]	맹글다
212267	낙싯줄	낙싯줄
212268	붕돌	뽕돌
212269	참대	춤대
212270	낙다	나끄다
212271	주낙	주낙
212272	주낙배	주낙배

212273	지느러미	지느레미
212274	아가미	아가미
212275	멸치	멜
212276	보리멸	보리멜
212277	갈치	갈치
212278	풀갈치	*
212279	베도라치	*
212280	말뚝망둑어	*
212281	별망둑	*
212282	매통이	*
212283	고생놀래기	*
212284	용치놀래기	*
212285	어렁놀래기	*
212286	실놀래기	*
212287	옥돔	옥돔
212288	흑돔	*
212289	돌돔	돌돔
212290	감성돔	*
212291	벙에돔	*
212292	황돔	황돔
212293	자리돔	자리돔
212293-1		*
212294	고등어	고등어
212295	전갱이	각채기
212296	조기	조기
212297	보구치	*
212298	가오리	가오리
212299	오징어	오징에
212299-1		*
212300	붉바리	*
212301	다금바리	*
212302	농어	농어
212303	쥐치	깍주리
212304	우럭볼락	우럭볼락
212305	볼락	볼락
212306	쭈기미	*
212307	독가시치	*

212308	방어	방어
212309	재방어	*
212310	상어	상에
212311	가래상어	*
212312	개상어	*
212313	괭이상어	*
212314	귀상어	*
212315	돌묵상어	*
212316	수염상어	*
212317	두툽상어	*
212318	별상어	*
212319	고래	고래
212320	돌고래	돌고래
212321	쥐뿔	*
212322	복어	복쟁이
212323	흑산호	*

### 13. 식물

#### 풀

213001	가라지	ㄱ라지
213002	갈대	갈대
213003	억새	어옥
213004	새풀	미, 미삐쟁이
213005	화승(火繩)	화승
213006	띠[茅]	새
213007	띠밭	새왓
213008	길차다	휘차다
213009	빨기	뽕이(새뽕이, 어옥뽕이)
213010	사초	*
213011	천일사초	*
213012	김의털	췌터럭
213013	쇠무릎	믈믈작풀
213014	바랭이	제완지
213015	민바랭이	*
213016	조개풀	*

213017	방동사니	*
213018	마디풀	막작풀
213019	솔새	*
213020	개솔새	*
213021	뚝새풀	*
213022	팽이밥	생이족박
213023	원추리	*
213024	메꽃	메마꽃
213025	갯메꽃	*
213026	비름	빈늬
213027	쇠비름	쉐비늬
213028	개비름	*
213029	참비름	참비늬
213030	땅빈대	*
213031	애기땅빈대	*
213032	평의밥	*
213033	여우구슬	*
213034	질경이	베채기
213035	쭈	속
213036	캐다[採]	캐다
213037	쭈떡	속떡
213038	토끼풀	튀끼풀(개자리)
213039	개자리	개자리
213040	냉이	난시
213041	망울새풀	*
213042	무릇	물웃
213043	여뀌	*
213044	오이풀	*
213045	영경퀴	소왕이
213046	췌기풀	*
213047	수크령	*
213048	망초	천상쿨
213049	별꽃	진쿨
213050	병풀	*
213051	깨풀	*
213052	박조가리나물	*
213053	파리	*



213054	땅파리	*
213055	피막이풀	*
213056	도깨비바늘	*
213057	도꼬마리	*
213058	모시풀	모시
213059	왕모시풀	*
213060	천남성	*
213061	맥문동	*
213062	밀나물	*
213063	살갈퀴	*
213064	차풀	*
213065	결명자	결명자
213066	까마중	*
213067	하늘타리	하늘래기
213068	노랑하늘타리	*
213069	부처손	*
213070	방가지뚱	*
213071	닭의장풀	고낭귀
213072	배풍등	
213073	취	취꼭
213074	취덩굴	꼭줄
213075	취뿌리	칙불리, 극불리
213076	댕댕이덩굴	정당
213077	노박덩굴	*
213078	새박덩굴	*
213079	호자덩굴	*
213080	한삼덩굴	*
213081	함바기	*
213082	담쟁이	담쟁이
213083	송악	송악
213084	인동	운동그장
213085	멀꿀	*
213086	천문동	*
213087	계요등	*
213088	사위질빵	*
213089	등대풀	*
213090	수영(승아)	*

213091	애기수영	*
213092	싸리	*
213093	덥싸리	*
213094	명아주	*
213095	갓	갓노물
213096	달래	핑마농, 드룻마농
213097	씀바귀	*
213098	고들빼기	고들빼기
213099	박하	*
213100	비수리	*
213101	꿀풀	*
213102	마삭줄	*
213103	갯기름나물	*
213104	구릿대	*
213105	으아리	*
213106	익모초	익모초
213107	피마자	피만지
213108	뉴질랜드삼	*
213109	양하	양애
213110	파초	반치
213111	갯강활	*
213112	부들	*
213113	개구리밥	*
213114	줄	*
213115	마름	*
213116	싱경이	늦

**꽃**

213117	꽃	고장
213118	꽃봉오리	꽃동매
213119	채송화	채송화
213120	민들레	민들레
213121	봉선화	봉선화
213122	흰꽃나도사프란	들마농꽃
213123	분꽃	분꽃
213124	할미꽃	할미꽃
213125	붓꽃	붓꽃

213126	참나리	*
213127	맨드라미	맨드라미
213128	해바라기	해바라기
213129	진달래	진달래
213130	철쭉	철쭉
213131	피다[開]	피다
213132	쭉부쟁이	*
213133	수국	수국
213134	산수국	산수국
213135	광대나물	*
213136	제비꽃	제비꽃
213137	복수초	*
213138	수선화	수선화
213139	선인장	선인장
213140	문주란	문주란

#### 나무

213141	뿌리	불리
213142	잔뿌리	즌불리
213143	줄기	줄기
213144	가지	가지
213145	잎	잎썸, 입상귀
213146	나무	낭
213147	하다[爲]	하다
213148	삭정이	삭다리
213149	소나무	소낭
213150	솔잎	솔잎
213151	솔가리	솔입가생이
213152	솔방울	솔똥
213153	멜감	지들커
213154	마디다	*
213155	갈퀴	글쟁이
213156	도끼	도치
213157	팽나무	폭낭
213158	팽	폭
213159	동백나무	동박낭
213160	붉다[赤]	벌경흐다

213161	멀구슬나무	먹구실낭
213162	버드나무	버드낭
213163	녹나무	녹낭
213164	아카시아	아카시아
213165	은행나무	은행낭
213166	음나무	엄낭
213167	삼나무	쑥대낭
213168	심다[植]	싱그다
213169	벗나무	사오기
213170	왕벗나무	사오기
213171	사옥	사오기
213172	느티나무	굴목이
213173	주목	노가리낭
213174	종려나무	*
213175	윤노리나무	윤누리낭
213176	비목나무	*
213177	구상나무	구상낭
213178	굴거리나무	*
213179	생달나무	*
213180	굴나무	미짱낭
213181	따다[摘]	따다
213182	광굴나무	*
213183	유자나무	유지낭
213184	비자나무	비저낭
213185	치자나무	치자
213186	비파나무	비파낭
213187	오동나무	오동낭
213188	조롱나무	조롱낭
213189	배롱나무	배롱낭
213190	감탕나무	*
213191	거망옷나무	칠낭
213192	팡팡나무	*
213193	노린재나무	*
213194	때죽나무	종낭
213195	마가목	*
213196	말채나무	*
213197	느릅나무	느릅낭

213198	두릅나무	두릅낭
213199	향나무	향나무
213200	웃나무	칠낭
213201	소리나무	소리낭
213202	솔비나무	솔피낭
213203	층층나무	*
213204	닥나무	닥낭
213205	돈나무	돈낭
213206	무환자나무	*
213207	쥐똥나무	*
213208	섬쥐똥나무	*
213209	이팝나무	*
213210	가시나무	가시낭
213211	개가시나무	개가시낭
213212	종가시나무	*
213213	호랑가시나무	*
213214	돌가시나무	돌가시낭
213215	제주가시나무	*
213216	꾸지뽕나무	구가시낭
213217	덜꿩나무	*
213218	사스레피나무	*
213219	머귀나무	머구낭
213220	좁머귀나무	*
213221	자귀나무	자귀낭
213222	말오줌때	말오줌낭
213223	중대가리나무	*
213224	예덕나무	*
213225	참식나무	*
213226	까마귀쪽나무	*
213227	천선과나무	*
213228	실거리나무	*
213229	굴피나무	*
213230	후박나무	누룩낭
213231	풍개나무	*
213232	먼나무	*
213233	박달나무	박달낭
213234	떡갈나무	떡갈낭

213235	상수리나무	*
213236	참나무	참낭
213237	산딸나무	산탈낭
213238	초피나무	철패낭
213239	국수나무	*
213240	사철나무	*
213241	겨우살이	저슬사리
213242	모람	*
213243	누리장나무	*
213244	아왜나무	*
213245	순비기나무	순비기낭
213246	붉나무	*
213247	협죽도	협죽도
213248	담팔수	*

#### 열매

213249	과일	과실
213250	곱질	곱죽
213251	깎다	깎그다
213252	벗기다	벳기다
213253	딸기	탈
213254	뱀딸기	베염탈
213255	멍석딸기	*
213256	복분자딸기	*
213257	줄딸기	*
213258	산딸기	산탈
213259	가시딸기	*
213260	검은딸기	*
213261	장딸기	*
213262	개암	*
213263	머루	머뤼
213264	개머루	*
213265	까마귀머루	*
213266	산머루	산머뤼
213267	상동나무	삼동낭
213268	상동	삼동
213269	시로미	시로미

213270	다래	드래
213271	개다래	*
213272	보리수나무	볼레낭
213273	보리수	볼레
213274	보리장나무	마께볼레낭
213275	앵두나무	앵도낭
213276	앵두	앵도
213277	매실	매실
213278	매화나무	매화
213279	밀감	밀감
213280	밀감나무	미깡낭
213281	탱자	탕주
213282	탱자나무	개탕주낭
213283	감	감
213284	뽕다[柿]	초랍다
213285	감물	감물
213286	홍시	홍시
213287	풋감	풋감
213288	청미래덩굴	멩게낭
213289	맹감	*
213290	찔레나무	똥고리낭
213291	영실	*
213292	사과나무	사과낭
213293	사과	사과
213294	배나무	배낭
213295	배	배
213296	돌배	돌배
213297	팔배나무	*
213298	밤나무	밤낭
213299	구실잣밤나무	*
213300	밤	밤
213301	보늬	속겍죽
213302	복숭아나무	복숭애낭
213303	복숭아	복숭애
213304	대추	대추
213305	대추나무	대추낭
213306	으름	즐갱이

213307 오미자 오미자

**바다 식물**

213308	미역	메역
213309	넓미역	넙메역
213310	미역쇠	메역췌
213311	김	김
213312	파래	프래
213313	톳	톳
213314	패	패
213315	넓패	넙패
213316	지충이	*
213317	다시마	다시마
213318	듬북	듬북
213319	감태	감태
213320	모자반	뎡
213321	칭각	칭각
213322	우뭇가사리	우미
213323	우미	우미
213324	서슬(까막살)	*
213325	진두발	*
213326	도박	*
213327	갈래곰보	*
213328	풀가사리	*